

건축사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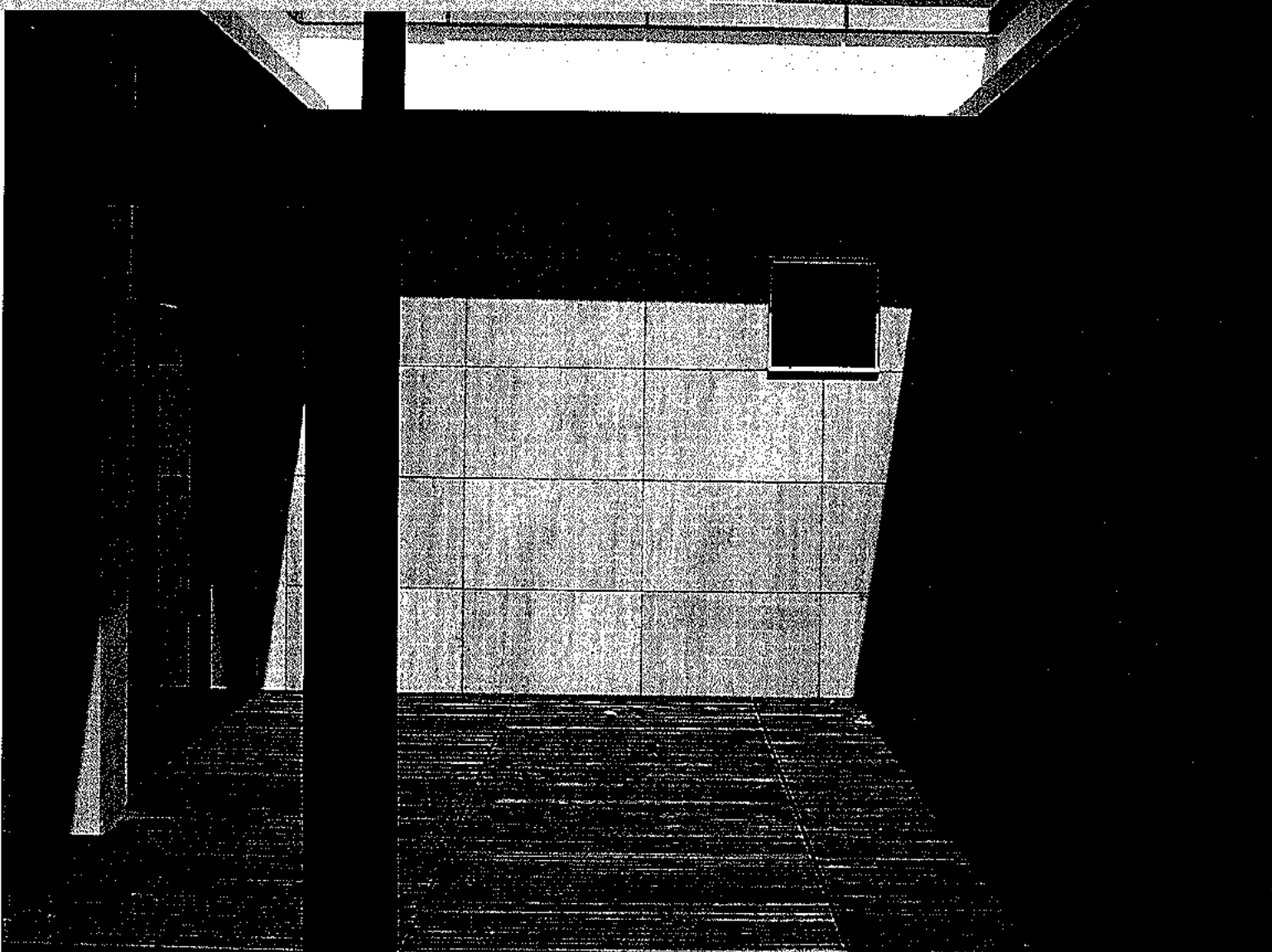
1999 **9** 월 385

김철 / **바사온빌딩** 한국전력의 신빌

최종리 / **영광** 신도시

이광선 / **창원** 신도시

최대기 / **창원** 신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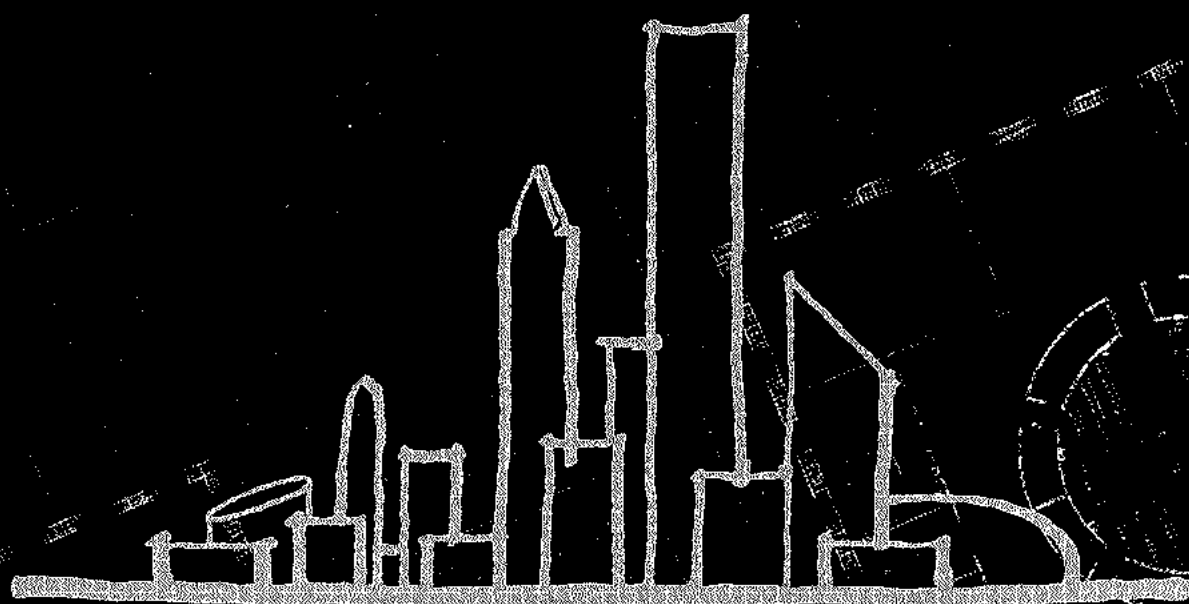
'99 **건축문화의 해**
THE YEAR OF ARCHITECTURE



● 建築士 作品 招待展 1999

ARCHITECT'S GALLERY 개관기념

● THE EXHIBITION OF INVITED ARCHITECTS



기간/1999. 9.9~9.30

장소/건축사회관 1층 ARCHITECT'S GALLERY

주최/대한건축사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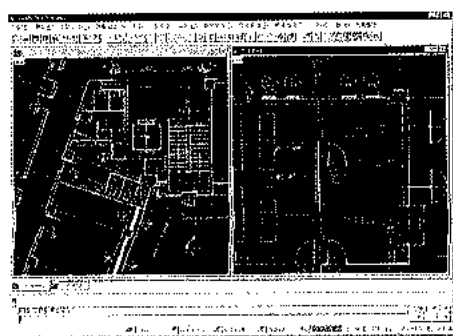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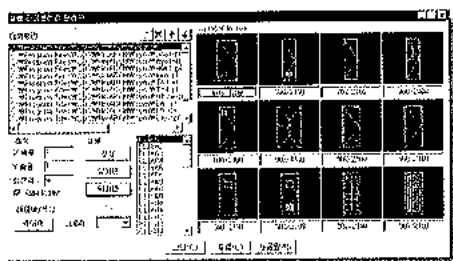
후원/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건축설계 전문가를 위한



건축표준 라이브러리를 내장한 건축설계 전용 CAD- uniARCH



UniARCH는 삼성SDS의 UniCAD 커널을 바탕으로 개발된 건축설계 전용 한국형 CAD S/W로 기존의 건축 설계용 3rd Party 프로그램 및 외국산 건축 설계용 CAD S/W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국내 실무에 적합하고 기능과 속도를 향상시켜 작업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UniARCH는 건축분야의 설계전문가를 위한 최적의 CAD시스템입니다.

- UniARCH는 여러개의 도면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복잡한 도면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UniARCH는 Windows의 TrueType 글꼴을 모두 사용하며, 다양한 서체를 제공합니다.
- UniARCH는 다양한 File Format을 지원하며, 동적인 미리보기(Dynamic Preview)로 손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 UniARCH는 사용자 정의의 심볼 라이브러리 기능과 도면작업시 필요한 다양한 건축요소들을 생성합니다.
- UniARCH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UniARCH가 제공하는 환경에서 개발이 쉽고 빨라집니다.

최적의 CAD시스템 - UniARCH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UniARCH 정식판 연장판매

- 판매대상 : 건축사협회 등록회원
- 판매기간 : 1999년 9월 28일까지 정식판에 한하여 연장판매
- 판매가격 : 577,500원 / Copy(VAT포함)
- 정식판 공급조건
 - 5Copy 이상 구매시 분할납부 가능 : 계약시, 1개월후, 2개월후 각각 40%, 30%, 30%
- 교 육 : 기본교육은 집합교육, 전문교육은 교육비 처리
- 매뉴얼 : 최초 1Copy에 1권, 추가 3Copy당 1권 추가지급



unicad

- UniCAD는 통합된 명령어로 일련은 작업, 작업속도는 빠르게 하여 하나의 시스템에서 여러개의 도면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UniCAD는 하나의 도면에서 무한 테이아웃 생성, 수정할 수 있으므로 조판도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 UniCAD는 선택된 요소에 따라 치수와 중독은 결정해 주므로 치수 기입시간을 줄여 도면작성 속도가 빨라집니다.
- UniCAD는 복잡한 도면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어떤 그래픽 드라이버에서도 UniCAD를 사용할 수 있어 그래픽 속도가 아주 빨라졌습니다.
- UniCAD는 설계도면에 다양한 글꼴을 사용할 수 있으며, OLC2의 북형문서 기능을 사용하면 Engineering 문서 작성이 쉬워집니다.

www.unicad.co.kr

국가검정 CAD자격증 제도 공인 CAD S/W 선정 · 교육부 국정교과서 CAD실습 Tool 선정 · 서울시 건축사 협회 공인 CAD · 경북 실내건축 디자인 협회 공인 CAD

공인 대리점 경인 메카비전 (02)598-0567 이너테크 (02)552-1491 캐디먼스 (02)961-7805 SOS Eng. (02)2638-0685 신흥COM (0331)221-7755 남부시스템 (032)435-1544
 탑이츠마인 (02)3445-7797 산우정보 (0342)751 0058 조형건축사 (0348)944-7188 대전 (주)해성 (042)533-5171 캐드토크 (042)636-1158
 부산 포원정보 (051)315-7004 허니시스템 (051)328-7227 창원 경진정보 (0551)275-5258 케이앤아이 (0551)260-5341 대구 모야정보 (053)745-6999
 월드게트웨이 (053)566-0160 광주 이룸테크 (062)527-3834 경동시스템 (062)228-5900 무진 (082)265-4300 전주 컴퓨터랜드 (0652)71-5010
 * 쉽게 쓰여진 UniCAD를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주)홍일아트 (02)2275-5575

SAMS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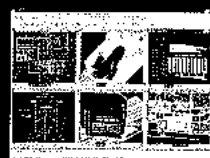
삼성SDS



AutoCAD 2000



▶ **Heads-up-Design** : 다중 설계 환경에서는 단일 세션에서 다중 도면을 열고 객체 및 연관 데이터를 다중 도면으로 복사, 이동하고 속성 복제 기능, AutoCAD DesignCenter를 사용하여, 열린 도면이든 닫힌 도면이든 또는 지역 도면이든 원거리 도면이든 상관없이 어떤 도면에서도 구성요소를 현재 AutoCAD 도면으로 끌어놓을 수 있음. 신속 수치가입(QDIM)을 사용하여, 간단히 형상을 선택하여 원하는 수 만큼 자동으로 치수를 작성할 수 있음. 획득질, 임시 구성선 및 연장과 평행 객체스냅 모드가 포함되어 있는 AutoSnap과 PolarSnap의 객체 스냅 추적을 하나의 지능적 도구로 결합시킨 AutoTrack을 사용하여 객체를 가시적으로 작성하고 위치시킬 수 있음. 부분적 열기를 사용하여 도면과 외부참조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열고 편집 가능. 부분적 열기를 사용하여 도면과 외부참조에서 필요한 구간만을 동작으로 열람할 수 있음. 내부 편집을 사용하여, 마스터 도면 파일에서 블록이나 외부참조 파일 직접 편집 가능. 3D Orbit을 사용하여 렌더된 모형과 와이어프레임 모형을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회전하고 Zoom할 수 있음. 가려진 와이어프레임과 Gouraud를 포함하는 다양한 음영처리 모드에서 형상 편집 가능. 각 뷰포트마다 사용자 좌표계(UCS) 정의 가능. 새로운 뷰 대화상자에서 사용자 정의 뷰를 복원하고 저장 가능. 향상된 접근성과 유용성. 객체 특성 윈도우 대화상자에서 모든 객체 특성을 수정하거나 볼 수 있음.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도면층 특성 관리자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선 가중치, 플롯 유형 및 도면층 플롯/플롯 인할 특성에 접근할 수 있으며, 화면 표시 영역을 2배 이상 확보하여 도면층 이름 표시 가능. 어디서나 오른쪽 클릭을 하여, 문맥 감지 단축 메뉴 표시 가능. 신속 선택 대화상자에서 지정된 특성을 가진 모든 객체를 검색하고 선택 가능. 도면특성을 사용하여 도면 파일에 설명적 정보를 포함시키고 검색 가능. dbConnect 도구를 사용하여 모든 데이터베이스 연결 관리 가능. 분수 편집, 대문자화 및 행 간격을 포함하는 개선된 문자 지원을 통한 명료한 도면 작성. 최대 255문자까지 기호 이름 사용 가능. 재 설계된 치수 유형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치수를 설정할 수 있으며, 미리보기 화면에는 변경된 설정값이 자동으로 반영. 새로운 경계 해치 대화상자에서 해치를 미리 볼 수 있음. ▶ **확장된 도달 범위** : 열기, 저장 및 Appload 대화상자에 들어있는 강력한 탐색기를 사용하여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음. 새로운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AutoCAD 객체에 하이퍼링크 부착 가능. 플롯할 수 있는 상태이며 안전한 DWF(drawing web format)도면을 인터넷으로 전송 가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출력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DXF 파일 형식이 통합되었으며, AutoCAD파일에 대한 완벽한 데이터베이스 교환이 지원됨으로서 DXF파일을 읽을 경우, 올리는 시간이 빨라져, 효율적으로 작업 가능. ▶ **효율적인 출력** : 임의의 닫힌 객체로부터 사각형이 아닌 뷰포트를 정의하거나 잘라낼 수 있음. 여러 대화상자를 통해 객체나 도면층에 선 가중치 지정 가능. 단일 도면 내에 다중 도면공간 배치 가능. WYSIWYG인쇄 미리보기와 새로운 플로팅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실수를 줄일 수 있음. 마법사와 템플릿을 사용하여 쉽게 플로팅/배치 시작 가능. AutoCAD번위로 폭과 높이를 입력하여 OLE 객체의 축적 설정 가능. 사용자화와 확장성 증대. ObjectDBX API를 사용하여 AutoCAD 형상과 모델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능적 설계 객체를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 작성 가능. ObjectARX API를 사용하여 모든 AutoCAD2000객체에 대해 사용자 응용프로그램 작성 가능. Visual LISP 통합 개발환경을 이용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가능. AutoCAD도면에서 다중 VBA 프로젝트를 작성하고 올리고 포함 가능. AutoCAD ActiveX Automation API의 완전하고 강력한 확장성을 통해 COM을 사용. 사용자화 가능. ▶ **강력한 기술 구조** : 훨씬 빠르게 파일 열기와 저장, 블록 작성 및 객체 편집 작업 가능. ACIS4.0 모델링 엔진으로 우수한 성능, 안정성, 정확성, 모깍기와 MDT 소프트웨어와의 개선된 상호운용성 획득. AutoCAD2000은 윈도우98/95 및 윈도우 NT4.0로고와 호환되므로 상호운용성을 증가시키고 배우는 시간을 줄여줌. 실시간 초상이동과 줌을 포함하여 인텔리미우스 좌표 입력 장치 기능 활용.



AutoCAD Visualization Suite

AutoCAD2000+3DS VIZ R2 통합 패키지

IntelliARC

건축설계지원소프트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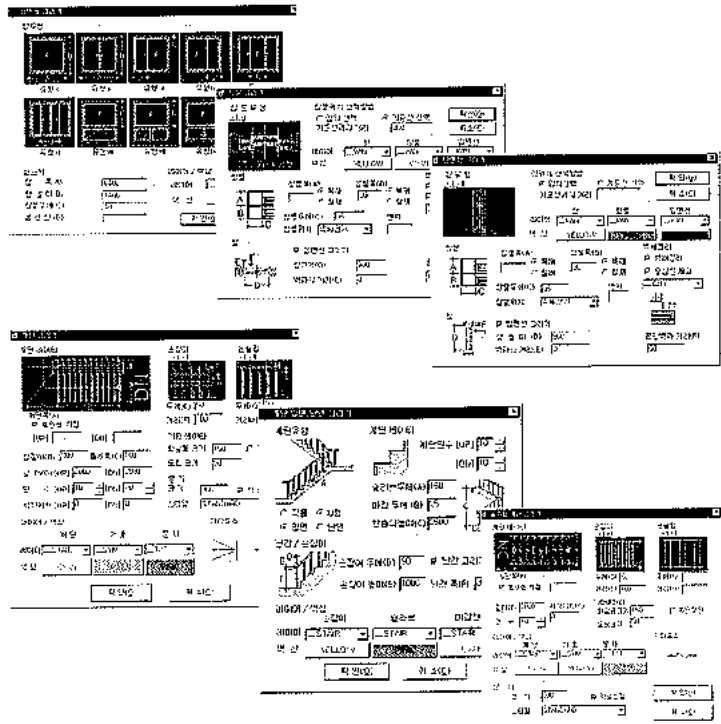
IntelliARC는 IntelliCAD를 국내 건축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CAD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설계 작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건축 전용 설계 지원 소프트웨어입니다.

주요 기능

- IntelliARC Tools (건축설계 지원 도구)
- IntelliARC Utility (건축설계 응용 도구)
- Symbol Library (아파트 및 건축물 도면요소)
- User Library (사용자 예약식물 목록 DB)
- Drawing Manager (도면의 View & 도면관리)
- IntelliARC CAD 한글 (자체 CAD 한글 지원)
- IntelliARC Interface (IntelliCAD, AutoCAD 호환 및 설계자원의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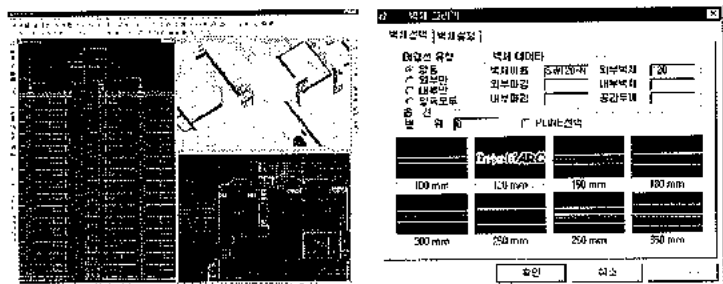
적용 분야

- 건축물 설계
아파트, 상업건축물, 주택,
주상복합건물, 철골, 공장, 인테리어



IntelliCAD

- AutoCAD R11~R14와 완벽에 가까운 호환
- AutoCAD와 동일한 형식의 메뉴 채택
- 대부분의 Autolisp 프로그램은 변형없이 작동가능
- 동시에 수 많은 DWG 파일 Open하여 작업가능
- 진한글내장



건축사를 위한 특별판 프로모션

IntelliARC98+IntelliCAD98 → ~~₩1,645,000~~

₩350,000 → IntelliARC98+IntelliCAD98+진한글
(IntelliARC 2000 / IntelliCAD 2000 무상 업그레이드)

- 프로모션은 9월까지이며 이후는 정가 가격 환원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별도입니다.

db 다이나웨어 씨지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2동 53-22 3F
TEL:02-2214-0586 FAX:02-2244-0386
E-mail: iarc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http://user.chollian.net/~iarc

※ IntelliCAD는 Visio사의 등록상표입니다. AutoCAD는 Autodesk사의 등록상표입니다.

서울/경인총판: (주)인텔리시스템 (02)323-0286 인포월드(02)406-0440 누리컴시스템(02)557-3664 솔바테크놀로지(02)585-7595 이지웨어 (02)3663-8851 인터캐드(02)3463-2450 태성엔지니어링(02)679-1804
클릭정보(02)851-1198 해웅엔지니어링(02)3141-2492 하인정보통신(02)558-0220 인천/두리시스템(032)821-4380 경기/명인컴퓨터(02)877-7361 자이로소프트(032)654-6070 의정부/진시스템(02)354-0786 분당/4
차원시스템(0342)707-0486 고양/월드CNS(0344)963-8038 안산/캐드포커스(0345)494-3855 충남/대진/시와과학(042)482-1231 천안/클릭컴퓨터(041)568-5797 전북/미르(0652)277-2171 전남/하이테크정보
(0662)81-7000 광주/동서정보시스템(062)383-1182 경북/대구/명성컴퓨터(053)422-7780 포항/해광캐드(0562)77-4404 구미/비류시스템(0546)473-5566 경남/부산총판/대창캐드픽스(051)636-3740 창시스템
(053)888-5000 울산/영해정보(052)891-0910 울산/해운대시스템(052)75-0011 광주/하비정보시스템(061)750-7222 창원/대성EDM(0551)994-3234 마산/대과정보(0551)295-1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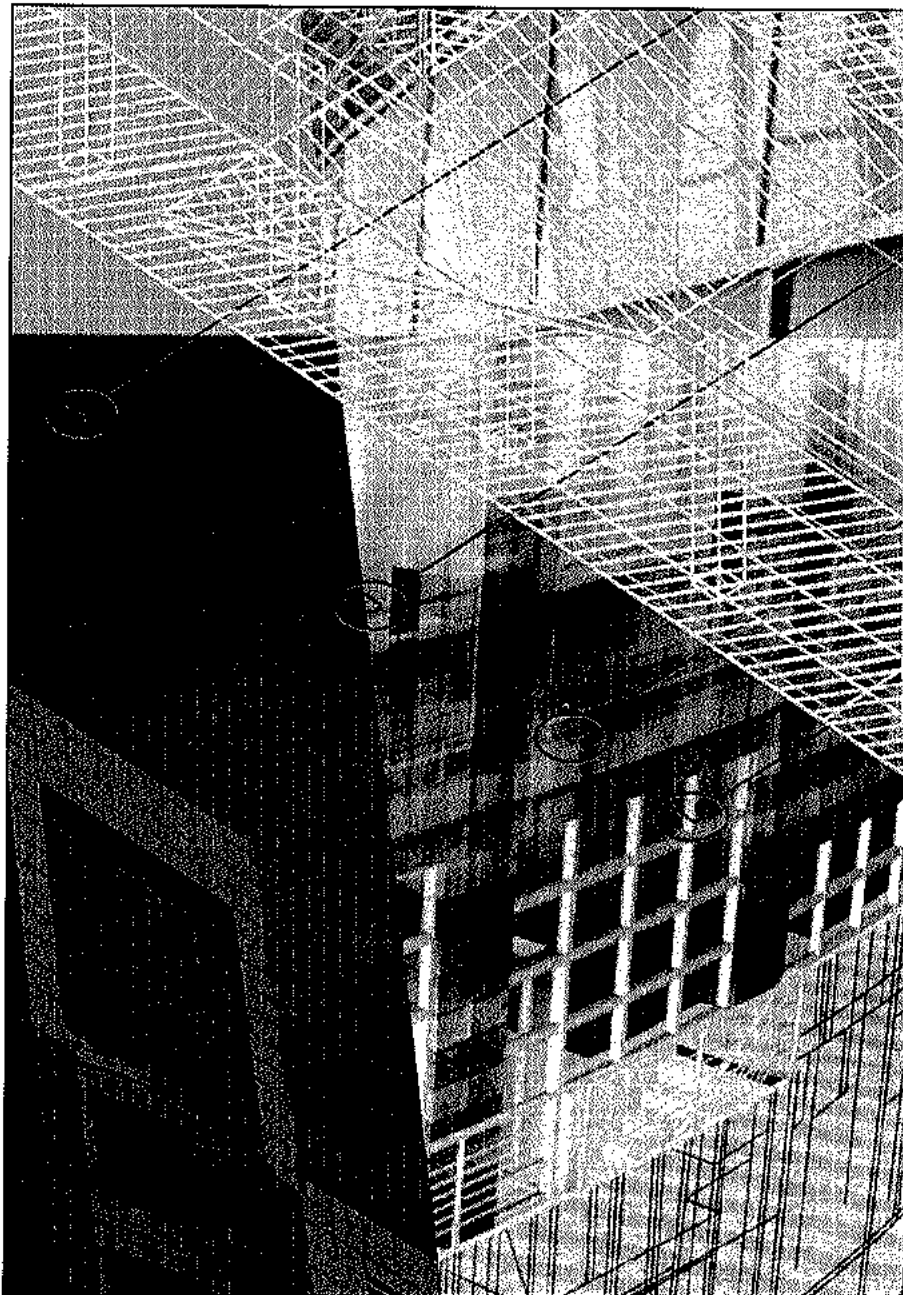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6 삼무빌딩 17층
TEL : 527-0790 FAX : 527-0799
www.autodesk.co.kr

DESIGN
YOUR
WORLD

三位一體!

개념설계에서 실시설계, 공사용 도서작성까지 건축설계 작업을 하나로 끝내줍니다!



AutoCAD Architectural Desktop R2

공사용 도서작성만 되던 기존의 건축설계 소프트웨어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초기 개념설계에서 마지막 공사용 도서작성까지 건축설계의 전과정에 걸쳐 활용의 폭을 넓혔을 뿐 아니라 실시설계 작업도 객체지향(Object ARX)기술을 도입, 대폭 단순화 시켰습니다. 창문을 불러와 사이즈를 변경하고 변경된 위치에 넣는 작업이 한 번에 끝납니다.



주요특징

- 건축관련 사용자 인터페이스
- Model Explorer를 이용해 더욱 손쉬워진 Mass Study
- 유형기반 AEC 객체 지원
(벽체, 문, 창호, 기둥, 계단, 지붕...)
- 문맥 감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나타나는 팝업 메뉴
- 도서양식을 표현하기 위한 뷰 시스템에 의한 뷰 종속적인 객체 표현
- 건축요소의 관련된 각종 일람표 및 보고서 작성

ADT Visualization Suite

ADT R2+3DS VIZ R2 통합 패키지

ADT로 작업한 3차원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편집, 렌더링, 애니메이션화 하여 통합 프리젠테이션 환경 제공

- 풍부한 재질 및 조명효과
- ADT파일과의 완벽한 호환
- Panoramic 렌더링 지원
- DWG Linking 및 ObjectARX™ 애플리케이션 지원
- 수백가지의 AEC 객체 샘플 및 유연한 3D 객체 스냅

건축가를 위한
신개념 AutoCAD

건축/엔지니어링/측량 협력업체

(주)간캐드 584-6480, (주)라인테크시스템 569-1814, (주)에너텍 2271-1781, 한국씨아이.엠(주) 515-3167

Architectural Desktop

ADT

미래형 건축물은 최첨단 중앙정수시스템으로 설계를 하십시오!

**고도
정수처리**

리아롱정수장치

- 설 치 비 : 국내채래식시설 1/10
- 운 전 비 : 1/5로 처리비 절감
- 운전방법 : 무인자동시스템
- 재 질 : 고강도PE(유지보수불요)
- 살균소독 : 오존발생기 기본
- 처리수질 : 식수격정으로부터 완전해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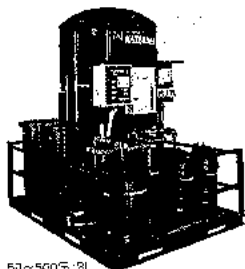
주요 사용처

- 1 교육기관, 공공기관, 회사식당 정수처리
- 2 근도, 독립형아파트 단지, 위락시설 정수처리
- 3 도서벽지지역, 농어촌지역, 상수원미공급지역
- 4 호텔, 병원, 신축건물, 스포츠센터, 공공건물
- 5 미용실, 레스토랑, 대형음식점 등

장치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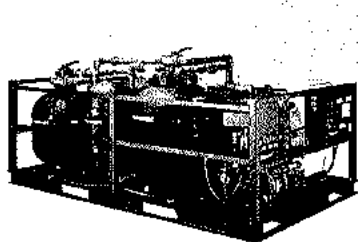
- 1 오존에 의한 미생물, 박테리아 등을 완벽히 살균처리합니다.
- 2 5미크론의 카트리지 필터에 의한 탁도제거는 물론 기타 미세물질의 여과효과가 탁월합니다.
- 3 고효율 카본의 사용으로 중금속제거는 물론 유기화합성분, 냄새 등을 완벽히 제거합니다.
- 4 고순도 이온교환수지에 의해서 연수화는 물론 유해물질은 제거하고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 성분을 통과시켜 물맛이 한층 좋아집니다.
- 5 공급되어지는 물은 최상위 품질의 수질이므로 별도의 정수기가 필요없으며 음용수는 물론 음식을 조리수, 샤워수로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정수장치 CLP



처리용량 : 50~500도/일

중앙정수장치 Del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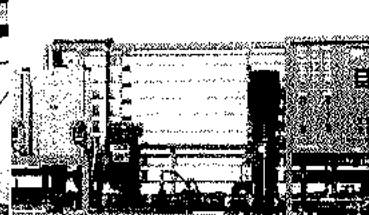
처리용량 : 50~500도/일

중앙정수장치 Reiong



처리용량 : 1~100도/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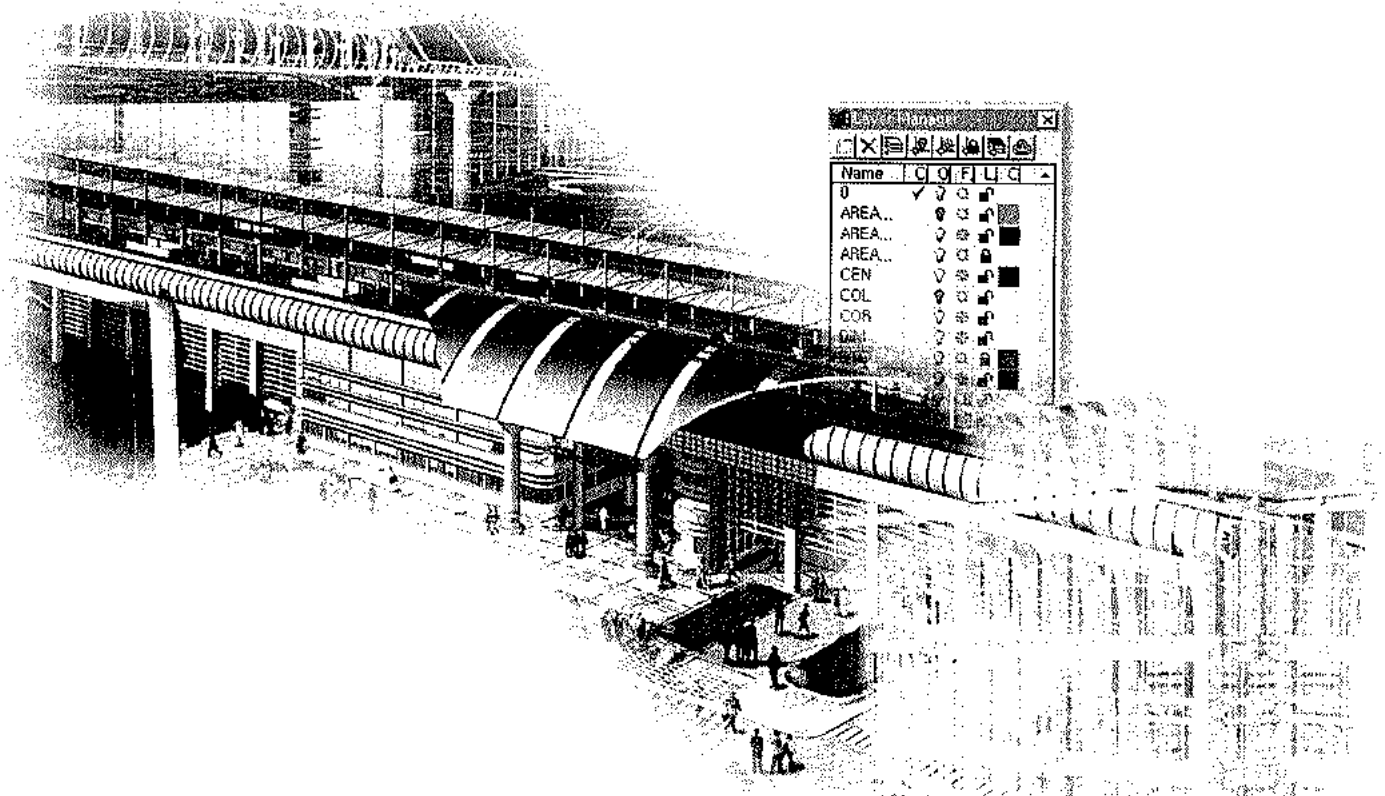
해수담수화장치 WTRO



처리용량 : 0.5~800도/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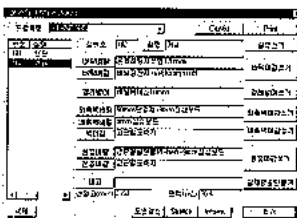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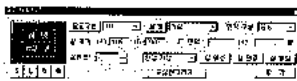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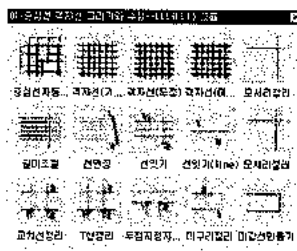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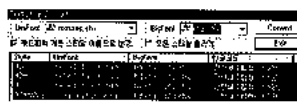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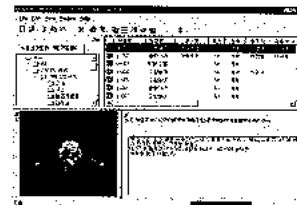
란드코리아
서울서영동포구 여의도동 44-21 중앙빌딩 1018호
Tel : 02-786-8959 Fax : 02-780-5170
Web-site : www.landa.co.kr

LANDA®
WATER CLEANING SYSTEMS



21세기의 건축설계 "CADPOWER"가 책임집니다.

건축인의 관심과
사용자의 요구를
제일 소중하게 여깁니다.
10년동안 개발한
CADPOWER는
건축인 모두의 것입니다.



CADPOWER 21은 오랜 경력의 건축설계전문가 집단의
최고의 프로그래머 그룹이 만나 다시 태어났습니다.
실무자 중심의 개발환경과 사용자 정의에 의한 CAD
환경구축으로 설계업무에 더 큰 만족을 드립니다.

CADPOWER 21의 특징

- 건축 실무자 중심 개발
- 작업의 효율성
- 명령어의 통합
- 단순화
- 타프로그램 사용자들을 위한 배려
- 새로운 모습(새기능)

CADPOWER 21의 새로운 기능

- 계획설계 지원(Object ARX Base)
- 명령어의 단순화와 통합화
벽, 문, 창, Dimension, Layer
- 사용자 Menu 구성
명령어 그룹별 관리, 사용자 정의 가능
- 동적인 수정과 일괄처리에 의한 마감재 작성
마감재 DB구축, 사용자 정의에 의한 마감표 정의, 여러 개의
도면을 선택, 일괄적인 수정 가능
- MC설계 지원
"공공건축물 MC설계 지침"에 따른 MC설계 지원
- 도면관리 지원
설계작업 정보를 도면과 통합적으로 관리, DB구축
- 타프로그램 사용자들을 위한 기능
Text Convert 기능(사용자 정의 폰트로 변경)
Layer Control
Onekey(타프로그램과 호환)
- 기존 CADPOWER 기능 강화(DRS, CC, MMD,
WAL,...)
- TEXT편집 기능, Arc(벽, 면적)지원
- Autocad R14 이상에서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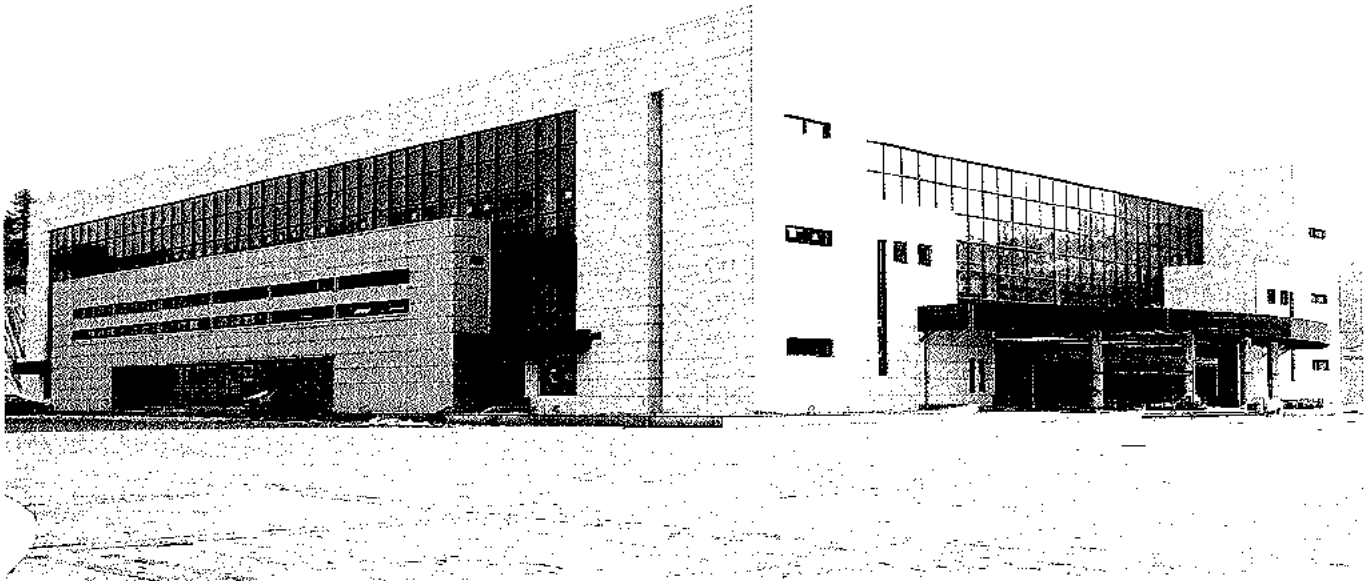


(주) 건 캐 드
GAUN CAD CO., LTD.
137-071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427-6 갑목빌딩 4F
Tel: 584-6480 Fax: 587-1803
http://www.ait.co.kr e-mail: info@gauncad.ait.co.kr

설계선생
관려 열람과 함께
(주) 건캐드
보내주시길 CADPOWER 21
에 대한 태도CD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효율적인 기능, 경제성은 물론 개성있는 연출까지

새천년, 새로운 건축문화 - 기린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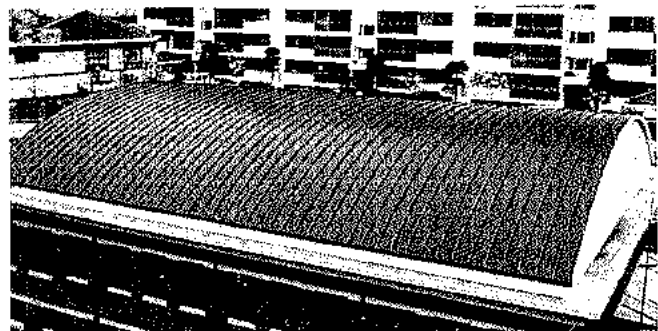


건축 외장재의 혁신 POLYMETAL

대형 평판 패널로 코킹을 사용하지 않아 깨끗하며 완벽한 조인트 부분의 방수 처리와 결로 발생으로 인한 내부 구조물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혁신적 개념의 건축자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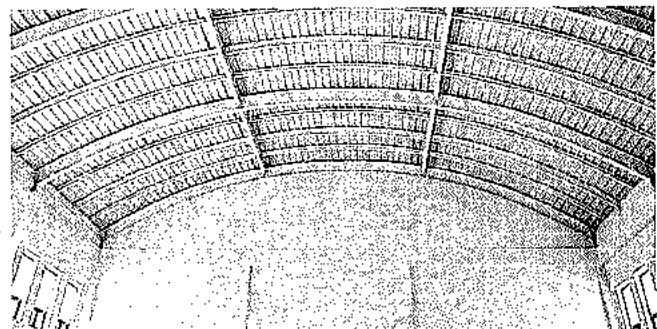
중.형의 다양한 시공이 가능한 POLYMETAL-S

기존 POLYMETAL에서 진일보한 POLYMETAL-S는 혁신적인 HANGING SYSTEM 공법으로 패널을 구조물에서 분리, 수축 팽창에 의한 패널의 하자 요인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배수 원리를 이용한 OPEN JOINT 공법으로 중.형의 다양한 시공이 가능한 물론 오염이 없는 아름답고 다양한 디자인의 건축물을 창출합니다.



곡면형태의 지붕 시공재 OMEGA ROOF

자연곡선을 구사할 수 있는 신제품으로, 외부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패널을 구조체에 고정하지 않고 SLIDING BAR에 결합시키는 시스템입니다.



흡음 지붕재 ACODECK

일체식 지붕 시스템으로 완벽한 방수뿐 아니라 단열성과 흡음력이 우수하여 각종 체육관 등 소음이 많은 공간의 지붕재로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KIRIN
(주)기린산업

서울 사무소 : (02)549-6661
부산 사무소 : (051)505-8191~3
대구 사무소 : (053)751-6841~3
http://www.kirinind.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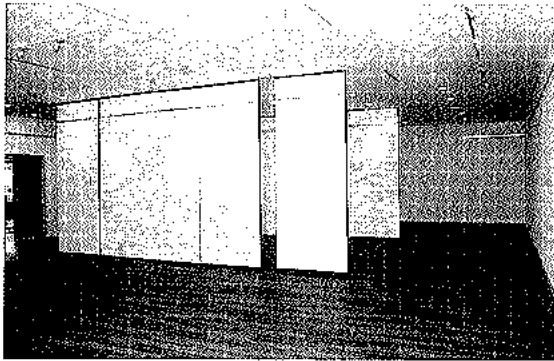
FAX : (02)547-7134
FAX : (051)504-8191
FAX : (053)756-2945

대전 사무소 : (042)484-6661
안산 사무소 : (0345)494-4811~3
광주 사무소 : (062)528-0661~2

FAX : (042)487-2155
FAX : (0345)495-0175
FAX : (062)528-0663

E-mail : kirinind@unitel.co.kr

건축과 문화와의 만남을 위한 전시공간 「Architect's Gallery」가 개
관을 맞았습니다.



건축사협회 회관 1층에 문을 연 아키텍트 갤러리는 600여평(198㎡)
규모의 현대적 감각의 전시공간으로 밝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최신의 조명시설과 이동식 중간벽체를 설치하여 전시규모
및 특성에 따라 원하는 공간을 개성있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전시장 대관 안내

또한 저렴한 대관료(1일 5만원, 부가세

별도)로 건축인은 물론 관련단체나 학생,

일반인들이 부담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분야 외에

도 다양한 예술문화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전시공간입니다.

건축인 작품활동을 알리는 공간으로, 일반인에게 건축과 문화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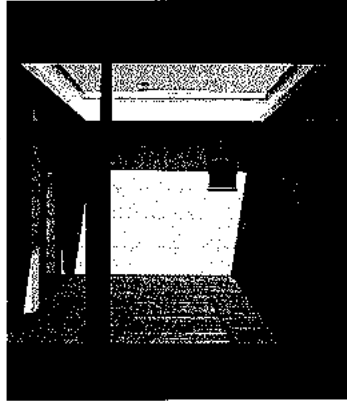
의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길 바랍니다.

대관문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총무팀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2번출구 150m 지점)

전화 02-581-5711~4 팩스 02-586-8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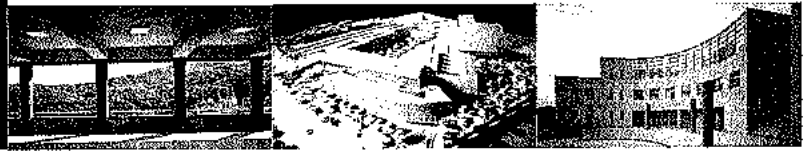


부산기장정보관소(김승희·강원필 작)

95

124

91



발행인: 이완구
 편집·기획: 편찬위원회
 위원장: 장양순
 위원: 김정희, 조인숙, 조현균, 최동규
 편집·취재: 정효상, 조한국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10월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주소: <http://www.kira.or.kr>
 E-mail: hsjong@kira.or.kr
hkjo@kira.or.kr
 U. D. C: 69/72(054-2): 0612(519)
 인쇄인: 이봉수/장문사 (02)2266-4555
 광고: (주)아두컴 (02)518-6856

Publisher: Lee Eui-Koo
 Editorial Member: Chang Yang-Soon, Kim Joung-Hwoe, Cho In-Souk
 Cho Hyun-Goon,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U. D. C: 69/72(054-2): 0612(519)
 Printer: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칼럼	UIA협정과 한국건축의 선택	심영섭	16
작품리뷰 / 부산기장정보관소	비평: '흑백' 혹은 '컬러': 기로(岐路)에 선 건축가 김승희(?)를 주시하면서	김승희·강원필 이동언	18 28
아카시아	제4차 아카시아건축상 수상작		33
테마기획	지역건축탐방 ③: 서울(하) 서울 도시구조의 발자취 서울의 가로공간: 다양한 시민의 삶의 터 미래의 서울 그리고 건축은 존재할 것인가? 좌담: 서울 도시와 건축의 미래	편집디렉터/손세관 이상구 재해성 함인선	43 44 52 64 71
회원작품	대전법원종합청사 평창고속도로 휴게소(상,하) 한세대학교 인문관 및 대강당 광주시립미술관 교육홍보관 마두동 905-3 서울대학교 예술관 연구동 시온교회 국민대 국제교육관	김병년 김상길·김화옥 서천식 류연창 이만용 황일인 (주)정림건축 최관영·정동명	80 82 84 86 88 90 92 94
작품노트	상동노인 종합복지관	최삼영	96
연구	복고주의의 두얼굴(2)	박영호	100
해외건축	프랑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8)	김미상	108
건축마당	건축만평 협회소식 건축계소식 현상설계 해외잡지동향 통계(설계도시신고현황 1999년 7월분) 회원현황		114 115 117 124 126 132 134

Column		
UIA Accord and The Choice of Korean Architecture	Shim Young-Sub	16
Review / Pusan Kizang Public Health Center		
Critique	Kim Seung-Hoy & Kang Won-Phil	18
'Black-and-white' or 'Color': observing the Architect Kim Seung-Hoy on the Crossroad	Lee Dong-Eon	28
ARCASIA	The 4th ARCASIA Awards	33
Theme Study /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13: Seoul		
Tracing the Structure of Seoul City	Son Se-Kwan	43
Street Space of Seoul: Various Citizen's Pleasure Space	Lee Sang-Koo	44
Will Architecture and Seoul Exist in the Future?	Jae Hae-Syong	52
Conversation: Seoul-The Future of the City and It's Architecture	Ham In-Sun	64
Works		
Daejeon District Court	Kim Byeong-Nyeon	80
Pyungchang Highway Resting Place	Kim Sang-Gil & Kim Hee-OK	82
Hansei Univ. Lecture Complex	Seo Cheon-Sik	84
K.J. Municipal Art Center PR & Education Center	Lyoo Yun-Chang	86
Madu-dong 905-3	Lee Man-Yong	88
College of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Hwang Il-In	90
Zion Methodist Church	Junglim Architecture	92
International education Center, Kookmin Univ.	Choi Kwan-Young & Cheong Dong-Myeong	94
Design Note		
Sungdong Elder's Welfare Center	Choi Sam-Young	96
Study		
Restoration with Two Faces(2)	Park Young-Ho	100
Overseas Architecture		
The Tradition of Theory in French Architecture and the Architecture of 20th Century(8)	Kim Mi-Sang	108
Architects' Plaza		
Cartoon		114
KIRA News		115
Archi-net		117
Competition		124
Overseas Journal		126
Statistics		132
Members		134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단일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4-6840) · 강북구건축사회/(903-3425) · 강서구건축사회/(604-7168) · 관악구건축사회/(68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364-5828) · 노원구건축사회/(933-9076) · 동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미포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6)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96) · 종로구건축사회/(737-3030)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7356)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성동구건축사회/(292-5655) · 금천구건축사회/(659-5988)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74-8336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시 지역건축사회/(034)963-8932 · 광명시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시 지역건축사회/(034)563-2337 · 부천시 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시 지역건축사회/(034)755-5445 · 수원시 지역건축사회/(031)241-7937~8 · 시흥시 지역건축사회/(032)694-4121 · 안산시 지역건축사회/(034)480-9130 · 안양시 지역건축사회/(034)449-2699 · 의정부시 지역건축사회/(035)1657-6149 · 이천시 지역건축사회/(033)635-0545 · 평택시 지역건축사회/(033)667-6149 · 오산시 건축사회/(033)375-8648 · 용인시 지역건축사회/(0335)336-0140
- 강원도건축사회/(0361)254-2442
- 강릉시 지역건축사회/(039)1653-7371 · 삼척시 지역건축사회/(039)1531-8708 · 속초시 지역건축사회/(0362)533-5061 · 영월시 지역건축사회/(0373)374-2638 · 원주시 지역건축사회/(0371)743-7290 · 춘천시 지역건축사회/(0361)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1)223-3084
- 옥천시 지역건축사회/(0475)732-5752 · 제천시 지역건축사회/(0443)643-3369 · 충주시 지역건축사회/(0441)947-3082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 공주시 지역건축사회/(0418)354-3355 · 보령시 지역건축사회/(0462)534-3367 · 부여시 지역건축사회/(0462)835-2217 · 서산시 지역건축사회/(0456)681-2295 · 천안시 지역건축사회/(0417)551-4551 · 홍성시 지역건축사회/(045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52)251-6040
- 군산시 지역건축사회/(0654)452-3815 · 남원시 지역건축사회/(0671)631-2223 · 익산시 지역건축사회/(0663)852-0793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북구시 지역건축사회/(0631)272-3345 · 순천시 지역건축사회/(0661)743-2457 · 여수시 지역건축사회/(0662)652-7023 · 나주시 지역건축사회/(062)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시 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시 지역건축사회/(0501)772-4710 · 구미시 지역건축사회/(0546)451-1537~8 · 김천시 지역건축사회/(0547)432-5688 · 문경시 지역건축사회/(0581)553-1412 · 상주시 지역건축사회/(0582)535-8975 · 안동시 지역건축사회/(0571)853-0244 · 영주시 지역건축사회/(0572)634-5560 · 영천시 지역건축사회/(0663)334-8256 · 칠곡시 지역건축사회/(0545)974-7025 · 포항시 지역건축사회/(0562)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1)246-0530~1
- 거창시 지역건축사회/(0558)635-6870 · 기창시 지역건축사회/(0568)043-6090 · 김해시 지역건축사회/(0525)234-6244 · 마창시 지역건축사회/(0551)245-3737 · 밀양시 지역건축사회/(0527)355-1323 · 사창시 지역건축사회/(0563)833-9779 · 양산시 지역건축사회/(0623)394-3050 · 진주시 지역건축사회/(0551)741-6403 · 진해시 지역건축사회/(0553)544-7744 · 통창시 지역건축사회/(0557)641-4530 · 하창시 지역건축사회/(0595)863-4612
-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시 지역건축사회/(064)733-5601

UIA 협정과 한국건축의 선택

UIA Accord and The Choice of Korean Architecture

심영섭 / 호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by Shim Young-Sub

WTO(세계무역기구)에서 설계옹역에 관한 다자간 협상부문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UIA(국제건축가연맹)에 위임하여 작성된 「건축실무에서의 전문성 국제권고기준에 관한 UIA 협정」이 지난 6월말 열린 제 21차 UIA 북경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협정은 한마디로 건축설계 옹역의 국제적 시장개방을 위해 건축전문직(건축사)의 상호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UIA는 이 협정이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회원지부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자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각 회원지부에 협정내용의 수용을 요청 내지 권유하”겠지만, 이러한 ‘권고기준’이 경제논리에 기반을 두고 막강한 구속력을 지니는 WTO의 건축사부문 상호인정협상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판단기준’이자 ‘실무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 협정의 수용 여부는 각 나라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지만, UIA의 권고기준에 미달하거나 WTO의 상호인정협상에서 실패할 경우 그 나라는 건축설계부문에서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이 뻔한 이치이다. 한국이 만약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할 경우, 우리의 건축전공 학생들은 대학 졸업 후 외국의 대학원으로 현재처럼 곧장 진학하는 길이 개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막히게 되고 국내 건축사의 해외업무 수주는 물론 국내에서 진행되는 국제적인 기준의 설계경기와 업무 참여에 제한을 받는 등 다방면에서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UIA의 권고기준에는 건축사의 기본요건으로부터 전문성 충족을 위한 건축교육과 실무훈련의 내용 및 기간, 건축사의 전문지식과 능력의 입증, 등록/ 자격면허/ 자격증명, 계속교육 등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의 어느 건축관련 단체나 개인도 이 협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대부분의 건축관련학과가 공과대학 소속으로 건축가교육과 엔지니어교육이 병행되어온 국내의 상황에서 볼 때 UIA의 기준을 충족키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체제나 건축사 관련제도에 변화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기 배출된 건축사나 졸업생들의 전문성 인정 여부 또한 문제시 된다. 우리와 건축교육 및 건축사 관련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오래 전부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해 온 반면,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최근에 와서야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등분서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뒤늦은 대응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직도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거나 기존의 체제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편협한 시각이 지배적이고,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자신이 속한 단체나 이해관계에 따라 임시방편의 묘수 찾기에 몰두하고 있는 근시안적인 태도가 보이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UIA의 권고기준은 결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우리도 한국적인 상황을 감안하고 우리의 장점을 살려 국제적인 기준에 상응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배출 인력에 대한 적절한 경과조치나 추가교육을 통한 구제 등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실정으로는 국내의 어느 대학도 UIA 기준에 합당한 건축교육의 여건과 내용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의 모든 건축사나 건축관련 제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우리라 판단된다. 모두에게 적당히 좋은 묘수를 찾기는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의 독특한 상황과 여건을 이해하고 받아줄 만큼 국제사회가 관대하지도 않은 듯 하다. 공학적 내용이 많이 포함된 우리의 건축교육이나 건축사 제도는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UIA의 권고기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UIA 협정의 내용이 절대기준은 아니지만 이를 실무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리라 예상되는 WTO의 건축사부문 상호인정협정이 다자간의 상대적인 협상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불리한 상황일 수 있다. 현재 건축교육이나 실무의 전문성이 국제적인 기준에서 우리보다 뒤떨어진 나라가 얼마나 될지를 손꼽아 보면 우리의 현실이 생각보다 밝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동남아의 대부분 국가는 유럽의 식민지 시절부터 유럽식 건축교육과 실무제도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건축에 관한 한 이미 국제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국제적인 무대에 뒤늦게 합류하였고 아직은 우리에게 많이 뒤져 있다고 생각되는 중국조차 여러 해의 준비를 거쳐 다수 대학의 건축프로그램이 미국의 건축교육 인증기관으로부터 이미 인증을 받았고 실무에 있어서도 UIA 협정에 상응하는 기준을 마련한 상태이다. 일본이 우리와 건축적으로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고 하지만 이는 전문성이나 내용이 대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형식과 태생적인 기제가 유사함을 의미할 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기존의 기득권에 집착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격이나 다름없다. 국제적인 시각과 합리적인 대책은 소홀히 하고 선토불이란 외치다 막다른 골목에서 두 손을 든 쌀시장 개방의 전철을 건축계는 밟지 말아야 한다. 식량안보를 내세워 전국민적인 관심과 정치적인 이슈가 되었던 쌀시장 개방과 비교해 작금의 여러 건축적인 현안을 해결하고 수습해야 하는 것은 온전히 건축계의 몫이리 만치 우리가 기댈 곳 또한 많지 않다. 많은 것이 아직도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의지외는 상관없이 조만간 건축직능에 대한 국제적인 상호인정협상이 진행될 것은 분명하다. 이때에는 냉정한 경제논리가 모든 것에 우선하게 된다. 건축의 문화성이나 지역적 특수성 등이 개입될 여지는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쌀시장 개방이나 IMF 구제금융이 우리의 희망과 자의적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최악의 선택을 피한 차선책이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국민을 진정 분노하게 만든 것은 현실의 오도와 임시방편적 대응으로 인한 손실, 서로간의 책임 회피에 있었다.

결국 남아있는 선택이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문제의 본질을 건축계에 꾸준히 인식시키는 한편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지를 모으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대응책은 수구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각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비록 타의에 의한 것이지만 사분오열 되어있는 건축계가 새로운 위상정립과 더불어 동질성을 회복하고, 그 동안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건축교육계와 실무계가 동반자적 관계를 공고히 하며, 모호한 건축교육의 내용 및 체제의 정비와 함께 건축전문직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현대건축이 태생적으로 짊어져 온 일본건축의 서자라는 불행한 족보를 떨쳐버릴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의 건축계가 국내·외적으로 고난에 처해있는 상황이지만 2000년대를 위한 한국건축계의 새로운 기반과 비전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건축인 모두의 관심과 협조, 격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의 건축계가 걸어온 질곡의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부산 기장보건소

작품리뷰 review

Pusan Kizang Public Health Center

김승희 · 강원필 / 경영위치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Seung-Hoy & Kang Won-Phil

건축개요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을 신천리 308-1
대지면적	3,450㎡
건축면적	798.83㎡
연면적	2,082.57㎡
설계담당	조항만, 김주애
외부 마감	Al. 복합 패널, 석기질 타일, 문경석, 노출콘크리트
내부 마감	석고보드 위 비닐페인트, 자기질 타일, 마천석, 오크무늬목
시공주	성영토건주식회사
설계기간	1997. 8. ~ 1997. 12.
공사기간	1997. 12. ~ 1999. 4.

Site Pusan Kizang-gun Kizang-ub Shinchun-ri 308-1 bunji

Site Area 3,450㎡

Building Area 798.83㎡

Total Floor Area 2,08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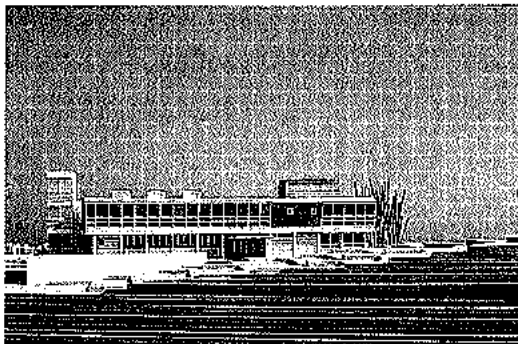
Project Architects Cho Hang-man, Kim Joo-ae

Exterior Finishings Aluminum Compound Panel, Stone Tiles, Granite, Exposed Concrete

Interior Finishings Vinyl Paint on Plaster Boards, Ceramic Tile, Sand Stone, Oak

Design Period Aug 1997~Dec 1997

Construction Period Dec 1997~April 1999



모형

'지역성'이라는 단어는 건축가에게 커다란 짐이다. 그것은 '전통'이라는 단어처럼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지켜야 하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모르고 건축화해야 하는 고통스런 무게인지도 모른다. 지역성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지역문화의 축적이라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미래의 지역성을 현재 속에서 찾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면, 사실 지역성의 지문조차 사라져버린 이 시대의 건축에 새로운 무늬를 새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장보건소의 작업을 통해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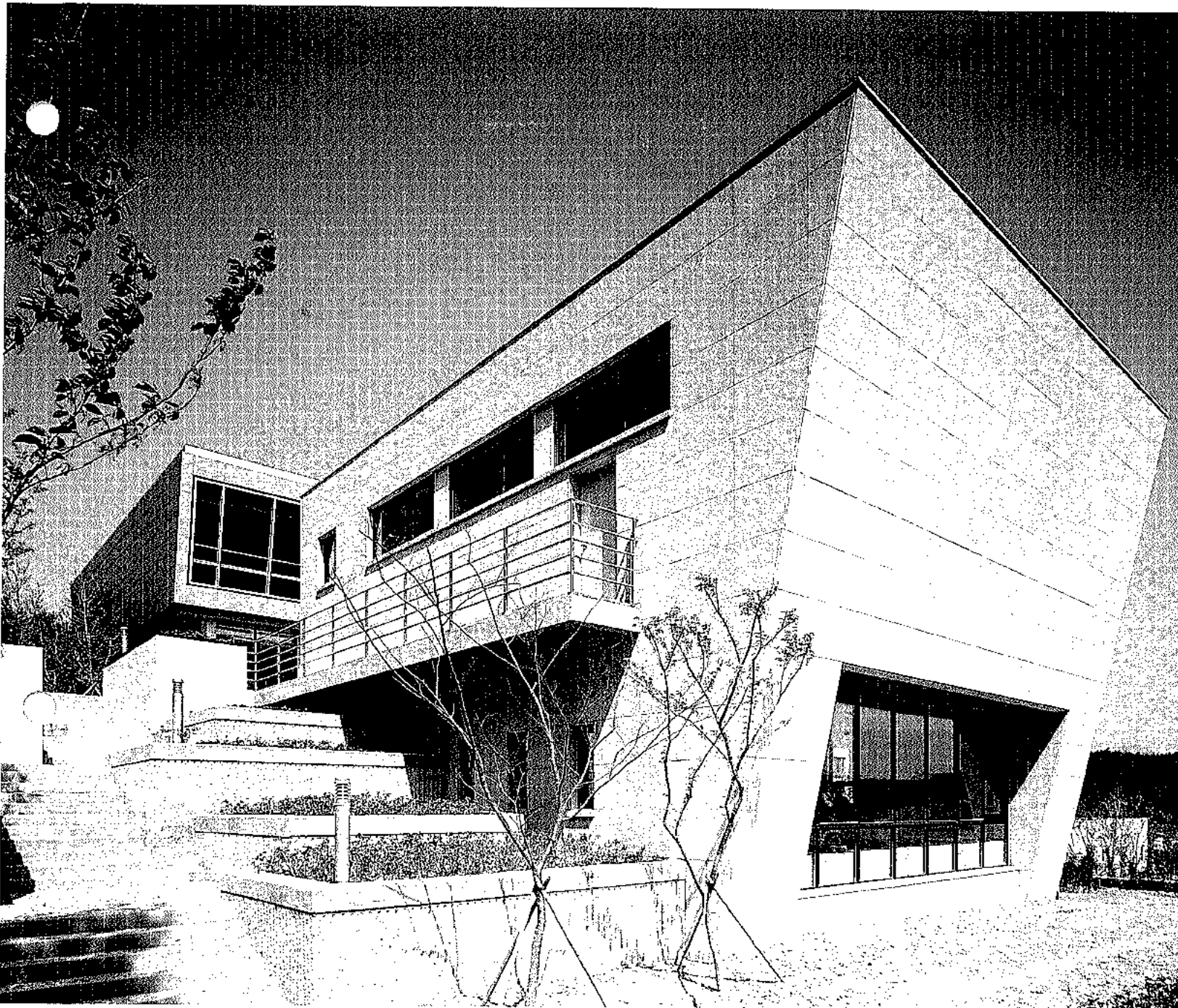
거대한 아파트들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기장의 풍경과 그리고 보건소 부지를 포함하여 대규모로 개발되는 군청부지의 모습은 어촌이었던 시절의 소박한 기장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어촌에서 새로운 도시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상황은 이 도시가 나아가고 있는 미래를 읽어야만 하는 숙제를 안겨 주었다.

보건소부지는 군청부지의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경사면의 위로는 군청과 연결되고, 경사 아래쪽으로는 넓은 들판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다. 이러한 조건은 군청단지의 한 단위로써 기능하는 동시에 도시화가 진행될 드넓은 공간을 향해 포즈를 취해야 하는 상반된 목표를 갖게 했는데, 군청레벨과 미래의 도시레벨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매스와 스케일의 조절을 통해 그 과제를 이룰 수 있었다.

군청부지와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2층 높이의 겸손한 스케일과 절제된 형태를, 광활한 들녘이 펼쳐지는 대지 아래쪽으로는 3층의 높이를 보이면서, 보다 확장된 풍경에 대응하는 스케일과 역동적인 볼륨을 드러낸다. 그것은 미래의 도시와 인사하는 것인 동시에 바다와 항구를 저난 이 지역의 정신을 담아내는 동작이기도 하다.

전체적인 매스의 흐름은 대지와 주변 산세의 방향을 따라서 동서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계획원론적인 '남향'이라는 가치보다는, 보다 넓은 범위의 소유주적인 질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적어도 주택이 아닌 의료시설에서는 북향이 반드시 생기는 남향의 배치가 햇볕을 골고루 받는 동서향의 배치에 비해 약점을 지녔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다.

진료실 최소 모듈인 3M 간격의 프레임으로 구성된 박스에 노인시설과 소강당이 배치된 매스가 붙어 가는 방식으로 집이 조직된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른 최소의 실면적이 바탕이 되었지만, 필요에 따라 실의 배치와



다목적홀

크기의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구조와 칸막이의 구법을 제안했다.

노출 콘크리트 기둥과 보에 의해 구축된 박스에 특별한 크기의 방을 담은 문경석의 매스를 달아내어 금경사의 대지를 완충하고 건물이 만나는 각각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표정을 만들 수 있었다. 한편 사무공간인 3층에는 자연발색 알루미늄 패넬을 사용해 그 기능과 성격을 표현하고, 비상계단을 별도의 덩어리로 처리하여 배를 잡아매는 말뚝처럼 작용하도록 했다.

2층에 마련된 주출입구에서 대기실로 진입하면서 산과 들의 풍경을 창너머로 만나게 되고, 이 공간은 점수와 진료공간으로 이어진다. 대기실은 안마당을 매개로 하여 소강당과 연결되는 한편, 수직으로

트여진 공간에 배치된 '열린 계단'을 통해 1층과 3층으로 연속된다. 레벨 차이로 어쩔 수 없이 땅에 묻히게 된 1층의 일부는 X-레이실 등 빛의 필요가 적은 진료지원 시설이, 햇살이 잘 드는 곳에는 노인시설이 배치된다. 사무실이 위치하는 3층은 중복도로 되어 있지만 중정과 천창이 있어 밝은 공간으로 조성된다. 계단을 중심으로 1층에서 3층까지 트인 공간은 그 단면이 위로 갈수록 줄어들다가 3층에 이르러서는 중정을 향해 공간이 전개되면서 공간의 흐름이 완성된다.

같은 부지내의 군청이 완성이 되어야 공동구로 연결된 설비, 통신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점에서 아직 미완성의 집이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의해 늘 새롭게 살게된다는 의미에서 이 집은 언제나 미완성의 완성이다. '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지도 모른다.

The word 'locality' is a huge burden to an architect. Like the word 'tradition', it is a painful obligation that is to be formed into architecture with its objectives not known. If we were to understand locality as the accumulation of local culture passed on to the present from the past, and moreover, as the possibility of the discovery of future locality, it seemed that through the project of Kizang Health Center a new pattern could be craved into the architecture of this time - a time when even the slightest traces of locality has diminish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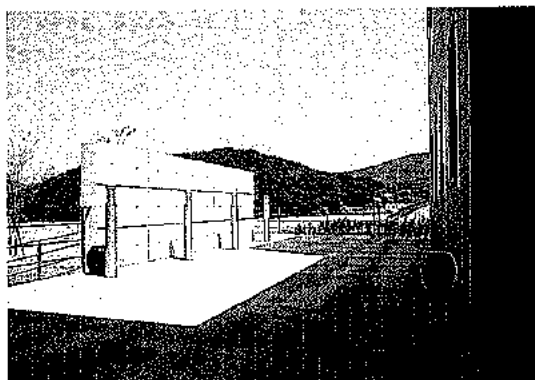
The present view of Kizang whose skyline is formed by gigantic apartments and the district, where the site of the Health Center lies, is being developed in large scales. The past image of a modest fishing village can be found nowhere. This situation of urbanization from a fishing city has submitted us a new homework of inferring the future of this city.

The site of the Health Center occupying a corner of the district, is connected to the district office on the upper side of the slope, and commands a view of the extensive fields below. This situation endows a conflicting object. The building should act 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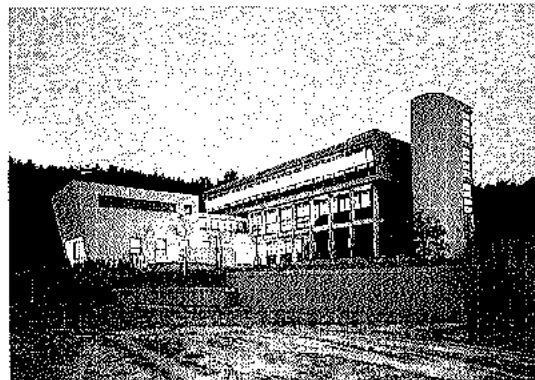
a part lying in the district, and at the same time, make a statement towards the fields where urbanization will gradually occur. This problem was solved by mediating the masses and scales interacting differently to the two levels - the district level and the future city level.

The area connected to the district area has a humble scale and a restrained form of two stories high, on the other hand, towards the extensive fields the building is three stories high with dramatic volumes and a challenging scale interacting with the spacious scenery. It is an welcoming of the city to come, and an action of gathering the spirits of this area of sea and harb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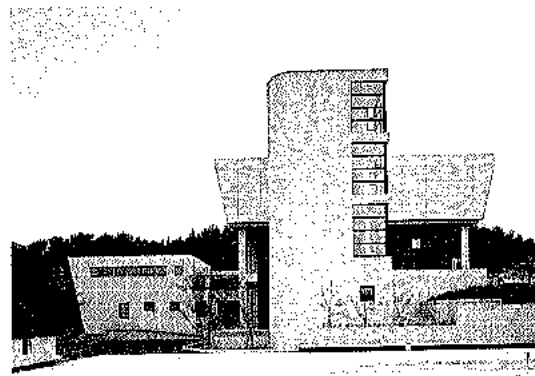
The total flow of the masses are formed in the east-west direction according to the surrounding land and mountains. The preordained thought for a southward view was overcome through the belief that a more micro-cosmic order should be considered first. Also, locating the building in a southward view would inevitably form dark northward views, which is more inappropriate than the uniform light due to east-w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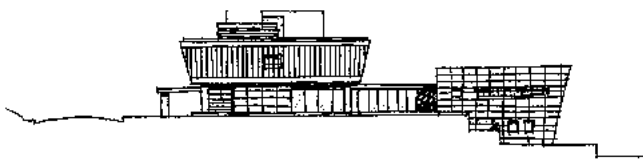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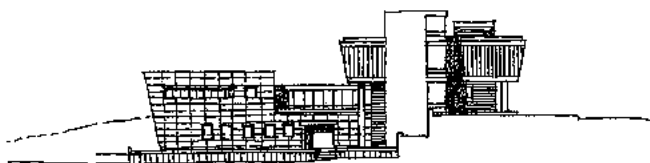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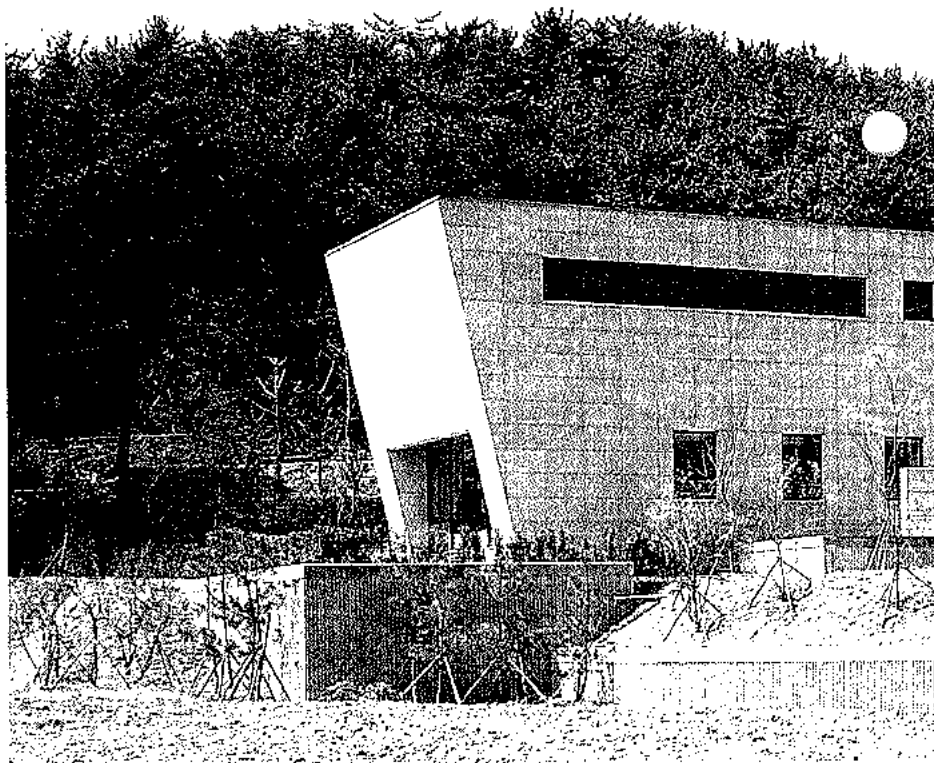
안마당



아경



북쪽전경



disposition, at least in a medical system not a housing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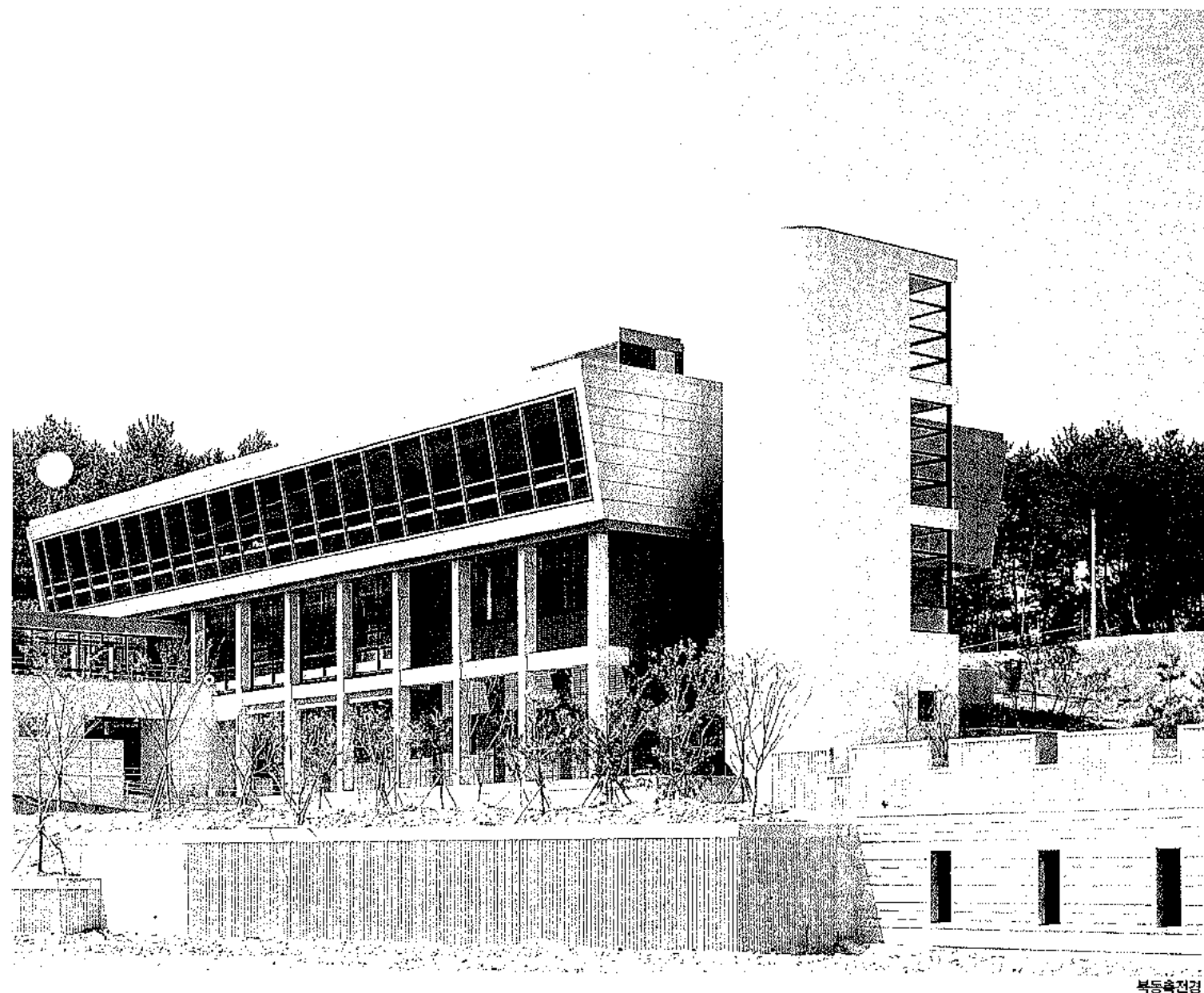
By ways of attaching the masses of the elderly space and the auditorium to a 3m - the minimum module for a consultation room- box frame, the building was formed. The minimal room area appoin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as observed, but to facilitate the arrangement and change of the rooms a structure by partition walls was suggested.

By hanging a mass covered with granite covering a specially sized box formed by exposed concrete columns and beams, the steep slope was buffered and various facades could be formed according to each area. On the office area in third floor, aluminum panels were used to express its function and characteristics. The emergency stairway was dealt as a single mass to act as a post as if holding down a boat.

The scenery of the mountains and fields can be seen through the windows when entering the waiting room from the main entrance at the second floor. This

area is connected to the reception office and the examination area. The waiting room is connected to the small auditorium by an inner court, and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open stairs' standing in a vertically open space, the first and third floor is connected. In parts of the first floor which inevitably had to adhere to the land because of level differences, examination supply facilities which do not need much light like the X-ray room were placed. In the luminous area elderly facilities were positioned. As the office area in the third floor has a middle court and roof windows, a bright area is formed. The section of the open space placed along the stairway narrows as it goes up, and at the third floor the space flows toward the middle court where it 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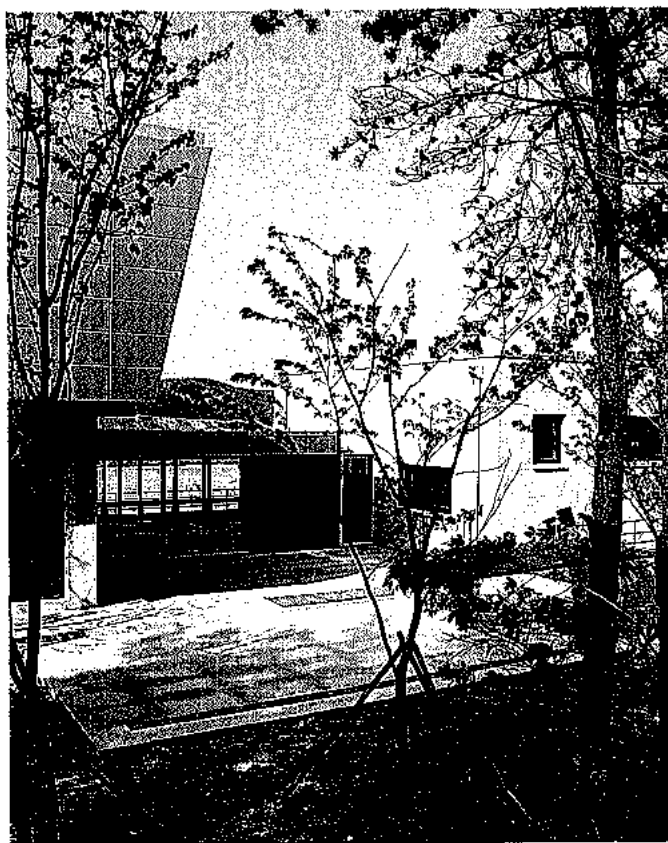
Though this house is incomplete in the aspect that the mechanical and electronic facilities and communication systems will not be fully available until the completion of the district office in the same area, the house is complete in view that it is always newly lived by the people. Maybe 'house' is a verb, not a no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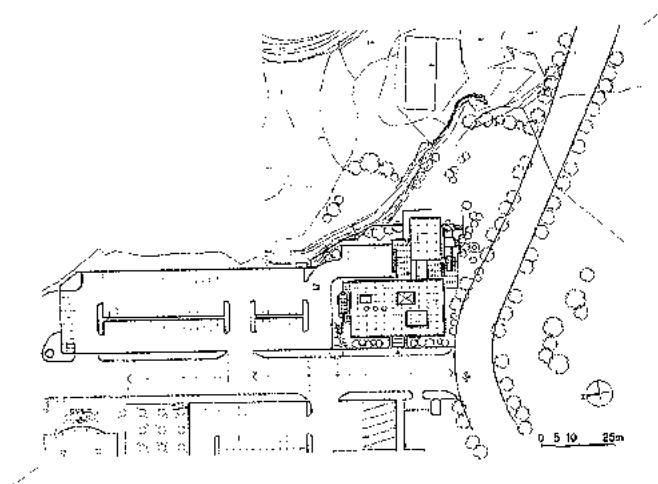
복동축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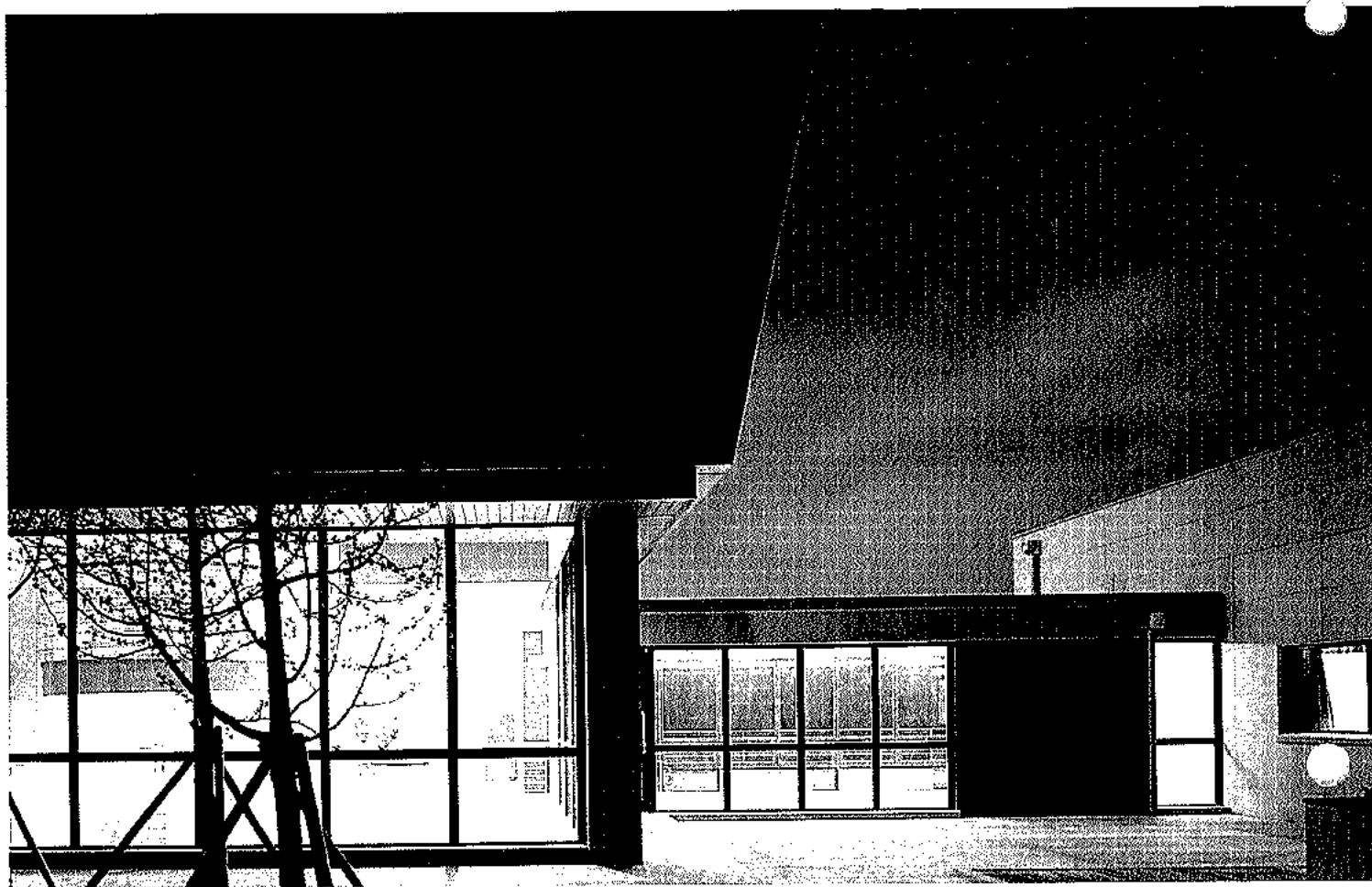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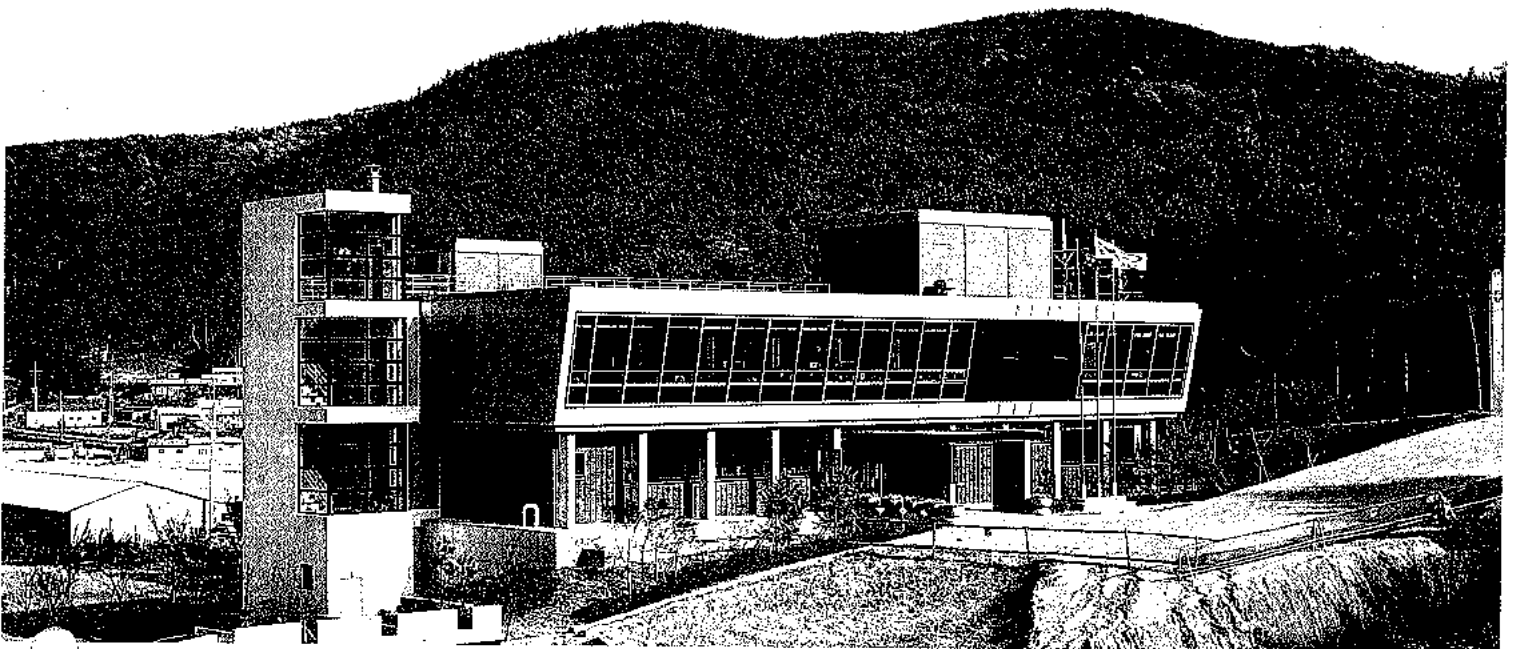
다목적홀과 보건소를 잇는 연결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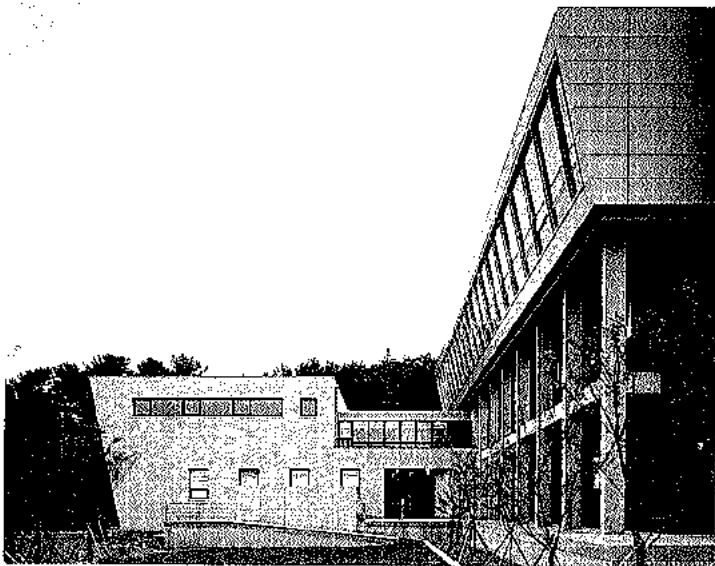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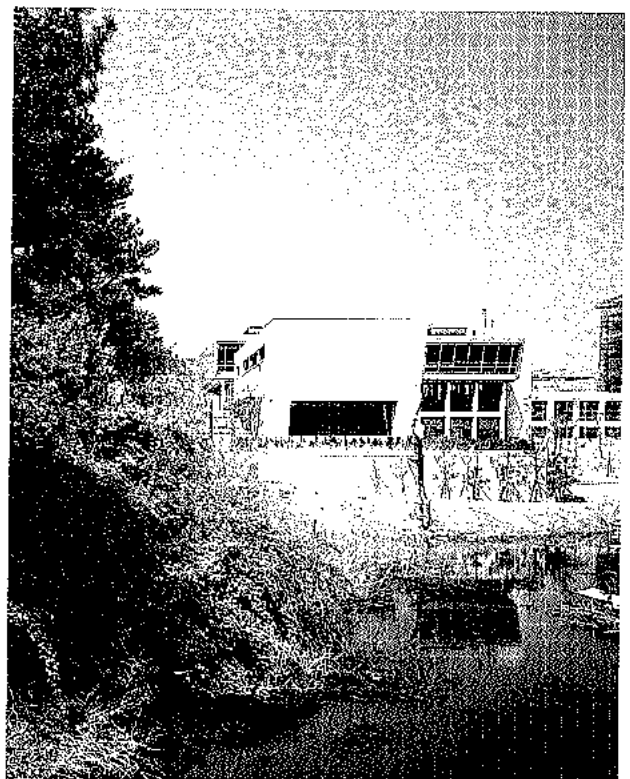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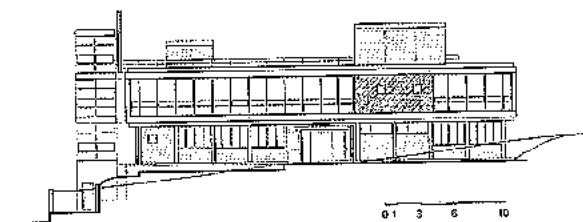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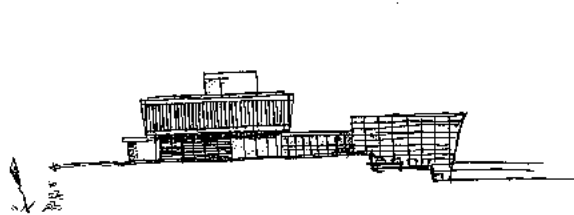
북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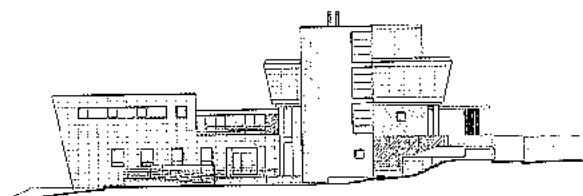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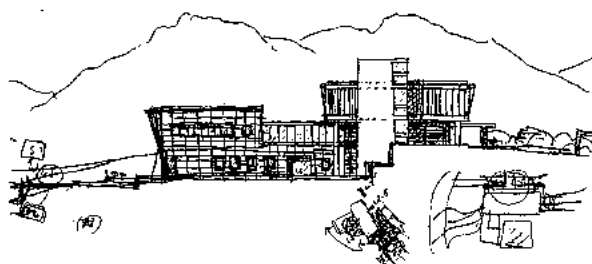
안마당에서 본 잔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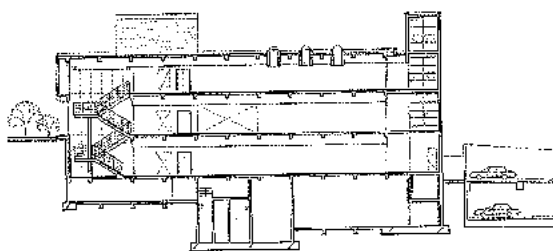
연못에서 본 다목적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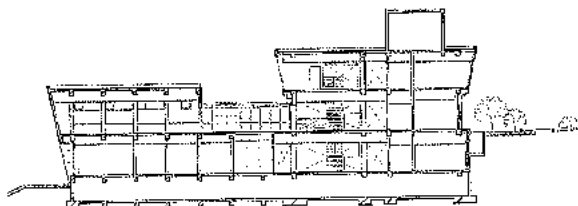
정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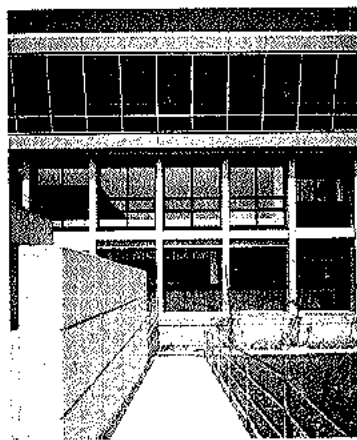
주단면도 1



주단면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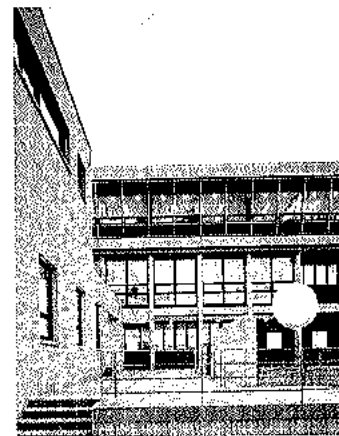
다목적홀에서 인마당을 본 풍경과 건축적 장치들



인마당에서 본 입면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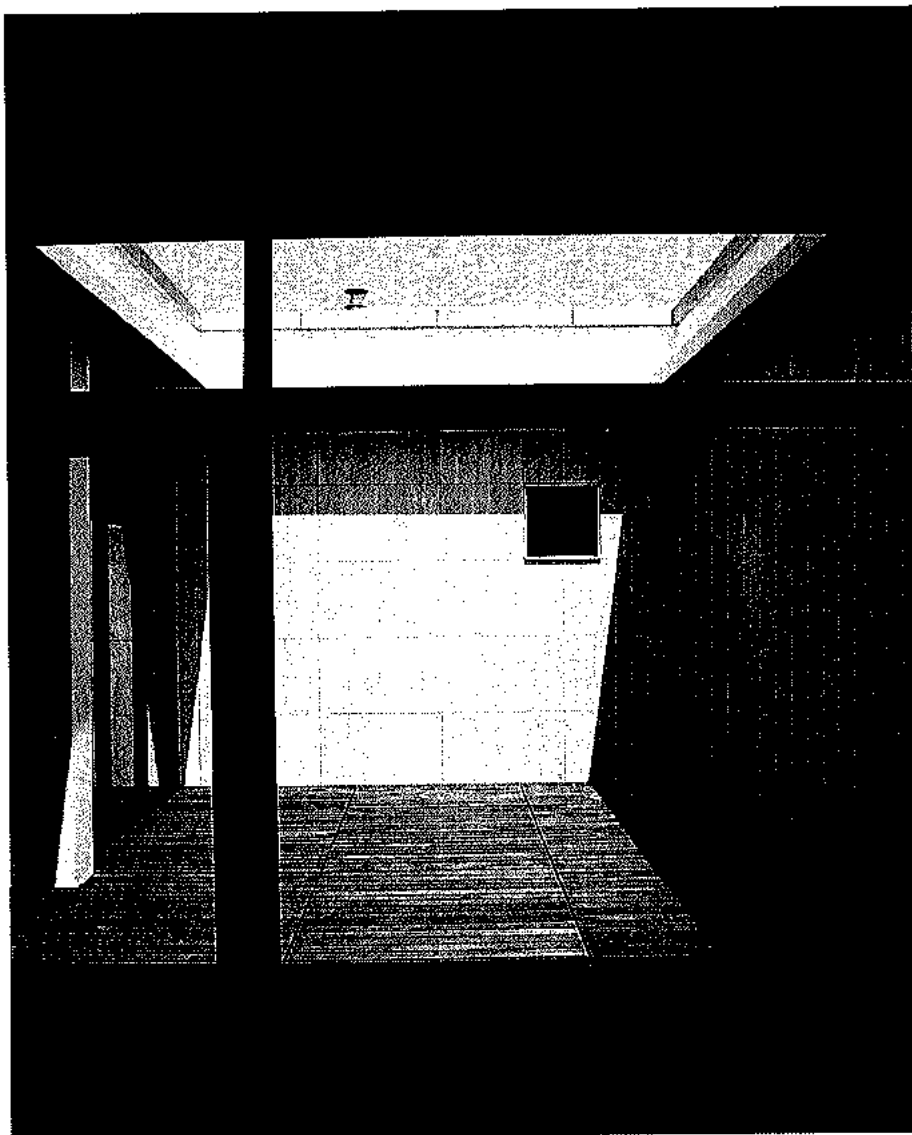
북측 상부 입면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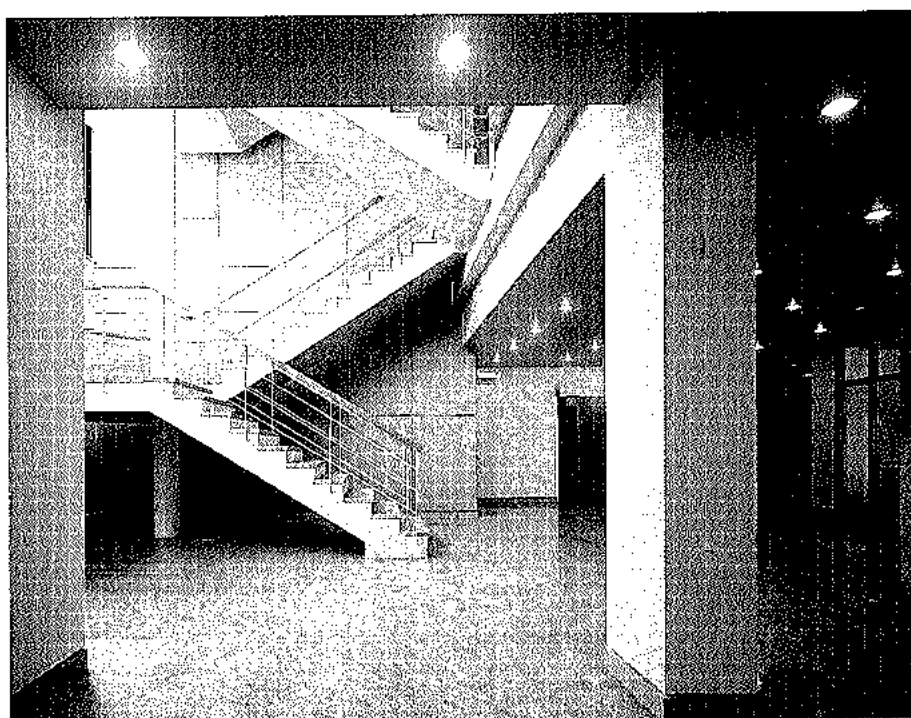
부속입구 전입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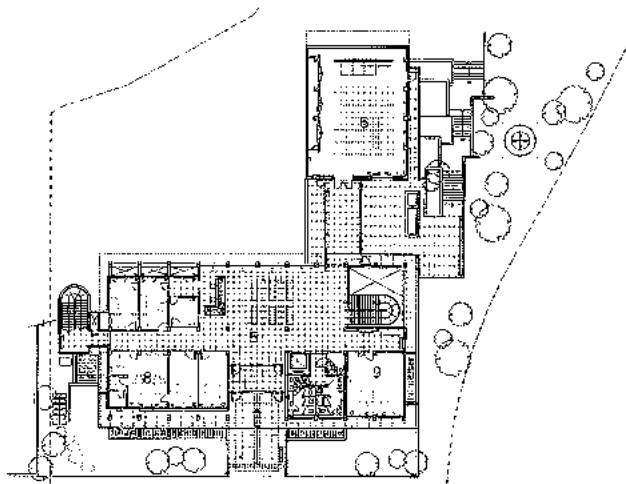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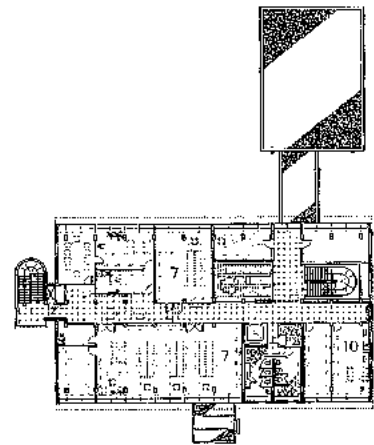
3층 중정



계단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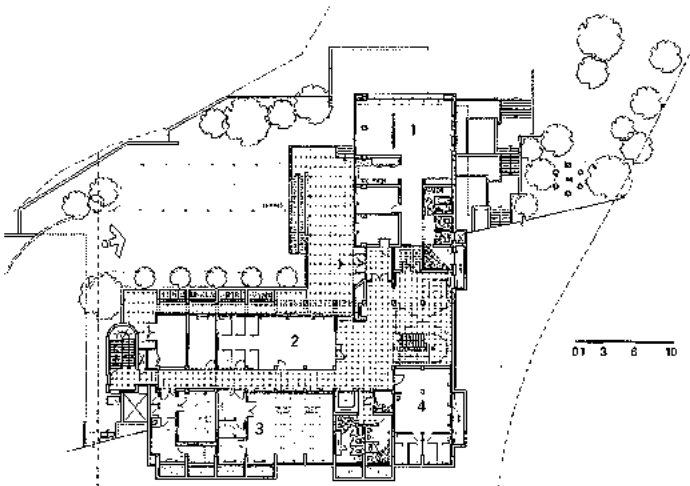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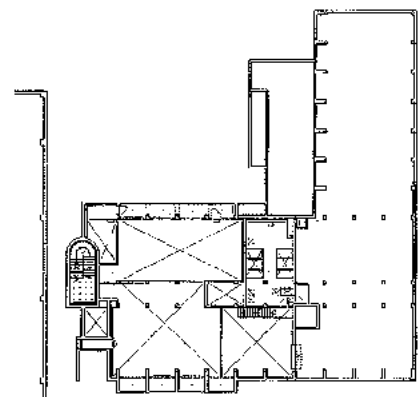


3층 평면도

- | | |
|----------|----------|
| 1. 낮방 | 6. 다목적실 |
| 2. 복리차로실 | 7. 사무실 |
| 3. 입상검사실 | 8. 차가진료실 |
| 4. 한방진료실 | 9. 예방접종실 |
| 5. 대기실 | 10. 휴게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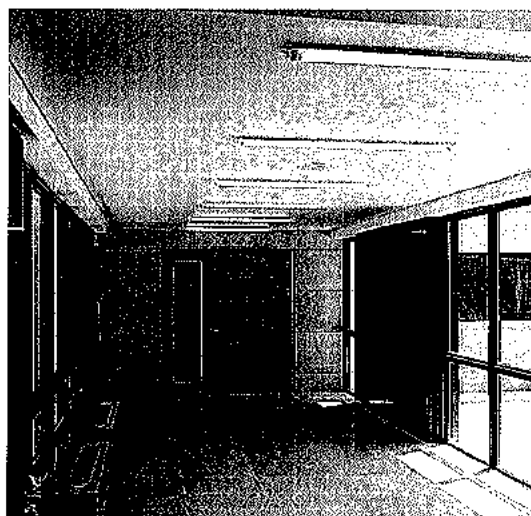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3층 복도 전경



보건소 주동과 다목적홀을 잇는 연결통로



계단실

‘흑백’ 혹은 ‘컬러’ : 기로(岐路)에 선 건축가 김승회(?)를 주시하면서

‘Black-and-white’ or ‘Color’: Observing
the architect Kim Seung Hoy on the crossroad

이동언 / 동명정보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by Lee Dong-Eon

얼마전 모임간지에 우리건축의 경향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기사가 난 적이 있다. 비록 짧은 글이지만 우리건축을 총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접혀진 사고가 숨어 있으므로 인용해 본다.

우리는 포스트모던 사회에 살고 있다. 한 개에 6백 원짜리 청량음료가 좋은 예다. 주황색은 오렌지 맛, 보라색은 포도 맛의 시대는 갔다. 파랑 노랑 분홍 연두, ... 인공의 빛깔임을 분명히 강조한 색깔들은 자연과 조응하지 않고 저 나름의 이미지를 구축하며 유통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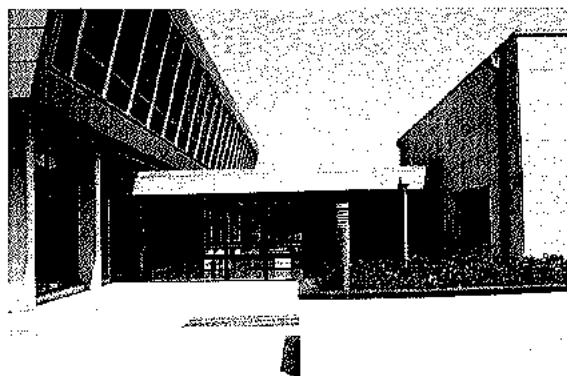
... 어린이들은 치과 입에 대기도 겁나는 파랑 음료수에 아이들은 환호한다. 수렁한 노랑, 달콤한 핑크, 짙은 투명

Not long ago there was a meaningful article in the papers abstractly showing the trends of our architecture. Though a short passage it was, as it had an inconspicuous speculation about our architecture in an overall view, I will quote it below.

We live in a post-modern society. A six hundred won soda would be a good example. The era where the color orange meant orange flavor and purple indicated grape has gone. Blue, yellow, pink, green... the colors that are emphasizing their artificiality with no accordance to nature, are being bought and sold, making an image of its own.

... children are ardent about these blue beverages that adults dare to take a sip. Shocking yellow, sweet pink, electrifying transparency, these are surely a new particular contract.

Who would have thought that the color of beverages would be red and blue that seem like ink mixed in water. These colorful beverages has passed by the forties and fifties, accustomed to the black Cola and transparent cider, the thirties, benevolent to the orange and purple Fanta, and managed to make its place in the young market. Nowadays kindergarteners are



기장보건소

특정한 약속이다. ...

도대체 청량 음료 색깔이 잉크 풀어놓은 것 같은 파랑이나 빨강일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을까. 검은 골라 무색 사이드에 익숙한 40~50대, 오렌지색 포도색 색색깔 헛디에 너그러운 30대를 세치고 이들 컬러 음료는 젊은 시장에 뛰어올랐고 그리고 성공했다. 이전 유치원생도 세 눈높이와 취미에 맞춰 ‘비빔이’를 사달라거나 ‘왕눈이’가 더 좋다고 제 주장을 편다.

‘여자 중학생용’ 상품으로 개발되었다는 H. O. T. 분홍 연두 파랑 세 가지 색깔이 있지만 이 중 어느 색이 강타 혹은 누니와 대응한다는 약속이 없다. 아이들은 그저 좋아하는 색깔의 이미지를 사는 것이다.

persisting their own eye-level and taste in choosing their toys.

Now in stock there is a H.O.T product made with pink, green, blue. But there is no promise of who the color indicates. The child just chooses the color by his own taste.

The main point of this passage is that our society is transferring from a manufacturer oriented, synthesized and standardized world into a consumer oriented diverse world. In other words, our paradigm is shifting from the notion of ‘same’ to ‘different’. People in their forties and fifties, that is, the black and white beverage generation to the colored Fanta generation in their thirties, and now to the new generation preferring color blazed beverages. This transition is a direct example of paradigm shift. As we are living in a society where the manufacturer is obliged to do anything according to the different tastes of the consumer in order to survive, it does seem natural that the world is becoming ‘colorful’.

The paradigm shift that has occurred in these sodas is now, in the late 20th century, happening in architecture also. It may be

이 글의 핵심은 생산자 중심의 전체적, 획일적 사고에서 소비자 중심의 다양성의 사고로 우리 사회가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동질'의 사고에서 '다름'의 사고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40~50대의 흑백의 음료세대에서 30대의 색색깔의 환타의 세대로, 다시 컬러음료를 선호하는 신세대로의 전환은 바로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생산자가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에 맞추어 '무슨 것'이든 다하여야만 시장의 경쟁 논리에서 살아 남을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가 이처럼 '알록달록'하게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20세기의 말인 이즈음 청량음료에 보이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건축에서도 읽혀진다. 청량음료처럼 다채롭게 연령별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대충 건축도 '흑백건축세대'와 '컬러건축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 흑백건축세대는 제도화된 집단이 이성을 통해 획일적으로 규범화된 건축의 정체성(identity)을 믿는 이들이다(자연과 조응하는 청량음료를 선호하는 세대들처럼 이들은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1:1로 대응된다고 믿는다). 이들은 건축은 무엇이다 라는 도식적 생각을 갖고 있다. 건축가들 중 일부는 이러한 편박이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사고방식대로 건축이 구축되었으면 '오케이'하고 고개를 끄덕인다. 이 부류의 건축가들은 그러한 편박이 방식으로 꾸준히 집을 지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도 의심치 않고 그렇게 평생을 꾸밈없이 살

아간다. 그들은 '길들여진 의미'를 떠나서 건축을 만나는 기회를 한번도 갖지 못했다. 그러므로 고정된 의미의 기의 밖에서의 기표의 만남은 상상조차 않는다. 맹목적인 습관으로 전체화된 것 혹은 큰 기의(signified)의 '일상성적인 맛'에 안주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존재의 이유'이다.

'컬러건축세대'는 주로 학벌이 높거나 유학파의 젊은 건축가들이 주종을 이룬다. 이들은 탈이성화 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 혹은 개별화에 대한 유별난 집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전체화된 일상의 맛에 안주하는 건축에서 벗어나 그것을 파편화시키려고 애쓴다. 그들이 사용하는 건축의 파편화 혹은 '다름'은 감수성을 통해 생성되는 다름이 아니라 논리적인 다름이다. 감수성을 상실한 다름은 쓰레기더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러한 다름을 건축적 책략으로 이용한다. 이러한 연유로 요즈음 '다름' 혹은 '타자성'의 회복이라는 이름 아래 파편화된 건축들이 대유행이다. 특히 '물성'이니 '텍토닉'이니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건축재료를 감수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내버려두는 경향이 이 부류의 건축가들에게서 강하게 일어난다. 맹목적으로 전체화되는 것을 '썩썩하게' 거부하고 파편화로서 억지화된 감각을 향유하는 것이 이 부류의 건축가들의 '떠도는 존재의 이유'이라.

흑백 혹은 컬러건축세대라는 이분법적 대세우기를 거부하고 양쪽을 동시에 넘나들면서 그 둘을 끊임없이 하

harder to distinguish diversely, like in the case of sodas, but a rough division into 'the generation of black-and-white architecture' and 'the generation of color architecture' is possible. The generation of black-and-white architecture are those who believe in the identity of a uniform and systemized architecture born by the reasoning of institutionalized people(these are the same generation favoring the sodas according with nature. They believe that the signifier and the signified should be in a one to one relationship). These people have a diagrammatized thought on architecture. some portion of the architects have this kind of obvious ideology. They nod their heads only when architecture is formed according to their ways. Architects included in this category live his/her whole life steadily, making obvious houses, without questioning, even once, his/her thought. They have never met the opportunity to think above the 'tamed meaning' of architecture. Naturally the acquaintance of the signifier with a new meaning different from the prevailing signified was impossible to them. Their only 'reason to exist' is to settle down on an ordinary signified in a passive manner.

The generation of color architecture are mainly the

young architects with high educational status or who have studied abroad. They have an imperative conception of de-rationalizing and have an extraordinary attachment to individualizing. So they unconditionally deny the ordinary and exert their efforts into fragmentizing architecture. Their fragmentization or differentiation of architecture is not produced on grounds of emotion but of logics. Though differentiation that has lost emotion is only mere rubbish, they utilize this as an architectural strategy. That is why, in these days, fragmentized architecture under the name of recuperation of 'difference' or 'individuality' is prevailing. Especially a tendency to use architectural materials without any relation to emotion while insisting 'tectonics' and 'material character' has strongly arose in this class of architects. The reason of the floating existence of these architects lies in the unconditional denial of uniformity and distorted taste for fragmentized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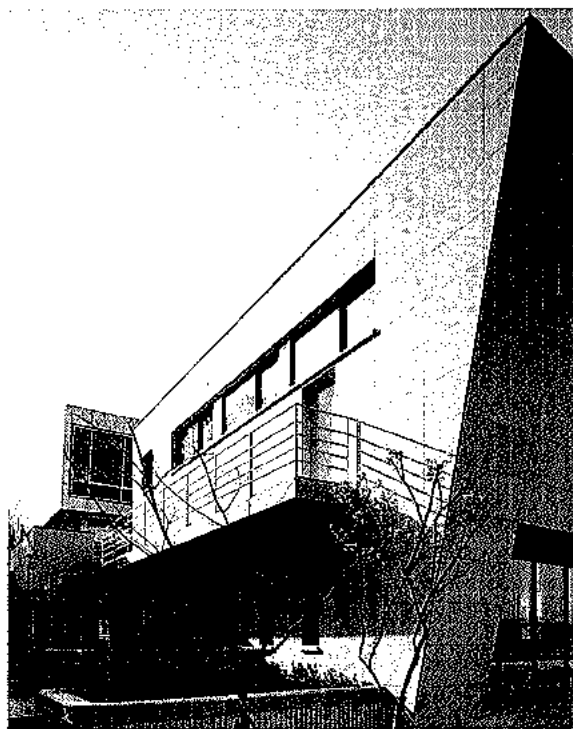
There is another category of architects who deny the simple division of color and black-and-white, but trespass the boundaries and merge the two into one. These architects consistently

나로 묶어내는 또 다른 부류의 건축가들이 있다. 이 건축가들은 자신의 건축적 사고를 끊임없이 의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신토불이(身土不二)의 몸으로 느끼는 총체적 감각은 확실히 믿는다. 그러나 그러한 감각들이 정확히 머리에 전달되어 조작화, 이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신토불이 몸으로 느껴진 감각들이 손으로 바로 전달되지 않고 '똑똑한' 머리에서 걸러져 건축화 되었을 때 그들은 심한 낭패감을 느낀다. 이것이 아닌데, 이것이 아닌데 하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런 연유로 그들은 이 사회가 이성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존습관이나 제도를 믿지 않는다. 그것이 신토불이 몸의 총체적 감수성을 옮겨오는 굴레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대신 그것의 근본이 되는 신토불이적 정서나 상상력(몸의 총체적 감수성)을 믿는다(이점에서 그들은 흑백건축세대와 유사하다. 그러나 기존의 기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근원적 틀을 믿는다). 그들은 몸의 총체적 감수성이 제대로 손에 전달되지 못하는 좌절 속에서도 그것의 가능성을 믿고 늘상 그 감수성의 복원을 감행한다. 이점은 컬러건축세대와 유사하다. 그러나 그들은 컬러건축세대와는 달리 파편화된 감수성에 쉽게 현혹되지 않는다. 그들은 일상성 속에 접착된 신토불이적 정서나 상상력을 늘 새로운 맛의 건축으로 재편한다.

기장군 보건소(부산광역시)를 상기의 세 관점으로 비추어 보면 독특한 맛을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관점들을 통해 건축가 김승희의 건축의 위치의 의미와 한계를 가늠하

question their architectural ideology. Also they have a confident belief in what they feel from themselves as an individual with a definite nationality. But these feels are not so clearly organized or rationalized. When the feel is not directly transmitted to the hands but becomes filtered in their 'smart' head, they feel enormous distress. They shake their heads in uncertainty and denial of the outcome. This is why they do not rely on the customs and institutions this society has established. These act as a restraint of the direct expression of their innate feels. But they do believe in the innate emotion inborn in their bodies(in this point of view they seem similar to the generation of black-and-white architecture. But they deny the already established signified and rely on its fundamental matrix). Even through failure of directly transferring the innate feel to the hands, they keep on trying, in belief of its possibility. This is similar to the generation of color architecture, but unlike them they do not become easily dazzled to fragmented emotions. They always edit the innate feelings and imaginations that lie in the everyday life, into an architecture with new taste.

Considering the three viewpoints discussed above,



기장보건소

고 더 나아가 간접적으로 우리 건축의 의미와 한계가 글 너머 혹은 행간에 접혀져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리라.

김승희는 한편으로는 흑백세대의 건축가이다. 그는 요즈음 젊은 건축가, 특히 '미국물'을 먹은 건축가답지 않다. 나는 한국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건축이 당연히 우리건

Kizang Health Center has a peculiar character. Through these view points the meanings and limits of architect Kim Seung-hoy can be measured, and furthermore the meanings and limits of our architecture can be found indirectly beyond this article.

Kim Seung-hoy is in a point an architect of the black-and white generation. He does not seem like the usual young architect of these days, especially for one who has studied in America. He doesn't seem to agree to the assertion that 'As I am a Korean the architecture I make is naturally Korean Architecture'. It looks as if he has a stem belief in context and locality. This could be felt in his sincere attitude towards the context of Kizang Health Center. During our conversation, he expressed his interest in the locality of Pusan repeatedly. Particularly he wa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of the sea encountered Kizang-gun where the building site lies. According to Kim Seung-hoy, unlike the flat plains of a rural village where regularly arranged fields give an emotion of uniformity, stability, and conservatism, the sea encountering Kizang gives a free and dynamic image. And in this project he made effort to express this feelings. The

축이다'라는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듯 보인다. 그는 맥락성 혹은 지역성을 굳게 믿고 있는 듯하다. 기장군 보건소의 맥락을 신중히 애쓰는 태도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다. 필자와의 대화 중에서 부산의 지역성에 대한 관심을 여러 번 표명하였다. 특히 바다를 낀 기장군에 위치한 부지의 관계성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었다. 기장은 바다가 인접한 지역이라서 규격화된 논밭으로 도배되어 심성이 획일화, 정착화, 보수화된 평야지역의 농촌과는 달리 어딘가를 마음껏 자유롭게 떠다니는 역동적 이미지가 잡혀진다고 김승화는 이야기한다. 그래서 기장군 보건소에서도 그런 느낌을 표출해 보고자 했다고 한다. 비상계단은 역삼각형을 땅에 꽂아 놓은 듯하여 부유하는 듯한 보건소의 매스전체를 묶어 주는 닳 말뚝 역할을 하는 듯하다. 흰-흰-날아가려는 매스를 잡아맨 계단, 침으로 직설적인 표현이다. 김승화는 그렇게 맥락의 맛(quality of context)을 자기 식으로 가느다랗게 붙잡고 있다. 이는 확실히 흑백건축세대의 논리다. 닳 말뚝에 매스를 묶으려고 하는 그의 의도의 숨은 뜻은 확실한 기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대 고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맥락의 해석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그는 맥락을 토막내어 해석한다. 군청을 맞대고 있는 보건소의 입구부분은 군청과의 관계맺기를 통해 2층 높이의 겸손한 형태로 잡아나가고 입구의 뒷면은 마주한 '자그마한'(그의 표현을 빌면 '굉장한') 돌벽과의 관계맺기를 통해 3층

triangular emergency stairways is like an anchor piercing down to hold the floating mass of the health center in place. A stairway holding down a mass trying to fly away - a very indicative expression. In this way Kim Secung-hoy is capturing his own quality of context. This is surely the logic of the generation of black-and-white architecture. The underlying meaning of his intention - the anchor holding down a mass - is that a particular signified exists. In other words, it is saying that there certainly is a home where we can depend on.

On the other hand, he makes a total different interpretation by slicing up the context. The entrance area of the health center which faces the district office is formed into a modest two story high mass in relationship with it. But he says that he endowed a three story high form to give a dynamic impression on the backside which interacts with the 'small'(actually he used the expression 'extensive') fields. At this point he discards the synthetic context reading of the generation of black-and-white architecture and attempts the fragmented context reading of the generation of color architecture. The diverse method of context reading, conditionally responding to the

높이로 역동적인 느낌을 주도록 형태를 다듬었다고 한다. 여기서 그는 일단 흑백건축세대의 총체적인 맥락읽기를 포기하고 그의 나이에 걸맞게 컬러세대 건축의 파편적 맥락읽기를 시도한다. 동서남북의 맥락에 따라서 조건반응적으로 대응하는 다채로운 컬러세대의 맥락읽기의 습성은 건축재료의 사용에서도 나타난다. 알루미늄복합패널, 석기질타일, 문경석, 노출콘크리트 등등의 외부 마감재료가 너무나 가지각색이다. 또한 석고보드 위 비닐페인트(벽면마다 문득문득 만나는 색색깔, 역시 눈 여겨 살펴볼 부분임), 자기질 타일, 마천석, 오크무늬목 등등의 내부마감 재료 역시 휘황찬란하다. 지역의 맥락의 맛과는 달리 동서남북의 이질적 맥락의 맛들이 별개로 중첩되어 만나는 것처럼 건축재료들이 서로 따로따로 만나 부딪친다. 그것들은 '맛' 없이 그냥 멀뚱히 마주하는 먼 산만을 쳐다보고 있다. 왜 그랬는가 라고 필자는 건축가에게 물었다. 예상대로 이었다. 습관적으로 제도화시켜 건축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의 물성이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건축재료들이 습관화된 관계맺기로 묶일 경우 재료의 물성이 사라지는 것은 틀림이 없다. 흑백건축세대의 건축에 대한 반란이다. 획일적이고 습관적인 묶임의 관계맺기를 통해서 전체성의 의미를 획득하느니 차라리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감수성을 느끼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멍하게 자주독립한' 감수성 이외에 무엇을 얻을 것인가.

건물전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역동성이라는 지

context of each direction- north, south, east, west- of the color generation, is manifested in the selection of material. Aluminum compound panels, stone tiles, granite, exposed concrete, and so on. The exterior finishing materials are so diverse. Also the interior finishing materials such as, vinyl-paint on plaster boards(the colors that unexpectedly appear on the walls catches the eyes), ceramic tiles, sand stone, and oak are also exquisite. Like the different contexts that lie in each direction, not as a whole, are piling up on each other, the different architectural materials collide with each other. They have lost 'taste' and just stand there without a soul. When the architect was asked why he had done so, an expected answer was said. He said that if materials that have been habitually institutionalized are used, the materialistic character would disappear. It is definitely true that materials lose their characteristics when institutionalized by habitual inter-relating. This is a rebellion against the architecture of the black-and-white generation. His intention is that he would rather feel the individual and fragmented emotion than acquire an overall uniform meaning by a habitual and simple synthesis of relationships. But here we gain an emotion that h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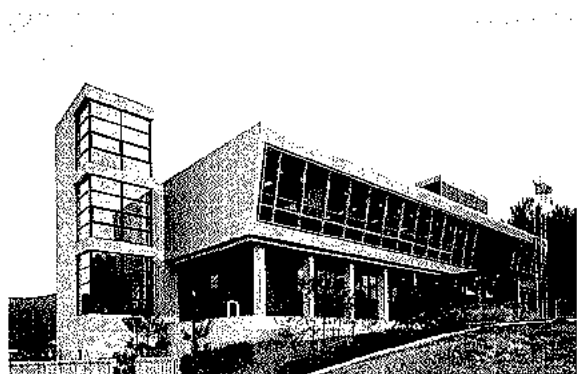
역성의 맛은 상기의 기술처럼 추상화하여 그대로 둔 채 다시 파편화된 맥락의 맛을 전후좌우로 취한다. 그리고 다시 건축 내외부의 재료들도 이질적인 것들을 형형색색 덩그렇게 모아 놓을 뿐 새로운 관계맺기는 아예 포기하고 있어 기존의 맥락의 맛에 익숙한 흑백세대를 당혹하게 하고 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것이 '패러독스'의 미학이라한다. 이질적인 것들이 모여서 새로운 맥락의 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그의 미학이라니 할 말이 없다. 그래서인지 건물 내부의 기능적 배치나 단면의 배열방식도 패러독스의 미학인 듯하다 (국지적으로는 옳으나 전체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뒤집혀진 듯한 건물의 배치, 풍광을 포식하고 있는 시골보건소의 3층에 갑자기 나타나는 도시형의 중정과 천창들, 주변의 산세의 흐름에 따라서 서쪽에 배열된 사무실들 등등). 모든 것들이 왜 저기에서 갑자기 저렇게 나타나는지 알 수 없다. 아마도 국지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체적인 안목없이 가느다란 실같은 논리로 조건반응적 대응을 파편적으로 했기 때문 이리라.

건축이란 무엇인가. 익숙한 것들을 계속 사용해 틀에 박힌 건축적 맛만을 상투적으로 내는 자가 아니다(반복적 관계맺기를 되풀이하는 건축엔지니어가 아니란 말이다). 또한 상투적인 맛을 싫어해서 이질적인 것들을 물성탐구란 이름아래 그냥 그대로 두는 자는 더더군다나 아니다. 이질적인 것을 버무려 맛을 내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은 건축을 포기하는

only 'absent-mindedly liberated', but nothing else.

The building endowed by dynamics at fist, attains a synthesized taste of locality, then is trembled by the fragmented taste of context. Also the all too many materials used in the exterior and interior finishings are just gathered together without searching for a new way of inter-relation. This makes the architects of the black-and-white generation started. According to his word it is the aesthetics of 'paradox', where different things gather together, not to make a new taste of context, but just to have its aesthetics as the way it is. As such was his aesthetics there were nothing much to say. It seems that is why the building interior, functional disposition, and the positioning of sections looks like the aesthetic of paradox also(There are things that are partially right, but as a whole hard to comprehend. For example, the dispositioning of the building that makes it look upside down, the sudden appearance of an urban mid-court and roof windows on the third floor, and the office placed toward the west).

It is impossible to tell why this is here and that suddenly



기장보건소

행위와 같다. 이질적인 것들을 모아 건축적 손맛을 내는 자가 '건축가'가 아닐까. 특히 신토불이의 손맛으로 맥락과 이질적인 현대의 각종 건축재료들을 '절로절로' 버무려서 일상성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건축적 장치(architectural device)를 만들어 내는 자가 '우리의 건축가' 이리라.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는 건축가 김승희 뿐만 아니라 우리 건축인 모두의 화두(사진 속의 추상적 의미가 아니라 온 몸으로 엄습해오는 의미)입에 틀림없다.

appears there. Maybe this is because an overall view didn't exist, but only a narrow logic that could only react intermittently to solve the diverse problems.

What is an architect? It is not one who produces obvious and repeated architectural taste using tools that are only familiar to oneself(He/she is not an architectural engineer doing the same job over and over). Moreover he/she is not one that leaves heterogeneous things as they are under the name of materialistic character because he/she detests the taste of convention. Leaving diverse characters as they are and not searching for a new taste is the same act as giving up architecture. Wouldn't an architect be the one who cooks up all the diverse materials to discover new taste? Especially one who cooks the feel of the innate emotion inborn with the diverse modern architectural materials to create an architectural device, that recuperates a new context in the ordinary. We could surely call one 'our architect'. Who am I and where shall I go? This certainly is the topic(that can be felt not known) not only for the architect Kim Seung-hoy, but for all of us in architecture.

제4차 아카시아건축상 수상작

The 4th ARCASIA Awards

아카시아 건축상은 1992년 파키스탄에서부터 시작되어 격년제로 아시아건축사대회(ACA)가 열리는 짝수 해에 수상작을 선정해 상을 해왔으나 1997년 도쿄 아사회에서 협의하여 1998년은 과도기로 작품선정은 그 해에 하고 시상은 이듬해인 1999년에 하기로 했고, 1999년부터는 학술토론회(ARCASIA Forum)가 열리는 홀수 해에 작품선정을 하고 이듬해에 상을 하게 되었다. 이는 짝수 년도에 몰려 있는 행사를 분산시키고자 함이다. 1992년이래 그 동안 4번에 걸쳐 수상작을 선정했고 금번 우리협회(KIRA)가 주최하는 제10차 아카시아 학술토론회에서 제5차 아카시아 건축상 작품을 선정하게 된다.

이 상은 '아시아라는 상황 속에서(in the Asian Context)'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디자인의 우수함을 격려하고 인정하기 위해 아카시아 행사의 일환으로 아사회에서 결정한 분야별로 수여하는 작품상이다.

심사위원회(Awards Ju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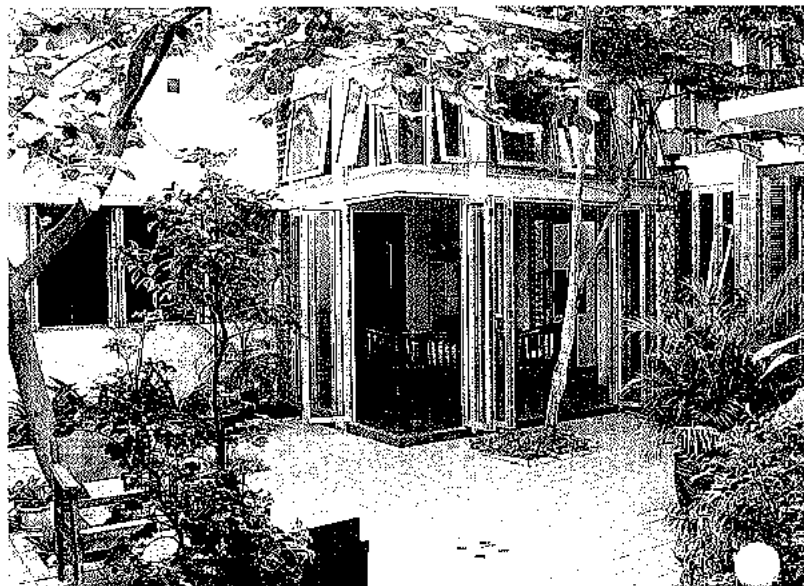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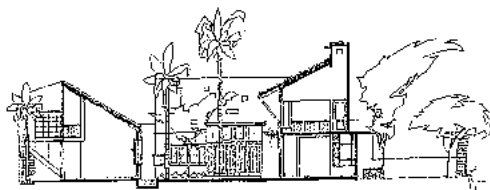
- ㄱ) 아카시아 회장
(Chairman ARCASIA)-(1)
- ㄴ) 작품상 집행위원장
(Convenor ARCASIA Awards)-(1)
- ㄷ) 아카시아 학술토론회 주최국 비건축분야 저명인사-(1)
- ㄹ) 아카시아 회장이 속해 있는 구역(ARCASIA zone)외의
두 개 구역에서의 저명건축가-(2)
- ㅁ) 아카시아지역(ARCASIA region)이외 지역에서의
저명건축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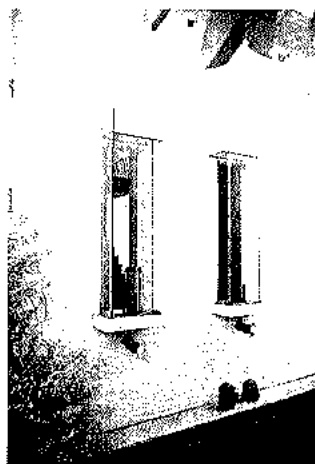
작품상분야(Awards Categories)

- A. 주거용 (Residential Projects)
 - A-1 단독주거
 - A-2 집합주거
- B. 도시공공 건축물(Public Amenity Buildings)
 - B-1 상업용 건물
 - B-2 여가, 휴양시설 및 호텔
 - B-3 연구소 및 종교건축
 - B-4 스포츠시설 및 공항시설
- C. 산업용 건축물(Industrial Buildings)
- D. 보존 시설(Conservation Projects)

Private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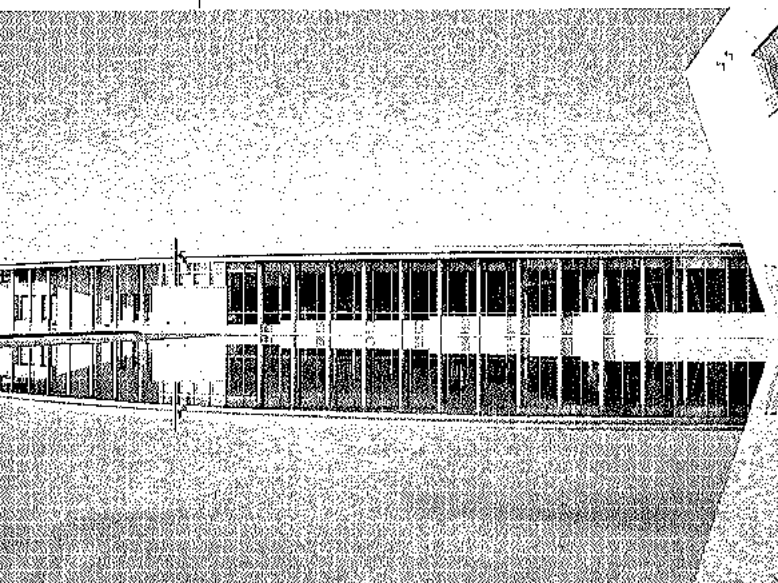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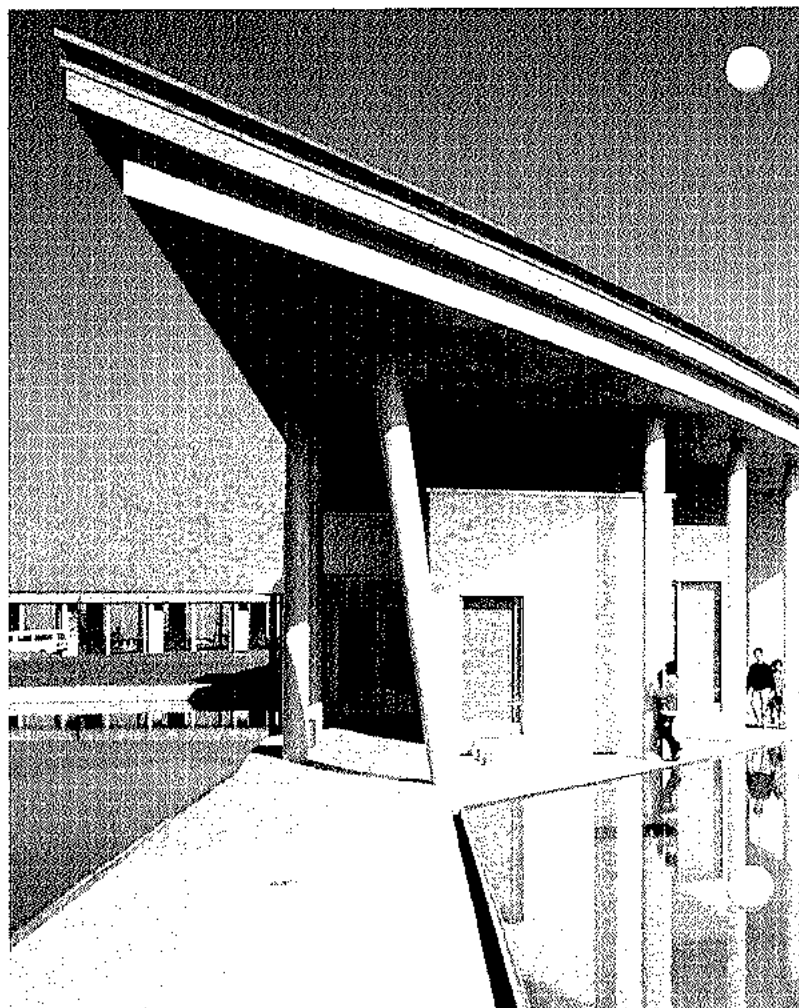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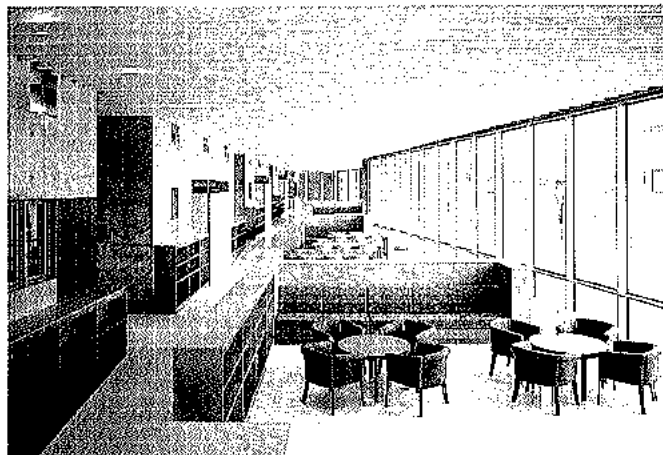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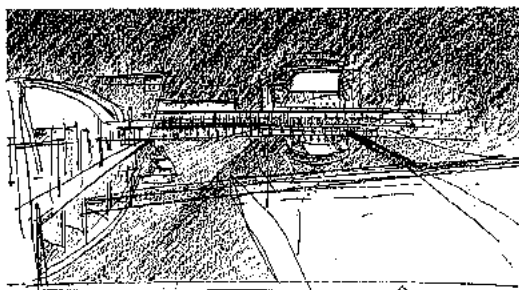
S. Soesanto & M. Susanti / Indone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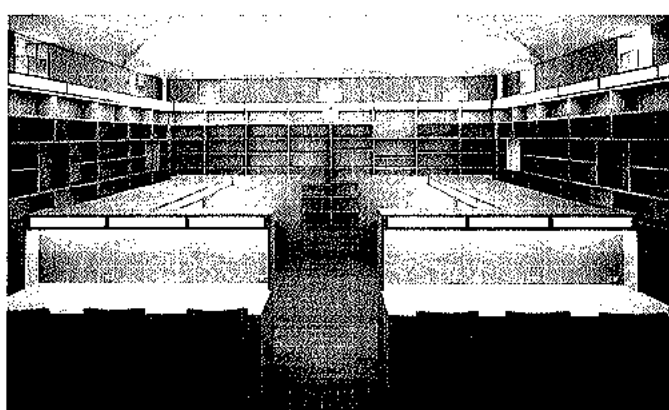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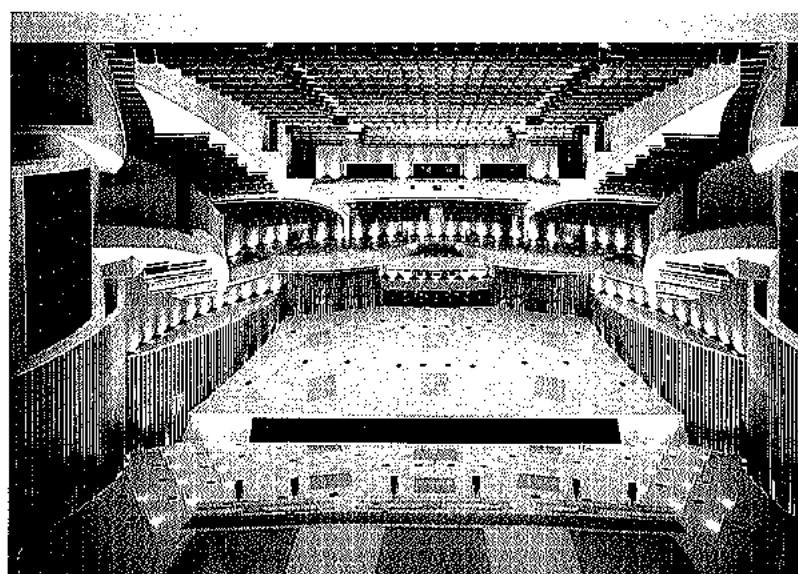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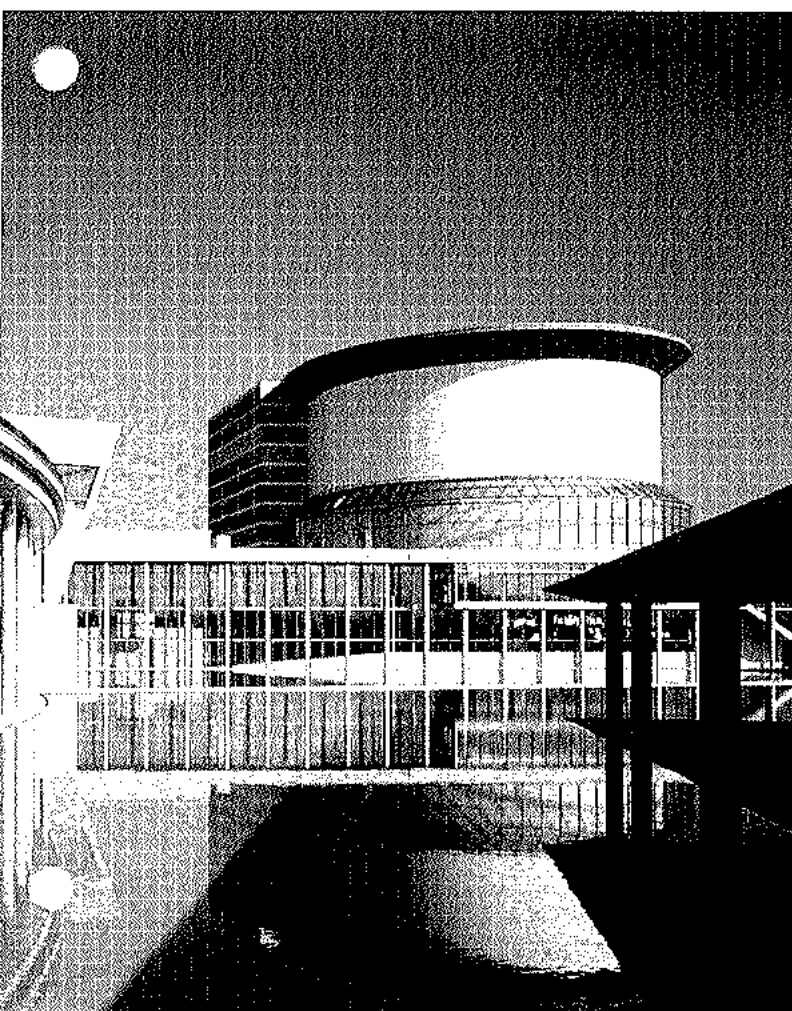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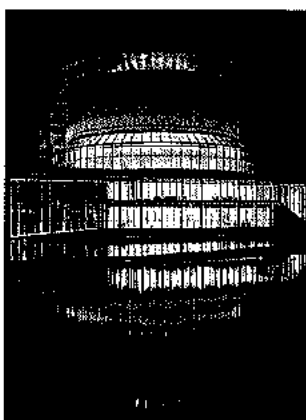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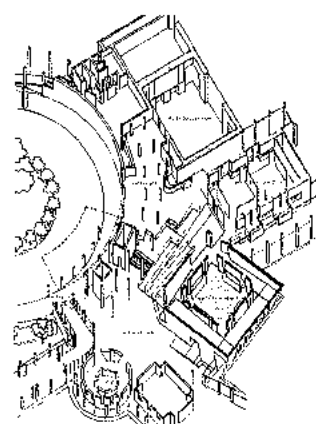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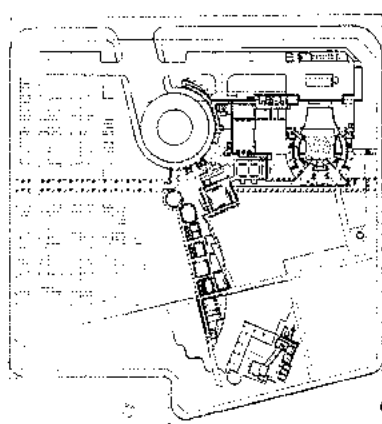




Kurobe City Intl. Cultural Centre, Col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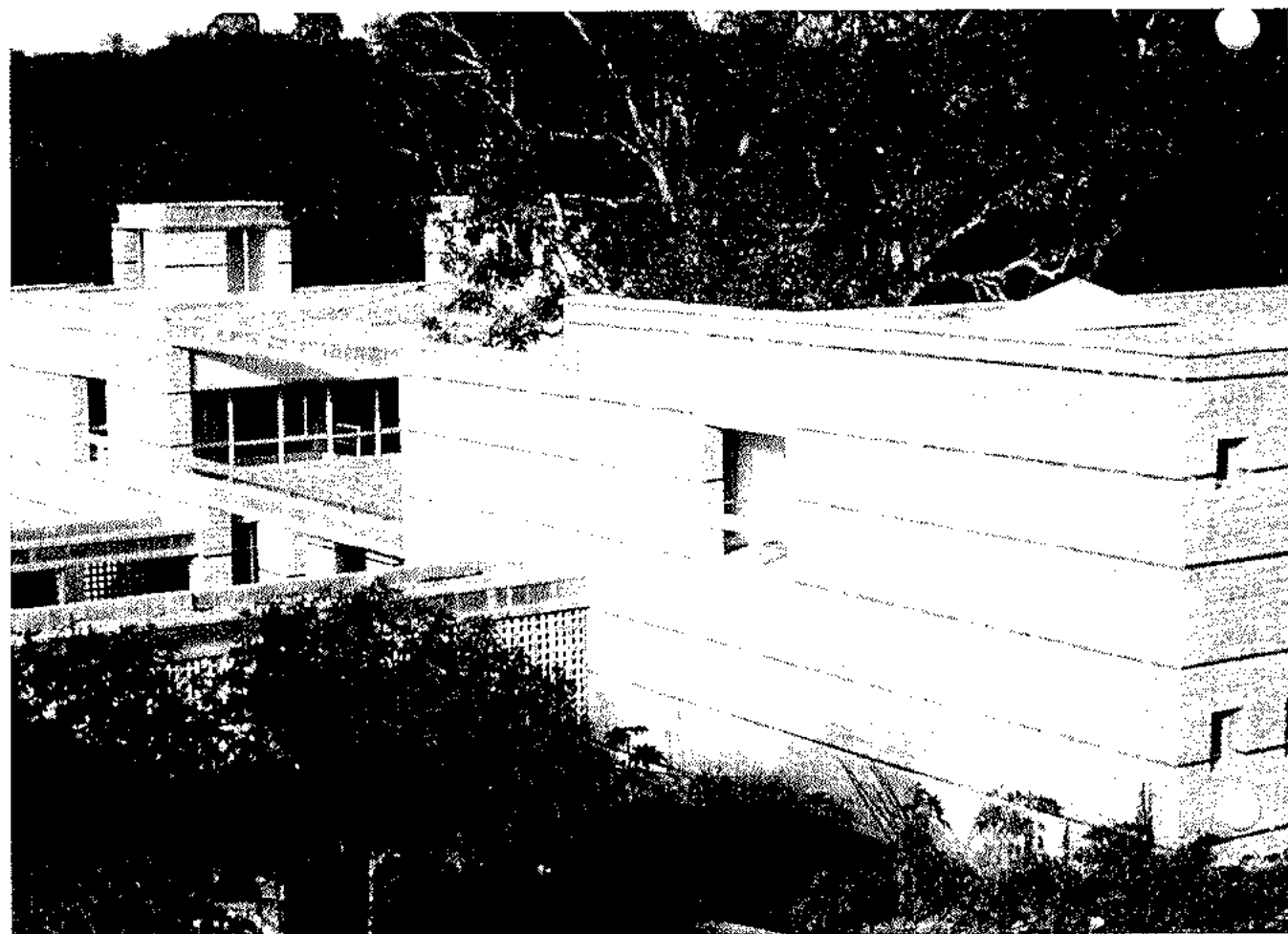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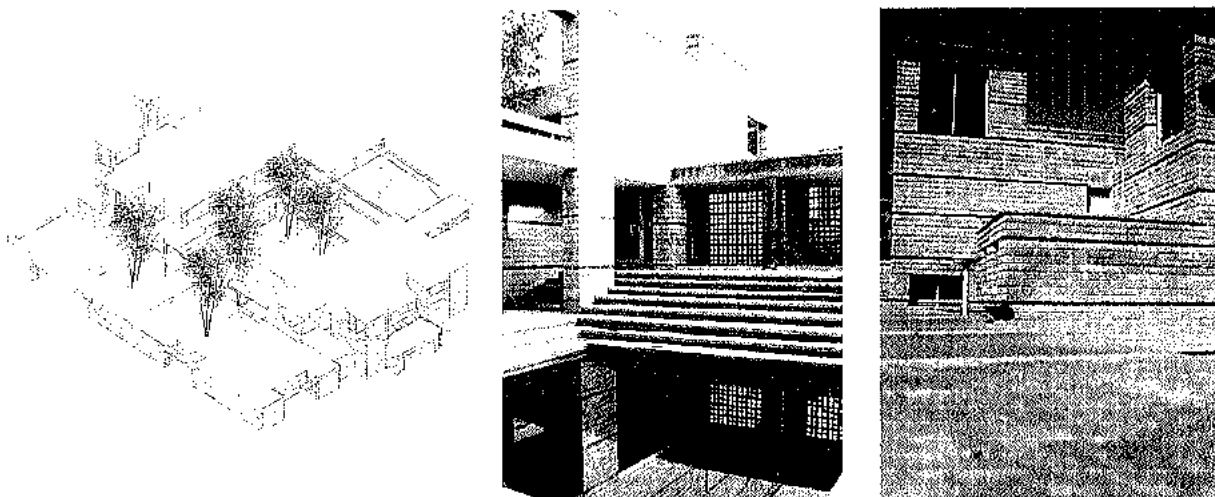
Chiaki Arai /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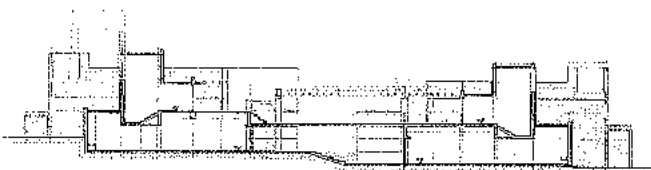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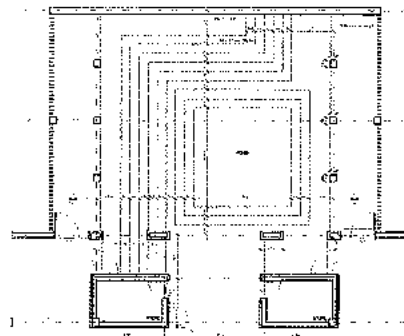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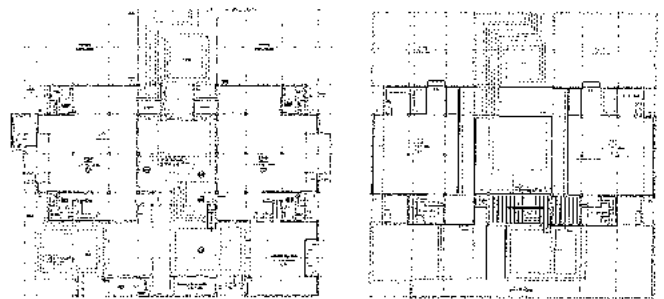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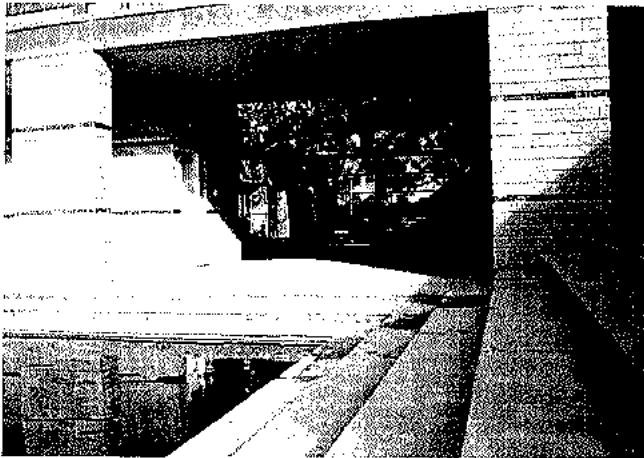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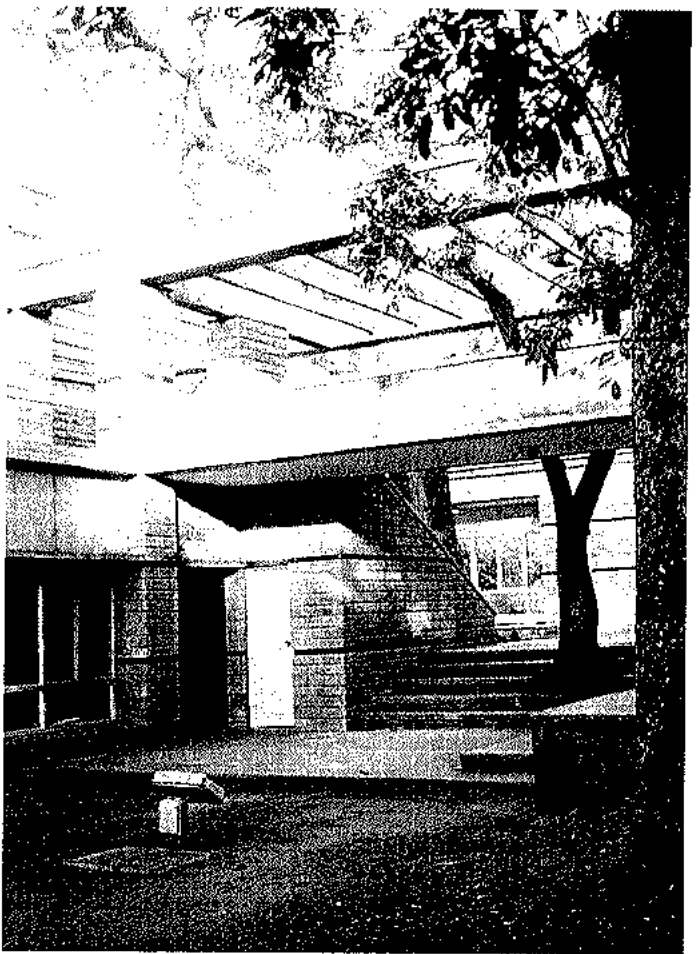




JRD TATA Digital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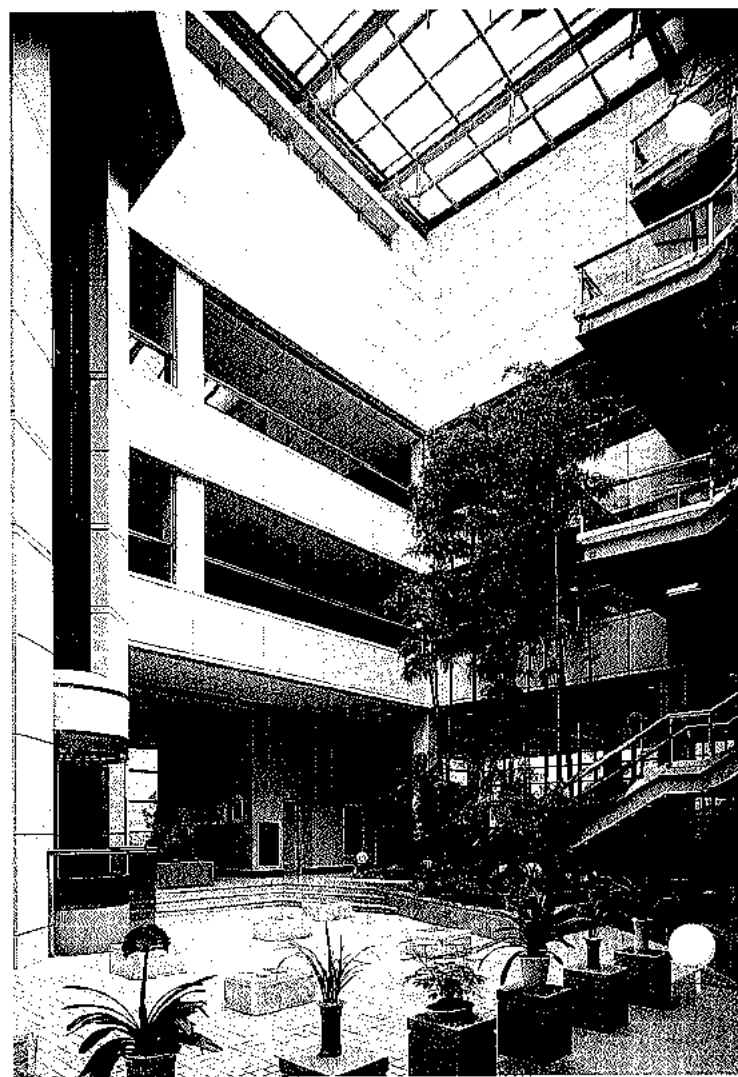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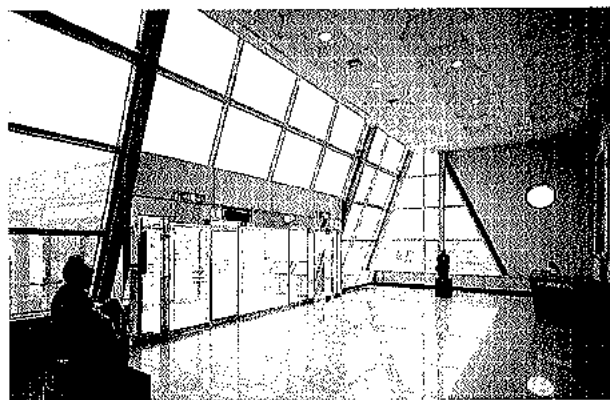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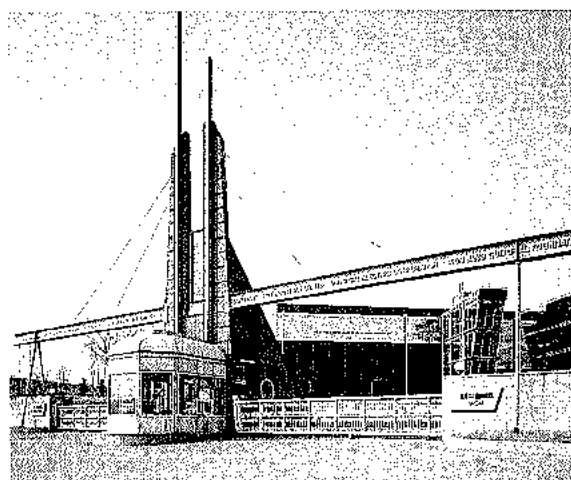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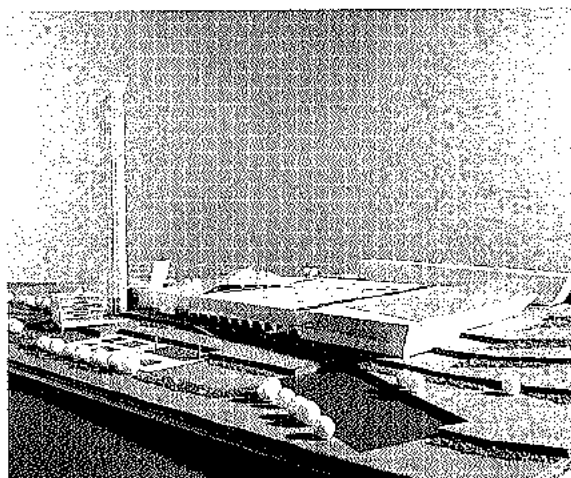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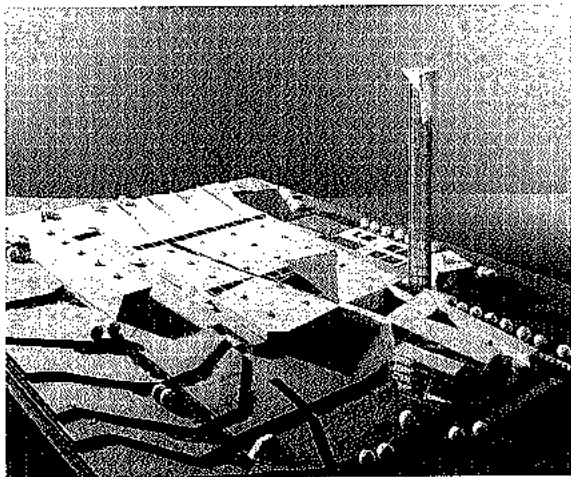
Sanjay Mohe, Chandavarkar & Thacker Architects (Pvt) Ltd. / In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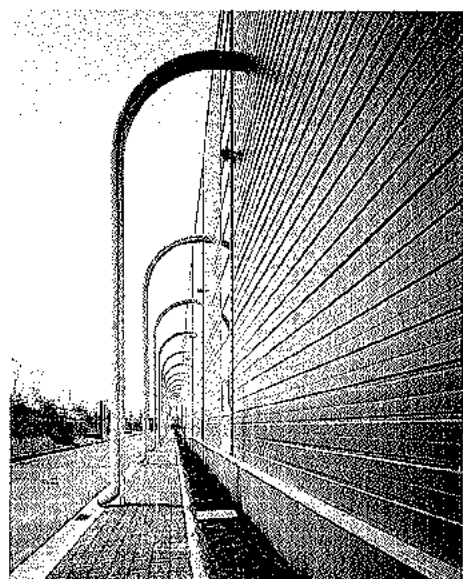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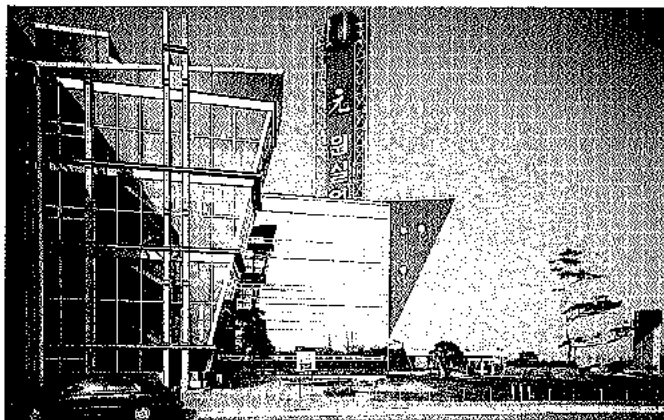




Ele-Port H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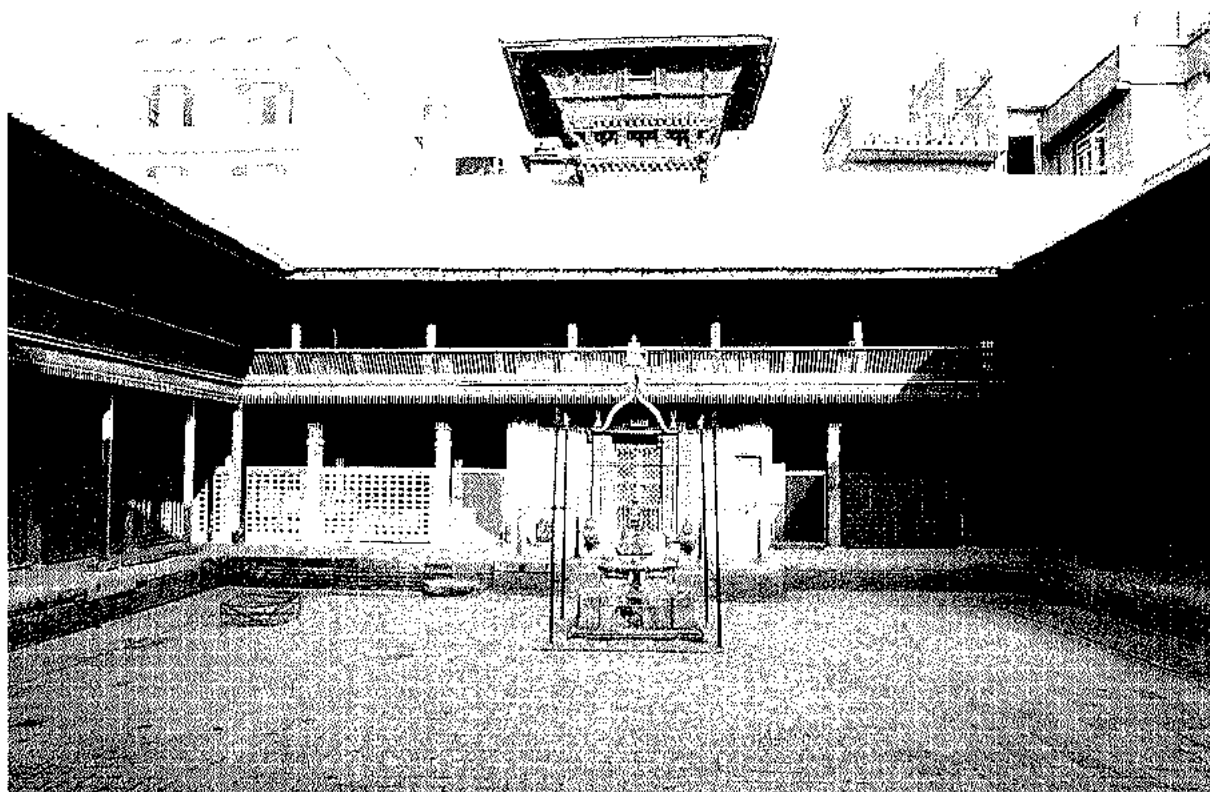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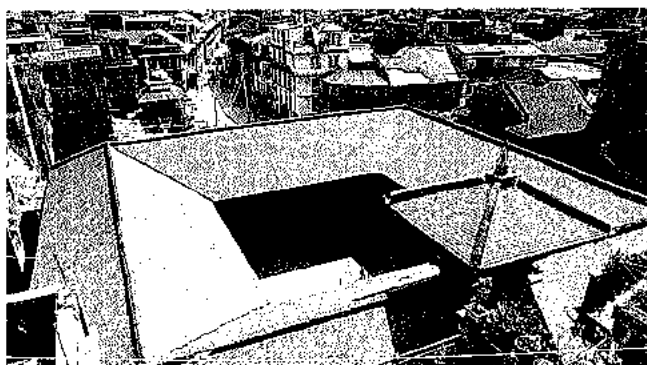
Choi Seung-Won / Korea





I Baha Bahi Buddhist Monastery Restoration Project 90-95

Dr. Katsuhiku Watanabe / Japan



지역건축탐방 [13] - 서울(하)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 Seoul

서울은 6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우리 나라의 심장 이자 얼굴이 되는 도시이다. 그러나 지난 30년간의 급격한 개발시대를 거치오면서 고도(古都)로서의 문화적 향기를 상실하였고, 매력과 특징이 없는 도시로 빠르게 변해 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다가올 21세기가 서울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더욱 필요로 할 것임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급격한 변화를 보인 도시이다. 서울의 도심부를 둘러싸고 있는 북악, 인왕, 낙산, 남산은 옛 모습을 지니고 있으나 그 내부는 과거의 모습을 찾기 어렵고, 다만 현대적인 모습만이 홀려 넘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서울은 물리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여 그 경계를 찾기 어려운 도시가 되어버렸다. 따라서 서울은 밝고 번영하는 모습과 어둡고 불합리한 모습이 공존하는 이상한 도시로서 인식되고 있다.

서울을 현재의 모습과는 전혀 새로운 환경으로 개발하고 보존할 수 있는 대책과 계획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공공과 민간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여 600년 고도의 역사성이 드러나고 걷고 싶은 인간적인 분위기를 간직하며 다양한 기능과 형태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로 바꾸어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번 특집에서는 서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역사적인 흔적과 오늘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대안을 회고하고 진단하며 모색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의 글을 마련하였다.

- 편집디렉터 손세관(중앙대학교 교수) -

Seoul is the capital of our country; the heart and face that has cherished a tradition and history for over 600 years. It is regrettable therefore that it has lost its cultural aura as an ancient city and changed into a city featureless and without charm as it has passed through its rapid period of development over the last 30 years. It is even more regrettable when we reflect on the fact that the 21st century may demand an identity and a character from Seoul more than ever before.

Seoul is an unprecedented city in this world in terms of its precipitously rapid change. Bukak, Inwang, Naksan and Namsan which surround the downtown area of Seoul still hold on to aspects of the past. However, it is hard to find these features of the past inside the city but so easy to find the modern features. Seoul has also accomplished enormous physical growth to the extent that it is hard to determine its boundaries. Accordingly, Seoul is recognized as a strange city in which bright and prosperous facets coexist with dark and unreasonable aspects.

This is the time when plans and countermeasures to develop and preserve the capital to realize a totally different environment from the Seoul of today are poignantly needed. We should put all our effort and wisdom into nourishing Seoul as a city where its 600 year history so evidently coexists in harmony with its functionality so that we might feel like cherishing its humanistic environment. In this special story, we have put together articles from many professionals in order to have an opportunity to review the past and the present, and to check alternatives for the future, under the common heading of Seoul.

- Editing Director Son-Sae Kwan (Professor, JoongAng Univ.) -

〈상편〉	북촌의 옛길과 도시 한옥 / 송인호	
	서울의 강남: 새로운 도시구조와 건축 / 류중석	
	서울의 근대건축(개화기~1945)탐방 / 김정신	
	서울의 현대건축: 역사적 도시속의 새로운 건축문화 / 최왕돈	
〈하편〉	서울 도시구조의 발자취 / 이상구	44
	서울의 가로공간: 다양한 시민 삶의 터 / 제해성	52
	미래의 서울 그리고 건축은 존재할 것인가 / 함인선	64
	좌담: 서울, 도시와 건축의 미래	71
	- 일시: 1999. 7. 23(금) 14:00~	
	- 장소: 대한건축사협회 회의실	

서울도시구조의 발자취

Tracing the Structure of Seoul City

이상구 / 경기대학교 건설공학부 교수

by Lee Sang-Koo / Professor, Kyunggi University

머릿글

조선의 신수도 서울의 도시건설이 완성되어가고 있던 1428년(세종10년) 서울의 인구는 109,372명이었다. 시가지의 영역도 면적이 16.5km² 정도인 도성안과 서대문 밖, 동대문 밖의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1998년 말 현재 서울의 인구는 10,321,496명에 이르고 시가지는 도성의 경계를 넘어 한강 이남으로까지 확산되어 그 면적이 605.52km²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서울의 도시성장온 도시인구의 증가, 증가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시가지의 생성, 새로이 생성된 시가지를 수용하기 위한 도시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서울의 도시성장의 과정을

Preface

The population of Seoul reached 109,372 by 1428 (10th year of Sejong Dynasty) when the construction of Seoul was almost completed as a new capital of Chosun. At that time, the territory of Seoul included the walled city sized 16.5km² as well as some parts outside the West Main Gate and East Main Gate. Six decades later, at the end of 1998, the population of Seoul reached 10,321,496 and its territory expanded to the southern part of Han River. Seoul now occupies an area of 605.52km² which is far greater than the enclosed walled city. Seoul has matured through such changes as the increase of city population, the construction of new cities to cover the increased population and the change of city structure to meet the demands for the newly created city areas. In this article I will briefly summarize the maturity processes of Seoul.

Early Chosun Dynasty: Shaping the city structure

The construction of Seoul as a new Chosun's capital started from Taejo Dynasty and ended during Sejong Dynasty. Taejo Dynasty launched the city construction by building National Shrine and Palaces (November 1394), distributing the land for housing (January 1395), completing the administration district as 5 Bu 52 Bhang (June 1395), completing National Shrine and Kyungbok Palace (September 1395) and building the walls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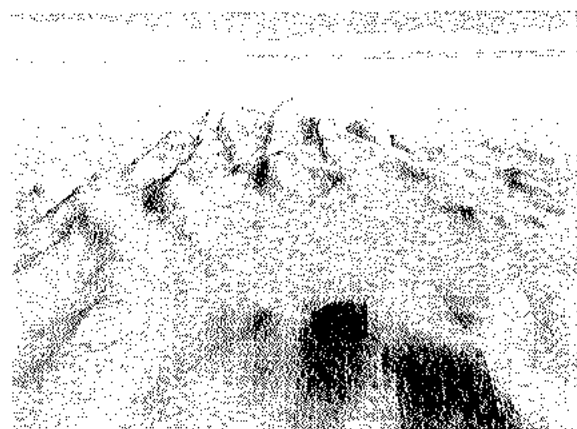
조선전기: 도시구조의 형성

조선의 신수도 서울의 도시건설은 태조에서 세종에 이르는 시기에 이루어졌다. 태조에 의한 도시건설은 종묘와 궁궐의 공사(1394년 11월)로부터 시작되어 주택을 건설할 대지의 분배(1395년 1월), 5부52방의 행정구역의 확정(1395년 6월), 종묘와 경복궁이 완성(1395년 9월), 성곽의 건설(1396년 1월 시작)로 이어졌다. 그러나 정종의 개성환도로 잠시 서울은 방치되었다. 이후 태종이 서울로 재천도하여(1405년) 시전행랑(市廳行廊)을 건설하여(1412년) 간선도로의 노선과 폭원을 확정함으로써 다시 시작된 신수도의 건설은 세종의 성곽개축(1422년)과 개천정비공사의 완료(1430년)로 일단락 되었다.

태조·태종·세종에 의한 신수도의 건설로 종묘와 궁궐 및 관아 등의 주요시설들의 입지, 간선가로체계, 도시의 경계가 확정됨으로써 도시구조의 기본 틀도 결정되었다. 이렇게 결정된 서울의 도시구조는 무엇보다도 삼국시대 이래 이땅에서 이루어진 도시건설의 경험 위에 서있는 것이었다. 서울의 도시구조를 결정 지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입지가 제공하는 자연지형이었다. 서울의 도시입지는 형태적으로 삼국시대

(launched in January 1396). However, the construction efforts stopped when Chungjong Dynasty moved its capital to Kaesung. However, during Taejong Dynasty the capital was moved back to Seoul (1405). Taejong started building the city by constructing the city market buildings (1412) and setting up the city street route and width. Sejong Dynasty completed the city construction by rebuilding the walls (1422) and completing the city stream reformation.

In Taejo, Taejong and Sejong Dynasty, the foundation of Seoul such as the location of major facilities, i.e. National Shrine, palaces and government offices, the streets and boundary. The basic outlay of Seoul was based on the traditional city construction experiences from Samguk era. The most important element which determined the structure of Seoul was the



(그림 1) 남쪽에서 바라본 서울의 지형
Seoul's configuration of the earth viewed from the south

이래의 포곡식 산성을 원형으로 하고 있다. 북악-인왕산-목멱산(남산)-낙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를 도시의 경계로 삼아 사방을 위요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고구려의 포곡식 산성의 전통이 서울로까지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의 도시입지는 13년에 걸친 논란 끝에 결정되었다. 이렇게 길고 복잡한 입지선정과정은 필요했던 것은 우리의 도시건설 전통이 입지가 제공하는 지형조건에 순응하고 나아가 지형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입지의 선택이 도시의 물리적 구조 및 형태까지 결정지움으로 인해 도시를 건설할 장소의 선택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북악-인왕산-남산-낙산의 줄기는 도성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중 인왕산-북악-낙산 구간과 남산일대는 상대적으로 강한 위요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서쪽의 인왕산과 남산사이 그리고 동쪽의 낙산과 남산 사이는 비교적 평탄하여 성 내외로 평지가 이어지고 있었다. 즉 도성내부는 북악의 남사면, 남산의 북사면, 그리고 그 가운데에 동서방향으로 이어진 평탄지역 등 입지의 환경적 조건이 다른 세가지 성격의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중 환경여건이 가장 좋은 북악의 남사면에 주요 도시시설들인 궁궐, 관아들과 고급주택가들이 들어섰고, 상대적으로 환경여건이 좋지 않은 남산의 북사면에는 서민주택가가 형성되었다. 또한 북악의 남사면인 북촌과 남산의 북사면인 남촌이 만나는 중앙지점에 동서방향으로 종로가



(그림2)서울의 지형과 조선시대의 도시구조
Seoul's configuration of the earth and the city structure in Chosun

만들어져 도시생활의 중심축으로서 상업기능을 수행하였다.

가로체계 또한 지형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 도성의 성문의 위치는 자연지세상 안과 밖이 트인 지점에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문이란 안과 밖을 연결하는 장치로 연결할 시가지나 길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며, 길이나 시가지의 형성은 그것이 가능한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에 가능한 장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왕산과

natural configuration of the earth. The shape of Seoul is the walled city surrounded by mountains which originated from Samkuk era. Seoul is surrounded by mountains like Mt. Pukak, Mt. Inwang, Mt. Mokmyuk(Mt. Nam) and Mt. Nak, which made the city boundary for Seoul. It shows that the tradition of the walled city surrounded by mountains has been handed down to Seoul from Kokuryo era.

The location of Seoul was determined after 13years' long debate. Our ancestors took such a long period because our city construction tradition had to adapt to the natural configuration of the earth as much as possible and to fully utilize all the merits of city. The location determines the physical structure and shape of the city, which make the decision for selecting the location very serious.

Mt. Pukak, Mt. Inwang, Mt. Nam and Mt. Nak surround all sides of the capital. Among them, Mt. Inwang, Mt. Pukak, Mt. Nak and a part of Mt. Nam encircle the city with relatively steep sides while the area between west Mt. Inwang and Mt. Nam and between east Mt. Nak and Mt. Nam encircles relatively flat. This encircling provides level ground inside and outside of the walled city. It means that the walled city composed of three types of area with different natural configuration of the earth, which are Namsamyeon of Pukak, Pukamyeon of Mt. Nam and the lined level ground between them. Among them, Namsamyeon of Pukak has the best environment where major city facilities such as palaces and housing for wealthy people are located. On the other hand, common people's housing is located in Pukamyeon of Mt. Nam.

Also, Chongro street was built going from the east to west at the intersection of Pukchon (Namsamyeon of Pukak) and Namchon (Pukamyeon of Mt. Nam). Chongro Street played a role as a city's central axis for commercial function.

Shaping of city street system was mainly based on the configuration of the earth. Locating the gates was limited to its surrounding areas, which was open to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walled city. A gate is a construction, which links the world between the inside and outside and gates can be built where there is a city or street to be linked and shaping of a city or street can be done only in the place with possible configuration of the earth. It limits the location of gates. There were Toneui Gate (West Main Gate), Soeui Gate (West Gate) and Sungrye Gate (South Main Gate) between Mt. Inwang and Mt. Nam, Heunginji Gate (East Main Gate) and Kwanghee Gate between Mt. Nak and Mt. Nam, Hyehwa Gate (East Gate) between Mt. Pukak and Mt. Nak and finally Changeui Gate (Jaha Gate) between Pukak Gate and Inwang Gate. Many gates were located around the east and west wall and most streets were linked to these gates, which resulted in streets leading to east and west directions. Chongro, one of the most important streets, penetrates the city from the east to west. The main palace, Kyungbok Palace, was located under the main Pukak Mountain and Changduk Palace was located under the second main mountain Eunbong. To link these palaces to the main street Chongro, the north and south direction streets such as Sejongro and Tonhwamunro were established. Since Sejongro and Tonhwamunro were slanted to the west, Namdaemunro was set up from current Chongro

남산 사이에 敦義門(서대문), 昭義門(서소문), 崇義門(남대문)이, 낙산과 남산 사이에 興仁之門(동대문)과 光熙門이, 북악과 낙산 사이에 惠化門(동소문)이, 그리고 북악과 인왕산 사이에 彰義門(紫霞門)이 자리잡게 되었다. 성문들이 성곽의 동서방향에 근접하여 밀집하고 있었고 간선가로란 이들 성문들을 연결한 도로일 수밖에 없으므로 자연적으로 동서방향이 우세한 간선가로체계가 만들어졌다. 도성안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종로가 가장 중요한 간선가로는 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도성의 주산인 북악아래 주궁 경복궁이 배치되고 부주산격인 응봉아래 창덕궁의 위치가 정해짐으로 인해 이들 궁궐과 도성내 생활의 주축인 종로를 연결하기 위해 남북방향 간선가로인 현재의 세종로와 돈화문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주궁인 경복궁과 종로는 열결하는 세종로와 남대문의 위치가 서쪽으로 치우쳐 있으므로 현재의 종로네거리에서 시경앞 남대문으로 남대문로가 남측 추가로가 자리잡게 되었다.

종로와 소로 등 보통 길들은 간선가로를 보다 더욱 지형과 밀접하게 형성되었다. 서울의 가로체계는 물길들 즉 수계와 닮은꼴을 하고 있다. 도성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종로가 있듯 청계천이 종로 바로 남쪽을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있다. 북촌 즉 북악의 남사면의 물길들은 골을 따라 남쪽으로 흘러 청계천으로, 남산의 북사면인 남촌의 물길들도 역시 골을 따라 북쪽으로 청계천으로 흘러들어간다. 이렇게 모든 물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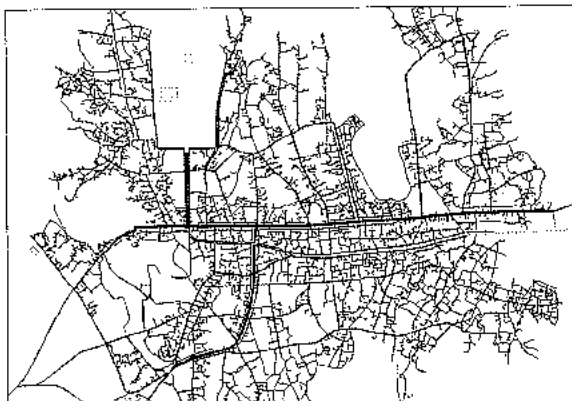
이 북에서는 남으로, 남에서는 북으로 흘러 청계천에서 만나듯 길들도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이어져 종로에서 만나고 있다. 대체로 이렇게 물길과 같이 남북방향으로 난 길들은 종로급 길들이고 소로들은 여기서 다시 동서방향으로 갈라져 들어간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길은 지형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서울의 시가지는 이렇게 지형과 어우러지며 형성되었다.

조선후기: 도시영역의 확장

조선후기는 도시의 시대였다. 17세기의 농업 생산력의 증대를 바탕으로 18세기에는 상업의 발달이 본격화되었다. 상업발달의 중심은 도시였고 서울은 전국 최대의 상업 도시였다. 전국의 물자와 사람이 서울로 몰려들었고 도성 안은 너무 좁아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도성 밖으로 주거지역이 확장되어갔고 한강변의 나루터들을 중심으로 또한 육로로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에 도매상업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적 시가지들이 형성되어갔다. 용산, 서강, 마포, 서빙고, 두모포(성동구 옥수동)는 한강의 수운을 통하여 전국의 물자가 몰려드는 곳이었고, 누원(의정부시 호원동)은 동북부지방으로부터 육로로 서울로 들어오는 입구였다. 송파는 한강의 수운을 끼면서 육로상으로도 광주, 이천을 통해

intersection to South Main Gate in front of the city police station.

Roads and lanes were shaped in closer relationship with the configuration of the earth than streets. Street system of Seoul resembled the paths of water. As there is Chongro penetrating the city, there also flows Chonggyechun from the west to east in the right south of Chongro. Streams of Pukchon (Namsamyun of Pukak) flow toward the south until Chonggyechun, while streams of Namchon (Puksamun of Nam Mt.) flow toward the north until Chonggyechun. As all streams meet in Chonggyechun after flowing from the north to south or from the south to north, all streets meet in Chongro after coming from the north to south or from the south to north. (Picture # 2) Most of ways that have the same direction as the streams from the north to south or from the south to north are road level and from there lanes branch to the east or



(그림3) 1900년대 초 서울의 가로체계 복원도
Revived picture of Seoul's street system at the early 1900s

west. Streams, which run from a higher altitude to a lower altitude, most reflect the configuration of the earth. Seoul was shaped in combination with the configuration of the earth.

Late Chosun Dynasty: Expanding the city territory

Late Chosun was an era of city. In 18th century, commerce was developed in full scale based on the increased productivity of agriculture in 17th century. Commercial development was focused on cities and Seoul was the biggest commercialized city nationwide. All the materials and people gathered in Seoul and the city was too small to cover them all. For the increased population, the resident area was expanded to outside of the walled city and the wholesale commercial area was established around the decks of Han River or the entrance to Seoul. Yongsan, Seogang, Mapo, Seobinggo and Tumopo (Sungdonggu Oksudong) were areas where all materials gathered from the rest of the country through transportation by water and Nuwon (Euijungbu City Howondong) was the entrance to Seoul from the northeast region. Songpa was connected either by water or by land course as an entrance to Seoul from Kwangwondo and the south region through Kwangu and ichon. Majukgon and Kwanchon became the satellite cities as an entrance from the middle and south region through Yongin and Suwon respectively. Centering in the walled city, commercial area was set up in transportation strategic points such as the southeast area, northeast area and around Han River.

강원도와 중부 남부 지방으로부터 서울로 들어오는 입구이기도 한 위치였으며, 중부 및 남부지방으로부터 용인을 경유한 길목인 말죽거리와 수원을 통한 길목인 과천도 위성도시화 하였다. 이렇게 성내를 중심으로 동남방, 동북방과 한강변으로 교통상의 요충지에 상업적 시가 형성되었다.

조선초기의 서울의 상업활동은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었다. 국가가 간선도로변에 행랑을 건설하고 상업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서울의 시전(市廛)이 생겨났다. 시전이 도시상업활동의 주축을 이루는 상황은 조선중기까지 계속되었으나 인구가 증가하면서 시전만으로는 상업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민간상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민간상인들은 시전외곽에서 상권을 장악하고 자본을 축적하여 도매상으로 발달, 시전상인들을 위협하는 세력으로까지 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민간상인들이 시전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성내를 피하여 외곽의 길목을 장악하여 감에 따라 외곽에 상업적 시가지들이 형성되어간 것이었다.

18세기 말 도성밖의 인구는 도성내의 인구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까지 성장했다. 1789년 마포와 용산의 인구는 대략 15,000명, 서강 6,000명, 두모포 4,500명, 서빙고와 동빙고, 송파, 누원, 말죽거리 그리고 과천의 인구가 3,000명 부근이었다. 당시 전국에 인구 5천 이상의 도시는 49개에 지나지 않았다. 마포와 용산의 15,000인구는 대구보다

많은 것이었고, 서강의 6,000인구도 경주나 안동과 비슷한 규모였다. 조선후기의 상업적 시가지들이 얼마나 번성한 곳이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조선후기 도성밖의 상업적 시가지들은 도성내의 시가지와 연속되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도성의 외곽 교통상의 요충지점에 점적으로 성립된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로의 길목마다 특히 한강변인 남쪽에 상업중심의 시가지들이 번성하게 되자 남대문, 서대문으로부터 마포, 용산, 서강쪽으로는 남북방향 축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남대문 밖에는 이미 七牌시장이 번성하고 있었으며 서대문밖은 개성으로 가는 길목임으로 일찍부터 시가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도성내와 남대문밖 서대문밖 지역과 한강변의 마포, 용산, 서강이 연결되어지는 형식으로 새로운 남북축이 형성되어 갔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용산을 점유하고 경인선, 경부선의 철도개통으로 본격화되는 한강을 향한 남북축형성의 도시구조상의 변화는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1900년 경인철도의 개통으로 철도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도성 외곽의 상업적 시가지들은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다. 물자의 수송이 철도중심으로 바뀌게 되면서 나루터나 육로상의 교통의 요지들은 물자유동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러나 조선후기를 통하여 정비된 길들은 1960년대 이후 자동차가 주된 교통수단이 되

In early Chosun, commercial activity in Seoul was strictly regulated by the reigning dynasty. The reigning dynasty set up small buildings along the streets and provided the commercial function, which was the start of Seoul market. Until mid Chosun, city markets were the major axis in the city commercial activities but as population grew the city markets could not satisfy all the needs. This allowed acceleration of the commercial activity for private merchants. Private merchants seized the power outside of the city market, gradually accumulated wealth to become wholesalers and finally grew up to threaten the city market merchants. As these private merchants held the power around the way to the walled city, which was dominated by the city market merchant, external commercial area was gradually shaped.

At the end of 18th century, the population outside the walled city grew as large as that of the inside the walled city. In 1789, the population of Mapo and Yongsan was approximately 15,000, Seogang 6,000, Tumopo 4,500, Seobinggo, Dongbinggo, Songpo, Nuwon, Maljukgori and Kwanchon 3,000. At that time there were 49 cities with a population of over 5,000. The population of Mapo and Yongsan was bigger than Taegu and Seogang was as same level as Kyungju and Andong. It shows how prosperous the commercial area was in late Chosun.

In late Chosun, the commercial area outside of the walled city was not shaped in connection with that of inside of the walled city. It was formed at the transportation strategic points outside of the walled city. As the commercial area prospered around the entrance to Seoul, especially in the south

around Han River, the north to south axis was formed from South Main Gate and West Main Gate to Mapo, Yongsan and Seogang. Chilpae market had already grown up outside of South Main Gate and the city was expanded to outside of West Main Gate since it was the way to Kaesung. Therefore, new north and south axis was created connecting the inside of the walled city, outside of South Main Gate and the area around Han River such as Mapo, Yongsan and Seogang. At that time, it was already started to change the city format to the north and south axis facing Han River, which was accelerated by Japanese ruling Yongsan and opening up railroads like Kyungin Line and Kyungbu Line.

In 1900 when the new transportation called Kyungin railroad was introduced, the commercial activities outside of the walled city declined drastically. Since the transportation for carrying the materials changed to the railroad, the importance of transportation strategic points in water way or land way diminished. However, the roads established in late Chosun gave a new meaning when the automobile became the new way of transportation from late 1960s and they expanded the road network and system. The location of bridges on Han River, which links the north to south, was mostly the location used for decks and the main roads, were mostly the entrance to Seoul at that time.



(그림4) 조선 후기 도성외곽의 상업적 시기
Commercial city area outside of the walled city in late Chosun

면서 도로망을 확충하고 도로체계를 정비하게 되면서 새로운

Era of opening of harbors to foreigners - Japanese ruling: Expanding the city territory and forming the north and south axis

Going through the era of opening harbors to foreigners and Japanese ruling, Seoul made major changes to the city structure that is kept through Chosun. After opening the harbor, Japanese settled down Pukseosamyun of Mt. Nam below the south of Chonggyechun and Yongsan which is outside of the walled city. Northern area of Chongro (Pukchon) was the residency for the middle class and high class while southern area (Namchon) was for the common people. Japanese settled down mainly in Namchon since it was relatively easy to purchase land or pay the rent and in Yongsan where they stayed for a while to repress Tonghak revolution in 1894. Especially Yongsan area was fully developed when Han River Railroad Bridge and Kyungin railroad opened. Japanese military started to stay around Yongsan and Itaewon. After a Japanese garrison settled down in Yongsan area in May 1903, a total of 3,000 pyung military facilities were constructed in front of Yongsan station in February 1904. These facilities include the headquarter of regiment, military camp and others and in 1906 about 3 million pyung was used for military, which were from the outside of South Main Gate (currently South Main Gate Police Station) to the ridge of Mt. Nam, eastern side of Itaewon, western side of Wookchun and Han River. In 1906 current Hangangro was completed for their axis and in 1908 when the construction of new military facilities was completed, a new north and south axis was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현재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교량들의 위치가 대부분 한강변에 위치하던 나무터였으며 현재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들도 대부분 서울로 상경하던 길의 노선과 일치하고 있다.

개항기 - 일제강점기: 지역의 확장 및 남북축의 형성

개항기와 일제강점기 동안 서울은 조선시대를 통해 유지되어오던 도시구조에 대변화를 맞게 되었다. 개항기 이후 일본인들이 도성안 청계천아남 남산의 북서사면과 도성 밖 용산일대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종로 일대를 중심으로 그 북쪽(북촌)은 조선시대의 중,상류층의 주거지였던 반면, 남쪽(남촌)은 서민들이 살고 있었던 관개로 일본인들은 토지의 매입이나 임대료 지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던 남촌에 주로 모여 살게 되었으며, 동학혁명군의 진압(1894)을 위해 주둔한 인원이 있던 용산일대에도 모여들기 시작했다. 특히 용산일대는 1900년 한강철교와 경인선이 개통되고 일본군이 용산, 이태원 일대에 주둔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 1903년 5월 용암포 지역에 일본인 수비대가 주둔하게된 것을 시작으로 1904년 2월 용산역앞에 대대본부, 군인막사, 기타 부대시설 등 총 3천평에 달하는 군사시설물이 건설되었으며, 1906년에는 남대문밖(현재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작하여 남산기슭 일대

completed connecting South Main Gate - Hangangro - Han River in the outside of the walled city.

These changes brought the first expansion of the city territory (165kai - 36.18kai) in 1914. This took away the role of the city walls as a boundary, which was maintained through Chosun, and created the combined city structure with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walled city. Youngdeungpo was included to Seoul in the territory expansion in 1936 (36.18kai - 133.94kai), which became the first Seoul territory in the south of Han River. The introduction of electrically ran city train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xpanding the city area. Electric trains' routes were introduced such as West Main Gate - Chongryangri (1896), Chongro - South Main Gate (1899), South Main Gate - Old Yongsan (1901), West Main Gate - South Main Gate (1901), Old Yongsan - New Yongsan (1910), etc., which created the east, west, south and north axis and changed the walking oriented city system to the entirely new one.

They continuously developed connections between the center and suburbs through developing Yongsan area and introducing electric trains. After Japan occupied Korea, they held the economic power as well as political,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and Japanese constructed the new north and south axis (1912) from already-made Hangangro - Seoul Station - South Main Gate - Kyungseongbuchung (City Hall) - Hwangtohyun Square (Kwanghwamun Intersection) as a part of city reconstruction plan. This made it possible to connect Kyungbok Palace directly to Han River, created new north and south axis and brought changes usually occurred at the outside of the

와 동쪽으로는 이태원, 서쪽으로는 旭川에서 한강에 이르는 약 300만평에 달하는 지역이 군용지로 수용되었다. 그 축으로서 1906년 현재의 한강로가 완공되었으며 1908년에는 군용지 건설이 마무리됨에 따라 도성 외부에 남대문-한강로-한강을 연결하는 새로운 남북축이 완성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1914년 최초의 시역확장(16.5km² - 36.18km²)이 이루어졌다. 1914년의 시역확장으로 조선시대를 통해 유지되어 오던 도시경계로서의 성곽의 역할이 상실되게 되었으며 도시구조적으로도 성곽내부와 외부가 연결되어 통합된 구조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다. 또한 1936년의 시역의 확장(36.18km² - 133.94km²)에서는 영등포가 서울에 편입되어 최초의 강남지역이 되었다. 또한가치 사가지의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새로운 교통수단 전차의 등장이었다. 보행중심이던 도시체계는 서대문-청량리노선(1898), 종로-남대문노선(1899), 남대문-구용산노선(1901), 서대문-남대문노선(1901), 구용산-신용산노선(1910) 등 전차노선이 동서남북축을 이루면서 건설되어 새로운 본질적인 변화를 꾀할 수 없게 되었다.

용산의 개발 및 전차의 개통으로 주변과 중심을 잇는 개발이 진행되다가 한일합방후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관리, 행정권을 장악한 일본은 시구개정사업의 일환으로 이미 건설된 한강로와 서울역-남대문-경성부청(시청)-황토현광장

(광화문네거리)을 잇는 새로운 남북축을 건설(1912)하였다. 이로써 경복궁에서 한강까지 직선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남북축이 형성됨과 동시에 사가지의 확산으로 성외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변화가 도성내까지 미쳐 조선시대 500년을 유지해오던 내부간선가로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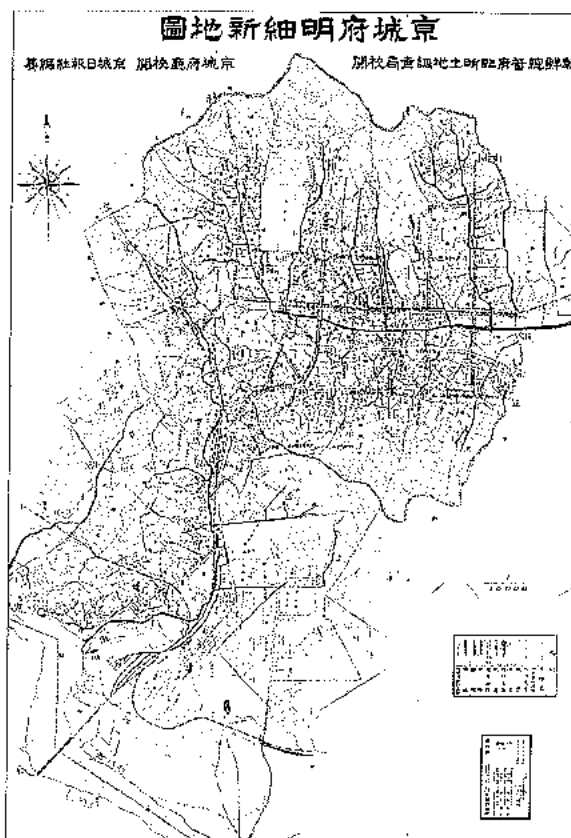
도시의 내부공간구조도 일본인들이 경제권을 장악하면서 그들이 집거하고 있던 남촌지역이 활발히 개발되어 충무로, 명동 일대가 새로운 상업, 경제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남촌, 북촌으로 이루어지던 조선시대의 신분에 따른 2분적 공간구조가 민족에 따른 2분적 공간구조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하여 종로지역은 정치, 관리 및 행정의 중심이 되고, 중구지역은 경제, 상업의 중심이 되며, 용산지역은 군사 중심이 되는 서울의 공간구조 재편성이 이루어졌다.

또한 일제강점기를 통해 시구개정(1913년)과 최초의 도시계획법인 조선시가지계획령(1934년)으로 도시계획이 시작되었다. 시구개정사업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앞에서 언급한 남대문-경성부청-황토현광장을 잇는 남북축의 형성과 기존의 구리개길 위에 황금정(현재의 을지로)이 폭 21.8m로 건설된 것이었다(1911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해서는 도시개발의 주축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어 1937년부터 1944년까지 영등포, 돈암, 대현 지구 등 10개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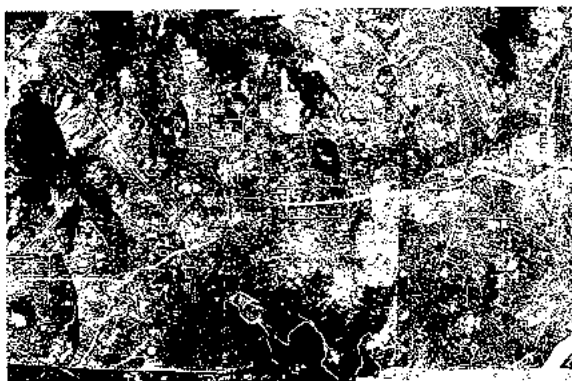
walled city to the inside. This fundamentally shocked the internal street system maintained for 500 years through Chosun.

About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city, Japanese vigorously developed Namchon area where they lived in groups and changed Chungmuro and Myungdong area into a commercial and economic center as they held the economic power. Namchon and Pukchon used to be separated by the social class during Chosun era, which transferred to national separation. These changes reformatted Seoul to Chongro for politics,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center, Chunggu to economic and commercial center and Yongsan to military center.

During the Japanese ruling era, the city planning was executed through city reconstruction plan (1913) and Chosun City Planning Law (1934), which is the first city planning law. The biggest changes in the city reconstruction plan were bringing the construction of the new north and south axis from South Main Gate - Kyungseungbuchung - Hwangtohyun Square, which was already mentioned and the construction of Hwangkeumjung (currently Euljiro) street with 21.8m width (1911) on already made Kurigae way. A land readjustment project was executed based on Chosun City Planning Law, resulting the development of 10 suburbs areas of Seoul, including like Youngdeungpo, Tonam, Taehyun, etc. from 1937 to 1944. In 1937 when Japanese ruling ran into the end, Air Raid Defense Chosun Enforcement was proclaimed. The dispersal of the first building has been completed in May to June 1945 and we got independent while working on the second plan.



(그림5)경상부 명세신지도 (1914년) Myungsesin map of Kyungseungbu (1914)



(그림6) 1965년 서울시가지
Seoul city in 1965

구의 서울외곽지역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말기로 치달던 1937년에는 방공법 조선시행령이 공포되어 소개공지대, 소개 소공지대, 소개공지 및 방공공지 등이 지정되었었다. 1945년 5월-6월 동안 제 1차 건물 소개를 완료하였고, 2차 계획을 수립하던 중 해방을 맞았다.

광복이후: 강남, 강북에서 수도권으로

광복후의 서울은 급격한 인구증가를 경험하였다. 1945년 90만이던 인구가 1953년에 100만을 넘어서고 1967년에 400만, 1972년 600만, 1979년 800만을 넘어

After the independence: From the south and north of Han River to metropolis

After independence, the population of Seoul grew dramatically. It was 900,000 in 1945 and exceeded 1 million in 1953, 4 million in 1967, 6 million in 1972, 8 million in 1979 and 10 million in 1988. The territory was also expanded and adjusted in 1949 (136km² → 268.35 km²), in 1963 (613.04km²), in 1973 (627.06km²) and in 1988 (605.42km²) extending as far as the south of Han River. It formed the structure of south and north of Han River and in 1970s many satellite cities were constructed, which made Seoul metropolis. Automobile and subway made it possible for Seoul to become a metropolis. During that time, city transportation system was completely changed from walking and electric trains to automobiles. In 1974 the first line of subway opened, which launched the subway era and tied the capital areas to become a metropolis.

From the independence to 1960s, Korea continuously faced hardships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and the Korean war. After independence, many people came from foreign countries and North Korea, which increased the population of Seoul dramatically and the Korean War destroyed the city very severely. After making an armistice, recovery and reconstruction was focused heavily on damaged city areas, whose representative one was forming the land boundaries in the 1st

1988년에는 1000만 도시가 되었다. 이와 함께 시역도 1949년(136km² → 268.35km²), 1963년(613.04km²), 1973년(627.06km²), 1988년(605.42km²)등 확장과 조종을 거치면서 시가지는 본격적으로 한강이남 까지 확산되었다. 그에 따라 강남, 강북의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주위의 위성 도시들의 형성으로 거대도시가 되었다. 서울의 거대도시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자동차와 지하철이었다. 이기간 동안 보행과 전차에 의존하던 도시교통체계가 본격적인 자동차중심체제로 바뀌었고 1974년의 지하철1호선의 개통과 함께 지하철시대가 시작되어 수도권이 하나로 묶이는 광역도시화의 길을 열어 주었다.

그러나 광복에서 1960년까지는 혼란과 전란의 파파에 시달린 고난의 시기였다. 해방이후 해외동포의 귀국과 월남민, 이주민들의 서울 집중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증가현상을 격었고 6.25 동란으로 인한 도시파괴는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휴전이후 전후복구 및 재건사업은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했던 도심위주로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예가 제1중앙지구(을지3, 충무, 관철, 종로5, 목정) 및 제2중앙지구(남대문, 원효, 행촌, 왕십리) 토지구획정리사업이었다. 그러나 1953년부터 1959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이 사업은 시급한 도심복구 및 재건이라는 긴박함 때문에 도심의 전통적 도시조직의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center area (Eulji 3, Chungmu, Kwanchol, Chongro 5, Mukjung) and the 2nd center area (South Main Gate, Wonhyo, Haengchon, Wangshipri). This construction between 1953 and 1959 resulted in the destruction of traditional city structure because of the urgency in city recovery and reconstruction.

In 1960s, one more drastic change started to develop in the south area of Han River. When Hannam Bridge (at that time the 3rd Han River bridge) was constructed as the starting point of Kyungbu highway construction (1966 - 70), Youngdong area was developed at the same time, which brought 8 million pyung new city as a new appearance of Seoul city. Also many apartments started to be constructed from this time such as Mapo Apartment (1962 - 64), Kaihyun Apartment (1964 - 65), Ewhadong Apartment (1964), Hwagok and Kaebong Apartment (1966 - 69) and Han River Government Official Apartment (1966 - 69). Starting from Mapo Apartment, apartment construction was used in 1970s as the way to form the south area of Han River and other satellite cities. They are Han River Mansion (1970), Yoido Example Apartment (1971), Banpo Apartment (1972 - 74), Cholsan and Kwangbok Apartment (1972 - 73), Chamshil Apartment (1975 - 77), Youngdong AID Apartment (1974), Apkujungdong Hyundai Apartment (1976 - 77) and Tunchon Apartment (1979 - 80). In 1972,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Law was enacted to provide the housings massively and then Housing Land Development Promotion Law was enacted to efficiently process the massive housing land, which resulted the

60년대로 들어서면서 강남개발의 시작으로 다시금 급격한 변화는 시작되었다. 경부고속도로건설(1966-70)의 출발점이 된 한남대교(당시 제3한강교)의 건설과 동시에 시작된 영동개발로 800여만평의 강남신시가지가 서울의 새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포아파트(1962-64), 갈현아파트(1964-65), 이화동아파트(1964), 화곡,개봉아파트(1966-69) 및 한강공무원아파트(1966-69) 등 아파트단지의 건설이 시작된 것도 이 시기부터였다. 마포아파트로 시작된 아파트건설은 한강맨손(1970), 여의도 시범아파트(1971), 반포아파트(1972-74), 철산,광복아파트(1972-73), 잠실아파트(1975-77), 영동AID아파트(1974), 압구정동 현대아파트(1976-77), 둔촌아파트(1979-80)등 70년대로 이어져 강남과 주변위성도시들의 시가지건설의 방법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1972년 대량의 주택공급을 위한 수단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1980년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됨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도시라 하여도 손색없는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서울 곳곳에 속속 들어서게 되었다. 고덕(82-88), 개포(81-88), 목동신시가지(83-88), 상계(86-90), 중계지구(86-88)등이 분당, 일산의 신도시건설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1970년대 이후는 업무 및 상업기능이 집중되

는 도시를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오늘날 볼 수 있는 고층의 오피스빌딩들이 집중적으로 건설되었으며, 60년대에 시작된 강남개발도 본격화되어 400여만평이 넘는 잠실지역이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종합경기장으로 개발되었고, 청량리, 미아리, 영등포, 천호, 영동 등의 부심이 형성되었으며, 부천, 의정부, 성남, 안양, 반월, 광명 등이 서울의 위성도시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도시의 현대화와 부심의 형성 그리고 외곽의 위성도시의 건설로 4대문안인 조선시대에 도성내와 서대문 밖, 동대문 밖 일부지역에 국한되었던 서울의 시가지는 수차례의 구조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청계천과 종로를 경계로 북촌과 남촌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한강을 중심으로 강북과 강남이 형성되고 그 주위로 많은 위성도시들을 거느린 거대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large scale of apartment areas in Seoul, which are almost as same as the independent city. They include Koduk (82 - 88), Kaepo (81 - 88), Mokdong New City Area (83 - 88), Sanggye (86 - 90), Chunggye (86 - 88), even Pundang and Ilsan.

After 1970s, they focused on reconstructing the central city area where business and commercial functions are concentrated and built sky rocketing office buildings that we see these days. Also, the development of the south area of Han River started in 1960s was accelerated and resulted Chamshil apartment area, sized over 4 million pyung, as well as Olympic Sports Complex. Chungryangri, Miari, Youngdeungpo, Chunho and Youngdong were developed as pockets of sub centers. Puchon, Euijungbu, Sungnam, Ahnyang, Parwol and Kwangmyung were established as Seoul's satellite cities. Modernizing the central city, shaping the city sub-center and constructing the satellite cities changed the appearance of Seoul, which used to be limited to inside of the walled city and some parts of outside of West Main Gate and East Main Gate in Chosun era. After Seoul underwent a number of structural changes, it converted into a huge metropolis composed of the south and north of Han River and many satellite cities instead of the small city separated by Chunggyechun as Pukchon and Namchon.



〈그림7〉서울의 위성사진 Satellite picture of Seoul

서울의 가로공간: 다양한 시민의 삶의 터 Street Space of Seoul: Various Citizens's Pleasure Spaces

제해성 /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Jae Hae-Syong / Professor, A-Ju University

서언

저명한 도시계획가인 Kevin Lynch(1960)는 수 많은 도시를 분석한 후 좋은 도시는 쉽게 읽혀질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되려면 다음의 다섯 가지요소가 체계적으로 정리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요소들은 길/통로(Paths), 외곽/경계(Edges), 지역/구역(Districts), 결절점(Nodes), 기념물(Landmarks)이다. 사실상 길은 이들 중에서 다른 요소들을

Preface

A prominent city planner, Kevin Lynch(1960) said after analyzing many cities that a good city should be perceptible at a glance and meet the systematic Kevinian 5 formative elements as stipulated by Kevin Lynch in *The Image of the City*, MA: MIT Press, 1960. They are Paths, Edges, District, Nodes and Landmarks. Paths are de facto, a basic and foundational combining factor connecting the other elements to one another. Donald Appleyard(1981) emphasized that all the activities that happen on a path should be protected, safe and be convenient to use at the same time according to Donald Appleyard's *Livable Street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He also asserted that paths of residential districts are particularly foundational for the inhabitants to carry out their daily lives. It is therefore critical that city planners should take care to ensure that they designed from the beginning to safely protected their inhabitants from vehicles and be clean and convenient to use.

As mentioned, paths are one of most important elements to a consistent city. They play a central role in recognizing, experiencing and living in the city. Also the path is important in linking buildings and other spaces and to facilitate their use. So, structures could not be meaningful without paths. As the number of vehicles dramatically grow, paths become more functional as a means to pass-through or between areas than ever before. Voices against these functional or corridor paths are growing louder and louder as time goes on.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aths in Western culture and Korean culture. In Western culture, the path has been recognized as a center of city while in Korean culture, it has been recognized as a center of district or neighborhood. In Western culture, every single path has its own unique name or number and all the buildings on the path have a unique number

연결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Donald Appleyard(1981)는 길에서 일어나는 각종 활동이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주거지역에서 길은 주민들의 일상 생활 터전이므로 차량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쾌적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길은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도시에서 생활하고 도시를 경험하며 도시를 인지하는데 길이 중심이 된다. 또한 길이 존재함으로써 건축물이 건립되고 사람들은 이를 활용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길이 없는 건축물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우리의 길은 통과교통 위주의 기능적인 길로 변모하고 이에 대한 반발도 크게 대두되고 있다.

길의 개념을 살펴보면 우리의 길은 서양의 길과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서양의 도시는 길을 중심으로 인지되어 온데 비해 우리의 도시는 구역 또는 동네 중심으로 인식되어 왔다. 서양에서는 길을 중심으로 지반이 부여되어 이동하면서 집을 찾기 쉬운데 비해 우리는 동네 또는 구역 중심이라 그 지역의 블록을 중심으로 지반이 부여되어 그 동

within a series that ascends or descends in a consistent fashion based on some common criteria making it pretty convenient to find a building. But in Korean, the addressing system is based on a district or block-centered (and numbered based on when it was constructed). To find a building you have to know or refer to a map in advance to find the district then determine spatially where the path and building with that number is located. This significance is more than the just differences in addressing system. This means the function of the path in Western culture is as a transit or passageway while the path in Korean culture has been a part of the neighborhood. That is, the path in Korean culture put more emphasis on the concept of daily life than as a passage way, which it does in Western culture. However, the traditional concept of the path as an integral part of the neighborhood has recently been diluted as the number of vehicles has increases and pedestrians are forced to the narrow sidewalks.

As a backlash to this trend, we have seen the established streets with no or limited vehicle access. These streets which have allowed activities such as cultural events to flourish have gained a warm response from a large number of citizens. There are few streets for foreign travelers to walk around and experience the Korean City. However, in our experience in travelling abroad, we can think of many famous sightseeing cities that have pedestrian-only shopping malls, which support a great concentration of people. Most major cities particularly, in Europe, American and Japanese have pedestrian-only shopping malls, elevating the cities and districts as a tourist attraction as well as enhancing the economy of the city

Ambulation Environment Index of Seoul provides a vivid account of ambulation-related problems in Seoul. The 1998 annual report of City Policies R&D Center fo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n Basic Ambulation Plan, as one of Seoul Agenda 21, which is aimed at making Seoul a city where

네를 찾은 다음 집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서양의 길은 우리의 길에 비해 보다 이동 또는 통로 중심이고 우리의 길은 바로 그 동네의 일부인 셈이다. 즉 우리의 길은 서양의 길에 비해 보다 생활의 터전이라는 개념이 앞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이러한 개념이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 일상생활은 대부분 건물 속으로 밀려나버리고 길에서의 활동은 좁은 보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차 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 등이 설치되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외국인들이 우리의 도시를 방문하여 편안하게 걸으면서 도시를 경험할 곳이 거의 없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도시들을 경험하게 될 때 대부분의 유명도시에서 보행로를 경험하게 되고 수 많은 관광객이 이곳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유럽, 미국, 일본의 대도시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 보행로를 설치하여 이곳이 관광 명소가 되고 도심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서울의 보행환경 지표를 보면 보행에 관련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서울 시민들의 보행환경 만족도

citizens can work together to create a pleasant and friendly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research center, most Seoul citizens are unsatisfied with the ambulation environment. The report states that 50.4% of respondents were unsatisfied and 11.3% somewhat unsatisfied, while only 8.7% answered they were somewhat satisfied and only 0.4% represented very satisfied. The index further supports this poll result, the ratio of pedestrian roads verses vehicle tracks account for only 10.0% and pedestrians' accounts for 52.2% among the traffic accident death toll. It is essential to improve ambulation environment of Seoul to ensure a more comfortable, better quality life, to attract tourists and to ensure the security of its citizen. I have divided the major streets of Seoul into Symbolic or Cultural Streets, as Commercial District Streets or Residential District Streets to base a descriptive analysis.

Symbolic or Cultural Street

Se-jong Street

Se-jong Street is a Seoul's representative symbolic street

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불만족으로 나타나는데 불만족이 50.4% 매우불만족이 11.3%에 이르는데 비해 만족은 8.7% 매우 만족은 0.4%에 그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지표로서 보도율이 10.0% 밖에 미치지 못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보행자가 52.2%에 달하고 있다.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다음은 서울시의 주요한 가로로 상징적 또는 문화적인 길, 업무상업지역의 길, 주거지역의 길로 나누고 이들을 현장 방문하여 간략하게 그려본 것이다.

상징적 또는 문화적인 길

• 세종로

서울의 대표적인 상징가로인 세종로는 세계적으로 손꼽힐 정도로 넓은 도로이다. 주변에는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건물이 널려 있고 문화시설인 세종문화회관이 위치한다. 광화문 사거리에 이르러서는 업무용 고층건물이林立하고 있

and one of broadest roads in the world. There are many central government buildings and the Se-jong Cultural Center adjacent to this street. At the Gwang-hwa Gate Intersection there are a number of skyscraper office complexes. This street is comparatively wider than now before Seoul Olympic Games, at that time it was vehicle-scarce for the then low vehicle-holding rate of Seoul citizens. However, it's a common scene now for the road to be crowded with cars, trucks, buses and taxi cabs. Adjacent to Se-jong Street there is a wide sidewalk, however there are only a few pedestrians except for the area around the Se-jong Cultural Center.

The establishment of wide sidewalks does not ensure that the streetscape will become a place where people will meet together, spend their time, this only happens where the characteristics of surroundings encourage such activities. City planners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ample cultural and commercial facilities with wide sidewalks could attract people and help the street becomes a place where people meet together and have pleasant time. Se-jong Street was originally designed to symbolize the



종로구 세종로(상징의 길)
Sejong Street
(Symbolic Street)



다. 차량 보유가 흔하지 않던 서울 올림픽 개최 이전만 하더라도 세종로는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넓지만 하였지만 이제는 차량의 홍수로 그 넓은 도로가 가득찰 때도 자주 발생한다. 도로의 측면에는 넓은 보도가 확보되어 있지만 세종문화회관 주변을 제외하고는 보행이 활발하지 않다.

보행이 활발하고 거리가 활기찬 것은 주변 건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넓은 보도를 확보하였다고 자연적으로 활기찬 거리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준다. 주변에 문화시설이나 상업시설이 입지하고 충분한 보도를 확보하게 되면 서로 조화를 이루어 활기찬 거리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이러한 측면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다. 넓은 세종로는 중앙정부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로로 계획되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도로가 거의 교통소통을 위한 구실밖에 하지 못한다. 최근에는 세종로를 가로 막고 행사를 치르기도 했지만 현재의 차량교통상황을 고려한다면 도로중앙에 널찍한 보행로를 형성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차량통행이 적었던 시절인 1970년대에 지하도로를 형성하여 보행물을 형성하자는 제안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이제는 밀려드는 차량홍수 때문

에 보행물설을 위한 지하도로공사는 감히 엄두도 낼 수가 없다.

• Snap 2: 대학로

서울문리대가 1970년대에 현재의 관악 캠퍼스로 이전되고 난 뒤 그 곳에 문화시설과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대학로가 문화의 거리로 변모되었다. 한 때는 일요일에 차 없는 거리가 운영되기도 한 대학로는 여전히 젊음의 활기로 채워지고 있다. 연극, 팝 콘서트, 전시회 등이 대학로 주변의 건물에서 이루어지고 많은 식당, 카페 등이 입지하고 있다. 대낮부터 밤 늦게까지 활기가 넘치는 대학로 뒷길은 그야말로 생기가 넘친다. 주변의 건물도 단정하고 수준높게 들어서고 건물의 내부도 서양의 어느 시설에 견주어 손색이 없을 정도로 꾸며져 있다. 대학로주변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문예회관, 샘터극장 등 대부분 붉은 벽돌 위주의 건물이 들어서게 되어 건물간의 조화도 이루어져 왔다. 최근 젊은 취향에 맞는 노출 철골의 외관을 갖춘 건물도 나타나고 뒷길에는 온갖 종류의 간판이 부착되면서 초기에 세워졌던 도시설계의 취지가 빛을 바라고 있다. 도시설계란 전체적으로 도시의 건축물을 조화롭게 정비하는데 큰

central government authority but it's only role now is as a passageway. Even though there recently have been a number cultural events on the street during which traffic was banned, it soon became apparent that it was impossible to make a pedestrian-only mall at the center of the city which is an important junction point with such a heavy traffic. There was once a suggestion to make a pedestrian-only mall with the help of underpasses in 1970s when the traffic was not such a serious problem as it is now. It is nonsense to make a pedestrian-only mall and share the heavy burden of traffic with underpasses because it's not be imaginable to break ground for underpass for the heavy wave of traffic.

Snap 2 Dae-Hak Str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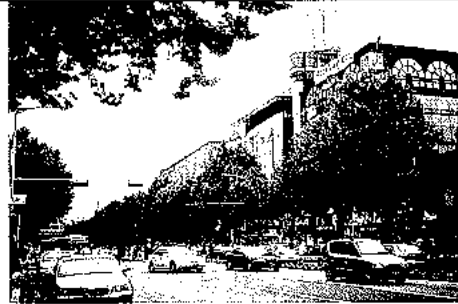
Dae-Hak Street became a cultural street since 1970s when the Literature and Science Departm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ransferred and integrated at the Kwan-Ak campus. The tradition of the street being closed to cars on Sunday is still alive. When this takes place, the street comes alive with pop-concerts and exhibitions both in the buildings and on the

sidewalks. There are numerous restaurants, cafeteria and cafe's with sidewalk tables for their patrons. The behind Dae-Hak Street, it is filled and alive with youthfulness from mid morning to late at night. Neat and classic buildings flank the street, their interior decorations as beautiful as those of any other western city do. The Dae-Hak Street area is designated as a city plan district that regulates the exterior of buildings to blend in and maintain a harmony with red brick of the Cultural & Art Center and SaemTer Theatre. But the city plan didn'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younger generation's taste which have recently adopted a style that promotes steel frame-exposed building and various advertising. City planners' help to promote a pan-city harmony but are often seen as restrictive to the architect or building owner whom want to break with this style. The guiding principles in city planning are difficult to enforce. The restricted use of colors, shapes and functions in an environment are easy to be the target of the objection that the city planners are unfairly restricting individual rights.

Marronnier park of Dae-Hak Street is playing a central role along with SaemTer Theatre and Cultural and Art Center. This area is alive with



종로구 대학로(문화의 길)
Daehak Street
(Cultural Street)



도움을 주지만 건축가나 건축주 개인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구속으로 보인다. 도시설계에서 주어진 지침이란 것이 사실 구속력을 갖기가 취약하다. 지침의 내용은 어떠한 색채가 가능하고 어떠한 형태가 가능하며, 어떠한 기능이 기능하다고 정하지만 이것에 대한 절대적인 합리성이 부족하여 도시설계작성자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항의를 받기도 한다.

대학로 주변에 설치된 마로니에 공원은 주변의 섹터극장, 문예회관과 더불어 그 곳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수 많은 보행자들이 모여드는 활기찬 동네이다. 최근에는 마로니에 공원의 대학로 입구에 전통적인 한국적 담장 모습이 일부 설치되어 서양의 모습으로 치달아 가던 대학로 모습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러한 문화의 명소를 만드는 데는 도시설계를 작성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건축가와 건축주의 협조가 많았다. 현재의 변모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러한 노력들이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한다. 개개의 건물이 좋으면 전체가 좋은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과 전체적 틀 안에서 개별적 다양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맞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activities and pedestrians. A Korean traditional stonewall has recently been erected at the entry to Dae-Hak Street from Marronnier park, dampen the recent construction trend toward western style. This took place with the help and cooperation of city planners, architects and building owners but some people worry about recent changes in construction trends that might make the effort fruitless. There have been assertions throughout time that individual good design could lead to a totally harmonized environment and variety should be pursued within a total plan.

Ducksu Palace Sidewalk

Ducksu Palace Sidewalk is the most recently changed path in Seoul. It was quite a quiet lonely path to walk through. The Ducksu Palace side of the street is a stonewall and the opposite side of the street is the Supreme Court and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Thus making the path pedestrian-scat, especially at night. It was so car-scant that it was a quiet and deserted path for a pair of lovers to walk through. But it is now filled with cars because many of cars use this path as a short cut, to avoid the traffic jam as roads becomes filled with cars. As

• 덕수궁길

최근 서울에서 가장 많이 변모한 길이 바로 덕수궁길이라고 할 수 있다. 옛날에는 호젓하게 걸을 수 있는 조용한 길이었다. 덕수궁 쪽은 담장으로 막혀있고 반대편은 대법원, 대검찰청 등이 위치하여 사람들의 출입이 한산하였는데 아간에는 더욱 한산한 길이었다. 예전에는 차량통행이 빈번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젓이 거니는 데는 안성맞춤의 길로 여겨져 왔다. 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교통체증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많은 차량들이 덕수궁길을 샛길로 이용하면서 조용하던 도로가 차량으로 메워지게 되었다. 통행량이 적을 때는 과속 때문에 또한 통행량이 많을 때는 매년 때문에 걷기에 불편한 도로가 되었다.

최근 덕수궁길에 보차공존도로가 설치되어 우리나라에서 모범이 되는 길로 바뀌었다. 기존의 왕복 2차선 도로가 편도 1차선의 일방통행으로 개조되고 길 주변의 공간에 가로 공원이 조성되어 쉼터가 배치되고 수목이 식재되었다. 공원화된 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기도 하고 노상 전시회가 개최되기도 하며 쉼터로 조성된 부분에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차량의 과속을 방지하

a natural consequence, Ducksu Palace Sidewalk was uncomfortable path to walk through because of speeding vehicles and exhaust fumes and heavy traffic.

The path along Ducksu Palace has recently become a good example of a pedestrian-vehicle coexistence road. The existing two-way 2-lane road is converted into one-way 1-lane road and side-garden planted with trees along the road for citizens to take a rest. People used to take a walk and appreciate exhibitions on road and have comfortable time together there. The road is shaped like a stream or serpent to hinder cars from speeding. It also has a number of speed bumps throughout and at the intersections. The pedestrian-vehicle coexistence road was firstly introduced in the Netherlands. It was called *Woonerf* (which means grounds for daily life) in the early 1970s. The concept quickly spread around Europe and then in the 1980's to Japan where it was a Community Road. In Korea, it was first introduced in a report on the concept's case studies and construction guiding principles on 1988-Plan and Design for Pedestrian-Vehicle Coexistence Road by the Korea Land Corporation. Report on Plan and Design for Residential District Roads and



종로구 대학로(문화의 길)
Daehak Street
(Cultural Street)



기 위하여 굽이쳐 흐르는 형태의 도로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사행 또는 스래름이라고 한다. 또한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로진행 방향으로 이따금씩 과속방지 시설인 험프가 미려하게 조성되고 교차점에는 교차점 험프가 설치되었다. 보차공존도로는 네덜란드에서 본앨프(Woonerf: 생활의 터라는 뜻)라는 이름으로 1970년대 초에 최초로 탄생하여 유럽 전역으로 확대 보급되었다. 그 뒤 일본에서 이를 도입하여 1980년대 초에 커뮤니티 도로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에 외국의 사례조사와 조성지침을 포함한 연구보고서가 소개되었다. 이러한 개념은 마포아파트 단지의 재개발시에 적용되었고 공공부문에는 최근 덕수궁길에 적용되어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보차공존도로는 본래 주거지역 도로에서 통과차량에 의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위협을 받게 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되었다. 이 기법은 그 후 도심의 상가로나 통화로 또한 공원주변의 길에도 적용되었다. 보차공존도로는 덕수궁길과 같은 분리형도 있고 공존형도 있는데 공존형에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차량이 서행하게끔

설계되어 있어 통과차량의 진입이 극도로 억제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보차공존도로의 확대 보급이 절실히 요구된다.

업무상업지역의 길

• 종로

서울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가로 중의 하나이다. 예전부터 상업이 발달한 거리로서 여전히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서울의 고층 건물은 197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종로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 당시만해도 10층 내외가 고작이었지만 최근에는 구 혁신백화점 자리에 세워진 종로2가의 신축 삼성건물을 위시하여 종로1가와 광화문까지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다. 서울의 대표거리라고 할 수도 있는 종로는 상권의 광역화와 더불어 예전처럼 중심상업 역할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붐비고 있다. 동대문에서 종로 3가까지에 걸쳐 이면도로에 자리잡은 시장상권과 종로2가 중심으로 펼쳐지는 중심상업시설 그리고 종로1가에서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업무시설이 종로를 활기치게 만들고 있다. 종로2가는 예전부터 혁신백화점 및 신신백화점이 위치하여 고금상권

Better Living Environment, the Technical Research Institute of the Korea Land Corporation, 1998. After its introduction, this concept was applied to the reconstruction of Mapo Apartment Buildings Complex and Ducksu Palace Road where it gain warm response from many of citizens.

The pedestrian-vehicle coexistence road was originally suggested as a measure to reduce traffic accidents in residential areas that threatened the daily lives of their inhabitants. It soon extended into commercial areas, school zones and roads around parks. There are median-stripped type Ducksu Palace Road's and coexistence type road's that are not divided into sidewalks and driveways. They are designed to force cars to drive slowly, restraining vehicles' entry. These types of roads are in high demand and common in many parts of the country.

Roads of Business and Commercial Districts

Chongro

Chongro is one of the oldest streets in Seoul, and for most

of that time it has been famous for its commercial activities. As recently as 1970s, almost all skyscrapers in Seoul were located on Chongro or within it's neighboring area. However, these early skyscrapers were only 10 floors in height. Nowadays modern and much larger skyscrapers such as recently completed Samsung's building continue to be located on Chongro 2 Ga. Chongro remains a representative street crowded with people any every single day even though it is now playing a lesser role as the commercial center for Seoul. The functions of the commercial center, which were concentrated, are now more dispersed extending over a wide area. Chongro has a high concentration of office and commercial buildings stretching from Gwang-hwa Gate to Chongro 1-Ga to Chongro 2-Ga. There is also another significant concentration of back road markets from East Gate to Chongro 3-Ga. Chongro 2-Ga has long been the commercial center of Seoul where Hwa-Shin and Shinsin Department Stores were located and continue to attracted many the youth. Chongro is also important as there are two grand gardens located here, Pagoda Park and Mausoleum Park which is located in front of Mausol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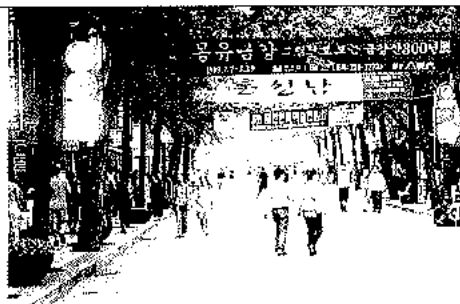
종로구 덕수궁길(문화의 길)
Ducksu Palace Sidewalk
(Cultural Street)



을 형성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서울의 중심적 위치이었다.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긴 하지만 파고다 공원이 위치하고 중요앞에 대규모 공원이 조성되어 길가에 대형 공원이 2개 소나 위치한 중요한 가로이다.

가로변의 건물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하고 예전에 비하여 도로가 확폭 정비되어 차량통행은 훨씬 수월해진 곳이기도 하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이 종로를 지나갈 정도이니 꽤나 중요한 가로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지하철공사 이후에는 일부 좁은 도로 구간도 확폭되어 도로가 더욱 맑숙하게 정비되고 보도도 예전에 비하여 확폭된 구간이 많다. 특히 종로2가를 중심으로 보도의 포장 재료도 우리나라의 어느 도로와 달리 석재로 개선되고 높은 평할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관철동의 종로와 청계천로를 잇는 구간에 보행자전용의 젊음의 거리가 형성되어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 음식점, 여행사, 학원 등이 즐비하고 거리의 중간에 벤치, 공중전화 무스 등과 같은 가로 사설물이 설치되어 젊은이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커다란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종로와 같은 대표적인 거리에서 보행자 전용

The streetscape of Chongro has changed over time as the road has been widened to accommodate heavy traffic. The fact that the Korea's first subway passed through this point attests to its importance. Narrow driveways were extended and become neater and many sidewalks were widened and paved with stones as a result of the construction of the subway. A pedestrian-only path for young people was constructed in Guancheol Dong area connecting Chongro and Chungchehyun-ro. This area now has many restaurants, travel agencies and shops as well as public facilities such as pay phones and benches, which promotes a relaxed atmosphere that attracts younger generation. We call this a great development for Korea. It is fortunate to have such a pedestrian-only mall on this representative street of Chongro. However it is limited, as it can only be used when the weather permits. If there were a downtown arcade that could be used in all weather condition, it would not only attract foreign tourists but Seoul citizens as well.



종구 인사동길(문화적인 길: 차없는 날)
Insadong Street(Cultural Street)

몰이 일부나마 형성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전천후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이용될 수 있는 도심 아케이드가 형성되면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명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테헤란로

테헤란로는 강남대로와 함께 강남의 중심도로이면서 업무가 활발히 일어나는 곳이다. 압구정로와 선릉로 주변이 강북의 명동길 주변과 유사하다면 테헤란로 주변은 강북의 소공로 주변과 유사하다. 역삼역 사거리의 한국은행 강남지점을 필두하여 각종 금융업소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이를 대부분이 20층 내외의 고층 사무소 건물이다. 최근에는 역삼역 사 거리에 현대산업개발 사옥과 LG 사옥이 경쟁하듯이 지어져서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테헤란로는 신 개발지역에 조성된 대로이기 때문에 보도가 폭 넓게 확보되어 있고 대부분 고급스러운 마감재로 시공되어 있다. 대부분이 업무용 건물이라 점심 시간 전후와 퇴근시간 전후에 활기찬 보행이 이루어지지만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텅빈 거리처럼 보여진다. 테헤란로의 경우

Taeheran Street

Taeheran Street is a wide multi-lane thoroughfare that supports a high concentration of office buildings, as does the nearby Gangnam Street. The area around Abgujung and Syonreung (Royal Moslem of Syon) is similar to the area around Myong-Dong in Northern part of Seoul. Where as the area around Taeheran Street is characteristically similar to the area around Sogong Street in the northern part of Seoul. There are an abundance of branch offices of the financial companies along the Taeheran Street; the most significant is the BOK's Gangnam branch near Yucksam Subway station. Most of these office buildings are 20s-floors or more. At the Yucksam subway station, the Hyundai Industrial Development and LG buildings are now the final stages of construction. Taeheran Street is broad constructed with the highest quality materials. It was designed as a broad road when this was new district. The road becomes alive at the lunch hour and when office workers are commuting to and from work. However, it seems deserted at night and on holidays. However, the smaller paths behind Taeheran Street are bustling with pedestrians.



종로구 종로(업무상업지역의 길)
Chongro(Streets of Business and Commercial Districts)

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면도로에서 오히려 활발한 보행 활동이 일어난다.

현재 테헤란로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곳은 선릉역 사거리이다. 지하철이 교차하는 부분에 시행되는 난이도가 높은 공사이고 공사용 가설건물 및 야적장 등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테헤란로의 여러 차로를 가로막고 있어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상습적인 교통정체현상을 보인다. 교통정체가 너무나 심각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 이용자들의 시간손실비용이 수백 또는 수천억에 이르지 않는까 염려된다. 이러한 손실을 모두 테헤란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지 못하다. 추가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차로를 차단하는 시간대를 조정하여 지정 이후에 공사용 공간을 확대하고 일출시간 정도에 축소하는 작업을 반복한다면 시민들의 불편과 손실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명동길

명동을 방문하게 되면 예나 지금이나 역시 명

동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예전부터 명동은 고급상권의 중심이었다. 부근의 남대문시장과 백화점군들과 더불어 쾌적한 보행으로 연결되는 각종 볼거리와 먹거리 등이 준비해 있고 꼭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지나치며 쉬었다 갈 수 있고 예전에 없던 쇼핑을 즐길 수도 있는 그러한 곳이다. 예전에는 명동과 이어지는 충무로길을 가닐면서 음악실에 들러 쉬어 가기도하고 식사하고 취해보기도 하던 그러한 곳이다. 지금도 이러한 활동이 변함없이 일어나는 곳이 명동이고 더욱 세련되고 화려해진 건물의 외장,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등이 눈에 띈다. 요즘에는 명동의 뒷길 조차도 유명 디자인 상점들이 준비해 있고 밤 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있다.

명동은 다른 지역의 상권에 비하여 보행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 명동길과 충무로 길을 잇는 보행길에는 바닥 재료가 식재로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려하게 공사되어 평활면이 유지되고 도로 중간에 나무가 식재되어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보행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명동길도 예전에 비해 치로가 최소화되고 보행로 폭이 넓어져 보행자들이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벤치가 조성되어 사람들이 쉽

Syonreung station is currently experiencing the most severe traffic problems in this area. There is extensive construction underway at the point two subway lines cross. The temporary buildings and warehouses, materials and construction equipment have resulted in a number of lanes being blocked. This has caused traffic to bottleneck resulting in bumper-to-bumper traffic jams in this area. I sometimes worry that the time lost in this slowdown in traffic could be costing billions of won which are being passed along to the individuals using this road.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take this into consideration and reduce the daytime construction by extending the construction after midnight in order to minimize citizens' inconveniences and losses even though there might be additional expenditures on the project.

Myong-Dong Street

On every visit to Myong-dong, it always apparent that this area is a thriving town and which is a center of high-grade commerce. Myong-dong is easily reached on foot from Namdaemun (Southern Gate) Market and

the many Department Stores, which are located in the area. The area has many eye-catching and handy snacks concessions lining the street that invite people to stop sample the foods and shop or just enjoy the atmosphere even though they're not buying anything. People used to walk from Myong-dong to Chungmuro to take a rest, have a meal and enjoy a drink at one of the many music bars located there. Myong-dong has not changed in its function but becomes more splendid, gorgeous in the buildings' exterior and interior displays. Even the in back streets of Myong-dong there are many famous designers' shops and this area is bright with lights late into the night.

Myong-dong has some of the best pedestrian-only ways of the commercial districts in Seoul. The pedestrian-only path between Myong-dong and Chungmuro is paved with stones, clearly touched up to be even. The area boasts many trees so it could be compared favorably to those of other countries. Myong-dong Street also extended and minimized the driveway to enhance people's ambulation comfort with benches to rest on. But the scale and facilities of Myong-dong Street also leaves some things to be desired as a



종로구 종로
(업무상업지역의 길)
Chongro
(Streets of Business
and Commercial
Districts)



게 머무를 수도 있다. 그러나 천만인이 모여 사는 서울이 갖고 있는 도심상권으로는 규모 면이나 시설 면에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100만 이하의 인구를 갖고 있는 도시에서도 쾌적하고 활기찬 도심 보행몰이 설치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상권이 외국의 것에 비해 초라하다는 것을 느낀다. 보행몰이를 과감하게 놀려 잡고 누구나 편안하게 거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상인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명동길의 일부 구간은 일요일에 차없는 거리로 조성되어 쾌적한 보행이 보장되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더욱 확대하여 충무로까지 연장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차 없는 거리를 일요일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도 하다.

• 압구정길

서울 강남구에서 가장 변화한 길중의 하나가 압구정로이고 그 중에서도 갤러리아 백화점 주변의 길이 가장 그렇다. 사실 압구정로에서 보다는 그 길 남쪽의 뒷길에서 더욱 많은 활동이 일어난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등을 파는

상점들이 준비하게 늘어서 있고 젊은아들이 활기차게 몰려다니는 곳이다. 이곳의 보행환경이나 건축물의 질은 보장 것 없지만 소비성향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면서 활기가 넘치고 있다.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강남구청으로 이어지는 선릉로 북단은 일명 로데오 거리로 불려지면서 고가의 옷이나 장신구를 판매하는 상가와 고급식당이나 카페가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거리가 되었다.

압구정로 주변의 거리는 강남의 명동길과 유사하다. 압구정로 주변에 대형 아파트들이 입지하면서 고가상품과 고급서비스의 구매력이 현저히 증가하면서 백화점과 더불어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강남의 주민들이 고급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명동주변을 왕복하기에는 너무나 원 거리에 위치하여 강남의 독립된 상권이 형성되게 되었다. 최근 삼성로와 이어지는 압구정로에는 고급 브랜드의 옷가게와 먹고 마실곳이 들어서고 건축물의 질적 수준도 많이 향상되었다. 이곳은 본래 주택가였으나 하나 둘씩 상업시설로 변모하게 되었고, 소득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는 시기에 건립되어 건축물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다. 최근에는 이 길의 이면도로조차도 점

commercial center for a city of over 10 million people. Myong-dong, which is the best commercial area in Korea, seems shabby when compared to the other cleaner and more comfortable pedestrian-only malls located in many smaller European and American cities. There should be bolder investment and shop-owner's helps to make a wider pedestrian-only mall in this area so everyone could enjoy the area more fully. It is hailed by citizens some part of Myong-dong Street should ban cars on Sunday to ensure the place where people meet together and be pleasant. It would be nice if such a ban on cars were extended to Chungmu-ro and was in effect during the we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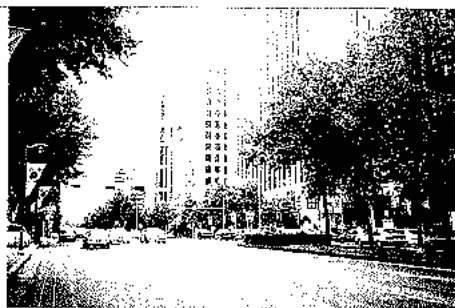
Abgujyong Street

It is one of the most vibrant and bustling streets in Kangnam-gu, particularly the area around the Galleria Department Store. As a matter of fact, the back streets south of Abgujyong Street are more crowded than Abgujyong Street itself. There are various shops for beverages, clothes, on both sides of the road, which attract groups of young people. The ambulation

environment and quality of buildings stood on the road are not so good but the road becomes alive with people all eager to consume. The northern end of Syonreung Street is called as Rodeo Street where the shopping malls cater to high-end luxurious goods and services such as clothes and accessories, classic restaurants and cafes. This area attracts many patrons. The streets' around Abgujyong Street is a Myong-dong street of Kangnam-gu. The demands for high priced goods and luxurious services were so large that a commercial district centered on large Department Stores has developed. The inconvenience for residents of Kangnam-gu to shop in the Myong-dong area was a key factor to form an independent commercial district in Kangnam-gu. Many shops for high-quality brand clothes and restaurants recently stood in a row and their construction quality has been improved on Abgujyong-ro where it connects to Samsung-ro. There has been a gradual transfer from a residential area to commercial one in the Kangnam area. This change has occurred when there was a sharp increase in the national income and it contributed higher quality architecture in this area. Nowadays, even back



강남구 테헤란로
(압구정역의 길)
Taeheran Street
(Streets of Commercial
Districts)



차 카페나 주점으로 변화되고 있다.

• 이태원로

많은 외국관광객이 찾아오는 이태원로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명소이다. 길 주변의 상업활동이 활발하여 옷, 신발, 가방, 기념품 등을 저렴하고 다양하게 살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활기찬 곳이기도 하다. 건축적 의미를 가지거나 찬사를 받을 만한 주변의 건물은 없지만 길 주변에 펼쳐지는 각종 상품은 그야말로 좋은 볼거리이다. 이러한 명소에 걸 맞지 않게 보행공간은 빈약하다. 상점의 물품전시가 일부 도로로 뻗어 나오기도 하고 행상이 보도를 차지하기도 하고 전봇대, 표지판 등 가로 시설물을 제외하면 3m 남짓의 보도에서 보행 유효폭이 1.5m가 되지 않는 곳도 많다. 이러한 거리에서 재미있고 쓸모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편이나 다행스럽기도 하다. 현재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지하철 공사가 마무리될 때는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아마도 사람들이 부딪히고 피해가고 하면서 흥미를 느낀다고 할 지 모르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roads continue to attract bars and cafes.

Itaewon Street

Itaewon Street is an international tourist area attracting many international and Korean visitors. Enticed by a high concentration of inexpensive clothes, shoes, bags and souvenirs being sold not only the numerous shops, but also the sidewalk stalls which line the street making one feel they are in an open market place. Even though there is no architecturally meaningful or significant landmarks the many goods in such an open display cannot help but catching passersby's eye. However, the ambulation environment of this area is very low. The average width of usable walkway for the pedestrian is narrower than 1.5m as the merchants' stalls, and other on-road facilities like telephone poles; signboards use up a significant proportion of the sidewalk. It is remarkable that this road has become a pleasant place for citizens and tourists in spite of its poor environment. On-going subway construction aggravates the existing hustle and bustle of the street but I hope

비율이 얼마나 될까?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은 이곳 상권도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고 더욱 각광 받는 국내외의 명소가 될 것이 분명하다. 전천후 보행환경의 조성을 위한 지붕있는 보도가 이곳에서 설치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거지역의 길

• 반포 아파트단지내의 길

서울시내의 대부분의 아파트단지내의 길이 그 러하듯이 주 통로는 차량 교통이 겨우 되거나 불가능하게 활용 되고 차로 주변에 1.5m에서 2.0m 정도의 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보행량이 많을 때는 보도가 좁기 때문에 차도를 이용 하는 보행자도 간혹 나타난다. 보도가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는 차도 횡단시에 보도에서 차도로 보행방향을 바꾸면서 계속적으로 차도를 이용하기도 한다. 녹지와 주차장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보도의 확보와 연속적인 연결은 보행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주택사업 승인시에 보도의 면적을 조정면적으로 인정해주고 보도에 수목, 벤치, 조형물 등의 각종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풍요로운 보행환경이 조성되지

the party concerned will take it into careful consideration the need to improve the poor ambulation environment once the construction is completed. Many people might consider it interesting to bump and jostle with each other on the street, however a more comfortable ambulation environment might help to develop this commercial area into one which is more interesting sightseeing site for Korean and foreign tourists. I hope that all-weather pedestrian malls could be constructed in this area.

Streets in Residential Districts

Paths in Banpo Apartment Complex

As in most apartment complex in Seoul, the paths of Banpo apartment complex are so narrow there is barely room for two cars to maneuver past each other. Sidewalks in this area are quite narrow from 1.5m to 2.0m forcing people during busy times to walk on the road instead of sidewalk. The sidewalks are also in poor repair often stopping and starting with out reason encouraging passerby to use the roadway. Wider sidewalks, which are easy and safe to walk



중구 명동길
(상업지역의 길)
Myeongdong Street
(Streets of Commercial
Districts)



않을까? 보행환경 개선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보도의 평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신체가 건장한 일반인도 차도에서 걷는 것이 보도에서 걷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다. 허물며 노약자인 경우에는 보도에서 걷는 것이 얼마나 불편할지를 상상해 볼 수 있다. 현재의 설계나 공사방법은 보도가 평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서글퍼진다. 각종 지하 매설물을 매입할 때도 보도를 파헤치고 적당히 덮어 둔다. 또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 특히 어린이는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야 한다. 차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한 통행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한편 아파트 단지내 길을 걷다 보면 길 주변의 황량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 아파트의 측벽이거나 주차장 또는 식재 공간이다. 보행로를 에워싸주는 건축물, 조경시설, 휴게시설 등 일상생활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배려가 아쉽다. 마포아파트의 단지내 길은 사뭇 다르다. 단지내 중심에 보행이 위주이고 차량통행도 가능한 보차공존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단지주변에 차량통행로가 형성되어 차량은 단지주변을 우회하여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된다. 중앙의 보

차공존도로는 포장재질이 미려하고 주변에 각종 조경시설이 설치되어 단지를 즐기면서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많이 보급이 기대된다.

• 단독주택지의 길

모즈음에는 서울에서 순수하게 단독주택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드물다. 그동안 공동주택이 워낙 많이 건립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로폭이 10m가 넘는 단독주택지의 길에는 대부분 점포겸용 주택이 주변에 입지하여 길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주택가와는 완전히 다르다. 단독주택지는 거의 모두가 6m 정도의 도로변에 위치하고 1980년대 후반에 다세대 주택의 보급이 촉진되면서 단층 주택이 대부분 3층 정도의 다세대 주택으로 탈바꿈하였다.

일원동과 잠실동 주변에 이러한 다세대 주택이 많이 건립되었고 차량보급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집앞 도로가 대부분 주차로 채워져 있어 어린이 놀이나 주민들의 담소가 예전과 같이 행동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집앞 도로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은 어린이들이 집앞 도로에서 노

on, are as important as trees, lawns and parking areas in ambulation environment. How about including the sidewalk's width as part of the gross area that is required to be landscaped before the approval of construction takes place? How about installing various facilities like benches, formative art and planting trees on sidewalks? Another serious problem, which adversely affects the ambulation environment, is quality of the sidewalks and the fact that they are not well constructed. Even healthy adults feel more comfortable walking on roadway. This can cause a serious safety problem for senior citizens and children and limit the mobility of the physically handicapped people. The common practice of jerry-covering sidewalks after construction is extremely dangerous for bicycle riders and children. Planners should consider how difficult it is for them. It's regrettable that the current designs and construction practices ar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sidewalks are little value and not well constructed. It is little wonder that so people prefer to use the roadway with the dangers that exist there with the traffic rather than the sidewalks. One only has to walk through this complex to see how bleak the landscape is, all that can be seen is side of

buildings, parking lots and cars or trees-planted strips. It would be more pleasant if the sidewalks in the area were adorned with formative arts, landscaped greenery and recreation facilities. In contrast, the paths of the Mapo Apartment Complex are unique to those of the other complexes. There are pedestrian-oriented coexistence roads in the center of the complex and a roadway around the exterior of the complex that allows residents to make a detour to park their cars in parking lots. The central pedestrian-oriented ways are constructed with elegant materials and utilize various landscaping techniques, which make it pleasant for the inhabitants to walk about the complex. I hope this kind of apartments becomes common around Seoul.

Paths in Detached House Area.

It is rare to see an area, which is only for detached homes. This is because so many public housings and apartment complexes have been constructed and because many buildings combine both shops and houses. These use to stand on wide paths of over-10m in width creating a different



중구 명동길
(상업지역의 길)
Myeongdong Street
(Streets of Commercial
Districts)



는 것을 위협하게 생각하고 있다. 도로에 많은 활동이 일어나 기도 하지만 차량의 빈번한 통행 때문에 활동이 대부분 지속적 이지 않다. 도로의 포장 상태는 대부분의 경우 파헤친 자국이 나타나 미려하지 못하다. 보행중심이면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바닥의 포장재료가 개선 되어야 하고 과속 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은 주민들이 집앞 도로를 보다 적극적으로 또 한 안전하게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결언

이상에서 살펴보았지만 도시를 경험하고 파악 하는 데 보행환경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서울시 시장개발 연구원에서도 이러한 측면을 숙지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 발간된 "걷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 한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연구보고서에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10대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기초 보행환경 개 선사업으로, 1) 교차로 횡단보도 복원 및 확충사업, 2) 보도상

주차금지 및 보도시설을 정비사업, 3) 우리동네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선정하였다. 둘째, 대중교통이용과 직결된 보행환경 개 선사업으로, 1)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확충사업, 2) 역과 정 류소간 환승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선정하였다. 셋째,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1) 차 없는 거리/구역 조 성사업, 2) 보행자 친화적 도로구조 개선사업, 3) 교차로와 교 통광장 지하구조 개선사업을 선정하였다. 넷째, 장애인 보행여 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 무장애 사범역/건물의 지정사업, 2) 무장애 시범가로/공원의 지정 및 정비사업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서울시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걷고 싶은 도시를 만 들게 되면 시민의 생활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 로 활용될 것이다.

문화의 거리, 도심상권의 보행로, 주거지의 생 활도로, 녹화 거리 등 주제를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면 주변 건축물의 질적수준도 더불어 향상될 것으 로 본다. 주요가로변에 건축물을 지을 때 미관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건축물에 미관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보행환경 이 먼저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행환경을 정비할 때는

atmosphere than the house-only districts. Most detached houses are located on paths, which are 6m-wide usually flanked by one-story buildings. However, most of these have been converted to three-story buildings after the introduction of multi-household structures the late 1980s.

These new styled multi-household houses were built mainly in Ilwon-dong and Jamshil-dong areas. As automobiles became more prevalent, the paths in these areas became crowded with parked cars, making it uncommon to see children playing in these areas as they once did. Most parents regard it unsafe to play in the streets, as it has become too dangerous because of the parked cars and traffic. There are still many activities that take place on the paths but they're cut intermittently for the passage of cars. The pavement condition of the street and pavement has also deteriorated, as there are many bumps as a result of past excavations.

The paths must be repaired and upgraded with better materials and features to deter speeding if they are to fulfill their original ambulatorial function and become a more pleasant places for the inhabitants.

These improvements would enable the residents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paths in active and safe way.

Concluding Remarks

As we seen, the ambulate environment is a key factor in experiencing and analyzing a city and making it a pleasant and comfortable place. The City Policy R&D Institute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recently studied ways to improve ambulatorial environment. Ten recommendation have introduced in the recently published Basic Ambulatorial Environment Improvement Plan as one of Seoul Agenda 21, which is aiming at making Seoul a city where citizens work together to create a pleasant and friendly environment. There are (1) zebra crossing restoration and expansion business, (2) No-parking on sidewalk and its facilities maintenance business as basic improvement of ambulatorial environment and (1) subway escalator expansion business (2) transfer facilities expansion business for buses and subways as an improvement measure of ambulatorial environment linked to



용산구 이태원길
(상업지역의 길)
Itaewon Street
(Streets of Commercial
Districts)



장애인 노약자를 먼저 배려하여야 하는데 이는 사실 정상인에게 오히려 더 큰 도움을 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도에 녹지 확보가 주요한 곳도 있고 휴식시설이 중요한 곳도 있으며 어떤 곳에는 지붕이 있는 보도가 필요한 곳도 있다. 서울 강북에는 최근 내부순환도로가 완성되어 동서간의 교통소통도 개선되었다. 종로가 계속적으로 차량을 위주의 도로로 남아 있어야 할까? 영국 런던의 옥스포드 스트리트(Oxford Street)는 차도보다 보도가 훨씬 넓다. 도로가 아무리 넓어도 차량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차도를 좁히고 넓은 보도를 형성하여 도심상권이 부양되었다. 이렇게 넓은 보도는 비상용 차량의 통로로 활용되기도 한다. 차도가 아무리 넓어도 체증이 생기면 비상차량마저 통행이 곤란하다. 보도는 항상 열려 있으므로 체증 시에는 비상차량이 움직일 수는 있다. 보행이 편한 도시, 보행하면서 주변의 건물과 명소를 즐기고 쇼핑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도시야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도시가 아닐까?

Public Transportation. The third is pleasant pedestrian space expansion business like (1) streets/districts that ban cars, (2) pedestrian-friendly improvement to the road system, (3) intersections and squares geometric structure improvement. The fourth is ambulatorial environment improvement for the physically handicapped, which would include (1) no-threshold model station/building, (2) no-sill model, pedestrian path/park and their maintenance. These kinds of businesses should help Seoul become a pleasant city to live in and to improve living standards and attract more tourists. Cultural Streets, Pedestrian-only Malls in the central commercial districts, pleasant paths in residential area and the movement to greener streets will help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buildings as well as the ambulatory environment. Any building constructed on a major street would have to undergo aesthetic deliberations. But it would also be desirable if these building had to undergo ambulatorial environment deliberation as comprehensive as the aesthetic deliberation. These deliberations w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needs of the physically handicapped and senior citizens. This would ensure that any reconstruction or



서초구 반포아파트(주거지역의 길)
Paths in Banpo Apartment Complex

maintenance of sidewalks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would meet the needs of both normal and handicapped people. Some areas require more green space whereas others need benches to rest on and finally others require a roof to shelter pedestrians' from the elements. The northern part of Han River, an Inter-city Rotation Highway was recently constructed to resolve traffic problem between the east and west Seoul. Should Chongro remain as a pass-through way for traffic? Oxford Street in London has wider sidewalks than the roadway. Originally the roadway was much wider and filled with so many cars that it was difficult for emergency vehicles to pass. London City decided to narrow the roadway and widen the sidewalks to promote commerce in the area.

The sidewalk now can be transferred into emergency lane at any time. Is Seoul the type of city we want to live in, with pleasant areas to walk around, shop in and visit famous tourist attractions and landmarks?



종로구 관철동 젊음의 거리(상업지역의 길)
Kwanchaedong Streets (Streets of Commercial Districts)



송파구 일원동 단독주택지(주거지역의 길)
Ilwondong Detached House Area

미래의 서울 그리고 건축은 존재할 것인가? Will Architecture and Seoul Exist in the Future?

함인선 / (주)인우건축사사무소, 명지대 겸임교수
by Ham In-Sun / Architect, Professor at Myungji Univ.

지력(地力)을 다한 도시 서울

'서울'과 '미래'와 '건축'을 아울러 말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먼저 건축이 도시의 세포라는데에 이의가 없어야 한다. 또 하나는 분당과 포페이가 말해주는 바대로 도시는 생노병사가 있는 생명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서울건축이라는 세포의 미래 모습은 서울이라는 도시생명체의 장차 운명과 직결돼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농사를 착취적으로 지어대면 지력(地力)이 고갈되어 사소한 풍수해도 천재지변이 되고 만다. 지금 북한이 그 지경이다. 이 이치는 도시에도 적용이 된다. 지력(地力)을 착취당한 도시의 미래는 없다. 급격한 근대화 과정을 통해 우

The City of Seoul which has exhausted its fertility

The following two items should be set as premises before discussing the future, construction, and Seoul all together. First, there should be no assumption that construction is the "cell" of the city. Second, as Pundang and Ponpai once clearly showed, a city is a living organization which experiences the cycle of birth, aging, disease and death. From this point of view, the future aspects of the cell, namely the construction in Seoul, is directly linked with the future destination of the city organization.

If we exploit land by farming, the fertility of the land will be exhausted soon and even trifle storms and flooding will result in natural disasters. This is exactly the situation of North Korea. This principle also applies to a city. There is no future for a city whose fertility is exhausted. Through rapid modernization, the fertility of our cities, especially Seoul, has been exhausted. Mentioning the future of "the cell without the whole", and future of "Seoul without future" in this situation, is literally an Oximoron, as is implied by the origin of the word, "Sharply blunt".

Let's look at several examples which indicate that the fertility of Seoul is exhausted. First, even though the number of roads in Seoul is excessively low compared with that of other major cities, the construction of new roads cannot even be conceived due to the astronomical damage, so much so that the construction of an underground highway has been proposed. This

리 도시, 그중에서도 우뚝하게 서울의 지력은 거덜이 났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가 없는 서울'의 미래, 그리고 '전체가 없는 세포'의 미래를 말하는 것은 '날카롭게 무디다'는 어원 그대로 옥시모론(Oximoron : 모순어법)이다.

서울의 지력이 소진되었음을 알려주는 몇가지 증거를 대자.

첫째, 서울의 도로율은 다른 나라의 주요도시 에 비해 턱없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로를 뚫는 것은 천문학적 보상 비용 때문에 엄두를 못낸다. 아예 지하 도시 고속도로를 내지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다. 도시의 토지가 이미 고도로 이용되고 있어 더 이상의 공공적으로 쓸 수 있는 여분이 없다는 뜻이다. 이쯤되면 혈관경색도 종종인 셈이다.

둘째, 최근 들어 서울의 여름에는 열섬(Heat Island) 현상이 두드러진다. 대지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각종 구조물이 땅을 덮고 있고, 냉방을 하며 건물내부의 열기를 외부로 뿜어대기 때문이다.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있는 대지 아래가 어떤 꼴이 될 터인지 구구히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셋째, 팔당댐물이 식수가 되기 골른지는 오래 전이고 자타칭 진보적이라는 대통령마저 동강댐이 건설되지 않으면 서울의 물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한다. 서울은 이미 자체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식물도시가 되어 물문제는 강원도에서 해결하고 쓰레기는 경기도에서 해결한다. 서울은 자신에

means that there remains no space for public use any more since the land of the city is already highly utilized. If the situation gets more serious than it is now, it will take on the features of a serious case of hardening of the blood vessels.

Second, a "Heat Island" phenomenon has markedly increased in recent days during the summer in Seoul.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re are too many structures covering the ground to the extent that the earth can not breathe at all, and the heat inside the buildings has been piped outside by air-conditioning units. Then we don't have to explain the situation under this ground that has difficulty in breathing. The situation under the ground must be more serious.

Third,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water from Paldang dam could be used as potable water, and even the president, who claims himself or is recognized by others to be progressive, noted that the potable water problem could not be solved without the construction of dam on the Dong river. Seoul is already a "vegetable" city which can not survive without outside help, so that potable water is provided from Kangwon-do, and waste is disposed of in Kyunggi-do. Having completed the exploitation of itself, the city is spreading its influence to the outskirts.

Fourth,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has recently allowed the reconstruction of multi-households housing with a unit size smaller than 20 households, as a countermeasure for unemployment through stimulation of real estate business. A total of about 120,000 households are expected to be constructed under this measure. Even though this measure means

대한 착취를 완료한 후 이를 주변으로까지 전이시키는 중이다.
 넷째, 최근 건교부에서는 부동산경기 진작을 통한 실업대책이라 쓰고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재건축을 허용했다. 서울에서만 12만여호가 대상이 되리라 본다. 이 조치가 가진 함의는 더 이상 신축할 땅이 없다는 뜻도 있지만 일자리만 생긴다면 밀려난 것을 부수고 짓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공급의학적 발상이 더 크다. 새로 짓는 것은 더욱 도시기반 착취적인 고밀도일 것이 불문가지일 터이니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 밖에도 여러 방증을 들 수 있겠지만 어쨌건 세기말 서울은 말기 암환자의 가지 가지 증상을 보인다.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감기로도 죽을 수 있듯이 지력이 다한 서울에게는 사소한 변고도 도시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듯 도시의 운명 자체가 문제가 되는 한 건축의 미래문제는 도시의 미래문제의 후순위이다. 그렇다고 도시문제만 해결되면 건축문제가 저절로 풀린다는 뜻은 아니다. 암치료가 암세포를 죽이고 건강한 세포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식을 취하듯 도시를 치유하는 방식도 결국에는 세포적 단위에서 비롯된다.

다만 강조하는 것은 이 도시생명체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에 대한 구조적 시각이 없다는 올바른 진단과 처방이 불가능하며 도시문제와 유리된 채 건축문제는 건축문제

that there remains no site for construction any more, the real implication is a concept taken from first-aid treatment that it doesn't matter if we destroy buildings which can be still used if employment opportunities can be provided. Since the new construction adds density to the city foundation, it will result in a vicious circle.

Seoul at the end of this century shows several symptoms of a cancer patient in the terminal stage. For Seoul, which may die even from a cold since its immunity is lowered, trifling misfortunes can sway the fortune of the city.

As long as the fortune of the city itself is unclear, the future of the city is the next priority problem which we have to ask about. It doesn't mean that the construction problem can be solved of itself, once the city problem is solved. Since we treat the city as we treat cancer in such a way as to kill the cancer cells and to raise the immunity of the healthy cells, the treatment is originated from the cell unit.

What I would like to emphasize here is that we can not diagnose and treat the symptoms properly without a structural viewpoint of why the city's living organization has turned into such a crisis situation. The construction problem can not be solved with a closed logic approach that treats the construction problem as just a "construction problem" considering it to be isolated from other city problems.

라는 식의 폐쇄논리로는 건축문제조차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도시 발전의 논리

우리의 서울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이것은 정책적인 잘못 때문인가? 아니면 좀 더 근본적인 체제적 문제인가? 필자는 우리나라가 급격한 산업화를 통한 경제근대화 노선을 택했던 이상 지금의 결과는 당연하고 숙명적인 귀결이라고 본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도시발전의 메카니즘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가 필요하다.

기존의 도시연구 방법론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은 도시의 진정한 실체로부터 분리된 공간현상으로만 접근하는 실증주의적 방식이다. 이들은 도시의 물리적 현상에만 국한해 보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는 사회적 현상이나 구조적 본질에는 무관심하다. 예로 위에 거론한 서울의 여러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도 이들 이론에 근거하여 원인을 따지면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고 처방을 물어보면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면"이다.

하나마나한 얘기가 아닌가? 정작 대답해야 할 것은 누구의 이해에 의해 '도시화'가 이루어졌으며 그것의 대가로 망가진 환경을 치유하는 비용은 누가 치러야 하는가여야

Logic of Capitalistic City Development

Why did Seoul get to such a serious stage as it is? Can we attribute it to the wrong policy? Or is it a more systematic fundamental problem? The author thinks that the situation today could not have been avoided since we took the line that economic modernization had to come through rapid industrialization. Political economic understanding on the mechanism of capitalistic city development is necessary to explain this. The foundation of the existing theory for city development is positivism which approaches to the space phenomenon, rather than the authentic substance of city. Since they limit their focus on the physical phenomenon of the city, they are indifferent to the structural essence or the social phenomenon that caused this problem. For example, when looking for the answers based on these theories, the cause of several environmental problems mentioned above can be recognized as "rapid urbanization" and the prescription is "to promote a suitable policy"

Isn't it better not to mention this? What should be clearly answered are as follows: who are responsible for this urbanization which has been promoted, and who should pay for the recovery of the environment which was damaged due to urbanization. The problem of the city of Seoul can not be understood with a quantitative analysis of various statistical figures, and solved with the romantic liberalism based on city ecology, because the city's problem is the expression of a fundamental contradiction of a capitalistic system taking

할 것이다. 서울의 도시문제는 여러 가지 통계수치에 대한 정량적 분석으로 이해에 도달할 수 없고 도시 생태학에 근거한 낭만적 자유주의로서는 해결될 수 없다. 왜냐하면 도시문제란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모순이 도시공간을 매개로 하여 표현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도시정치경제학적으로 서울의 도시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를 상술할 수는 없다. 다만 농촌과 도시의 대립을 주요 모순관계로 보는 초기적 관점에서 이튼, 유언적 축적기에 접어든 후기 자본주의 하의 도시모순을 설명하기 위한 후기적 관점에서이튼, 도시문제의 핵심은 도시공간구조를 자본이 전유하면서도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예로 삼성이 추진하려다 자체적 문제로 포기한(IMF가 아니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냈을 것이고 아마도 삼성자동차 형국이 되었을) 도곡동의 초고층 복합건물을 들어 보자. 삼성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목적은 복합화, 집적화로 얻어질 규모의 경제 때문이었다. 단순한 경제논리만 보면 지극히 타당한 귀결이다. 그리고 삼성은 이로 인해 많은 초과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설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수많은 문제 예컨대, 국지적 광역적 교통영향 상하수도 전기 등의 도시 기반시설의 부담, 주변 건물들에 대한 환경적 요인 등이 있을 것인 바 사업주 측으로서 이 비용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고 결국 그것은 공공부문에 전가되는 것이다.(이를 외

부 경제화한다고 한다.)

세금 등을 통하여 충분히 비용을 지불하게 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순진한 생각이다. 이 정도의 시설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집합적 소비(Collective Consumption : 도로, 인근의 주택, 교육 문화시설, 공원, 도시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되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지불유예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초과이익을 챙기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항상 초과 양여를 발생시켜야만 존재할 수 있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여타 부문과 마찬가지로 공간환경 부문에서도 자본은 초과이익을 얻게 되고 비자본측에는 비경제가 발생하여 공간환경의 질이 악화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도시의 지력이 다하게 된 근본적 원인도 이같은 자본의 끝모르는 개발욕구와 초과잉여 획득 노력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에서 공황이라는 창조적 파괴를 통하여 과잉축적분을 소진하여 위기를 탈출하듯이 공간환경에서는 의도적 파괴와 건설을 통하여 위기탈출을 모색한다. 그러나 그 결말은 이미 징후가 보이듯이 한정된 공간환경재의 소진에 따른 파국이다.

이러한 파국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정책적 수단을 통한 대중요법으로는 어렵었다. 한정적이며 불가역적인 공간환경이 재생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 개발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일 터, 그것은 공간환경을 무한히 착취하려고만 하는 자본주의적 발전 방식을 적절히 제어하는 것이리라. 그러

the city space as a medium. I can not make a detailed explanation of how to review the problem of the city of Seoul in terms of the city's political economy, provided however, that there is no objection that, whether from the initial viewpoints that consider the confrontation of the city and the country as major conflict relations, or from latter viewpoints that explain the city contradiction in the latter capitalism which came into flexible accumulation stage, the core of the city's problem has originated from the fact that capital monopolizes the city space structure without paying the cost.

Take an example of the high rise complex building at Dogokdong that Samsung pushed forward but suspended due to its own problem. Samsung seems to have promoted this project to obtain the economy of scale that can be obtained through complexity and accumulation. It is an extremely natural conclusion from simple economical logic. In addition, Samsung would have realized substantial extra profit. However, the owner of the business might have tried to minimize the expense incurred in solving many problems accompanying this project such as local and wide-effect traffic volume, the burden of city infrastructure including water supply and sewerage service, and electricity as well as the environmental effect on the surrounding buildings, which in turn would be shifted to the public sectors. (This is called external economization)

One might suggest that they could be forced to pay enough expenses by various means such as tax, however, this is just a thought. Since they fully utilize the collective consumption(roads, neighboring houses,

education and culture facilities, parks and city infrastructure) to enable the facility of this kind possible, while delaying the payment for the expenses, they could collect extra profits.

The fundamental reason for the exhausted fertility of the city mentioned above originated from the capitalists' endless desire for development and effort to obtain surplus profit. As the economy escapes from the crisis by exhausting extra accumulation through the destructive creation of a depression, so the space environment explores the way out of the crisis through the intentional destruction and construction. However, that termination is a catastrophe accompanying the exhaustion of limited space environment materials.

The only way is to minimize development to the extent that a limited and irreversible space environment can be reproduced, which I believe, will properly restrict the capitalistic development mechanism that inherently exploits the space environment to an unlimited extent. Therefore, this is a systematic problem.

What construction should do in order to recover the fertility of Seoul

Let's start to discuss the future of Seoul construction, based on the understanding so fa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ity and construction can be discussed largely with two dimensions. The first one is the

므로 그것은 체제적인 문제이다.

서울의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 건축이 해야 할 일

이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서울건축의 미래를 말해 보자. 도시와 건축의 관계는 대략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 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앞서 언급한대로 도시라는 전체 생명체의 단위 세포로서의 건축이라는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의 경관이라는 측면으로의 건축이다.

개개의 단위건축은 도시의 운명에 의해 규정 당하는 '부분'이지만 이 하나하나의 세포의 건강성에 의해 '전체'의 건강성이 담보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도시와 건축의 관계는 상호적이며 유기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금의 서울의 도시 문제 중 많은 부분은 서울건축의 파행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같은 논리로 미래 서울의 건강성 회복 여부도 미래 서울건축이 얼마나 건강해질 수 있는가에 의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거론한 문제를 다시 환기하면 도로 공급의 어려움은 건축이 그만큼 대지를 전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열섬 현상 역시 순 건축면적의 증가, 잠열이 많은 콘크리트 등의 재료로 지은 건물의 증가와 냉난방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다. 물, 에너지 부족, 대기 및 수질 오염 또한 자

원 낭비적 건축과 반 환경적 건축이 주범인 경우가 많으며 재생 가능하지 않은 건축재료와 짧은 건축수명에 의하여 엄청난 양의 건축폐기물이 발생한다.

참고적으로 EU가 만든 보고서에 따르면 건물의 환경에 대한 영향은 다음과 같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50%, 총 원자재(Raw Materials) 소비의 40%, 총 오존파괴 화학물질 사용의 50%, 전체 농업용지 상실의 80%, 물 사용의 50%가 건축에 의하여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EU는 각종 규제를 통해 에너지 절감, 오염방지 수자원 보호, 재활용 의무화, 유독물질 폐기물 소음 등의 제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의 지어지는 많은 유럽의 건축들은 '지속가능한 건축(Sustainable Architecture)'을 확두로 삼아 지어지고 있다. 이들 건축의 주요한 이슈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거주 및 작업공간 창출
- 온도, 공기, 음향, 전자기, 시각적으로 쾌적한 공간의 창출
- 녹지, 바람, 태양, 물과 건축과의 관계
- 원료절감적(Resource Conserving) 건물
- 경량기술, 재생가능한 Raw Material로 된 건물

construction of the unit cell as a living organization of Seoul as mentioned above, and the second one is construction taking a viewpoint from the city landscape.

Relations between the city and construction is reciprocal and organic, considering the fact that even though each unit construction is a part that is specified by the destination of the city, the health of each cell guarantees that of the whole. From this aspect, the many parts of the city's problem at present can be thought to have originated from the erratic feature of Seoul's construction. Based on the same logic, whether Seoul can recover its health in future, depends on how much Seoul's construction can get healthy and sound.

Reflecting on the problem discussed above, the difficulty of a road supply originates from the fact that construction takes much land. The "Heat Island" effect is also caused by the increase in total construction area, heating and air-condition, and buildings constructed with the concrete which has a high latent heat. In most cases, the deficiency of water and energy, air and water pollution are caused by anti-environment constructions or those that waste resources. Exorbitant amounts of construction wastes are generated by the un-recyclable construction materials and short life cycle of the construction unit.

For references, the effect of a building on its construction is as follows according to a report by EU.

50% of total energy consumption, 40% of total raw materials consumption, 50% of total chemical substance destructing ozone layer, 80% of total loss of arable land, 50% of total water usage were reported to

have been generated by construction. In light of this, the EU strongly request a reduction of energy, protection of water resources to prevent pollution, obligation of recycle, and constriction on the toxic substance, wastes and noise.

These days, many construction projects in Europe have been built using the practice of "sustainable architecture". The important issues of these construct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Creation of new residence and working space to cope with the information era.
- Creation of pleasant space in terms of temperature, air, sound, electromagnetism, and sight.
- Relations with green fields, wind, sun, water and construction.
- Resource Conserving Building : construction built with light weight technology and recyclable raw materials
- New Skin: insulation, shadow, sunshine regulation, natural ventilation, transparency
- Building Ecology: ecological plan, material, economy and ecological life cycle of building
- Expansion & Renovation: Changeable structure, external wall and equipment

These ideas should be promptly introduced in the construction of Seoul which has already reached to its state of apparent death.

- 새로운 건물 표면(New Skin) : 단열, 음영, 알조조절, 자연 환기, 투명성

- 건물 생태학: 생태학적 계획, 재료, 경제, 건물의 생태학적 라이프 사이클

- 확장과 개량(Expansion & Renovation) : 변화 가능한 구조, 외벽, 설비

이상과 같은 주제들은 가사 상태에 이른 서울의 건축에도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항목들이다. 서울의 자연 치유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더 늦기 전에 서울의 지력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서울은 아마도 화전민들이 버리고 간 버려진 밭 끝이 될 것이다. 미래의 건축은 미래의 서울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그 미래의 서울의 운명을 만들어 가는 키워드는 다름 아닌 현재의 건축이다.

미래 서울 도시경관과 건축

도시와 건축의 또 다른 연관은 건축이 그 도시의 경관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건축경관은 하나의 보는 방식(Way of Seeing) 다시 말해, 세계관과 연관이 있다. 또한 건축은 언어적인 속성이 있어 건축물 상의 다양한 조형과 기호를 통해 무엇인가를 표현한다. 그러므로 건축경관을 면밀하게 읽

No one knows how much natural healing power of Seoul remains. If we don't actively launch the treatment to recover the fertility of Seoul before too late, the future of Seoul will become like fields that even the brand-tillers have left behind. Future construction may be determined by the Seoul of the future, of which the keyword is nothing but the construction of the present.

Future city landscape of Seoul and Construction

Another relation between the city and construction is the fact that construction becomes one of a landscape element for that city. Construction landscape is related to the way of seeing things. That is, the view of the world. In addition, construction expresses something through various shapes and marks in the construction, since construction has a linguistic property. Therefore, close examination of the construction landscape paves the way for the recognition of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ituation as well as the intention of the architect.

It may be understood that since the cultural phenomenon of the landscape can be seen as the upper structure, it passively reflects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lower structure of the day. Therefore, those architects who take charge of landscapes may be easily absorbed with the skeptics of defeatism who say, "what can we do?" However, we should know that the space and landscape are not a passive reflection. I mean we should recognize

으면 건축가의 의도 뿐만이 아니라 당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을 알아낼 수 있다.

경관이라는 문화적 현상은 어떻게 보면 상부 구조이므로 당대의 정치 경제학적 하부구조를 수동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므로 주로 경관을 담당하는 건축가들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패배주의적 회의론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공간과 경관은 수동적인 투영이 아님을 알 필요가 있다. 거꾸로 공간과 경관이 자본주의 사회 과정을 분절하고 재구성하기도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건축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은 건축의 언어적 특성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예를 들어 관공서나 은행이 신고전주의적 입면을 선호하는 것은 그들의 권위와 위엄을 강조하기 위한 표상으로 그 스타일이 적합하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그 건축은 공간적으로 여타 건축과 분절이 된다. 대기업체의 사옥이나 고급 쇼핑센터 역시 단순히 기능적인 요건만 갖추지 않는다. 소위 그 건물에 걸맞는 '이미지'를 갖추도록 하여 차별성과 그에 따르는 정치적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건축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은 유연적 축적이 특징인 포스트 포디스트적 도시에서는 더욱 강조되는 측면이다. 서울이 포스트 포디스트적 메트로폴리탄으로 변

that space and landscape divide or reconstruct the social course of capitalism to the contrary.

As shown above, the role of construction as an ideology has originated from the linguistic features of construction. For example, the reason why public organizations and banks prefer the neoclassical profile is that the style is suitable as an expression to emphasize their authority and dignity, and thus that construction is differentiated from other construction in terms of space. The company buildings of the conglomerates and high-class shopping centers are not equipped with only simple functions. They intend to obtain political effect and differentiation by equipping themselves with the image matching that building.

These ideological features of construction are more emphasized in the Post-Fordist city whose features reflect flexible accumulation. The recent construction trend clearly shows the fact that Seoul changed to a Post-Fordist metropolitan. The traditional industry of mass production increasingly moved to the provinces, and high-tech related industries and urban type industries(clothes, printing, etc.) are developed in Seoul. Amid all of this, there was also an increase in constructions for the finance, service, distribution and information-related industries that support the high-tech production process.

This process means that the spatial inequality become more severe than the Fordist city in the past. That is, the space was relatively

모하고 있음은 최근의 건축동향을 보면 알게 된다. 전통적인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들은 점점 지방으로 이동하며 서울에는 첨단관련 산업과 도시형 산업(의류, 인쇄 등)이 성장하는 가운데 고도화되는 생산과정을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 유통, 정보 관련 산업을 위한 건축이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이 의미하는 것은 과거 포디스트적 도시에서 보다 공간적 불균등성이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뜻한다. 즉 과거에 생산부문에서만 자본-노동의 대립이 존재하였을 때는 공간은 비교적 중립적이었으나 이제 생산-소비 전과정에서 자본의 전방위적인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된 결과 공간을 둘러싼 계급적 분극화와 차별성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이다.

쉬운 예를 들어 동네 슈퍼는 대형 양판점과의 경쟁에 의해 폐쇄되고 있고 소규모 식당들은 외식산업 체인에 게 자리를 내준다. 도시 내의 소형주택들은 도시형 산업에게 터를 내주고 시 외곽의 아파트단지로 이주하게 된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압구정동 로데오거리라는 특화된 지역이 생기고 이에의 접근은 시장접근 능력에 의해 차별화된다.

따라서 도시의 경관 역시 철저하게 분극화된다. 이제는 공간과 경관 자체가 상품이 되었기 때문이다. 로데오거리의 패션 샵이나 카페 건물은 아주 첨단적이고 고급스러지 않으면 안된다. '격'에 맞아야 손님이 들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동네 빵집도 세련된 실내 디자인과 프랑스로 된 상호를

가지지 않고는 생존이 어렵다. 20년 전 찜종로와 구로동의 도시경관에 큰 차이가 없었음을 기억할 때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노동자들은 이중으로 수탈을 당한다. 종래의 생산관계에서의 수탈에 이어 노동 재생산 과정인 소비, 여가, 문화의 영역에서까지 자본의 힘에 종속되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 소비의 과정은 문화적 외피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매우 자발적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이 질곡은 더욱 심화가 될 것이다. 비교적 도시 복지제도의 탈상품화가 이루어진 서구의 도시들에 비해 전 문화소비가 개인의 지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우리 서울에서는 자본주의적 관계의 문화적 내파현상은 더욱 불건강한 모습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건축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금 상태로라면 자본 측에 더욱 새롭고 세련된 디자인을 공급하여 그들의 초과이익에 철저히 봉사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고급한 건축가일수록 더욱 차별화된 도시경관을 창출하는데 앞장서서 공간과 경관의 분극화를 촉진시키고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이데올로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 이것이 개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항거가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대강 이러한 생각들이 건축가들을 패배주의적 개인주의로 침잠하게 만드는 것

neutral when the confrontation between capital and labor existed only in the production field. As all the processes of production-consumption are subject to influence from the all directions of capital, however, the class polarization and discrimination surrounding the space became more severe.

For example, small grocery stores are destroyed through competition with large supermarkets, and small restaurants give way to a food service industry. Small houses in the city turn the space over to urban industries and move to apartment complexes outside the city. The specialized district of Rodeo Road at Apkujong-dong was generated and the access to this is differentiated by the market accessibility.

Accordingly, the landscape of the city is also polarized, as the landscape and space themselves are products. Fashion shops and cafe buildings at Rodeo road should be high-tech and high-class, since customers may visit only when the status of the store fits their tastes. Even a small bakery at a village can not survive without having a defined interior design and French name. It is an astonishing change,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re was no big difference between the city landscape of the Jongro and Kuro-dong of 20 years ago.

In light of this, workers are exploited in double. Following their exploitation from the existing production relations, they are subordinated by the power of capital even in areas of consumption, leisure and culture, the labor reproduction process. An even more serious problem is that the process

of consumption can be misunderstood as a voluntary one since it is covered with cultural aspects.

Unless there are fundamental changes in the future, these fetters will be intensified. Cultural Intro-Propagate phenomenon of capitalistic relations will have more unhealthy and unsound aspects in Seoul where cultural consumption is carried out through personal expenses, compared with the cities in the western world where the city welfare system is provided as a necessities relatively speaking.

What is the role of construction here? If it remain as it is now, construction will completely serve the extra profit of the capital side, by providing newer and refined designs on the capital side. In short, a more high-class architect would take the lead in creating a more differentiated city landscape and accelerating the polarization of the space and landscape, thus acting as an ideology that deepens the social inequality. Is it no use to personally resist even though it is against a person's conscience? These kinds of thoughts seem to drive the architecture into individualism with defeatism.

However, is it necessarily so? If that is impossible personally, can we reverse or at least control the capitalistic logic with the consentaneous discussion of the construction world? In this light, the author places my hope on the recovery of soundness of construction criticism as well as the conscientious work of each architect. I think only when criticism is attendant to the social circumstance, going beyond the formal criticism of

으로 본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기만 한가?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면 건축계의 공통된 담론으로서 자본주의적 논리를 역전 적어도 제어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에 필자는 건축가 개개인의 양심적인 작업과 아울러 건축비평 작업의 건강성 회복에 기대를 해본다. 지금같은 건축 내적인 형식주의적 비평을 넘어서 그것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비평이 수반되어야 지금과 같은 건축의 자본에 대한 종속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

다시금 말하거니와 건축은 도시의 산물이고 사회의 반영이다. 그러나 그것이 수동적인 투영에 지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은 건축이 아니라 건물일 따름이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은 건축가가 아니라 건축디자이너일 따름일 것이다. 모든 위대한 예술이 그렇듯 위대한 건축에는 이러한 시대적 규정력을 돌파하는 그 어떤 것이 존재한다. 그것은 당대의 모순을 비평하며 열려질 시대의 지평을 예고해주는 '시대정신'이다.

새천년을 앞둔 지금 만일 이 땅에 이 '시대정신'을 구현할 역량이 있는 건축가들이 있고 그것을 읽어줄 건강한 비평이 존재한다면 '서울의 미래의 건축'은 존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서울의 미래의 건축'은 옥시모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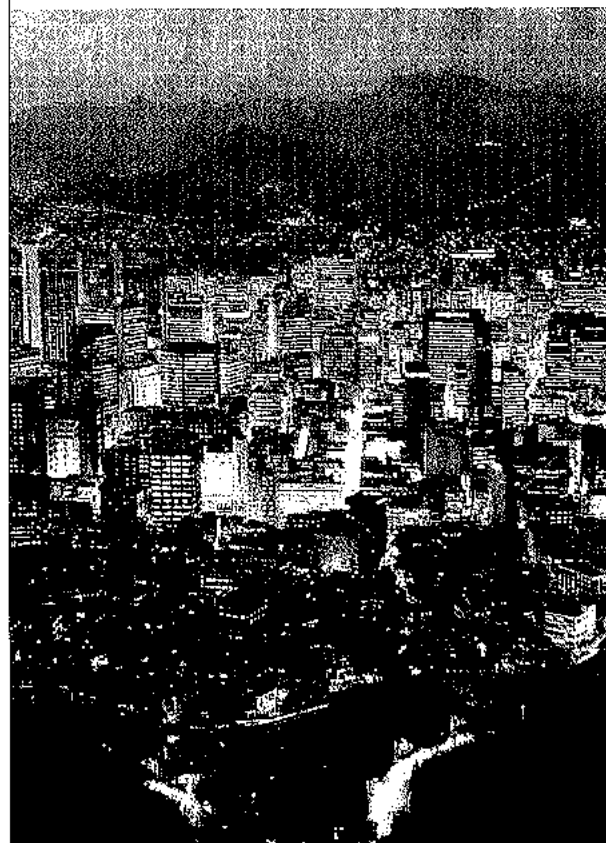
construction, we can prepare the base to get over the subordination of construction to the capital like these days.

Once again, construction is the outcome of the city and a reflection of society. When that is nothing but a passive reflection, however, that is not construction but a physical building, and the person who made it is not an architect but a construction designer. A great construction has something that breaks through the regulations of the times, as all the great arts do. That is the "spirit of the times" that criticizes the contradiction of the generation and heralds the horizon of new times to be opened.

If there is an architect who is capable of realizing the "spirit of the times" and sound criticism that will read this at present when the new millennium is just around the corner, the construction future of the city of Seoul will exist, if not, the construction of the future of Seoul is an Oximoron.



서울야경
Seoul



서울: 도시와 건축의 미래

Seoul: The Future of the City and Its Architecture

일 시 / 1999. 7. 23(금), 14:00 ~

장 소 / 대한건축사협회 4층 회의실

참석자 / 문홍길(하우드건축 소장)

박연심(장원건축 소장)

변영진(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손세관(사회, 중앙대 건축공학과 교수)

정 석(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도시설계연구팀장)

제해성(아주대 건축공학과 교수)

조성룡(도시건축 소장)



좌담광경

손세관 서울은 600여 년이 넘는 고도(古都)입니다. 그런데 지난 30년여 년 동안 급속한 개발로 인해 고도(古都)로서의 가치와 문화적 향기가 상실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무기능만이 팽배한 고유성 없는 도시라는 비판적인 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와 도시계획전문가 등의 이론가와 실무자들로부터 서울의 고유성이나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으로 보아 오늘 좌담의 화두로써 국제적으로 본 서울은 어떤 정체성이 존재하는 도시이며 존재한다면 어떤 측면의 정체성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울은 정체성의 잠재력을 상당히 가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이 가진 정체성의 유·무에 대한 문제와 그 정체성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문홍길 _____ 손 교수님께서 이번 좌담이 건축사협회 주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체성의 문제를 물리적 형태로 강조하여 거론하시는 것 같지만 정체성의 문제는 물리적 형태 뿐 아니라 총체적인 생활의 문제입니다. 물리적 형태로 볼 때 다른 도시와의 차별성이 정체성의 한 측면이라면 분명히 다른 특질을 가진 생활이 또 다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도시와 건축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형태적인 면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생활의 특질 특히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기후나 자연 등으로 확장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체성의 문제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자연히 형태적인 것과 사회경제적 특질과 생활과 자연과의 관계 등 포괄적인 면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세관 _____ 물리적인 측면에서 서울의 정체성의 유·무 대해 논하기 이전에 서울이 우리 고유의 자연과 인문환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을 가진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문홍길 _____ 예, 그렇습니다. 서울은 다른 도시에 비해 강이 크고 사계절 기후가 분명하며 강북과 강남의 형태가 분명히 다른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 도시 안에 다른 성격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 정체성을 하나로만 규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강북의 역사적인 측면과 강남의 급격한 개발로 인한 장소성의 문제를 구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성룡 _____ 제 사무실이 있는 서초구는 예전에는 사흥군이었으며 강남구는 광주군이었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정도의 시간 속에서 서울이 예전에 비해 매우 광범위해졌기 때

문에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의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도시가 지니는 과거와 현재의 이러한 차이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갑자기 30여 년 동안 확장되면서 은연중에 정체성이라는 말 자체를 거론 할 수 없을 정도의 혼돈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방법상 강북과 강남을 다르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현 상태로 즉 역사도시라는 개념을 배제한 서울의 현황만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그러면 어디까지가 서울사람인지에 대한 문제부터 거론하였으면 합니다.

정 석 서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며 서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서울을 구성하는 작은 범위들 즉 작은 지역들이나 동네들을 중심으로 서울의 정체성을 점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해성 그 부분에 관해 동의합니다. 외국을 여행해 보면 외국 도시의 정체성은 비교적 분명하고 특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 서울의 경우에 그것을 구체화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에 온 외국사람의 경우라면 분명히 뭔가 다른 도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정체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체성을 이루는 차별된 각각의 요소들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나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상업이나 업무지역 사람들의 행태나 습관 또는 이미지의 구성방법 등 각각의 요소로 구별하지 않는 한 총체적인 정체성의 발견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큰 도시가 하나의 정체성만 갖고 있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따라서 각각의 요소로 접근하는 것이 정체성을 찾거나 정체성을 만드는 것에 있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연심 서울의 역사 600여 년 중에 실제로 550여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것은 강북일 것입니다. 강북에서 550여 년간 형성된 정체성은 풍수지리에 의한 다른 도시와의 특이한 경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현존하는 것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정체성을 구축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세관 변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것 중 서울의 정체성의 유·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영진 정체성의 논의는 관점과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체성은 있다고 전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도시 속의 서울의 위상으로 보면 여러 도시와 비슷한 도시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정체성이 없다고 본다면 정체성은 없는 것이지만 그와 반대로 역사나 인문환경 또는 자연환경에 관해 정체성을 논한다면 서울은 분명히 정체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우선 서울의 정체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 정체성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찾는 노력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이나 생활주변에서 정체성을 찾을 수도 있고 자연, 역사, 인문환경 등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이며 또한 도시형태의 측면에서도 다른 도시와의 차별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판상형 아파트가 도시경관을 압도하고 있는 서울의 형상도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계에 대한 모호성은 정체성의 모호성과 같은 맥락이라는 점은 동의하지만 실익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서울 주변의 그린벨트를 서울의 경계를 규정하는 물리적 요소를 보고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세관 서울은 형상이나 모양이 특별한 구조를 가진 도시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북경과 동경을 물리적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북경은 자금성을 중심으로 하는 분명



한 핵과 축으로 도시가 발전된 특성을 가지는 반면에 동경은 그 구성이 매우 복잡하지만 각 지역에 따라서 그 장소만의 고유한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북경과는 다른 도시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동경과 가까운 물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도시의 성

장과정 역시 북경보다는 동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북과 강남이 물리적으로 확연히 다르다는 점은 단점인 동시에 장점이 될 수 있는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변 국장님께서 거론하신 것 중 서울은 정체성이 잠재적으로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정체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이 지니는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시켜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아직 각 지역을 특징짓는 독자성이 미처 확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흡한 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서울이 각 장소의 고유성을 결집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성룡 강북과 강남이 서로 다른 장소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며, 특히 강북의 경우 서울을 도읍으로 정할 때부터 600여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던 점이 특이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립 당시의 인구가 15만 정도였고, 한일합방 이전에 30만이 넘지 않았으며, 해방될 때만 해도 100만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4대문 안에서는 미

비한 변화만 진행되어 고유성이 분명하고 다른 도시와의 차별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강남의 경우에는 정책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체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강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을 경계로 북쪽과 남쪽이 다른 도시라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며 또한 시간과의 관계로 서로 연계된 여러 가지 다른 장소성의 문제를 매우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홍길 _____강북은 최근에「도심부관리기본계획」이 제시되어 있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강남은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시형태를 만드는 집단과 주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그것은 정치가, 자본가, 정책가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북은 역사성이 있어서 매우 세밀한 정책적인 면이 필요하므로 자본가의 의사만으로는 기존의 정체성은 잃게 됩니다. 또한 강남은 최근에 형성된 도시이므로 비교적 시간적 역사가 짧기 때문에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정책적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면(面) 적인 개발보다는 선(線) 적인 개발정책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방향 즉 강북은 개발을 억제하고 역사성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강남은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각 지구별 계획에 건축가들이 조언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세관 _____외국에서 귀국하는 길에 공항로에서 본 서울의 경관이 참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중국 북경의 중심부는 자금성을 중심으로 잘 계획이 되어 있지만 주변은 난립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반면 동경은 각 장소의 특징있는 깨끗함과 아기자기함이 너무 인위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북경이 가진 대조성과 동경의 정리된 조합이 가지는 중간적인 성격을 서울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가진 요소 요소의 고유함을 바탕으로 한다면 현재의 미진한 사항은 앞으로 건축가나 도시계획가들의 계획추진 방향에 따라서 훌륭하게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지난 30여 년 동안 과도한 개발로 다소 혼잡한 도시이지만 적절한 정책을 통해 조정하고 통합한다면 앞으로의 장래성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해성 _____이제 정체성의 대상을 거론하였으므로 그 정체성을 실현하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체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정체성의 실체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경에 있다가 서울에 오면 구릉과 함께 다양한 아기자기함을 느껴는데 이것이 서울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으며 잠재력이라 생각합니다. 기능

성 있는 정체성을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며 또한 구체화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정체성의 가능성을 찾아내어 그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과연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를 논의해 볼 때, 도시구조 전체에서 정체성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가로경관 즉 보행환경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룡 _____손 교수님께서 거론하신 공항로에서의 서울의 경관에 대한 느낌은 우리만이 인식하는 정체성이기보다는 외국인들도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도시와 다르다는 점이 특수성이고 이것이 중요한 서울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도시들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공항에서 도심으로 들어갈 때 고층건물군이 먼저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이 도시의 중심으로 인식되는 것에 비해서 서울은 제

일 먼저 산의 경관이 형성됩니다. 도심 안의 고층건물은 보이지 않으며 강을 따라 형성되는 연속적인 경관이 다른 도시들과 다른 점이라 생각합니다. 한 일본건축가가 말하기를 동경에서 서울에 오면 공항에서의 공기부터가 다르다고 합니다. 동경의 공기는 축축한데 비해 서울의 공기는 건조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 같은 강을 따라 진입하는 것에서 차이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이 환경적 정체성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적인 면은 참 좋는데 서울의 도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점을 느낄 수 없습니다.

변영진 _____서울에 대한 이미지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며, 그 이미지 형성의 주요한 요소는 북한산을 비롯한 둘러싸인 산과 한강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친숙한 경관으로써 지금까지도 서울의 정체성의 문제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서울의 도시계획은「도심부관리기본계획」에 의해 산 주변의 건물고도를 제한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대한 정체성을 개성, 본성, 우월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 강남이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강남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조성룡 _____개인적 견해로 강남에서 강북을 향하는 도로에서의 경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치동쪽에서 삼성동쪽으로의 연역을 보면 인수봉과 무역센터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삼성동 사거리에 건설된 고층건물로 인해 인수봉과 무역센터가 가려

저 답답하게 느꼈습니다. 강남이 강북의 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되어진다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의 고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세관 서울의 정체성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도시 전체를 하나의 구조로 보고 이야기 할 수 없고,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살려나가는 것이 하나 답이라는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을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어서 각각을 어떻게 고려하여야 하는지가 중요한 논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북은 북촌 등 고유한 문화적 가치가 있으므로 그 독특한 개발이나 보전의 방향이 있을 수 있으며, 강남은 개발의 잠재성이 있어서 특화된 개발의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논의해 보기로 하지요.

제해성 보통 강북이라고 하면 역사적 가치가 있는 4대문 안으로 한정하여 생각합니다만 강북에도 분명 판상형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북을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과 그 외의 주거, 상업 등이 혼재한 여타지역으로 나뉘어 할지가 혼란스럽습니다.

박연심 문 소장님께서 거론하셨듯이 정체성은 물리적 특징 외에도 생활과 자연환경에 대한 문제라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환경이 사람의 의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강북과 강남 사람의 의식은 분명 차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강북의 환경은 안정되고 보수적인 반면에 강남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행동양식도 여기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의식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러한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강북사람들이 강남사람들에 비해 시대에 뒤쳐있다는 느낌은 계층간의 지역적 차이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압구정동은 상업이 고급화되는 반면에 동대문 시장은 새로이 상권이 형성되고 있지만 고급화나 세련화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테헤란로 주변에 하이테크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에 비해 강북 쪽은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 강북 사람들에게는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남에는 고급빌라들이 위치하는데 강북에도 고급빌라를 위치시켜서 강북과 강남의 계층간 문화를 완화시켜주는 도시정책이 강북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석 정체성을 논의할 때 중요한 점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한 첫째 요인일 것이고 마지막은 사람들의 생활방식이며 그 중간의 것이 건축 또는 도시계획일 수도 있는 역사적 도시구조 안에서 바뀌어지는 것이나 또는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북과 강남을 구분해서 논의하기 전에 서울의 자연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른 정체성의 문제를 우선 진단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도시를 건축해온 방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생활방식에 관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손세관 정 박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말하자면 환경과 건축 그리고 도시의 총체적 물리적 환경 안에서 사람이 존재하므로 강북과 강남은 물리적 환경과 자연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위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울을 가꾸고 다듬는 방법에 대한 문제로 논점을 전환해 나간다면 결국은 강북의 도심부, 강북의 주변지역, 그리고 강남이라는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편의상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서울 도심부관리기본계획안」을 보면 강북 도심부의 경우 역사적 문화는 더욱 보강하면서 상업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기본 목표로 설정된 것 같습니다. 강북의 도심은 문화적인 잠재성이 충분히 존재하지만 그동안 재개발지구로 묶여있거나 계획적이지 못한 개발로 인해서 생기는 불균형이 있어왔는데 이러한 점을 조정하는 것이 당국의 강북개발의 기본적인 기초라고 생각됩니다. 역사적인 향기가 강하게 남아있는 강북 도심에 대한 개발의 접근방식 중에서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에 대해 좀더 말씀해 주시고 강남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면 합니다.

조성룡 건축가의 입장에서 가장 아름답게 느끼는 것은 '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보면 면(面)이 아닌 길 위주의 구성과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강북을 물리적으로 규정 짓는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면(面)적인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길을 예전의 자연의 길 즉 풍수지리적 성격의 길로 전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화려한 아름다움으로 정비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만든 덕수궁 길은 정비는 잘 되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은 이유는 광화문과의 연속성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또 한 예로 을지로 입구 삼각동의 사선길을 개발함으로써 원형의 길의 부재로 삼각동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통과동선인 자동차 통선을 사람의 길보다 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길의 정비는 특히 강북에서는 예전의

길의 성격과 이미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강남의 경우는 직교체제의 길로 인해 자동차가 이동하는 길만이 아닌 보행자가 고려된 개발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해성 강북 중 특히 4대문 안 도심지역은 항상 역사적 보존가치와 도심이 가지는 기능에 대해서 논의되었는데, 우선 물리적인 부분만을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건물과 랜드마크적인 요소 그리고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대문 안 정비계획의 근간이 되는 도시설계에서는 건물만을 계획하여 공공부분 시행계획에 관한 것은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 길의 정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 제시가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요즘 그 좋은 예로서 「걸고 싶은 길의 계획안」이 있는데 이렇듯이 주도적으로 정체성을 복돋울 수 있는 내용이 공공부분에서 먼저 제시된 후에 그 다음에 민간부분에서 건물이 건설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더 예를 들어본다면 창덕궁 주변의 길은 보행자 길로 만들어 캐노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그 길만의 고유한 특성을 갖도록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의 각 길을 각각의 특성에 맞는 체험의 길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영진 최근 7월 7일 서울시는 「서울 도심부의 바람직한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의 전개」라는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논의와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 거론해 보면 첫째는 도시개발을 도시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계획하며 역사 문화적 자원이 있는 곳은 보존하거나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관 중 주변의 산을 압도하지 않도록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도시의 정체성을 고려하는 건축가들에게는 호감을 주는 반면에 실제로 자본주의 설득시킬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발견됩니다. 또한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업무기능 외에 종로나 낙원동 등에 중밀도의 중산층 주거단지를 개발하거나 북촌주거계획에서 좀 더 적극적인 시책을 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길에 대한 고려로 중학천 복원과 함께 청계천 복원계획도 실행하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들도 동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해성 우리나라는 도심부에 지붕이 있는 보행로는 기능성이 없습니까? 외국의 많은 도시에는 지붕이 있는 보행로를 통해 다양한 공간 경험을 하는 반면에 서울은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예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성룡 무교동 재개발 과정에서 기존의 골목길에 고층 건물이 건설되어 그 길이 성격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길 자체는 원형대로 존재하기 어렵지만 기능적으로 연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교수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재개발 과정에서 고층건물 사잇길 위에 지붕을 덮는 방식으로 간단히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변영진 좋은 방안이라 생각이 들며 새로운 대단위 재개발보다는 옛 길을 근간으로 하는 중규모의 획지개발 시책이 발표된 시점에서 지금 논거하신 것과 같은 의견들을 잘 반영하여 건축물 계획 시에도 충분히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조성룡 아케이드는 비바람만을 피하는 자체의 기능적 의미보다는 길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의 하나로 생각됩니다. 고층건물을 지날 때 스케일감 때문에 생기는 거부감을 중간스케일로 바꾸어주는 공간인 아케이드가 필요합니다.

제해성 그러한 예로 삼성본관 보행로 주변을 정비한 것을 들 수 있는데 개별의 건물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사례는 민간기업에서 진행되었지만 공공부분에서 진행해 준다면 보다 쉽게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홍길 지금까지 공간과 길에 관해서 논의했는데 결절점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북은 4대문 각각의 문화재가 도시공간의 결절점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강남은 그러한 곳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서울이 하나의 성격을 가지는 도시가 되려면 결절점의 유효한 계획을 통하여 강남과 강북이 차별화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의 4대문 주변의 도심부 관리가 보행자 위주로 개발된다면 과거의 사대문이 갖고 있던 이미지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케이드의 계획에서도 강남은 국제주의 건축에 맞춰 형성할 수도 있었지만 강북의 그러한 개발은 극단적인 보행자 환경으로 변화할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장점으로 반영하여 강북에서 오브제의 주변으로 차량을 우회시키고 그 상징성을 부여한다면 4대문의 정체성이나 이미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그 반대의 이미지는 강남에서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손세관 「서울 도심부의 바람직한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의 전개라는 자료의 내용을 보면 꽤 획기적이진 않지만 전형적인 아이디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로 코르뷔제' 적 대규모 재개발보다는 '지테' 적인 개발을 통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소규모 필지의 자생적 재개발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보행의 개념이 강조되어 있지만 문 소장님께서 거론하신 극단적인 보행의 개념은 없습니다. 도심 안쪽은 교통이 통제된 보행자 위주로 개발하며 그 주변은 점진적인 재개발을 꾸준히 추진하여 활성화된 공간과 정적인 공간을 조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저밀의 주거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인상적인데 서울시가 주민과 합동으로 도심형 재건축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3~4층 정도의 도심형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저층고밀도로 5~6층 정도의 아파트가 길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발된다면 주거와 상업 및 위락시설이 공존하는 새로운 도심의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해성 좋은 계획이지만 실효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도심을 전면 재개발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경우에 용적률이 150%미만인 것을 250%이상으로 개발하여 그것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개발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인데 현재 중저밀의 밀도를 가진 강북도심을 저밀도로 개발하기 위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조성룡 그러한 계획은 50년 정도의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코펜하겐의 경우 자전거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35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주차장을 노천 카페로 개발함에 있어 생길 수 있는 주민들의 반발의 무마를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속도인 35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도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개발과정에서 주택사업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건설이 시행되었으므로 항상 시민들이 불이익을 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외국처럼 집을 지은 후에 나중에 분양하는 것이 고비용이더라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홍길 그것은 건설업체나 시당국의 문제가 아니고 주인이 없는 도시라는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물을 선건설, 후분양한다고 하셨는데 건물은 수요자가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주인이 과연 누구이며 도시의 형태를 결정짓는 사람이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는 불가능해지므로 건물군의 형성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연심 도심의 주택지 개발에 있어서 용적률 300%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손세관 지금까지 주거지역에 관해 논의한 결과로는 서울 4대문 안에 중밀이나 혹은 고밀의 시범주거지역을 계획하여 인간적인 스케일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긍정적으로 수렴되었으며, 또 하나 언급해야 할 것이 서울의 양질의 스카이라인을 위해서 강북의 건축물 층수를 20층 이하로 낮추어 전체적인 도시가 인간적인 스케일을 유지하기 위한 점진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영진 행정가들의 노력과 수완에 따라 명분이 있고 합리적이라면 20층 이하의 층수규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세관 다음으로 도심의 다른 핵심적인 문제에 관해서 논의해 주십시오.

정 석 도심부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게 하는 재개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결코 도심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강북이나 강남의 다른 지역까지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도심재개발, 주택재개발, 재건축, 개별건축행위 등을 통해서 서울은 예전의 고유한 성격을 많이 잃었습니다. 정책보다는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시를 만들어온 주된 논리는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논리라고 하는 것은 과시를 위한 정치가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러한 정치가들 밑에서 전문가들은 순응하는 역할만 하였습니다. 반면에 경제논리는 자본의 논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본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재건축이 성행하였으며 건축가들은 자본가들의 생각을 충족시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가운데 오늘의 서울이 형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치있고 인간적인 것을 잃었으며 개인의 것들은 충족했지만 우리 모두의 것들은 등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라는 정책의 변화로 인해 인식의 변화가 일고 있으며 시민들도 비용보다 좋은 환경을 선호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분명, 시대가 바뀌고 있고 바뀌어야 하지만 30년 동안 천천히 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지금에 나온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전문가들이 생각해 왔지만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의 핵심적인 시스템을 시급히 변화시키는 것에 주력해야 합니다. 결국

은 이러한 흐름의 주체는 일반 시민들이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과 이끌어갈 방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성룡 보행환경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도 사실 자동차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유럽에서는 랜스케이프를 조정만이 아닌 도시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을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여 생각해보았을 때 가장 잠재된 문제점을 가진 지역은 삼일로부터 동대문까지의 고가도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각 하부와 상부에 면한 건물들은 동일한 건물이지만 각각의 이미지는 전혀 다른 건물로 느껴집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되었을 때 교각 하부와 상부의 이미지가 양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은 블록단위나 높이제한의 차원만으로는 의미가 없으며 경관을 고려하여 상부와 하부로 구분되어 규제를 하고 이것이 서울의 랜스케이프와 조화가 되도록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측면을 간과하여 왔습니다.

변영진 조 소장님께서 거론하신 조망가로에 대한 관리방법과 랜스케이프의 측면에서 고가도로가 없어져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청계천도 복원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선 단기적으로는 특징적인 조망가로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인 듯 합니다.

박연심 최근에 「걷고 싶은 길」에 대한 각 구마다의 용역들을 단지 계획위주의 용역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동화하고 일반화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도시를 건설하는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방식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나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 공무원들의 규칙과 관행으로는 개방적인 방법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구마모토 이트폴리스의 이소자키에 의한 진행 등 다양한 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정이 달라 원활한 시행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걷고 싶은 길」에 대한 사업에 대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들이 여러가지 계획을 시에 제안하였으나 공무원들의 인식부족으로 원활한 진행을 이룰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민과 공무원들의 새로운 접근에 대한 의식개혁이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손세관 이제 서울의 강남에 대해서 논의해보도록 하지요. 강남 또한 충분한 잠재력과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30년 동안의 기간정도를 목표로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고쳐나가기 위한 방법 및 방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강남의 도시구조는 자동차 위주의 구조임으로 사람이 편안하게 살만한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마음놓고 걸을 수 있는 지역도 아닌 말하자면 인간의 삶에 기반을 둔 지역이라기 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흥길 강남은 강북과 다르게 단시간에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의 대상이 되는 등 급격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강남은 면(面)적인 획일주의 개발이 시행되어 도로를 경계로 아파트단지와 상업지역이 공존하는 아주 기형적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길을 고려하는 새로운 주거의 형태가 강남에서는 필요할 듯 합니다. 또한, 강남의 도시이미지를 보면 인식하기 어려운 결절점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지와 상업지 모두 길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강북은 오밀조밀한 길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강남은 오로지 중심에서 탈피하여 가로의 연속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정체성을 살리는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조성룡 강남의 길은 강북과 다르게 넓고 바둑판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남에 있어서 길의 회복을 위해 공동주택은 지금의 전원형 단지가 아닌 도시형 단지로의 전환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압구정동에서 신사동까지의 길에는 주거와 상업이 공존하였는데 대단지로 바뀌면서 도시의 길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 공동체인 아파트에서 서로간의 집단적 이기주의를 길을 통해 연결시키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4종 미관지구의 규제가 삭제되었지만 가로변의 일정한 높이 규제는 효과적으로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행정 경계에 의해서 길과 구역이 서로 다르게 이원화되어 있는 점도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세관 강남은 대규모 블록위주로 개발되어 결국은 독립적인 주거단지가 크게 자리하게 되었고, 상업지역은 그 지역대로 별도로 존재하는 점적이고 비연속적인 도시 콘텍스트가 형성되어 사람이 편안하게 걸으며 살 수 있는 도시가 되지 못했습니다. 유럽 도시의 경우에 가로에는 상업위주의 아케이드가 형성되고 그 위로 주거 기능이 존재하며 안쪽에는 아늑한 중정이 있어서 주거와 상업이 잘 혼재되어 있는 도시구



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살리지 못한 것이 강남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북의 도심에 서울시가 주거와 상업이 잘 혼재된 중·저층 주거지역을 시범적으로 만들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강남에서도 이런 시범적인 계획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강남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사고 전환이 필요 할 듯 합니다. 따라서 공공에서는 상업논리만의 개발보다는 좀 더 시범적이고 민간에 본보기를 보여주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연심 ...저도 그러한 의견에 동의하는데 획일화됨을 강요하는 건설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삶의 방식을 위한 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상업적인 논리가 아닌 새로운 주거형식을 위한 시도가 고급주택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만, 좀 더 근본적인 변화와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의 패턴 중에 발코니가 외부로 강조되면서 획일화된 커튼월(Curtain wall)의 건물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도 도시의 미관을 고려해서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상업지역에서는 자연발생적인 상업공간 즉 논현동이나 사당동의 가구단지, 양재동의 벤처단지, 젊은이들의 공간 등에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장소들의 모임을 활성화시켜 특징있는 골라주 형태의 도시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영진 ...강남이 자동차 위주로 개발되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개발도시로서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선의 가로패턴이 위주로 되어있지만 내부의 곡선적인 길도 남아 있어서, 이러한 점이 도시의 기능유지에 상당한 잠재력으로 작용하여 기능의 다양성을 담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강남의 개별적인 지역의 특화를 위해 건축적인 접근에 있어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러한 인식전환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남에 있어서 주상복합 건축이나 재건축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데,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건축가들의 노력이 중요할 듯 합니다.



문홍길 ...저도 강남의 길이 넓고 격자화된 도시라는 키워드를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큰 블록의 내부에 건축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강남의 경우는 건축가의 역할이 컸고, 앞으로 건축가의 역량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중인 판상형의 재건축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할 듯합니다. 또한 강남은 계획된 도시임으로 충수를 좀 더 자유롭게 해서 더 근대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금도

제한은 없지만 좀 더 큰 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해성 ...강남의 길이 격자형식이라고 하지만 큰 길의 안쪽은 분명 곡선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느끼는 곳이 길을 따라 전개되는 건축의 파사드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뒷골목에서는 연속성이 없고, 길 자체도 정비가 잘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우선 개발해서 정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연속된 가로변의 파사드를 부여하고 다른 도시와는 차별되게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속성은 아간의 경관에도 영향을 주어 도시의 재미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정 석 ...이미 만들어진 강남에 흥미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재건축, 주상복합, 도시형주거단지 등의 개발을 통해 면(面)적인 개발을 억제하고 선(線)적인 연속성을 주어야합니다. 그리고 길의 성격이나 길의 쓰임새가 혼란스러우므로 넓은 길은 차량이 통과하도록 하고, 중간영역의 길은 아끼지 않게 그 특성을 살려 재미있는 공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 가장 부족한 점이 바로 이점이라고 생각하며 길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획지의 크기를 좀 줄여나가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이미 계획된 상태에서 길의 고유성과 성격에 맞게 그 특징을 살리는 방안이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제해성 ...강남의 잠실 신천동을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 형성되어 그 성격을 살리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별건축으로만 형성하려고 하지말고 공공부문에서 지원하여 바닥패턴이나 문화적 장치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손세관 ...이제 논의가 마무리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30년 동안 가장 발전된 집단이라고 하면 건축가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잡지를 보면 건축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되었지만, 전체 건축가 그룹 모두의 성향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가의 의식의 문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의 민간의 역할과 공공의 역할, 그리고 총체적으로 어떠한 태도로 도시를 만들어 가야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조성룡 ...서울의 정체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전의 전통만을 살리는 방법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의 현실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 도시계획 분야에서 큰 단위 단위의 개발이 아닌 좀 더 작은 단위의 개발로 길의 연속성과 경관의 측면에서 계획을 해야 하는데 이제까지는 면적과 높이의 문제로 도시를 개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거지역과 아시아 다른 나라의 그것을 비교해 보면 싱가포르의 빨간집, 일본의 중성적인 색깔을 가진 집들이 그 하나하나의 특성이 없으나 그것이 모여서 그 나름의 정체성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하나 하나의 건축물들은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건축물들이 집합되었을 때는 어색해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별건축에만 치중한 건축가들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맥락을 염두에 둔 건축이며 정체성을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제도적인 뒷받침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변영진 —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집합적 형태에 관한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론인 듯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도적 측면에서 보장한다는 것이 공공의 할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공공에서 집합적 형태의 문제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므로 지금은 전문가와 그렇지 않은 비전문가가 역할을 분담하여 왜 이러한 제도와 움직임이 필요한가에 대해 전문가가 비전문가에게 설득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홍길 — 전체적인 서울의 건축의 방향은 신개발 보다는 정비의 시기라 생각이 듭니다. 신개발 시기에는 오브제로서 엔지니어링이 가장 중요했으니 지금은 민간과 공공의 역할이 함께 중요합니다. 급속한 개발에 따른 오브제의 강조가 집합체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점에 대해서 건축가들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그것은 시대의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 전체적인 정체성을 염두에 두면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건축과 도시를 디자인의 측면에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건축가들의 역량이 필요할 듯 합니다.

제해성 — 건축가들의 하겠다는 의지와 공공 부문에서의 설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공의 제도적 규제를 통해 자본가의 이기심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문가의 그룹에서도 설득이 필요하고 또한 공공에서도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서울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연실 — 저는 서울이 새로운 도시가 됨에 있어 앞으로 여가의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여가의 도시 즉 즐길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하고 수명의 연장의 차원에서 노인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듯 합니다. 또한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 즉 공공의 공간이 너무나 적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은 공공에서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민간에서는 단일건물내부의 공공성을 건축가를 중심으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조성룡 — 이러한 점에서 건축가들은 공공성에 대해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집단도 UIA 현장의 공공성과 공정성의 덕목을 가장 중요한 전제로 보고, 기술, 교육의 중요성을 그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먼저 우리 자신부터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를 개발하고 정비할 경우에 겉으로 보이는 대상도 중요하지만 그 저변의 인프라에 대해 먼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앞으로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장기간의 계획과 시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정 석 —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적인 영역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의 영역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건축가와 도시계획가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는 제도, 민간, 전문가로 구분하지 말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찾아나가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수요, 새로운 방식, 새로운 변화가 요구됩니다.

손세관 — 이 좌담에서 서울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논의는 되었지만 시간관계상 더 많은 사항들을 다루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30년 후의 서울의 모습은 좀 더 풍요롭고 인간적인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 정책가, 건축가 모두가 도시를 만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써의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의 좌담회를 통하여 서울이 가진 잠재성과 문제의 근원이 탐색되었으며 더불어 서울의 미래상도 그려집니다. 시민, 정책가, 건축가 집단의 공동체의 역할은 앞으로 비운 서울의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장시간의 토의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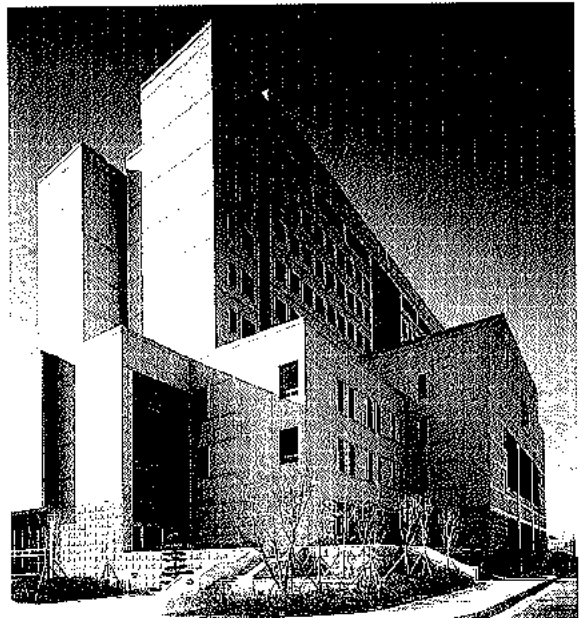
Daejeon District Cou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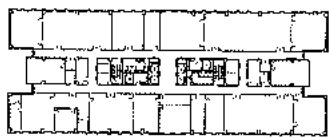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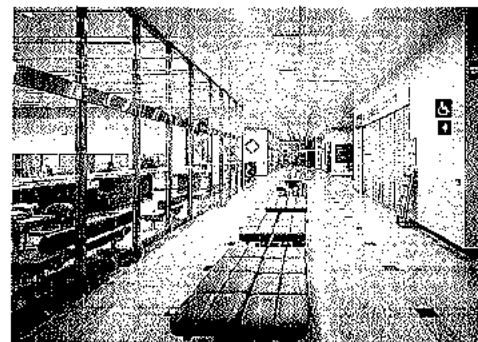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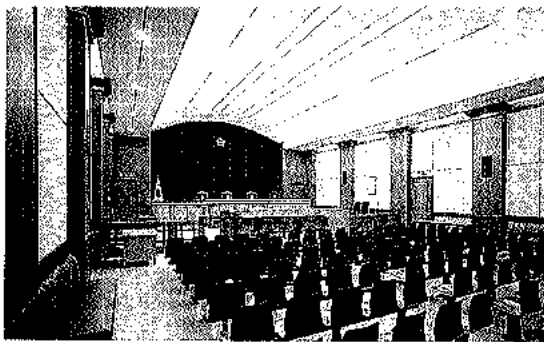
김병년 / (주)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Byeong-Nyeon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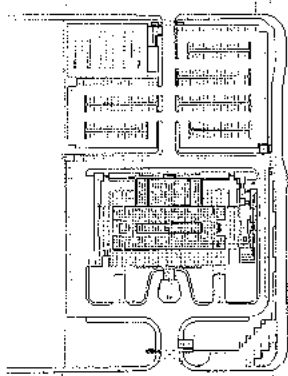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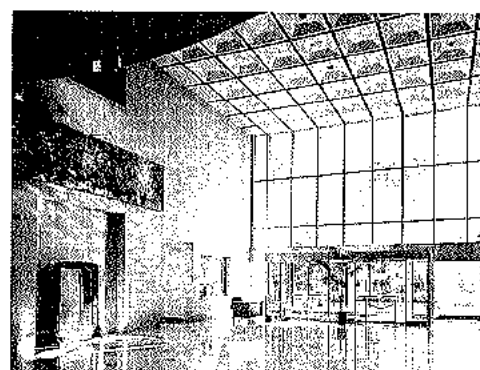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09
지역지구	중심상업지역, 최저고도지구,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32,055.3㎡
건축면적	5,358.9㎡
조경면적	7,155.4㎡
건폐율	16.7%
용적률	89.6%
규모	지하1층, 지상10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	GPC+THK 24 컬러복층유리
시공자	현대산업개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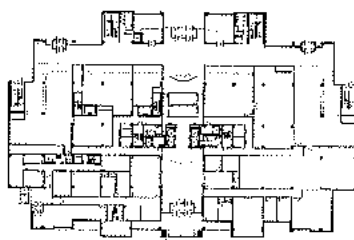
0 5 10 20

기준층 평면도



0 5 10 20 40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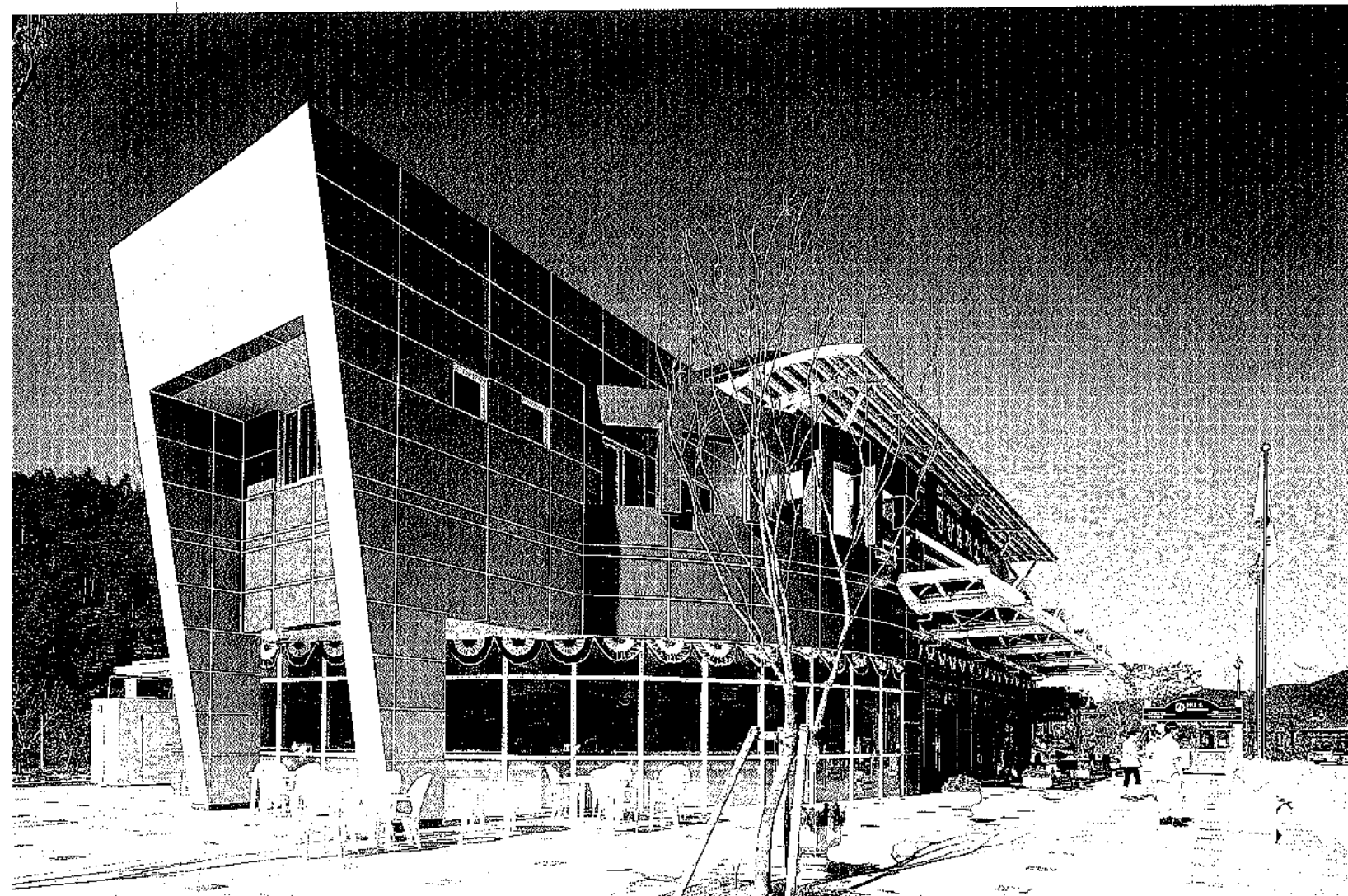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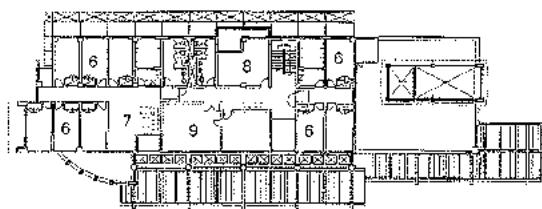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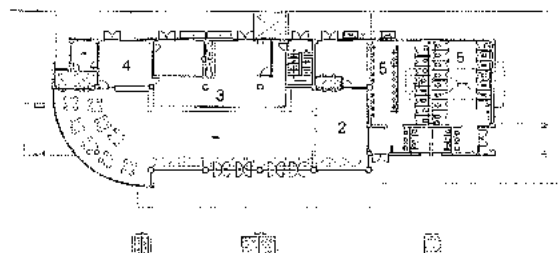
법정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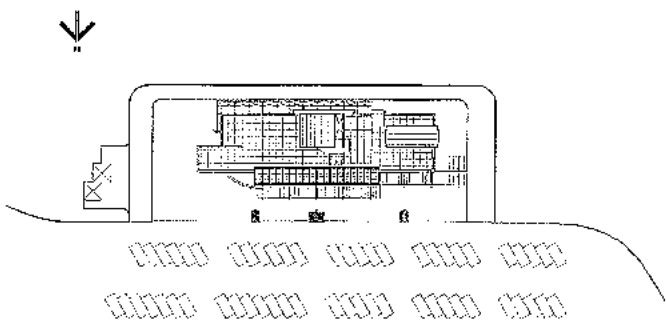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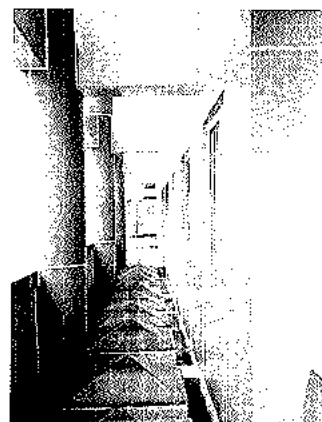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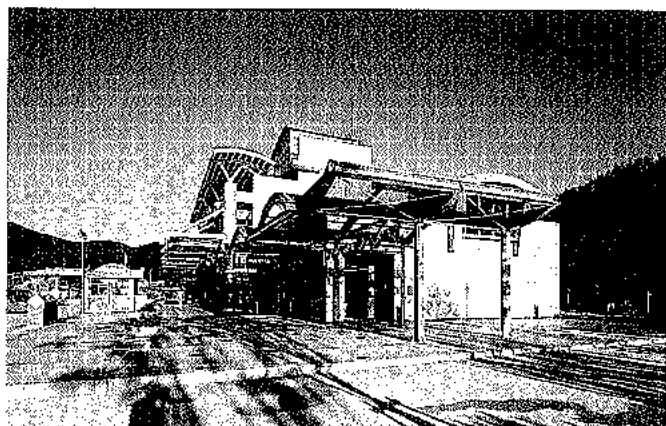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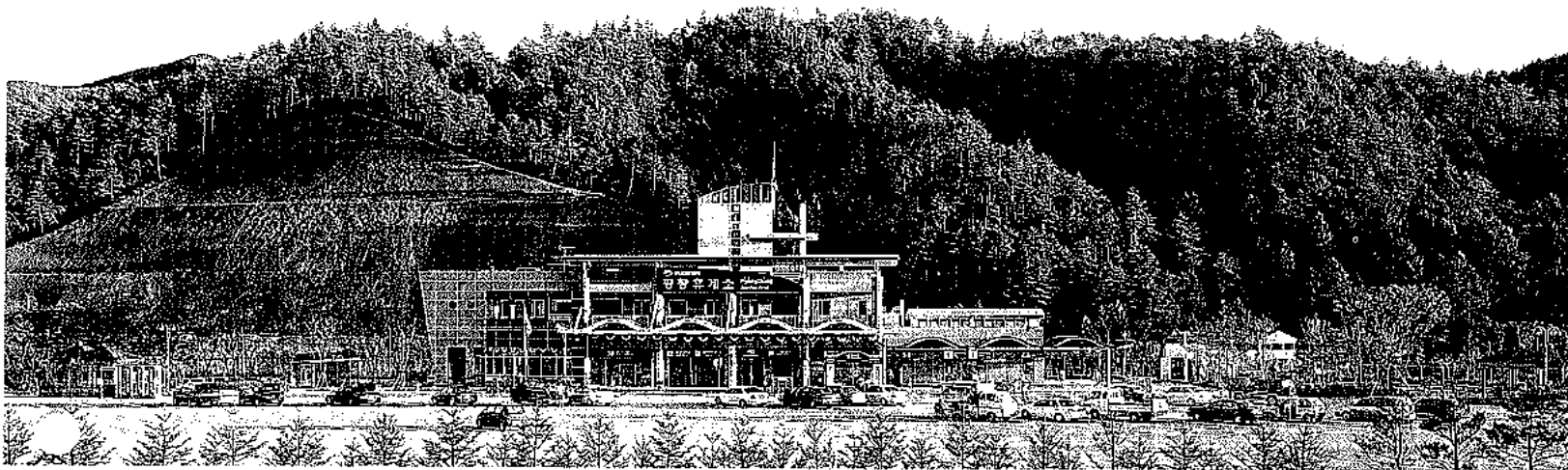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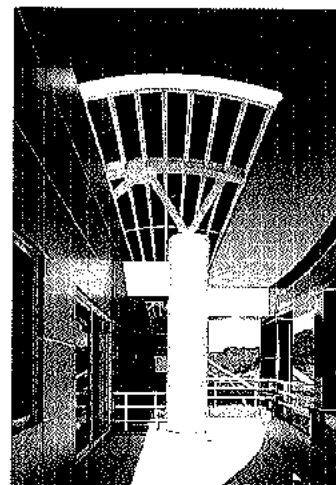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1. 매장
2. 슈퍼
3. 조리장
4. 주차장
5. 화장실
6. 숙소
7. 휴게실
8. 회의실
9. 사무실



배치도



상형선 휴게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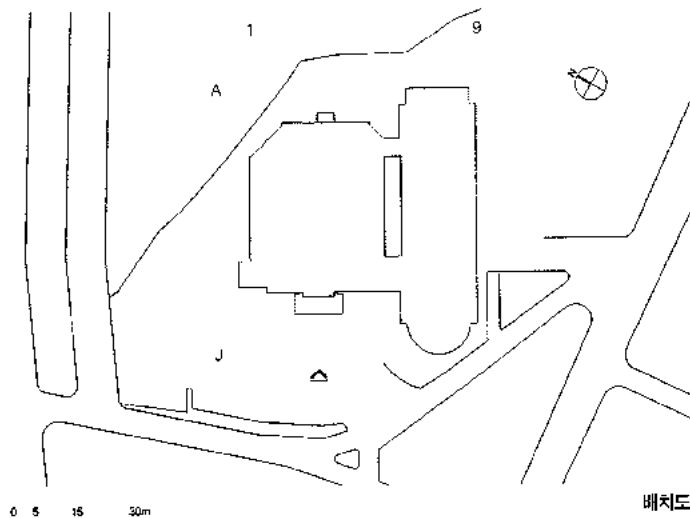
한세대학교 인문관 및 대강당

Hansei Univ. Lecture Complex

서천식 / 건축사사무소 삼일하나로건축
Designed by Seo Cheon-Sik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604-1외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학교시설지구
대지면적	69,325.00㎡
건축면적	2,953.16㎡
연면적	16,403.36㎡
규모	지하1층, 지상9층
주용도	교육연구시설
기계설비	선 T&C
전기설비	대형 ENG.
시공	신원 환경기술(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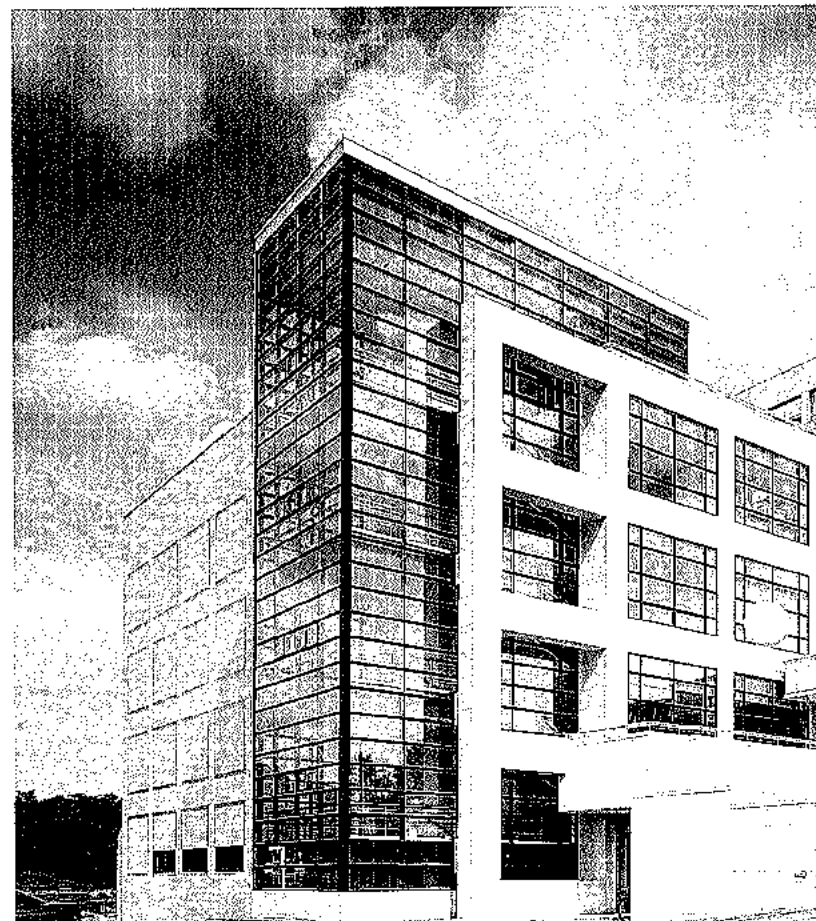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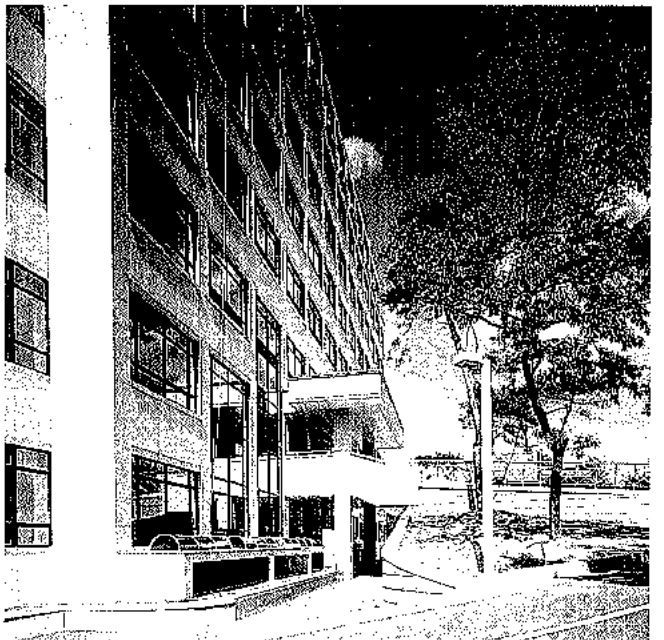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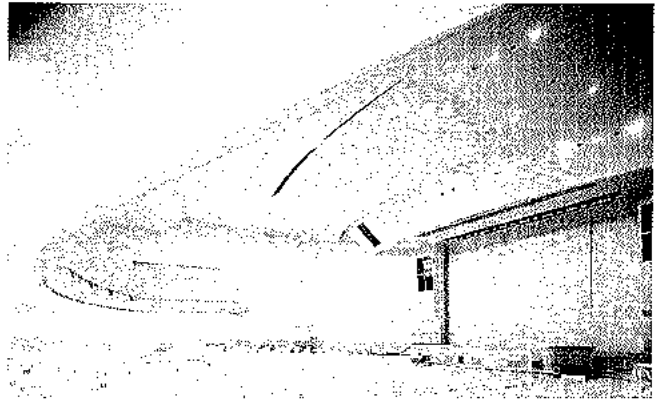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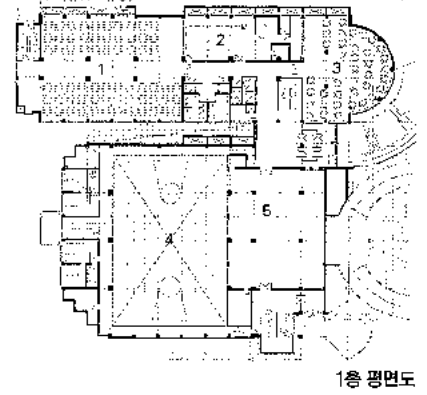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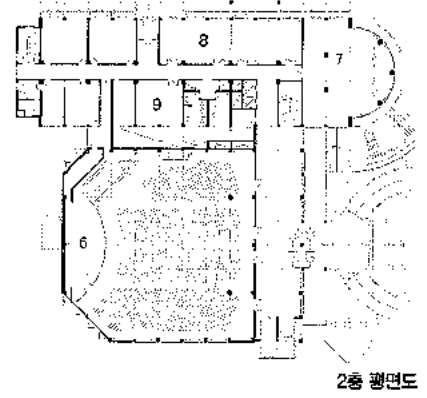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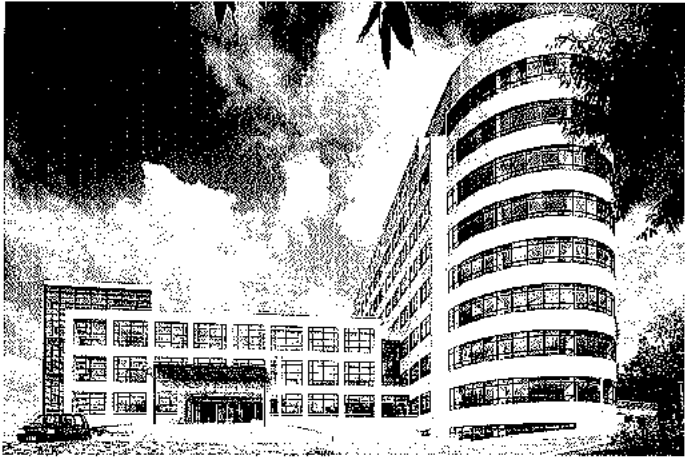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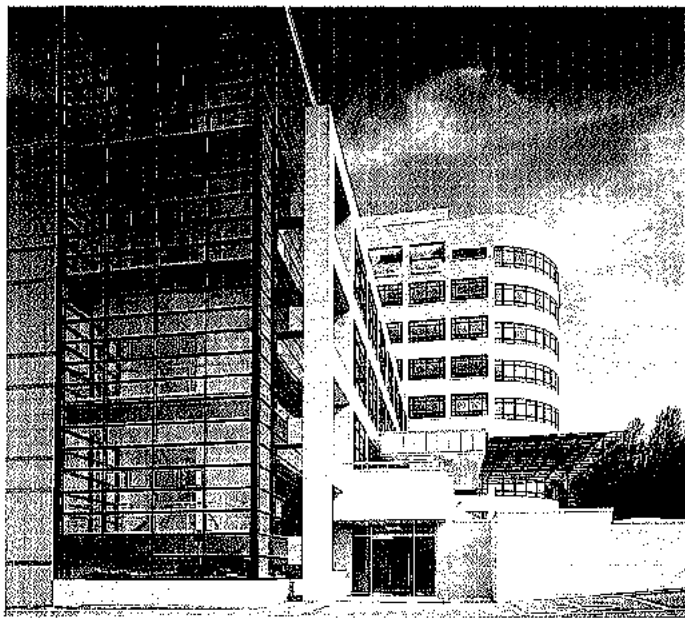
배치도



5층 평면도

1. 학생식당
2. 수방
3. 교수식당
4. 체육관 상부
5. 산업디자인과 전시장
6. 대강당
7. 음악교실 및 석장
8. 남성교회
9. 여성교회
10. 대강:의상
11. 강의실
12. 회의실
13. 휴게존





광주시립미술관 교육홍보관

K.J. Municipal Art Center PR & Education Center

류연창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가람건축
Designed by Lyoo Yun-Chang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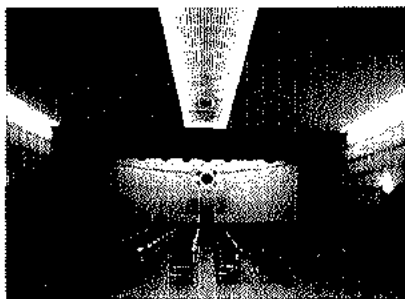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산 42-3외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106,516㎡
주요용도	전시시설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구조방식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건축면적	1,981.65㎡
연면적	5,048.87㎡
외장재	지붕-아스팔트 상글잇기 외벽-THK30㎜ 화강석베너구이, 데콜샴스프레이 창호-THK18㎜ 세미밀리페어글라스, 알루미늄프로폰바

이 건물의 건립취지는 비엔날레 행사시 국내외 기자 및 외부인들의 활동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써 소규모의 프레스센터 및 휴게장소로 계획되었으나, 비엔날레 본 전시장의 전시공간 부족함을 느끼고 약간의 전시공간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있어 1층 전시공간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주로 2층이 행사기간에 내외기자단의 사무실 및 기자회견장 및 회의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비엔날레 행사가 끝나고 평상시에는 다목적 회의장 및 시민들의 세미나, 주부들의 교육장으로 이용될 것을 생각하여 1층 전시공간을 일반 기획전시 및 상설전시를 하므로써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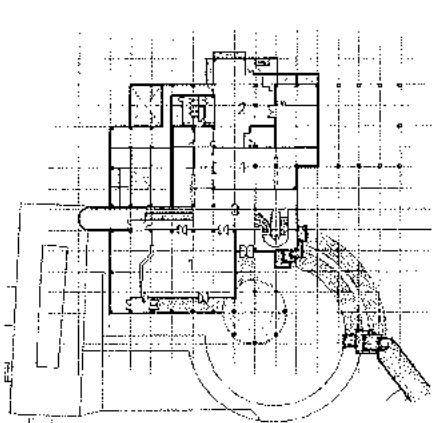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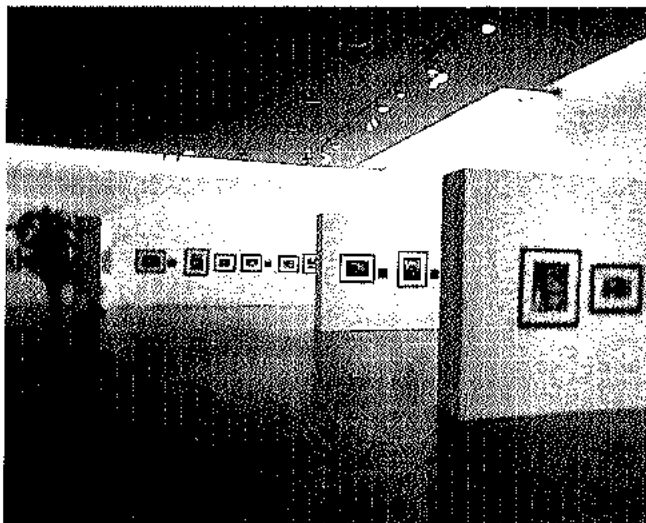
대지의 여건이 약 1개층의 단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쪽이 개방되어 있는 지하층에 식당 및 다실(Tea Room) 등을 두어 시민 휴게 및기자단의 음식제공 장소로 활용되도록 하였으며, 전체적인 입면계획은 한국의 초기지붕과 루각의 형태를 현대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계획하였다.

1. 식당
2. 기계실
3. 로비
4. 전시실
5. 휴게실
6. 다목적실
7. 기자회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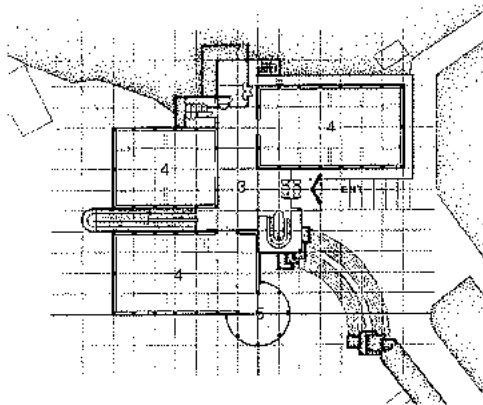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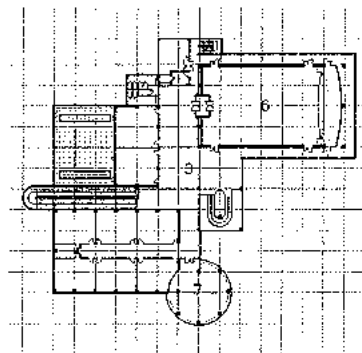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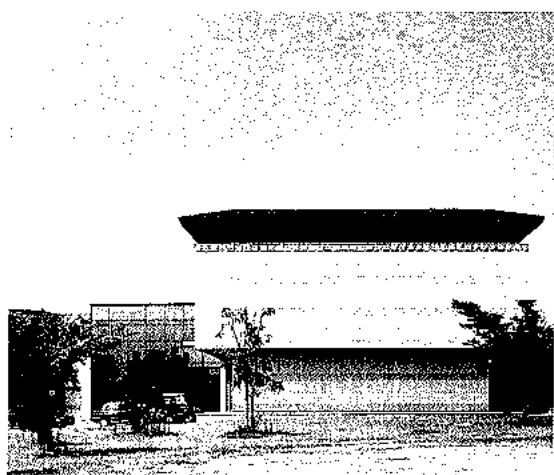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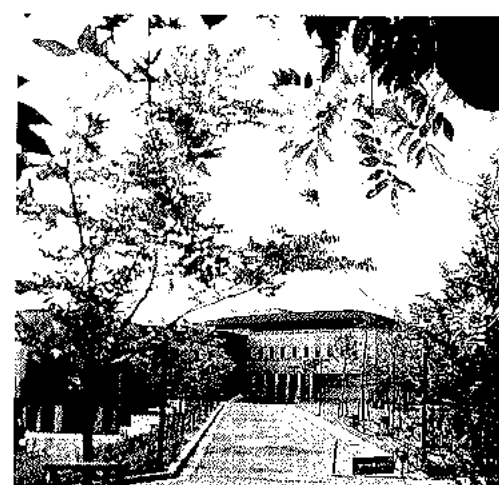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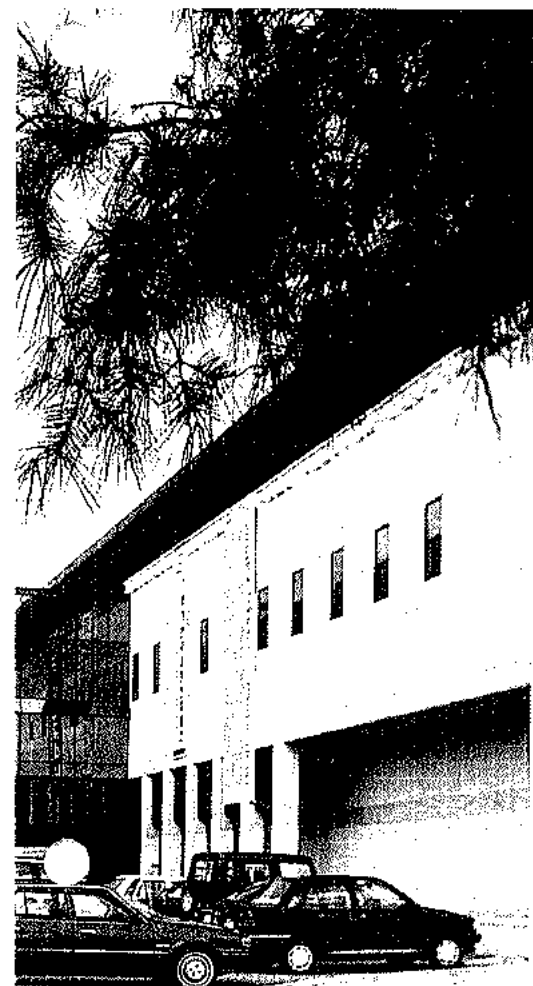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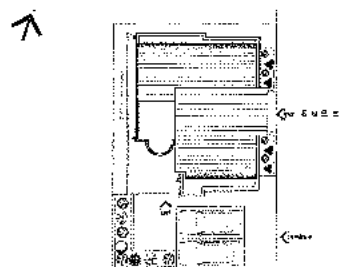
마두동 905-3
Madu-dong Residence

이만용 / 신세대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Man-Y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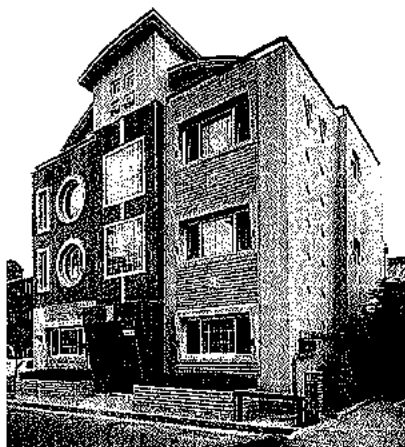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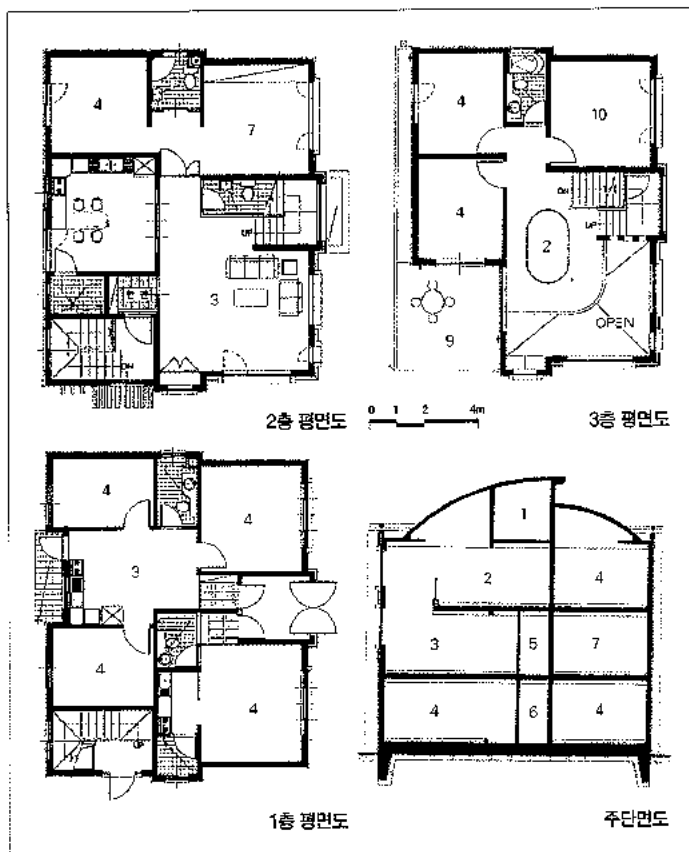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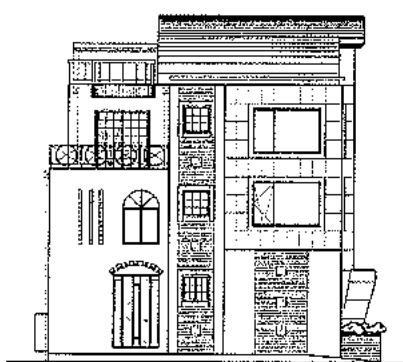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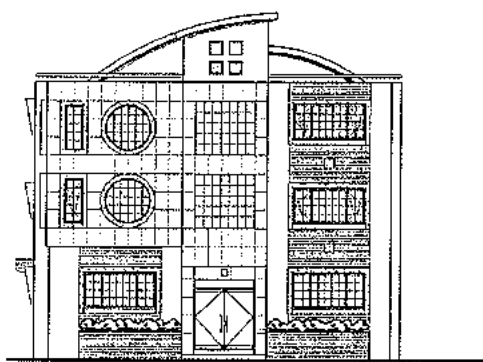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905-3
대지면적	218.00㎡
건축면적	108.71㎡
연면적	288.89㎡
건폐율	49.87%
용적률	132.43%
규모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사진	박영채

1. 계단실
2. 가족실
3. 거실
4. 방
5. 욕실
6. 현관
7. 안방
8. 옥상정원
9. 부모님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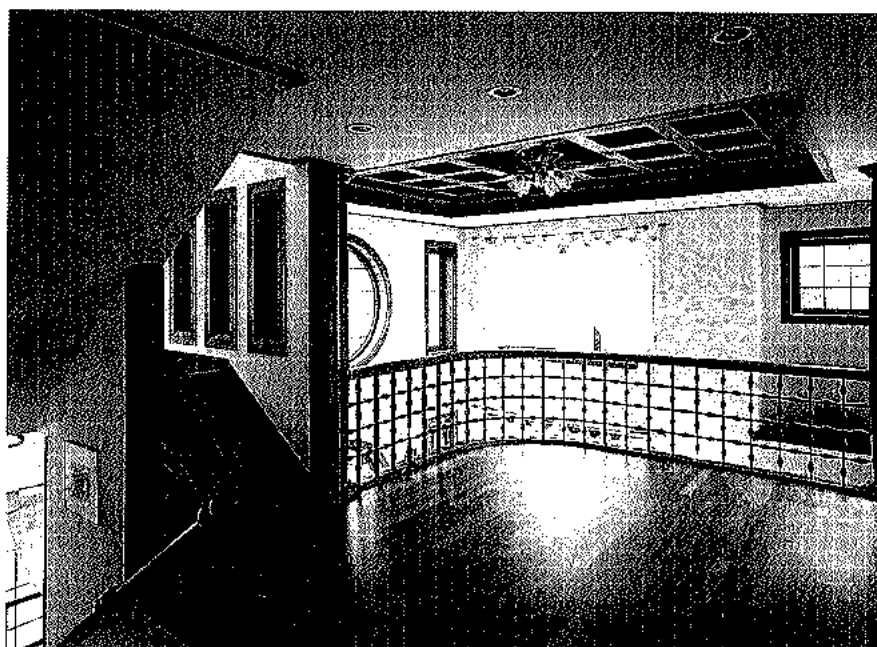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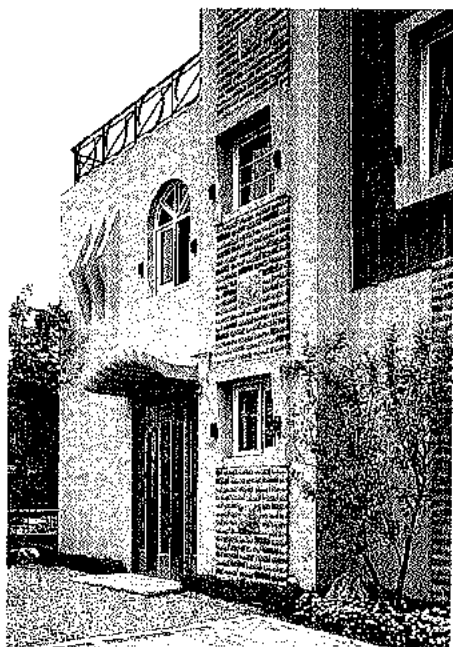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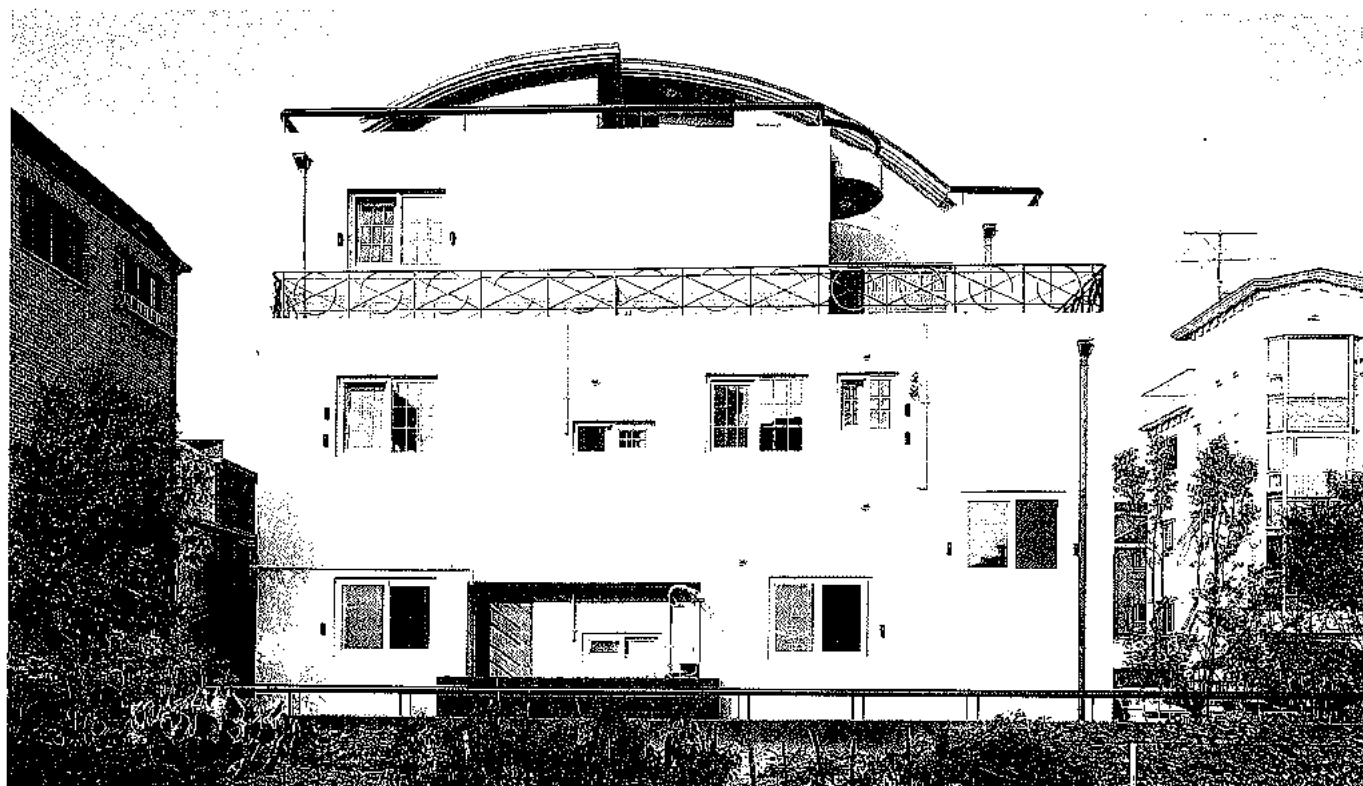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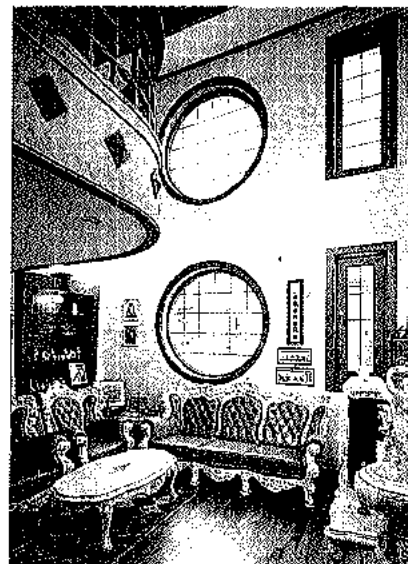
배치도





0 1 2 4m
정면도

좌측면도



서울대학교 예술관 연구동 College of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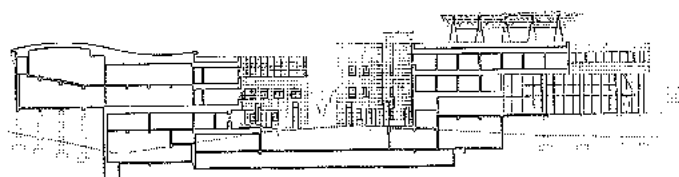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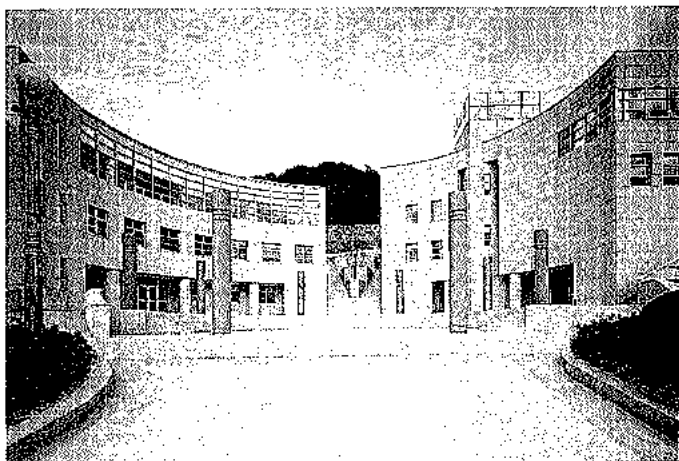
황일인 / (주)일건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Hwang Il-In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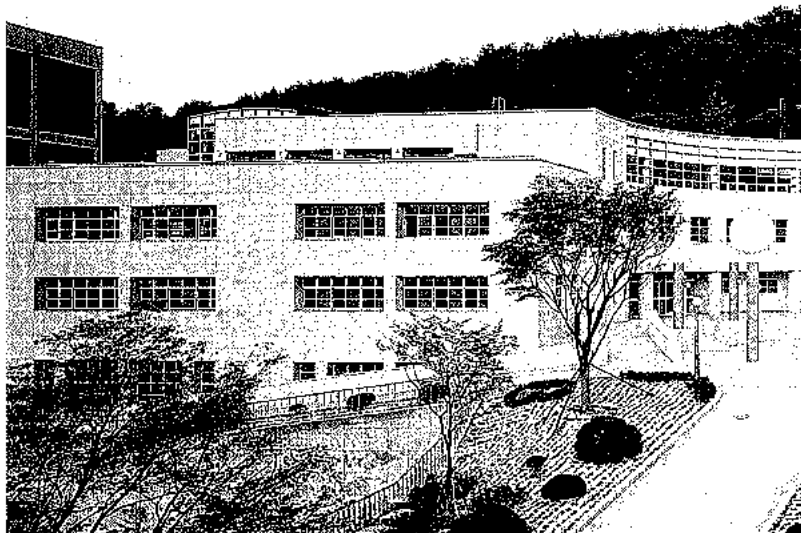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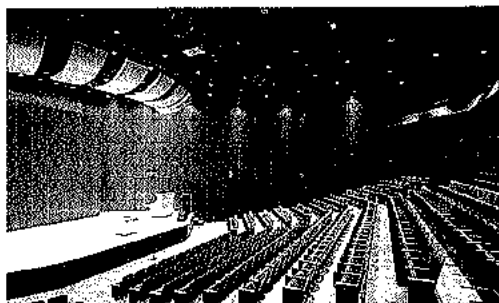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 캠퍼스
대지면적 3,890.567㎡ 건축면적 2,930.78㎡
연면적 5,158㎡ 건폐율 3.85%
용적률 12.46%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화강석, 24mm복층유리
설계담당 박진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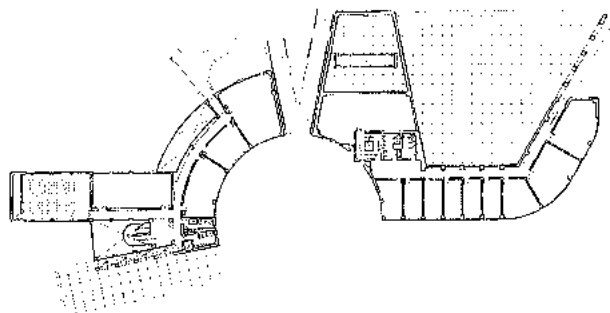
이 건물은 소강당, 연주 연습실 등 음악대학의 시설 일부와 산업디자인 계통의 미술대학시설이 반반씩으로 구성되어 있는 혼합용도의 교사이다.

교육시설은 오랜 시간을 두고 차츰차츰 지어나가는 것이 보통이고 시차를 두고 세워지는 시설들이 때로는 조화롭게, 때로는 긴장되게 그 관계를 이루며 도시적 성장을 해 가는 것이다. 신축 건물의 공간적 구성 방법은 기존 건물의 배치 방법과 같이 연속되는 작은 클러스터로 되어 있다. 건물 중앙부를 원형으로 파내어 만든 광장은 동측 언덕위의 우회도로에서 기존 건물의 내부광장까지를 연결하는 매개 공간이면서 새 건물의 전면이기도 하다. 조소적인 형태를 가진 기존 건물에 대비하여 화강석과 유리가 가진 재료의 특성을 잘 살린 현대적 기법을 구사하고 있고 대지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주변 경사지와 건축이 잘 조화되도록 새삼하게 배려하였다. 20년이란 시간이 교육시설의 수명으로써 결코 길다고 할 수 없겠는데 이 시점에서 보는 관악캠퍼스는 부분적으로 너무나 퇴락해 보이는 것이 놀랍고 안타깝기도 하다. 캠퍼스는 늙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월과 함께 관록과 연륜이 쌓여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점에서 건물 각 부분의 자재 선택 또한 매우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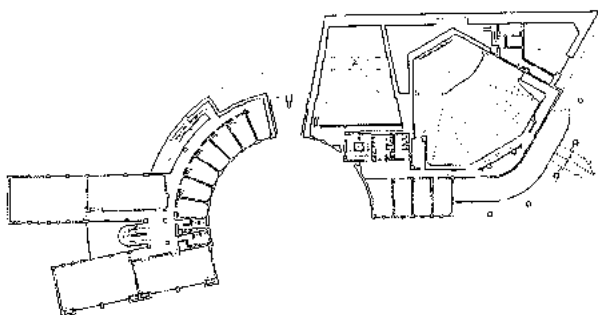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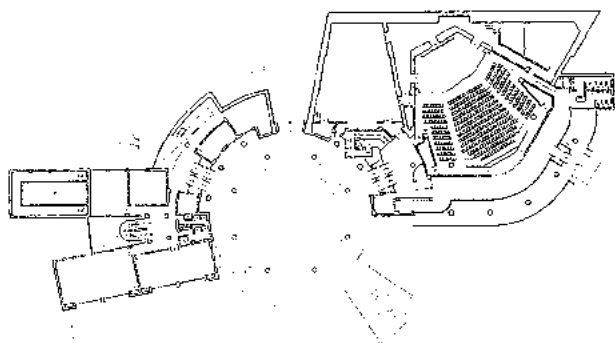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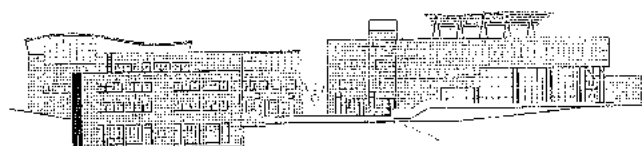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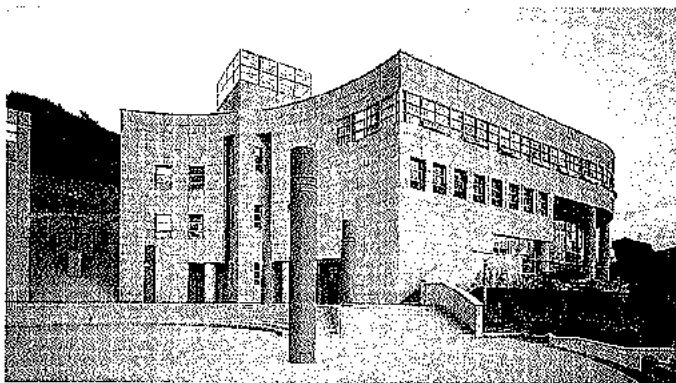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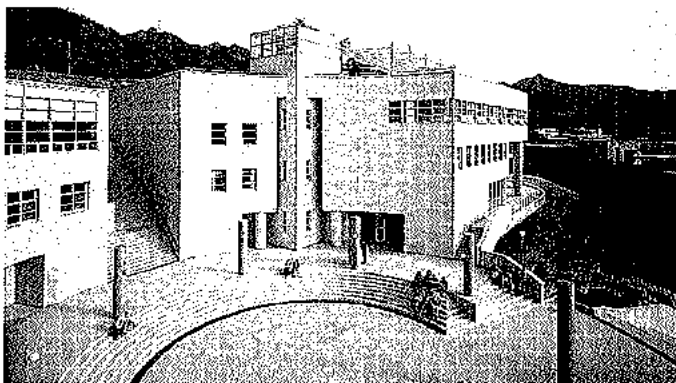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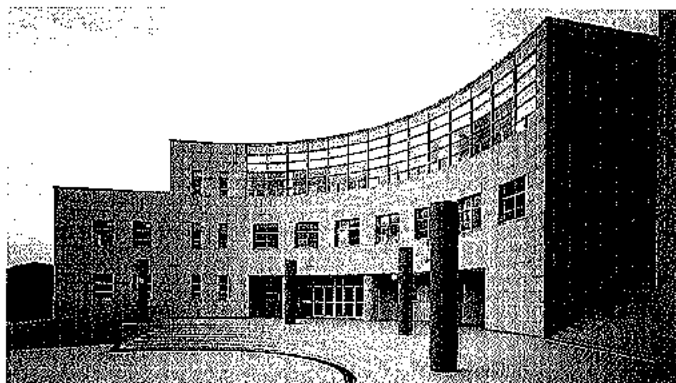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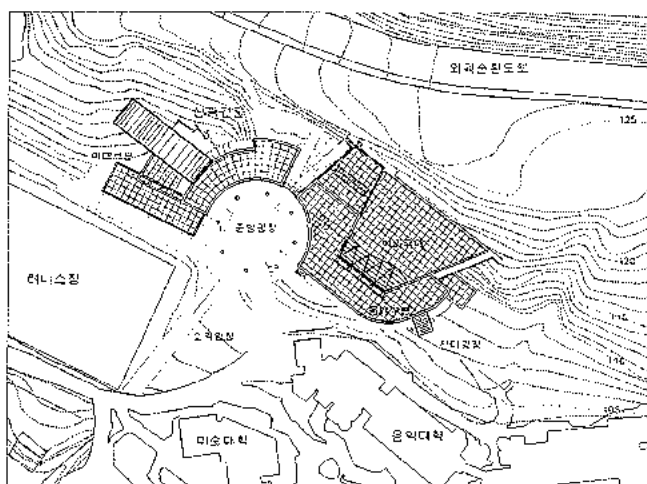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정면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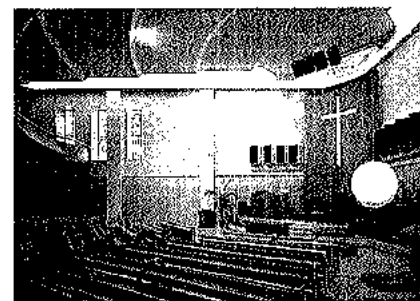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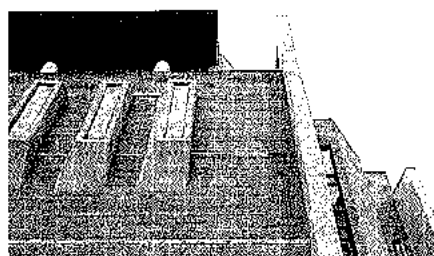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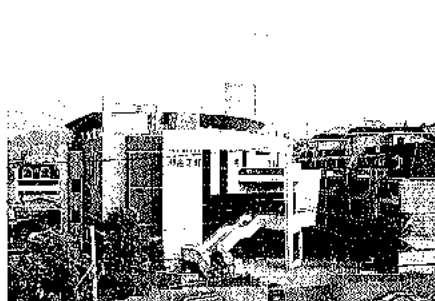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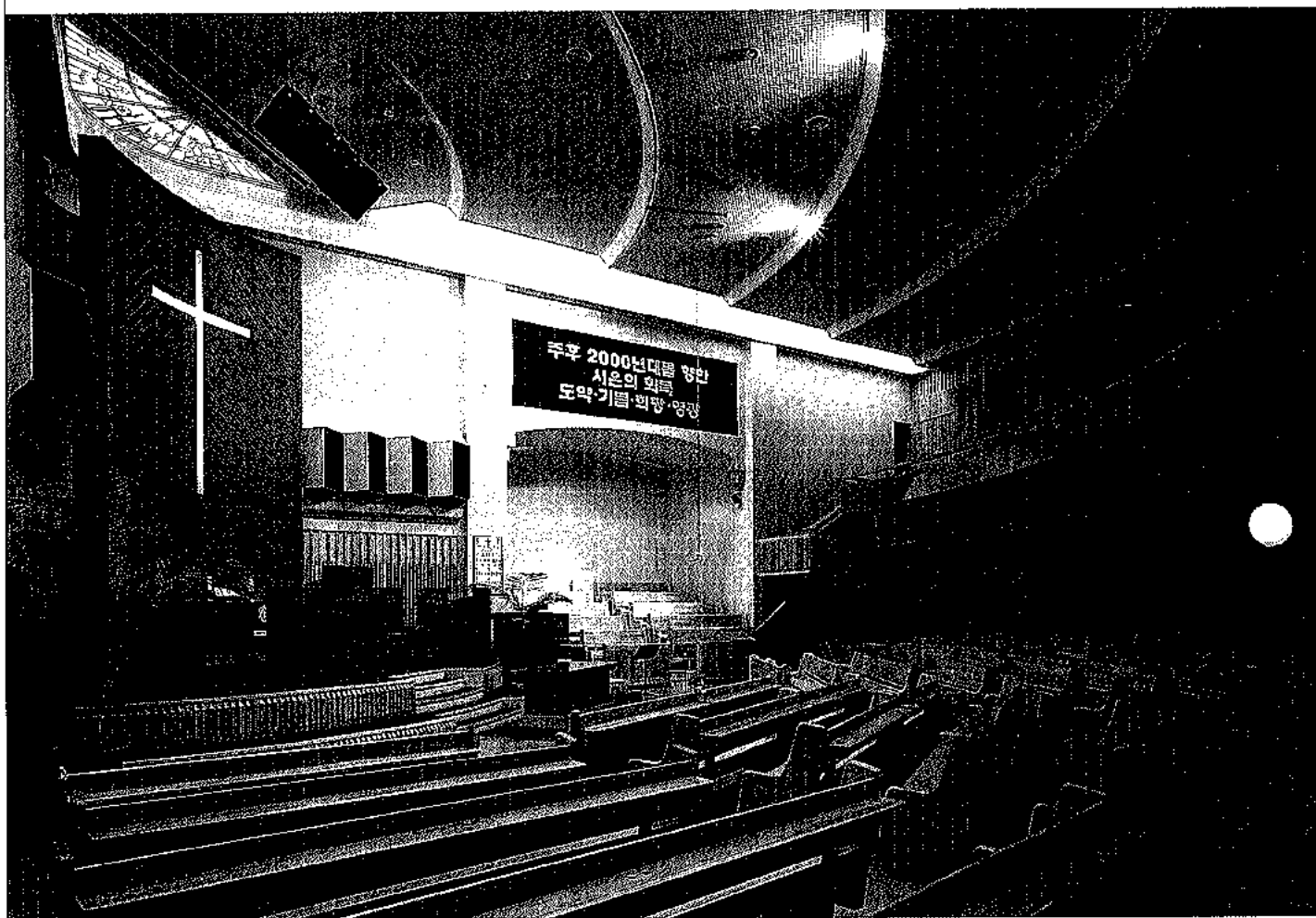
0 5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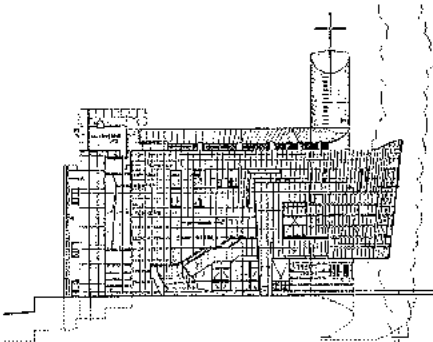
시온교회

Zion Methodist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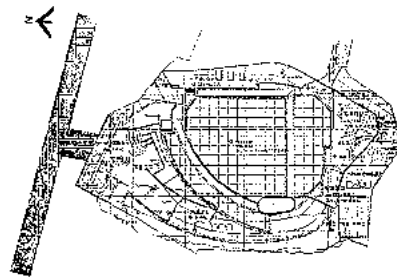
(주)정림건축

Designed by Junglim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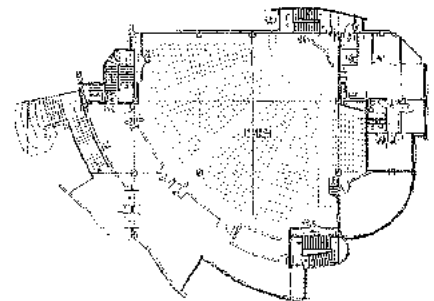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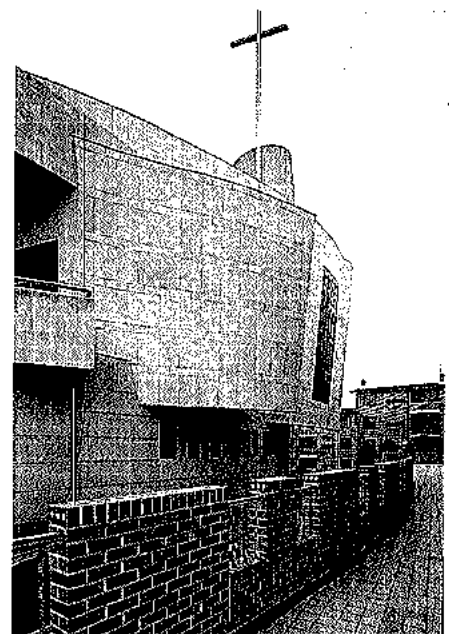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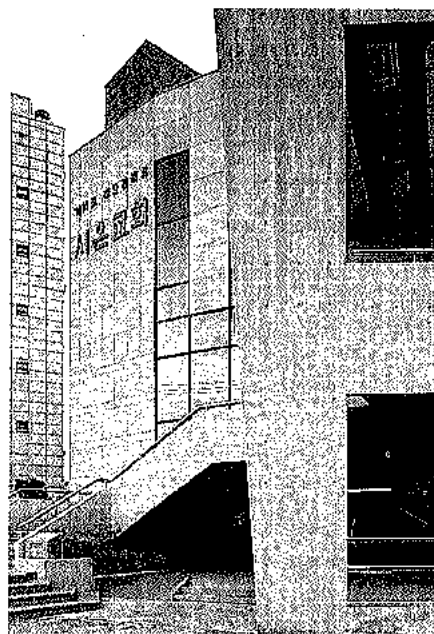
배치도



3층 평면도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332-1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4종미관지구
주용도	종교시설
대지면적	1,939.33㎡
건축면적	893.33㎡
연면적	4,916.41㎡
건폐율	46.3%
용적률	158.7%
규모	지하2층, 지상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내부마감	천장-압면흡음텍스, 벽-수성페인트, 바닥-비닐타일
외부마감	지붕-동판(처마), 벽-붉은벽돌 치장상 기, 노출콘크리트 및 시암
시공자	(주)프린스건설+시온교회
사진	박영채



국민대 국제교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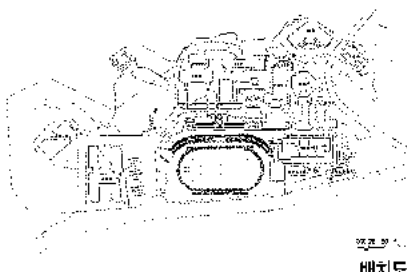
International Education Center, Kookmin Univ.

최관영 · 정동명 / (주)일건씨앤씨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Kwan-Young & Cheong Dong-Myeong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61-1 일대
대지면적	162,638.00㎡
건축면적	3,347.89㎡
건폐율	14.64%
용적률	64.72%
규모	지하2층, 지상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트러스
외부마감	벽/화강석(상주석), 드라이버트 지붕/노출우레탄, 아스팔텍스
설계담당	오서원, 심인욱, 강남재, 정도균, 허재영, 유성현, 정홍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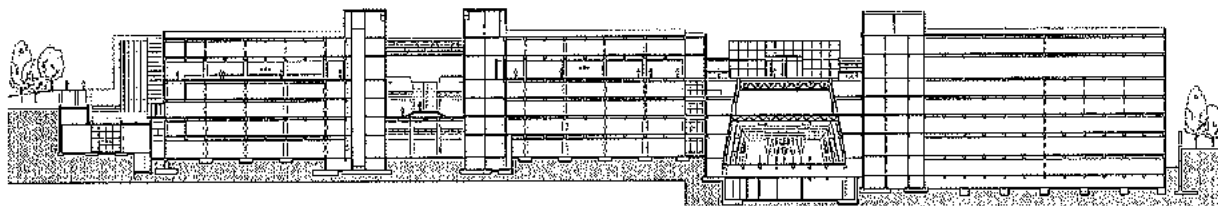


영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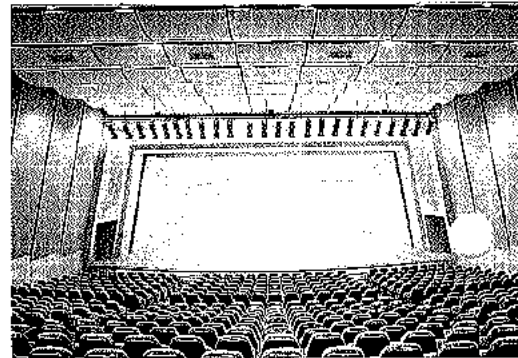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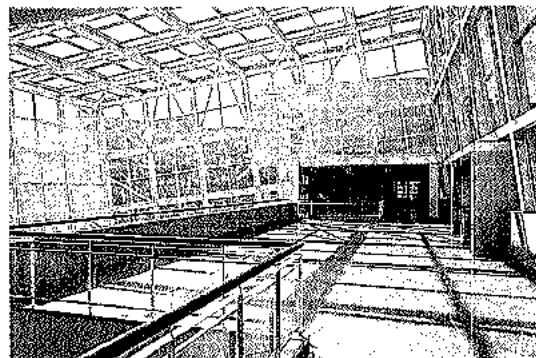
기존 건물군에 선형적 공간 켜 하나를 추가하므로써 캠퍼스 옥외공간구조의 체계화 및 다변화를 시도하였다. 부지조건상 선형적 건물배치는 필연적이었기에 적절한 분절을 통한 공간변화를 모색하고자 3개동으로 블록을 구분하고 부지 상하도간의 연결 및 기존건물들의 상징적 축을 수용, 강화하여 동간의 분절점에 옥외계단과 아트리움을 설치하므로써 2개의 직교축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상부도로측에서는 기존 옥외공간이 가졌던 수려한 외부로의 조망을 살리면서 내적 아늑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로티를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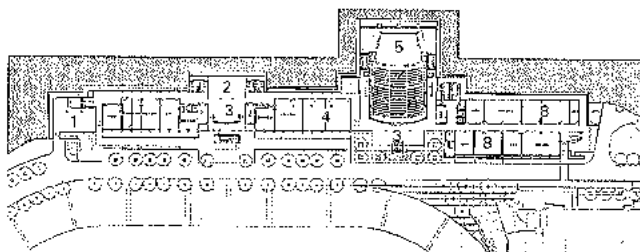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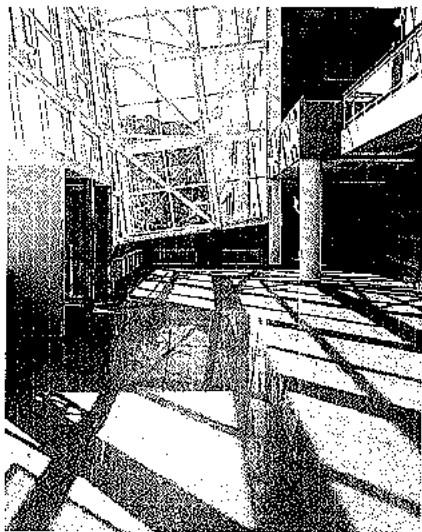
환경적 측면의 고려 - 15m에 달하는 상하도로간 높이차에 의해 하부도로로부터 4개층의 배면은 지하공간이 되나 복도측면으로 통풍 및 채광을 위한 Light-Well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지상공간에 가깝게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A, B동은 편복도형 평면으로 하였고, 대지레벨차가 줄어들므로써 C동은 중복도형이 가능해졌다. 아트리움과 콘서트홀 - 본관동의 상징적 중심축상에 반외부적 성격의 아트리움을 배치하여 상하동선 연결기능과 콘서트홀의 로비기능, B동과 C동간의 연결복도기능을 겸하였다. 직사광선에 의한 태양열은 썬스크린 장치로써 조절하여 상하부 현관 및 개폐창을 통해 자연스런 흐름의 통풍효과를 제공하였다.

남서측으로 면한 전면은 여름날의 낮고 뜨거운 석양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필요로 하였기에 수직 및 수평루버를 필요위치에 설치하면서 여기에 냉방용 실외기 가림판을 더하여 다양한 면분할의 입면효과를 더할 수 있었다. 저층부는 상부루버를 받쳐주는 듯한 경사진 돌출 기둥형태를 취함으로써 전체적 안정감과 함께 상부와의 연속성을 주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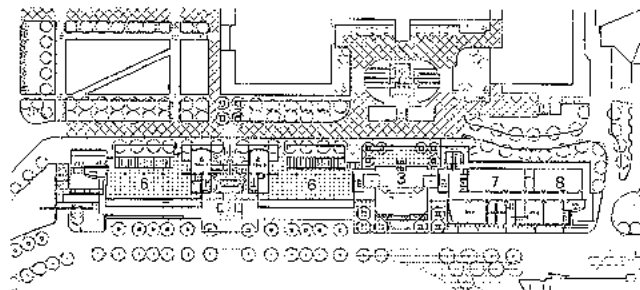
침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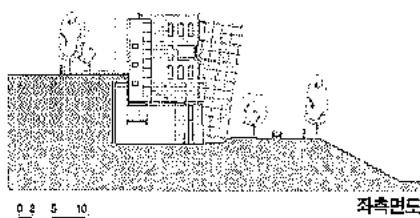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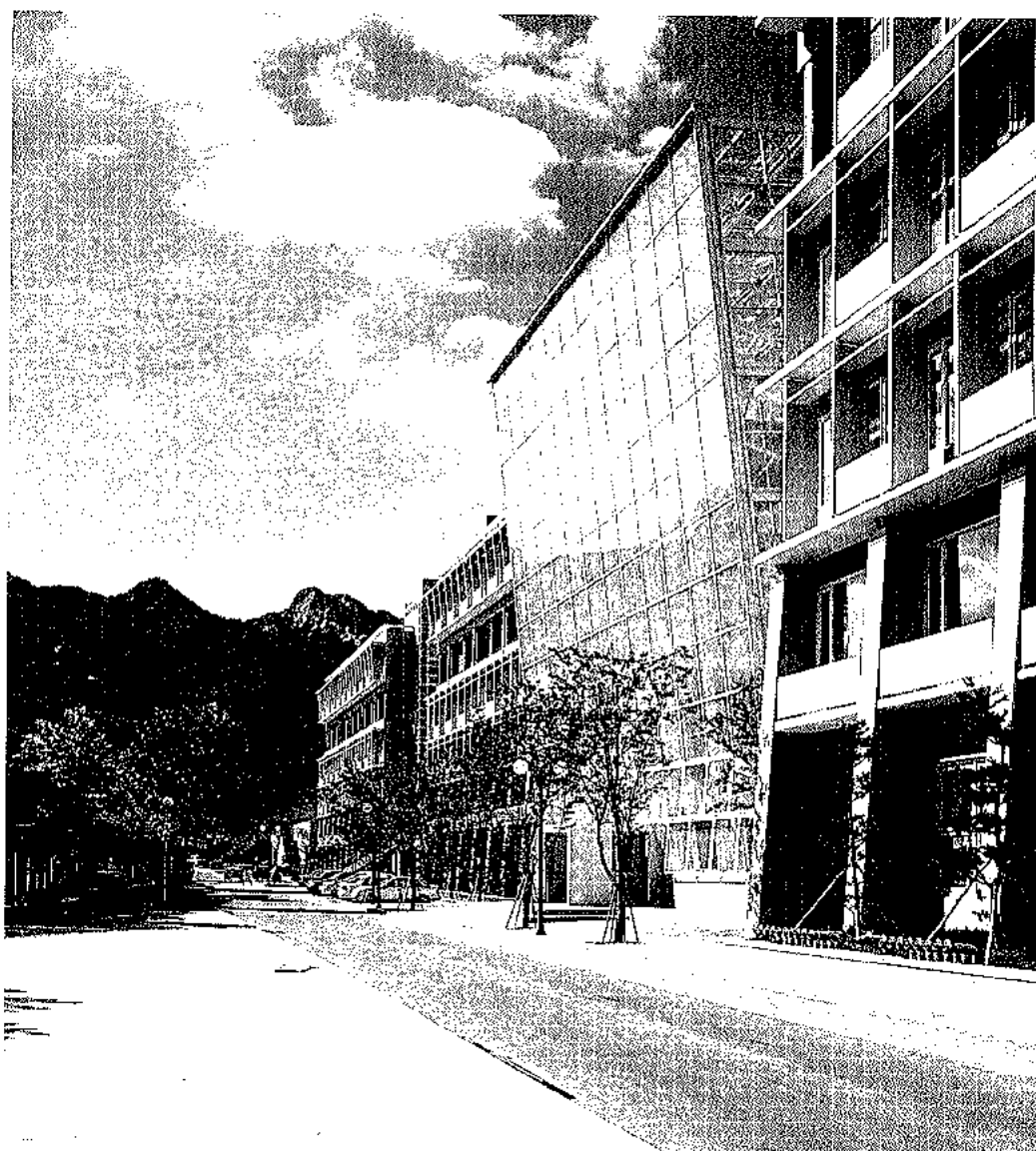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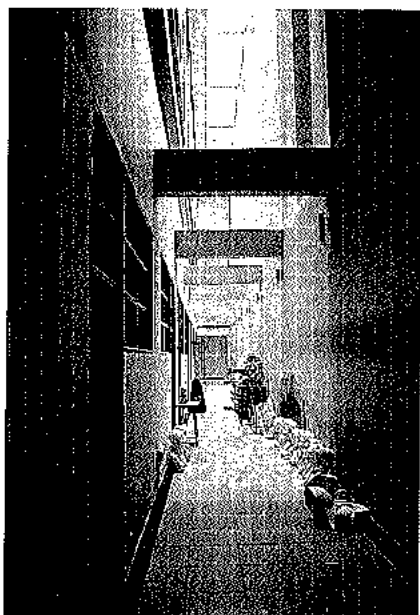


- 1. 목공실
- 2. 휴게실
- 3. 로비
- 4. 실험실습실
- 5. 콘서트홀
- 6. 피로티
- 7. 전시실
- 8. 강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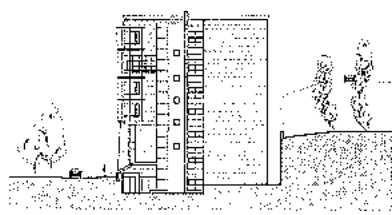
LEVEL 1



LEVEL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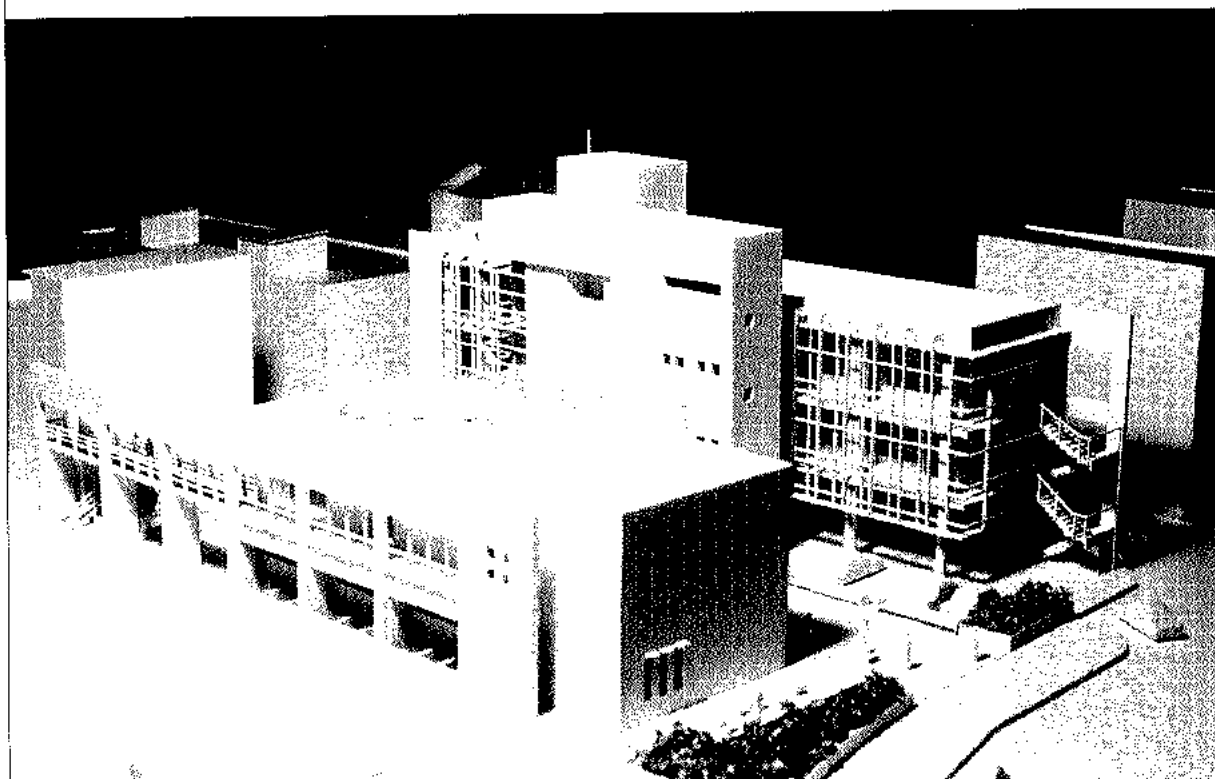
좌측면도



우측면도

성동노인종합복지관 Sungdong Elder's Welfare Center

최삼영 / (주)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
by Choi Sam-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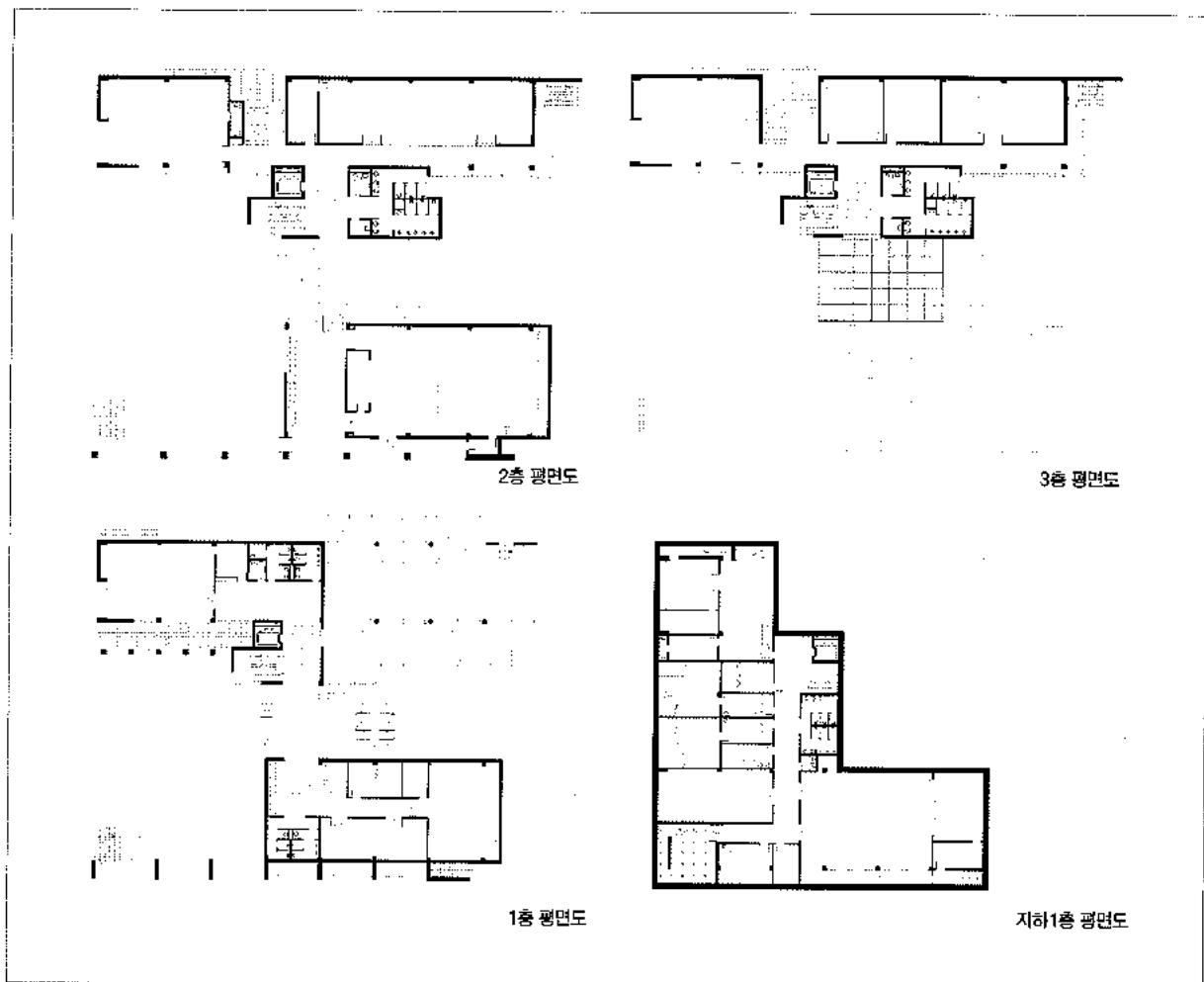
누구나 그렇겠지만 내가 건축을 하겠다고 결심한데는 두개의 동기가 있었던 것 같다.

하나는 먹고 살자는 기본적인 생존수단으로 삼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상하고 품나게 살자는데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건축을 보고 경험하고 감동과 감탄으로 건축가로서 이름을 널리 떨치겠다는 속심이 그 것이다.

6년전 학연, 혈연, 지연하고는 무연인 서울땅에서 좌판을 벌여놓고 일을 해보자니 찾아갈 곳은 커녕 전화할 곳조차 없었으니 그나마 아침, 저녁 신문 광고란이나 입찰정보를 뒤져 입찰이나 현상공모에 목을 매야 했다. 실력, 재력, 로비력 모두 무력한 나로서는 그나마 재

수에 기대 살아갈 팔자였다. 복권을 사야 되든지 말든지 하지 우선 현상공모 공고마다 자격만 되면 접수를 해보는 것이다. 그리고는 눈치를 살펴보는 것이다. 어느줄이 짧고 약할지... 천신만고 끝에 현상공모에서 당선이 되면 날아갈듯한 기쁨보다 안도의 한숨과 아릿한 불안에 휩싸인다.

98년 3월 IMF한파가 건축경기에 찬물을 끼얹은 어느날 또 하나의 입찰에서 아찔한 좌절을 보고는 이제는 좌판을 접어야겠구나 라는 절망의 담배를 연신 피우고 있을 때 접수해 놓고는 잊고 있었던 - 늘상 떨어짐이 버릇되어 공모에 접수한 날로부터 접수한 사실조차 잊어버림이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한다. -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이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감사의 기도가 탄식처럼 흠여졌다. 무엇보다 기뻐했던 것은 심사방법과 돌발적인 심사위원 선정 방법에 있었다.

늘 새로운 제안은 새로운 문제가 있었지만 그나마 나같이 무연, 무력의 촌놈에게 다행스럽고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았던 심사방법인 것 같았다. 고맙게도 당시 김 호수 성동구 도시국장은 오랫동안 현상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소모적인 전투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았다. 찬반 양론이 있지만 심사위원 사전 공개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 그리고 무연고 지에서의 나예겐 다소 덜 불리한 것 같았다.

대체로 예측할 수 없었던, 그랬기에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지명도는 낮을수도 심사능력에 회의가 있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젊고 비교적 전문성이 높은 학자들이 심사의 주축이 되었다. 물론 관례였던 비전문 공무원은 모두 배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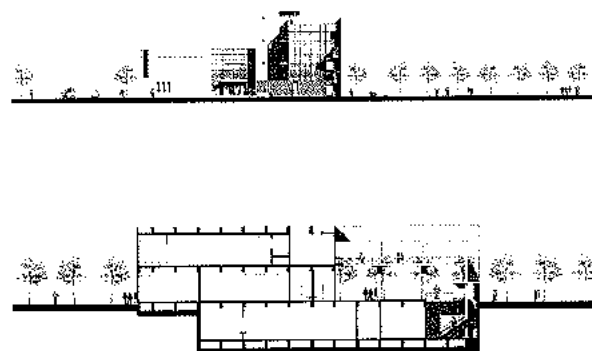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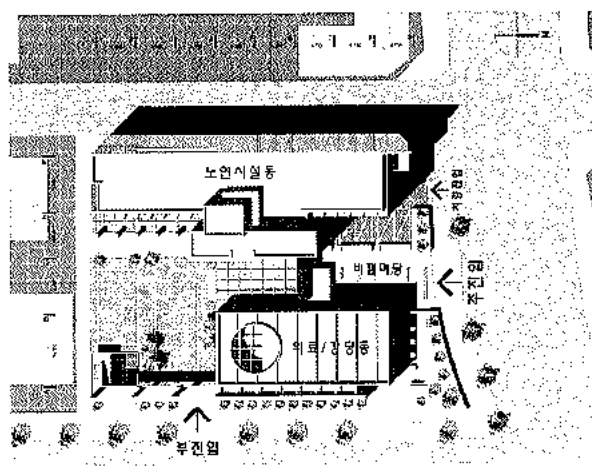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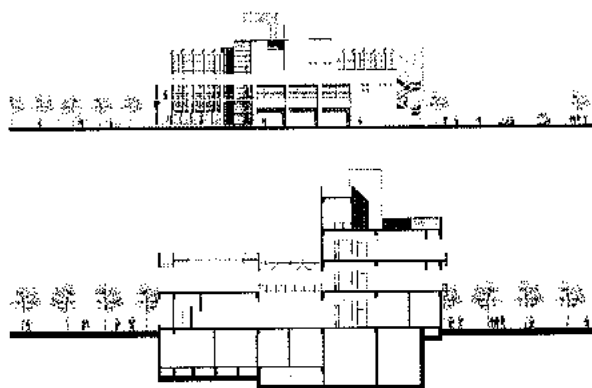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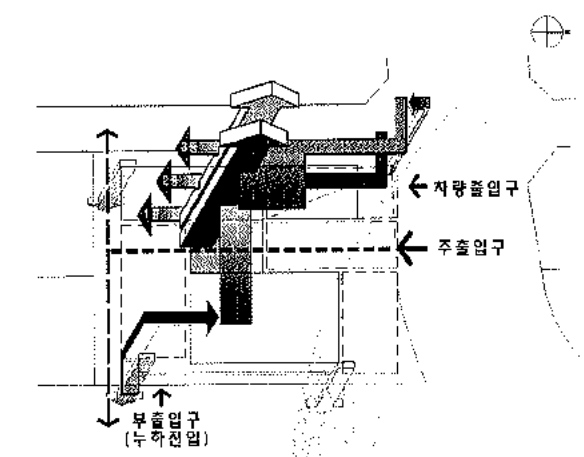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공모심사 후 심사위원 및 심사결과표 공개, 심사과정과 심사기준 공개는 심사위원의

책임을 더욱 크게 만들어 주었으며 의혹을 줄여 주었다.

수상작들의 공개 또한 심사자의 책임감을 더욱 크게 느끼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공모제출 결과물도 경비가 많이 드는 컬러 투시도는 배제되어 사내인력으로 가능한 단색모형, 적은량의 패널, 보고서는 소규모 설계사무소에서도 적은경비와 인력으로도 가능케 도와주었다. 다소 불편함은 모형 스케일이 좀 컸다는 것 뿐이었다.

어쨌든 당선된 설계안은 여러곳을 경유하며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다. 담당 그리고 윗사람 그리고 그 윗사람, 상급기관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치다 보니 원래의 모습은 다소 변질되어지고 있었다. 현상공모안이 늘 맞이하는 숙제인 공사비 문제는 결정적으로 본래의 모습을 변질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공사비가 과도한 설계 공모안이 채택되는 것이 문제다. 되고 보자는 식의 설계자와 뺄고 보자는 발주자의 의식이 일단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짧은 시간 심사위원의 직관에 의존된 최종선택이 빚어내는 결과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며 불행하



게도 이 모든 책임은 건축가의 몫이 된다.

발주처에서는 공사금액과 용도만 제안하고 규모는 애초 지침에서 뺏어야 맞지않는가는 공사금액 문제로 많은부분 설계변경이 되어야 함을 겪는 건축가들은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얼굴에는 미소를 그리며 속으로는 인내를 세기며 만난 술한 사람들 덕에 무사히 설계는 마쳤으나 그 다음 벽은 더욱 나를 숨막히게 한다. 건축가라고 자처하는 우리 스스로 만든 제도지만 설계자가 감리를 못한다는데는 통한을 해야했다. 실행의 반에도 못미치는 수의계약금액 범위내의 용역비라도 좋으니 내손으로 지어질때까지 지켜보고 모자라거나 잘못된 곳은 고쳐주고 싶었으나 결국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 간 몇몇 관공사를 공모에서 설계기회는 얻었으나 한번도 감리 기회를 얻지는 못했다. 한번은 용기를 내서 책임감리회사를 설립해 보기도 했지만 융통성(?) 없는 주변머리 때문에 결국 막대한 손실만 남기고 폐업했어야 하는 뼈아픈 상흔만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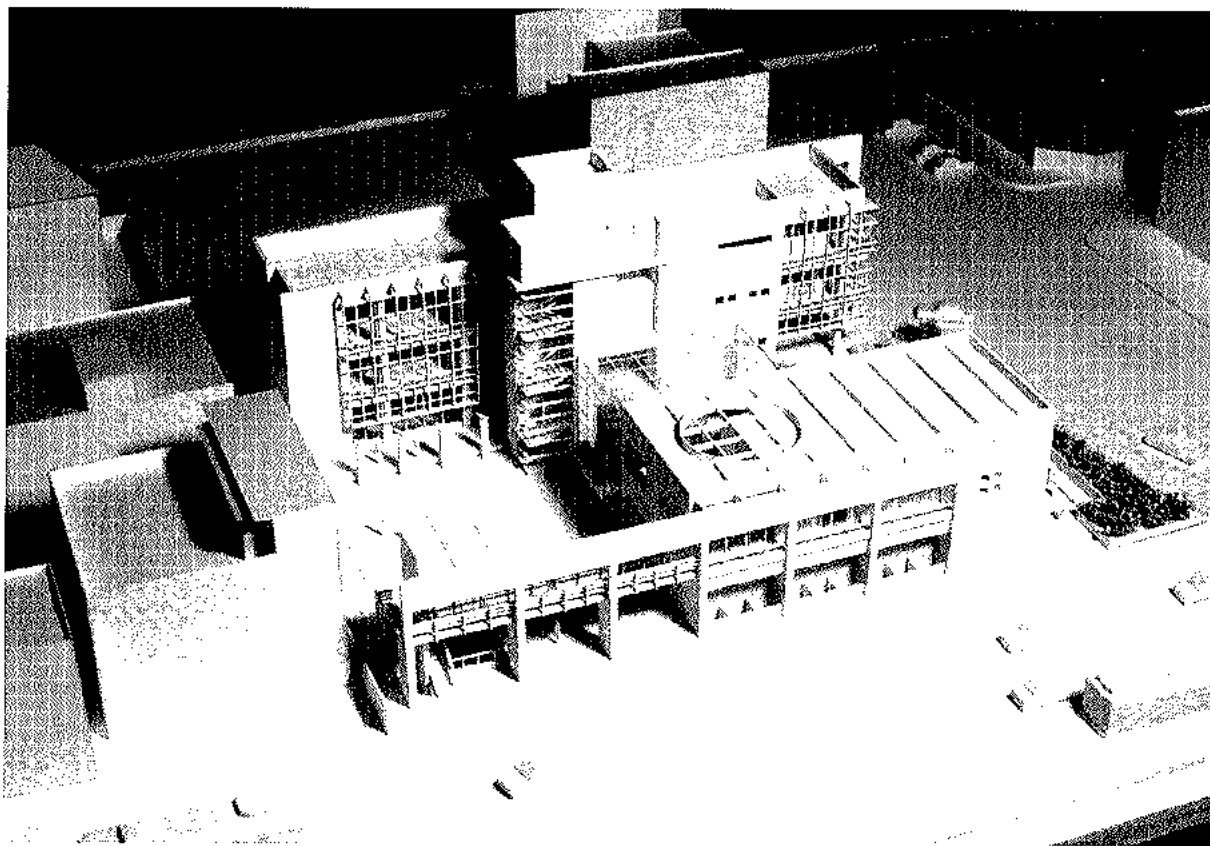
가끔은 설계만 하고 감리를 못한 관공사 공사 현장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설계와 틀린 또는 설계의도가 왜곡

된 시공장면을 보고 핏대를 올려보지만 이미 시공자, 감리자, 발주자의 협의로 결정된 사항이니 긴심 말라는 투다.

결국 잘못된 부분은 설계자의 설계잘못이라는 결론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허다하다.

필자는 이 건물이 잘지어져서 많은 노인네들이 편안하고 재미있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발상으로 계획의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지어질 회관을 사용할 노인네들의 과거 주거형태는 대개가 마당이 있고 꽃밭도 있고 별이 온 집을 감싸는 추억이 서린 집들이었으리라. 비록 대지는 삭막한 아스팔트 도로를 3면으로 낀 곳이지만 크고 속도 빠른 도로와는 가능한 분리시켜주고 이들만의 영역을 보호해 주자는 생각으로 큰 도로 전면에 관벽으로 커를 하나두고 또 화단도 만들어 Buffer Zone을 만들었다.

빛이 가득한 안마당은 툇마루와 입체로 구성된 관벽 2층부의 통로가 관람석이 되기도 하여 놀이, 공연의 행사장으로도 사용될 수있다. 또한, 앞마당과 안마당을 가로막는 로비는 투명한 유리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앞마당 입구에서 로비를 관통하여 안마당으로 진행됨이 깊어있고 자연



스럽게 전개된다.

빛으로 가득한 로비를 가운데 두고 기능이 다른 두개의 동—취미교실동, 강당 및 의료시설동—이 입체적으로 연결되어 단조롭지 않고 재미있는 일상을 유도한다.

노인들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바닥에 떨어지는 빛은 그림자를 형성하여 노인들에게 은연중 오랜 추억과 존재의 기쁨을 느끼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로비공간에 담아 보았다. 로비는 마당과는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안팎의 행사와 정서를 공유하며 생기있는 공간을 연출하여 건축이 생리적, 물리적 기능만을 수용하는 곳이 아니라 삶에 희망을 주는 풍요로운 정서적 기능을 수반하는 공간이고자 노력했다. 두 동 사이에 깎아 코어는 두 동으로의 접근도 용이로우며 시각적인 분리도 가능케 해준다. 내외부 재료는 공사비와 안전성의 고려도 있겠지만 가능한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친근감 있는 재료를 선택하고자 했다. 흙으로 만든 부드러운 질감의 붉은 벽돌은 과거나 지금이나 주택에서 가장 흔하고 친근감 있는 재료일 뿐 아니라 붉은 색은 건강하고 생기있는 환경을 제공하게되며 두 매스 사이에 깎아 좁은 수직의 코어는 목재로 마감되어 컬러나 질

감을 다양하고 리듬감 있게 조화시킬 것이라 생각되며 포근한 느낌의 공간들이 연출되리라 믿는다.

현재 골조 공사가 마감된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은 내년 3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봄별이 완연하고 꽃이 피는 입주시기에 노인들의 황혼을 더욱 따스하고 편안하게 감싸주는 공간이 탄생되어 주길 소망한다.

대지위치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98-1
대지면적	2,062.80㎡(625 py)
건축면적	739.10㎡(223.58 py)
연면적	2,611.18㎡(789.88 py)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외장재	붉은벽돌 + 목재후로링

복고주의(復古主義)의 두 얼굴(2)

Restoration with Two Faces(2)

박영호 / 의전 건축사사무소

by Park Young-Ho

4. 복고주의 양면성, 숨은 의미 찾기

정치, 사회 제도나 문화 예술 분야 등에서 이루어지는 복고 행위에는 몇가지 다른 유형이 감지된다. 첫째는 직사(直寫) 행위로서, 수사법상 직유(直喩)와 같은 것이다. 예컨대, 어떤 업적을 남긴 이의 동상을 세우거나, 가르침을 선양하여 본받게 하는 행위 등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다. 목표가 분명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직선적이어서, 읽는 이가 현장에서 곧바로 의미를 파악케 한다. 숙명적 대결의 영원한 맞수니, 우리의 적은 누구니 하는 구호가 그러하듯, 의문스러움 없이, 눈 앞에서 단번에 복고 대상을 알려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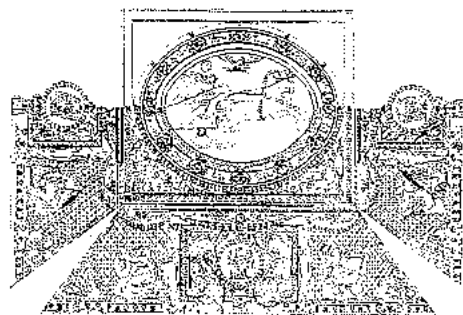
반면, 창조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거나, 의미 변화가 있는 복고 행위다. 과거를 현재 시점에 맞추어 재생하는 데는 변모를 위한 새로움이 추가 되는데, 때로는 이 추가되는 새로움 속에 과거의 것이 지니고 있지 않던 다른 의미가 숨어들어, 중첩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소위 은유적(隱喩的) 표현이 이에 해당된다.

앞서 기술한 드리나강의 다리는 강의 양안을 연결하는 나룻배로서의 주민 편의시설 의미보다는, 지배자의 통치를 원활케 하는 동서 교통로로서, 오스만의 실력을 세르비아에 과시하는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읽은 사람에 따라 그 의미는 달리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건축물의 경우에

다음에 소개하는 그림은 어떤 실내의 천정화의 일부분이다. 그 속에 그려진 내용을 살펴 보면서 나름대로 숨은 의미를 음미해 보자.

1. 복고주의 개관
2. 복고주의에 대한 일반 관념
3. 복고주의 유형
4. 복고주의 양면성, 숨은 의미 찾기
5. 역사상의 복고주의
6. 복고주의 반성과 진로



Percier and Fontaine, ceiling of the guardroom at the Tuileries (from Recueil)

중심부 타원형 속에는 두 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를 탄 무장 군인의 모습이 보이며, 그 위로 새가 먹이를 낚아채어 난다. 주변 경사 천정으로 보이는 곳에는 독수리로 보이는 맹금류가 중앙을 호위하듯 3면에 둘러 있으며, 사이 사이에 날개를 접은 여인들의 창을 든 모습이 인상적이다. 전체적으로 상무적 개선(凱旋) 분위가 뚜렷하다.

도대체 어느 시대를 나타낸 그림인가.

영화 '벤히'의 전차 경주 장면을 떠올린다면,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로마를 연상하기에는 어렵지 않다. 전사의 투구 모습이며, 날개를 반쯤 벌리고 날카로운 부리를 옆으로 한 독수리며(독수리는 전통적으로 로마 황제의 상징이며, 전쟁의 신 아레스의 상징이다),¹⁷⁾ 앞가슴을 드러낸 채, 창과 방패를 든, 날개 접은 여인의 모습에서 승리의 여신 니케와 아테네 여신의 합성 이미지를 읽는다. 여러 면에서 강한 군사력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 의하면 로마인은 전쟁에 나가기 전, 새가 나는 모습을 보고 전운을 점쳐, 출전을 결정했다 한다.¹⁸⁾ 먹이를 낚아채는 맹금류의 비상은 이미 승전을 예고하고 있으니, 전사여 그냥 그대로 진군하라는 독전(督戰)의 의미로 읽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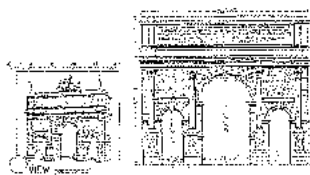
앞의 그림은 페르시에(Percier)와 폰텐느(Fontaine)에 의한 불란서 근위대의 실내 장식이다.¹⁹⁾ 위의 두 사람은 프랑스 나폴레옹 시대, 고전적 건축양식인 암피리식(Ampire Style)의 기초를 세웠다 한다. 황제의 주석 건축가이며, 그 유명한 국립 미술학교 애콜르 보자르를 창립한 사람들²⁰⁾이라는 이력을 본다면, 얼마나 영향력이 컸었겠느냐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나폴레옹의 그 어떤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류의 실내장식을 가능케 하였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 실내 장식에 나타난 것이 바로 나폴레옹의 생각으로 보여진다. 여러 사람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나폴레옹이 로마에 이상을 두었다는 주장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로마의 세계 지배 이상과 그의 생애가 주변국과의 계속되는 전쟁으로 엮여 있음을 두고 볼 때, 그런 심증을 갖게 된다.²⁰⁻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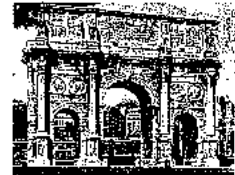
나폴레옹이 많은 전쟁을 수행한 것과 로마의 정복 전쟁은 별개여서, 우연한 연관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들의 건축 행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독 로마를 주목했느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필요로 한다. 한 두차례 전쟁은 시대 여건상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럽 전역을 전쟁터로 만들어야 할 이유로, 로마가 좋아서라는 대답은 적절치 않다. 로마의 건물도, 제도도, 법률도 아닌, 세계 지배의 야망이라는 대답이야말로 전쟁 수행

의 이유로 걸맞아 보인다. 그 만큼 중대한 이유라면 복고, 또한 심각한 깊이를 지닐 것으로 생각된다.²⁰⁻²⁾



셉티무스 세베루스 개선문(A.D203)



콘스탄틴 개선문(A.D312)



카루셀 개선문(1806):
(루르드벤트, Neo-classicism)

그래서 인지 전쟁과 관련된 것이 두드러져 보인다. 앞서 두 사람이 설계한 카루셀 개선문(Arc of Carrousel,²¹⁾ 1806)은 로마 제국의 셉티무스 세베루스(Septimus Severus) 황제의 개선문을 본떠서 세운 것이라 한다. 베니스 산마르코 광장에서 가져온 지붕 위의 청동제 군마 전리품과 주두 위에 조각상을 얹힌 4개의 기둥과 3개의 아취 및 부조, 지붕 끝 장식 등 어디 하나 닮지 않은 데가 없다.

나폴레옹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물로써 방돔 광장(Place Vendome)에 있는 프랑스군 기념주(Colonne de La Grand Armee)를 들 수 있다. 이 또한 로마 제국의 트라얀 황제의 기념주(Trajans' Column)를 모방한 것이라 한다.

사이 사이에 부조가 연속된 나선(螺旋)을 지닌 원형주로서, 전리품으로 노획한 1,200문의 대포를 녹인 철을 소재로 하였더니, 개선문에 못지 않은 굉장한 전쟁 기념물이다.²²⁾

17) 플레트 애스틴 외 1인, 유목철 역: 그리스 로마 신화(미래 M&B P. 106 독수리는 제우스를 주인으로 섬긴다. 그의 상징으로 차용된다. 그 용맹성으로 인하여 신화상, 전쟁의 신 아레스의 상징으로도 여겨진다.

18)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Vol. 삼척역 역(한글사. '98) p. 49

19) Leonardo Benevolo: History of Architecture, vol. 1(MIT, 1978) p. 160

20) 윤장섭: 앞책 p.254

20-1) 조희호: 세계문화사(박영사. 78)P312,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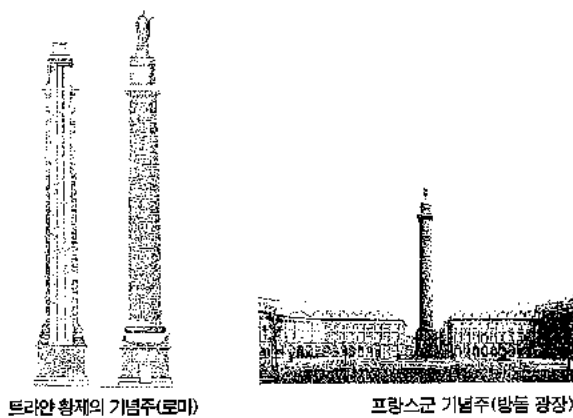
“로마의 국민은 오랫동안 혁명에 지쳐 안정과 질서를 갈망하여 개인적 독재라도 불사하였다. 이런 가운데 집정관부는 사실상 나폴레옹의 독재정치를 하였다. 이 독재 정권은 인민의 열렬한 지지로 의하여 성립된 것이므로, 나폴레옹은 그 인가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없는 정복이 필요하였다.”

20-2) 조희호: 앞책 p.314

“나폴레옹의 전성기이며 그는 프랑스 황제 겸 이탈리아 왕인 동시에 라인 동맹 왕조 소대공국의 보호자이었다. 그의 형은 이스파니아 왕에 두동생은 홀랜드 왕과 웨스트팔리아 왕위에 앉았다. 일족 공신을 봉한 나라의 수는 모두 7개국 30공국에 이른다.

21) Geoffrey Broadbent: 이진섭, 이공철, 현상일 역: Neo-Classicism(세신사. '95)p65

22) Geoffrey Broadbent: 앞책 p. 65



트라야누 황제의 기념주(로마)

프랑스군 기념주(방돔 광장)

영국의 탁월한 건축 저술가 브로드벤트(Geoffrey Broadbent)에 의하면, 트라야누 기념주의 원래 모습과 같이 최정상부에는 시저와 비슷하게 분장을 한 나폴레옹의 동상을 세울 예정이었다 하니, 로마에 대한 그의 동경의 깊이를 짐작케 한다. - 나폴레옹이 태어난 고향 코르시카에는 로마 원로원 복장으로 토가를 두르고, 나폴레옹 법전을 손에 든 그의 동상이 서 있어서²³⁾ 브로드벤트의 주장이 낭설이 아님을 짐작케 한다. 흡사 로마 제국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하며, 귀족 제도의 부활, 황제의 부활과 함께 즐기던 복고 의지에 숨어 있는 아망을 읽을 수 있다. - 복고 유형 두세개가 복합되어 보인다.

은유(隱喩)로서의 복고 표현

정치, 종교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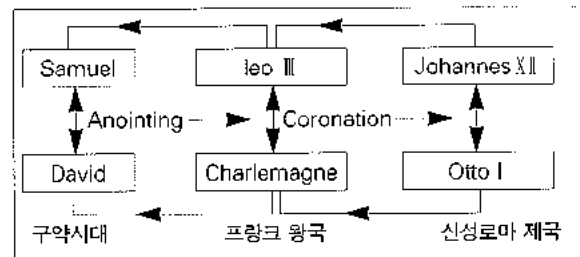
서양사 중세편 머릿글은 대체로 샤르르마뉴(Charlemagne 772-814)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된다.

“로마 법왕 레오 3세는 A.D.800년 성탄절에 로마에서 샤르르마뉴에게 황제의 관(冠)을 씌워 주었다.” 라는 내용이다.²⁴⁾ 이미 프랑크 왕국(지금의 폴란드, 독일의 서조격인 나라)의 4대 왕인 그에게 왕 대신 황제의 호칭이 걸로습으로 변했을 뿐이나, 멸망한 서로마 제국을 대신하여 주변 그리스도국에 대한 우두머리 역할을 인정해 주었다는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 대관 행위(戴冠行爲)는 서로마 제국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토인비에 의하면, 아주 훗날까지 계속된 이러한 의식은, 그 이전의 헬레닉 사회에서는 없던 것으로서, 구약시대(舊約時代) 이스라엘의 종교 관습에서 유래한 의식의 부활이라 한다.²⁵⁾ 선지자(先知者) 사무엘에 의한, 다윗의 성별(聖別: Samuel anointing David)이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에 의한 솔로몬 왕 추대 의식 - “솔로몬을 다윗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제사장 사독이 성막(聖幕) 가운데서 기

름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洋角)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²⁶⁾ - 에서 대관 의식의 원형으로 살피고 있다. 그 의식 속에는 주변국을 아우르는 리더십과 쇠진한 교황의 권위가 부활되는 내용 줄거리가 암시적으로 깔려 있음을 보게된다.

게르만 민족 이동시, 그 지역(갈리아)에 거주하던 일부 원주민이 없던 것이 아니었으나, 이 이후 거주한 게르만에게는 잃어버린 영토도, 권위도, 영광도 없던 터라, 복고의 의미는 교황과 라틴 문화 전반에 대한 것으로 보여진다.



종교 지도자의 군주에 대한 승인과 복고 관계

일본에 있어서의 신도(神道)의 부활

전쟁과 같은 큰 혼란에 앞서 강한 복고 바람이 불었던 것은 여러곳에서 살펴진다. 앞서 본 예들이 그러하듯, 대전 전 일본 사회상에 나타난 복고주의 경향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지적한다. 그것은 군국주의(軍國主義)와 신도(神道)의 부활로 살펴진다. 전국시대 이후, 개화에 이르기까지, 역할을 잃고 입지를 펴지 못하던, 봉건적 종신(從臣) 사무라이들이 과두 정치의 일원으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며 야기된 현상이라 한다.²⁸⁾

군국적 분위기가 부활되었음은 물론이거니와 이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간 신성시 되어온 천황의 권위를 빌어 외지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그의 이름하에서는 명분도 서며, 손쉽게 먹혀 들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오랫동안 유명무실하던 천황이 새삼 전면에 등장하면서, 천황을 숭배하는 종교로서 신도가 부활하게 된다. 신도는 원래 순박했던 일본의 고유 종교라 한다. 이들 군국주의 자들에 대한 천황 숭배의 장소로 바뀌어지며, 그 신전인 신사(神社)가 그 사상을 고양시키는 대중적 장소로 바뀌어 나간다. 말이 대중적이지, 열

23) K.B.S. 1. PM6:00. 세삼촌 냇다 건축기행 중 콘서트 판에서

24) 조지호, 서개문화사, (박경사 78) p.136

25) 토인비: 앞책, vol.2, p.442

26) 성경, 열왕기, 하. 1장 38절 중반에서 39절까지

27) A.J. toynbee: 앞책, vol.9, p.21

-There can be no question that its ultimate origin is to be found in the old Testament, where it embodies the theocratic principle and the dependence of the secular power on the spiritual power of the prophet., as we see in the case of Samuel anointing David in place of Sa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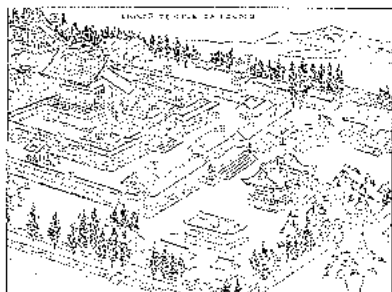
28) C. Brinton: 앞책, vol.3, p.227, 228

이나 강압적이었던가는 궁성요배(宮城遙拜)와 황국신민(皇國臣民) 만세를 강요 당하며,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한 주기철 목사 등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실감하게 된다.

1863년 일본은 신도에서 불교를 분리해 내는, 이른바 신불분리령(神佛分離令)을 공포하여 고대 이래의 신불습합(神佛習合, 일본 고래의 신과 불교를 절충한 신앙 형식)을 금지하고 신도를 국교로 하는 방침을 밝힌다. 그 7년 후, 대교선포(大敎宣布)의 조칙을 내려 국민에게 천황의 조상신과 천황을 숭배하는 포교정책을 밝히기에 이른다²⁹⁾. 이후, 내각의 모든 책임을 천황에 대하여 지는 소위 메이지 신헌법이 발효되면서 군국주의자들의 숨은 의도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얼마 후, 청일전쟁이 터지고 노일전쟁 및 양차 세계대전에 고루 연루된 것은 이들의 저의로 미루어 볼 때, 결코 우연으로 비쳐지지 않는다. 어느 서양사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일본 대중의 충성심을 성스러운 천황의 시명(時命)에다 귀일(歸一)시켜, 그들로 하여금 천황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군국주의자의 의도에 순응하도록 만들었다."³⁰⁾

신도를 개작, 부활시킨 데 대한 영향과 그 책임을 여기까지 미루어 보는 데는 비약함이 없지 않으나, 작은 원인들의 누적된 결과로써, 또한 오랜 도음달거를 눈여겨 볼 때, 여러 역사가의 평가가 한 곳에 모여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군국주의자들은 스스로를 부활, 복고시키기 위하여, 신도를 부활하여 그 속에다 천황을 부각, 부활시키는 이중 삼중으로 위장된 복고 테크닉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들 군국주의자들에 의한 악의적 훼손과 저지른 범죄에도 불구하고, 신사는 아름다움을 잘 간직하고 있어서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물로써 알려져 있다. 건축물은 쓰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며, 거기에 얽힌 구구한 사연에 구애 받음 없이 건축 조형만으로서의 독자미와 순수미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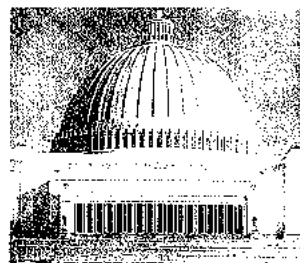
이즈모 신사 조감도 (1874년 재건)³¹⁾

건축에 있어서 은유적 표현

읽어서 부담없이 내용을 빨리 알 수 있는 전술한 직유법에 비하여, 다소 머리를 짜아내어 숨겨진 의미를 알아내야 전체 문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소 난해한 문장이 있다. 이

른바, 원관념(原觀念)은 숨어 있고, 보조 관념이 표면에 나타나는 은유와 같은 수사법이다.

부석사(浮石寺) 무량수전(無量壽殿)에는 주존불이 정면을 향하지 않고, 일반 대웅전에서와 좌측면에 있음을 의아해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주존불이 서방극락정토를 주재하는 아미타(阿彌陀)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정면 중앙을 마다하고, 서쪽 측면에서 동쪽을 향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원관념으로서의 서방극락정토의 아미타불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Great Hall 모형 전경 (브로드벤트, '신고전주의'에서)³²⁾

모형으로 보이는 위의 사진을 살펴보면, 복고주의 숨은 의도를 음미해 본다.

건물 지붕 좌, 우측에는 로마의 개선문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전차 군마상이 보인다. 또한 돔의 최정상부와 열주의 지붕 좌, 우측에는 날개를 펴달리는 독수리 상이 있다. 언급된 부분만 본다면, 앞서의 니콜레옹 시대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돔(Dome)의 형태는 베드로 성당 본체와 흡사하며, 미국 국회 의사당의 모습과는 더욱 유사한 데가 많다. 따라서 신고전주의 양식의 하나로 무심코 보아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앞에 점점이 밝힌 사람들의 깨알 같은 크기나 쌍주가 늘어선 전면 폭과 돔의 규모에서, 그만 입이 떡 벌어지게 된다. 어떤 복고주의의 열망이기에 이토록 굉장한 과장법이 동원되어야 했을까. (모형속의 작은 요소를 가지고 확대 해석함은 지나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건물 하단부 좌, 우측에 있는 아틀라스(Atlas)로 보여지는 조각상을 눈여겨 보자. 그리스, 로마 신화상의 아틀라스는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거인이다. 그래서 머리에 짐을 얹힌 형태로 표현된다. 이 건물을 거인과 대비할 때, 이 거인이 떠 받들고 있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

돔이 유난히 크다는 것은 건물내에 대단한 홀(Hall)이 있음을 의미한다. 대규모 홀에 모인 수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처럼 높은 분이 전투적 상무정신을 강조한다는 내용이라면 얼추 숨은 의도가 들어나는지. 위의 모형 사진은 하틀라와 그의

29) 박경희: 일본사, (일빛사) p. 394(메이지 유신, 하급무사중실 왕정복고 단행)

30) C. Brinton: 앞책 vol.3 p. 480

31) C.M. Harris: Historic Architecture Sourcebook(McGraw Hill) p. 310

32) G. Broadbent: 앞책, p. 132

수석 건축가 알버트스피르(Albert Speer)가 설계한 '베를린 신 도시계획'에 나타난, Great Hall 이라고 불리는 계획 건물이다.

베를린 재개발 도시계획 모형을 바라보는 히틀러, 자못 진지한 표정이다. (199년 2. 6. 한계레 신문에서)
(제3제국의 '정치건축'에 관한 글이 실린 책 표지, 부분)



이 건물은 가로로 막다른 부분인, 예컨대 세종로의 경복궁과 같은 위치에 계획되어 있어서, 그 핵심적인 위치가 그 규모와 함께 주목받은 것이며, 히틀러의 건축관을 살피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사 연구가 커티스(William, J.R. Curtis)에 의하면, 건축가를 지망했다 좌절했던 히틀러는 국정 그 자체를 일종의 기념비적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여 빛나는 독일 제국을 입증하기 위한 베를린 도시계획에 열중했다고 한다.³⁴⁾ 도시계획 모형 전시대 앞에서 팔장을 낀 채 조용히 들여다 보는 히틀러의 모습은 자못 진지해 보여, 그의 열정을 감지케 한다. 예의 개선문과 기념주가 보이는 것도 그 시절 군국주의 분위기를 더한다.

이 거대한 건물이 세워졌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위용에 감탄했겠으며, 오금이 저릴 정도로 주눅이 든 백성들의 인고가 오죽했겠느냐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나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규모 실제 베드로 성당 전체가 그 돔(Dome) 속에 들어갈 수 있다 하니³⁵⁾ 베드로 성당의 본체 장축 180m를 감안하면, 앞서의 추측도 무리가 아니다. 그 건립에 손을 댔을 경우, 여기에 소모되는 정력과 국력의 낭비를 감안할 때, 세계대전을 일으키기도 전에 멸망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리스, 로마적인 것에 굉장한 과장법이 동원되어 복고를 돕고 있다. 복고란 가깝게는 그 시절의 고통과 굴욕(베르사이유 체제)으로부터 벗어나, 1차 세계대전 전으로의 회복이며, 멀리는 신성로마 제국의 영광된 타이틀을 되찾아, 로마 제국의 지배 야망을 이루는 것이었다.



총통관저 입구. (Albert Speer)
(브로드벤트 '신고전주의'에서)

위의 사진은 앞서의 히틀러의 수석 건축가가 설계한 총통 관저의 입구다. 도리아식 기둥과 주두를 더욱 단순

화 시킨 입구 상부에는, 예의 그 날개를 활짝 편 독수리가 나치 문장을 안고 서 있다. 앞서의 Great hall의 돔 최정상부에서도 독수리 상을 보았다. 같은 시기, 파리 만국 박람회 독일과 (Albert Speer 설계)의 최정상부에서도 같은 형태의 독수리상이 서 있으니, 국내외, 옹도 불문하고 얼마나 빈번히 사용되었나를 짐작케 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살피지는 독수리 상은 용맹을 상징하는 사자와 함께 여러 문장(文章)에 즐겨 사용되고 있다. 프랑크 왕국의 시조격인 메로빙거(Merovingians) 조의 유물 장식품에도 등장하여, 그들 만의 역사도 오래되어 보인다. 그러나 나폴레옹 시기나 히틀러의 경우는, 다른 예와 마찬가지로, 로마적인 것의 복고 행위로 살펴봄이 더욱 자연스러워 보인다. 독수리가 그만큼 로마적이기 때문이다. 로마 건국 시조인 로무루스가 왕위에 오르는데 호의적 역할을 했다는 12마리의 독수리에 얽힌 설화가 이를 말해준다.³⁷⁾

독수리는 그리스 신화상, 신중의 신 제우스의 상징이어서, 로마 황제의 상징물로써, 그 이후의 전제적 지도자가 자신의 상징물로 복고 재생함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로 보여진다. 세월이 흐른 후, 황제를 부활한 전제적 군주 아우구스투스가 등장하며, 그들 설화 속의 12마리의 독수리를 공식 행사에 재현함으로써, 의식의 복고를 감행한다³⁸⁾. 비잔틴 제국에 이르러, 바실레오스 황제의 요람 일화에서도 살피지며, 동서를 두루 살피라는 의미에서 쌍두 독수리가 문장으로 등장한다^{39, 40)}.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천한 독수리 문장이라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느냐에 따라, 다른 느낌으로 받아 들여지게 된다. 로마 제국으로의 복고라는 최종 목표를 향하여, 소소한 복고 행위가 얼마나 많이 동원되었겠으며, 별의별 디자인 기법이 사용되었으리라는 데에 생각이 미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일상에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옥죄이며, 그 영향력이 모세 혈관의 구석구석, 터럭 하나에 까지도 미쳤겠다는 생각이 들만큼, 집요한 것으로 비쳐진다. 끈질긴 복고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5. 역사상의 복고주의

유럽의 복고사

1999년 1월1일 주요 일간지 1면은 "유로시

34) William, J.R. Curtis, 강병근 역: 1900년 이후 근대건축, vol.2, (화영사 '93)p.350

35) William, J.R. Curtis: 앞책 vol.2 p.355

37) 클레르 에스탕: 앞책, p. 232

38) 클레르 에스탕: 앞책, p. 225

39) Philip Sherrard: Great Age of man, Byzantium(Time life book '83) p. 64

40) Philip Sherrard: 앞책, p. 120

대 개막"이라는 머릿기사로 장식된다. 어떤 조코 기사에는 이런 구절도 보인다.

"유리화 출범! 잊지 마세요, 학폐의 로마제국 탄생을." ⁴¹⁾

그 탄생이란 부활, 재생을 의미하며, 이미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복고 경향이 감지되어 왔음을 전제로 하는 함축 기사다. 이러한 일부 복고 경향의 시원은 프랑크 왕국으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진다. 앞서 언급한 사르르마뉴 대관식에 대하여 "망해버린 서로마 제국이 이 게르만 군주에 의해 부활되었다" 라는 역사 견해가 ⁴²⁾ 보여주듯이 그 조짐을 1,200년 전으로 거슬러 보는 것이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유리화 출범에 이르기까지의 유럽 복고사를 대하여, 그 파란곡절에 놀라워 하며, 신문의 "잊지마세요" 라는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

사르르마뉴는 그의 아버지 피핀(Pippin)이 교황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른 것처럼 오늘을 있게 한 교황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스도교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부지런히 영토를 확장하여, 그리스도교의 포교에 매진한다. 얻은 땅의 일부는 교황에게 기증하여 그의 아버지가 마련한 교황령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한다. 이는 부친의 대를 잇는 소박한 마음에서 작은 복고로 접어들 수도 있었으나, 후일 미친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보여진다.

역사의 기록에 나타난 영토 확장의 결실과 라틴 문화 부흥 노력, 가톨릭 교세 확장 노력, 교육에 대한 열정 - 각지에 수도원 학교를 세워 교육에 힘을 썼다함. 오늘날 근대 교육의 기초를 세운 것이 그의 가장 큰 공로로 꼽힌다. - 등을 살펴볼 때, 카롤링가 르네상스(Carolingians Renaissance)라는 역사적 부름에 쉽게 동의하게 된다. 프랑크 왕국이 불란서와 독일로 나뉘어진 이후에는, 이를 본받으려는 복고행위는 양국 간에 경쟁적으로 나타나 훗날의 비극을 예고하기도 한다. 히틀러는 사르르마뉴의 즉위 보물(即位寶物)인, 왕관, 홀(笏) 등 권위를 상징하는 것을 함부스브르그가의 박물관에서 훔쳐 그의 산장에 보관하고는 흠모했다 한다. 망령(亡靈)의 망령에 대한 경배라는 쓴 비평이 더해진다.

독일의 오토 1세(Otto 1,936-973)는 사르르마뉴가 했던 그대로 영토 확장, 이교도에 대한 가톨릭 개종, 교황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A.D.962년 교황으로부터 로마 황제의 관을 받게 되며, 이로써 신성로마 제국(Holy Roman Empire)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폐망한 로마 제국이 두 번씩이나 거듭 태어남은, 라틴 문화에 대한 감동의 깊이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말해 주는 것으로, 그 감동의 깊이만큼 복고주의의 끈

질김도와 닿는다.

앞서의 영결들이 그랬던 바와 같이, 그러한 본받을 복고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복 전쟁과 교황에 대한 지원 및 이탈리아에 대한 경영 등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즉 나라 밖의 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유럽의 역사가 계속되며, 나폴레옹에서 히틀러에 이르기까지의 수많은 유럽 전쟁의 원인을 간추려 보게되는 암시로 작용함을 알게된다.

보스니아로부터 얻는 교훈

오스만 지배하의 보스니아에는 세르비아계, 이슬람계, 크로아티아계 등 비록 민족과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았지만, 그런대로 평온을 유지한다. '드리나강의 다리'는 어딘지 가라앉아 보이는, 그래서 걸으려는 잔잔한 평화의 분위기를 배경으로 보여준다.

이튿날 먼동이 트자 터키인과 세르비아인들은 일터로 나가서 서로 무뚝뚝하게 표정없는 얼굴을 맞대어 인사를 나눈다. 흘러간 옛날로부터 이 읍내에서 주고 받은 인사, 마치 가짜이면서도 쉽사리 물건을 살 수 있는 위조 동전과도 같은 흔해빠진 시골⁴³⁾ 인사말을 교환하였다. 세르비아계는 피지배자로서 대부분 이슬람 지주의 소작인이었으나, 생활의 꺾고 러움을 그저 속으로 삭히며 큰 흥들을 면해가는, 그런 잔잔함으로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보스니아는 집단적 정체성이 부족했던가, 성당이나 모스크에 가지 않는 기독교인, 이슬람인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들릴 정도로 신앙 생활이며, 상호 결혼도 흔하였다는 사무엘 헌팅턴의 지적은 앞서의 배경 분위기를 뒷받침해 준다. ⁴⁴⁾

여기에서 민족과 종교, 언어, 관습의 차이가 분쟁의 필요 충분한 직접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암시를 받게 된다. - 코소보전쟁에 이어지는 결과를 두고 몇몇 전문가의 같은 견해가 있었다. 그렇게 자제하면서 모면해가는 중에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무엇이 이를 야기시키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난다. 그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려움에 처할 때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게 되는 복고성향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게 하며, 이를 부추기는 민족주의 경향의 지도자 역할을 주목하게 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보스니아 내전을 통하여 세르비아계 지도자 밀로세비치와 이슬람계 지도자 이제트비치치는 두 상반된 복고 성향의 대결로 나타나 보인다. 유고

41) 조선일보: 99, 전면봉

42) 조좌호: 앞책 p.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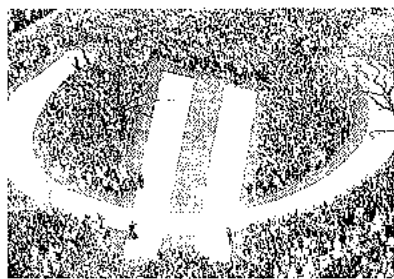
43) 이보인드라체: 앞책 p. 99

44) Samuel P. Huntington: '문화의 충돌, 이해제 역(간역사)' p. 367

해체되며 폭발적 인구 증가를 보인 이슬람계의 지원을 입고 권력을 잡은 지도자는 몇 세기를 거슬러 오스만 지배하의 이슬람 사회로의 복고를 감행한다

“언론에는 이슬람 민족주의가 자주 등장하였으며, 학교에서는 이슬람 종교 수업이 확산되었으며, 새로운 교과서는 오스만 통치시 이슬람의 혜택을 강조하였다. 세르비아어, 크로아티아어와 구별되는 보스니아어가 장려되었다. 터키어와 아랍어 등 이슬람에서 들어온 단어들이 보스니아어로 통합되기에 이른다.”⁴⁴⁻¹⁾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 열거한 위의 사항들은 바로 이 지도자가 감행한 보스니아의 교육, 언어, 사회에 나타난 복고 항목들이다.

이러한 거대한 복고주의에 대항하는 밀로셰비치의 복고운동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19세기 후반 양대 세력의 인구비례는 1:1로 나타난다. 그러던 것이 2차대전이 끝난 1961년에는 세르비아의 우위로 역전되며, 유고 해체무렵인 90년대에는 다시 이슬람인구의 큰 신장으로 재 역전되어 나타난다. 이 인구 역전 현상과 이슬람 복고 운동은 아웃 세르비아의 두려움을 야기시키기에 이른다. 세르비아는 1천년 비잔틴의 영화와 대세르비아 제국이 누리던 영광으로의 대항 복고를 감행하기에 이른다. ‘드리나강의 다리’ 전편에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세르비아는 이 지역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지도자가 택한 방법은 인종 청소라고 불리는 다소 기이한 전쟁이었으며, 그 대결은 참담한 결과로 나타난다. 자신의 지도력을 위해 복고 향수를 부채질한 적이 없는지를 묻게 되며, 전쟁은 정치의 도구라는 ‘전쟁론’의 한 구절을 음미해 보게된다.⁴⁵⁾



유러화 출범 축하. “잊지마세요, 화폐의 로마제국 탄생!” (99. 1. 3. 동아일보)

6. 복고주의의 반성과 진로

복고주의의 약점

앞서 살펴본 복고주의 예들은 정당성이 있어 보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결여된 것 중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헛수고로 느껴지는 것이 있다.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는 각자의 주장과 견해가 다를 수 있겠으나, 한가

지 점에서만은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다. 복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상태, 복고의 정당성을 논할 여지가 없는 경우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상태보다 더 나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빼앗긴 자기를 다시 찾으려 하거나, 훼손된 것을 과거의 온전한 상태로 복귀시키려는 경우나, 창조력의 한계점에서 솔직히 돌이켜 과거를 살펴려는 데는 정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고 훼손되지 않은 상태나 창조력이 왕성한 경우에는 못미치는 것이다.

개인에게 있어서라면, 잃어버린 건강, 실추된 명예, 지난 날에 대한 아쉬움이 없는 경우가 더 온전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점에서 복고주의는 형식상의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 열등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작 복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마저 외면 당하는 예를 보게된다. 세계 도처에서 잃고 있는 주권 회복운동이나, 과거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반향이 크지 않음과 무관하지 않다. 복고를 탓하기에 앞서서 발미를 제공한 원안들을 살펴 보아야 한다.

사람이 하는 일이란 매번 잘 되어 나갈 수만은 없다. 그래서 열등하며 약점을 지닌 복고주의이지만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며, 그들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기도 한다. 여기에서 복고행위 즉 과거의 체제를 회복하려는 행위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이 생겨난다. 여러 상황에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명쾌한 정의를 내리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게되나, 그것은 아마 복고주의가 자니고 있는 함정일 것이다.

복고주의와 자기에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은 자기에의 깊이 여부다. 지나침은 언제나 문제로 나타난다. 자기자신에 대한 지나친 평가절하나 자기비하를 서슴치 않거나, 굴욕에 빠져 있을 때, 칭찬과 격려가 필요할 것이다. 그 격려가 자신의 과거로부터, 위대한 조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반면 아무리 격려 차원에서지만 자기 칭찬이 요란스레 오래 지속되면 유연성과 자발성이 손상되며, 특별히 이웃을 잃는다. 우리것이 최고라는 이야기를 바꾸어 말하면 ‘너희들은 우리만 못하다’는 주장인데, 오래도록 들어 줄 이웃이 없을 것이다. 내국민을 아우르기 위한 보스니아 내 이슬람 회복운동이 곧바로 이웃 세르비아를 자극하여 전쟁으로 비화됨과 같은 것이다. 자기민족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나치의 선전이 정작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 반감이 더해져 많은 나라의 저항을 더욱 세차게 받게 되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44-1) Samuel Huntington: 앞책, p. 368
45)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심정) p. 414

복고주의와 창의력

다음으로는 복고주의에 있어서의 창의력을 생각하게 된다. 외형상 복고주의는 창의력을 극대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다른 하나의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뭔가를 가져 온다는 생각에 연유된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는 인간의 창조 행위가 백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창작을 생명으로 하는 예술에 있어서 마저 인습(因襲)을 기초로 한다는 아놀드 하우저의 주장은 그 약점에 대한 생각을 돌이켜 보게 한다. 복고주의에 있어서의 창의력은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 적음에 관한 것이며, 비복고적인 것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환상적 고전주의적 복고주의를 반성의 대상으로 주목하게 된다. 환상적이라는 표현은 과거에 대하여 지나치게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며, 과거를 고전으로 삼아 끝이 곧바로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의 복고주의를 말한다. 이 경우는 토인비가 말하는 복고주의, Archaism(의고주의)에 합치하는 것으로서, 르네상스적 복고와 비교할 때 창의성, 적응성, 융통성의 문제로 드러난다. 토인비는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를 통하여 정치 제도, 사상예술, 정신, 언어 등에 걸쳐 역사상 26개의 Archaism의 실례를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남긴다.⁴⁶⁾

"지금까지의 Archaism은 거의 다 실패하였거나 헛수고에 그치는 경향을 보인다. - 과거와 현재의 서로 대립되는 요구가 양립하지 않는 점이 Archaism의 약점이다. 현재를 생각지 않고 과거를 부흥하려면(To restore the Past) 계속 전진하여 멈출 줄 모르는 삶의 힘이 마침내 그가 지은 조잡한 건축물을 산산히 부숴버릴 것이다. 과거를 부활하려는 생각을 현재를 원활히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 Archaism은 사기(詐欺)다."

이 글은 과거의 이상에 대한 환상을 경계하라는 요지이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현재의 중요성과 그를 위한 창조의 역할에 초점이 모아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르네상스적 복고는 부담을 든다. 성질상 과거보다는 현재에 비중을 더 두는 것이며, 그가 가져 오고자 하는 것이 발육부진, 빈사 상태의 것이어서 앞서 보다 많은 창의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때문이다.

그러나 이 환상적 고전주의적 복고주의자(Archaiist)들마저도 변용의 편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들의 속내를 알지 않고서는 판별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흡사 일본의 신도가 교묘한 변모를 보인 것과 같이, 후세의 역사가가 복고주의니, 르네상스니 하는 판단을 내릴 때까지는 세월의 흐름을 지켜 보게 된다. 환상적 고전적 복고주의자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과거로 들어가 거기에서 살아가고픈 사람이며, 르네상스적 복고주의자는 과거로 들어가 고쳐서 쓸만한 것을 골라 다시 현재로 돌

아오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실재는 타임머신이 없는 탓으로 이 Archaist마저 과거로부터 뭔가를 가져오는데, 후자와 다르다면 그것을 거의 완벽한 최고의 것으로 믿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창의력, 현실 적응력에 있어서의 열세를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복고와 권위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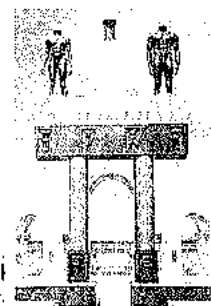
여러 복고주의 예를 살펴보는 가운데 공통 사항중의 하나는 행위자의 대부분이 권위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지도자의 권위는 자신의 실력에 기인할 것이나, 외형적 권위는 고래로부터 형식에 의존하는 바 크다. 자유, 평등, 박애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그 역사가 오래지 않다. 이러한 체제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통치자를 힘에 의한 외형적 권위의 상징으로 받아들인다. 힘을 바탕으로 한 외형적 권위란 과거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복고로 연결지워짐은 당연한 귀결이다. 중심을 상징화(Centralization) 하거나, 과장되어 보이게 하거나, 신화적 요소를 도입해 보려는 것 자체가 그로부터 생기는 권위를 수단으로 삼게 되는 위험을 안게 된다.

복고주의자는 권위주의자로, 권위주의자는 독재자로 변질될 가능성을 경계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를 회롱하는 듯한 자신감, 포스트 모던적 경향을 눈여겨 보게 된다.

부연

이상 복고주의가 지닌 약점과 딜레마, 그가 반성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과거를 부흥시키려는 추세는 좀처럼 사그러들 꺾새를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며, 창의력의 한계와 오늘보다 어제가 좋았더라는 퇴행적(退行的) 사고의 만연을 걱정거리로 남겨 놓는다.

무슨 뚜렷한 근거를 들 수는 없으나 필자가 느껴온 그간의 감정을 이야기 한다면, 이해와 양보의 정신 그리고 현재의 문제는 현실의 합리로 풀어 나가야 한다는 자세가 아쉽다는 점이다.



로버트 그레이엄
LA 올림픽 아치. 과거에 대한 접근 태도가
달라 보인다.

46) A.J. Toynbee : 알렉 vol. 8 p.96

프랑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8)

The Tradition of Theory in French Architecture and the Architecture of 20th Century

자율적 건축 ①: 바로크 사슬(enchaînement baroque)과 자율적 건축(architecture autonome)

김미상* / 경기대 건축대학원 강사

by Kim Mi-Sang

목 차

1.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 ① 장식 (la Décoration)
2.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 ② 배치 (la Distribution)
3.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①
4.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②
5. C-N Ledoux의 건축이론 ①
6. C-N Ledoux의 건축이론 ②
7. J-J Lequeu의 건축이론
8. 자율적 건축 ①
9. 자율적 건축 ②
10. Beaux-Arts와 합리주의
11. Le Corbusier의 건축사상에 나타난
 - 합리적 건축의 전통
12. Epilogue: 21세기와 건축이론

지금까지 설명한 건축가들은 한 때 서양의 건축사에서 1세기 이상 잊혀졌던 프랑스 건축가들로 기묘하게도 본토 프랑스의 학자가 아닌 독일어권의 학자에 의하여 새로이 조명되어 현재 건축사 및 이론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통용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계몽주의시대의 건축 또는 소위 18세기의 선구적 모던 건축가들은 Jacob Bruckhardt (야콥 브룩하르트), Heinrich Wölfflin (하인리히 뵐플린), Alois Riegl (알로이스 리이글) 등으로 이어지는 Vienna School의 전통을 계승한 Emil Kaufmann의 저작의 덕으로 빛을 보아 현재와 같이 건축분야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금세기 초에 발간된 그의 이론은 오늘에도 많은 부분이 유효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오늘날 서양건축사 및 비평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의 이론이 지니는 한계와 모순을 지적하기도 한다. 우선 그의 이론을 채움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단점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18세기의 Neo-Classicism을 총괄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고전주의의 개념으로부터 분리시키고 Kaufmann이 만든 특수한 정의 내에 한정하여 과도히 단순화되고 좁혀진 범주에 가두어 버린다는 점이다. 일련의 그의 저술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Kaufmann의 주제는 '이성주의 시대의 건축 (Architecture in the Age of Reason)', '자주적 건축 (Autonomous Architecture)', '혁명적 건축 (Revolutionary Architecture)' 등으로 변화, 발전하며 이어지고 있다. 그의 건축사상은 시간이 경과함에

* 본명 김원식

따라 변천, 발전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주의할 점들이 사라지지 않고 발견되고 있는데 그것은 추상화된 건축물의 형태를 너무도 쉽게 철학과 연결하는 것, 그리고 건축적 구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시대정신(Zeitgeist)'의 개념을 암암리에 자신의 논문 내용에 연루시키며 독립된 형태의 자율적 건축물 (architecture autonome: autonomous architecture)을 너무도 안이하게 당시에 대두되기 시작한 개인주의 사상과 연결시키고 있는 점 등이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1960년대 말경을 기점으로 새로운 논문과 저술들이 발간되기 시작하였는데 Kaufmann의 연구와 비교하면 훨씬 덜 사변적이고 바이론적이어서 실질적인 건축의 주제를 다룬 뿐만 아니라 미학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연구로부터 탈피하는, 고전주의 건축의 전통, 그리고 계몽주의 건축에 더욱 관련된 연구물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Kaufmann의 이론이 지니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던건축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쳐온 소위 플라톤적 미학이 건축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그의 건축이론을 가지고 추적할 수 있음과 아울러 적어도 Kaufmann류의 미학적 사고방식을 짚고 넘어가므로 유연한 이적 연계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주된 그의 사상들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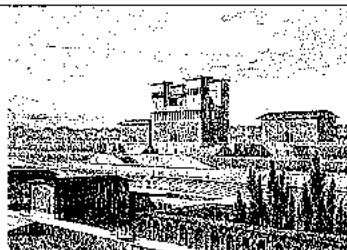
Kaufmann은 자율적 건축의 기원을 이미 Blondel로부터 시작하여 Ledoux에서 무르익어 후대로 전래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의 저서 'Von Ledoux bis Le Corbusier(르두로부터 Le Corbusier까지)'는 건축에 있어서 자율적 건축의 원리를 사회적인(혹은 사회학적인) 법칙과 건축에 있어서 합목적성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는 프랑스혁명 이후에 나타나는 합리주의적 건축을 설명하기 위하여 과거의 Baroque건축과 비교를 한다. Baroque건축은 사회에서 요구되는 위계의 질서를 반영하고 있어서 하부 및 다락층은 별 기능성이 없이 이 두 공간 사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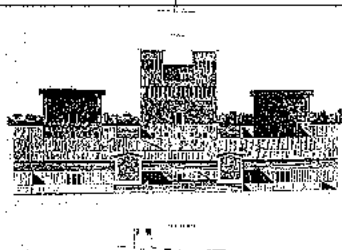
들어가는 bel étage¹⁾가 기능상 가장 중요하고 주된 성격을 지니며 하부층과 다락방은 2차적인 요소로 머문다. 거친돌 쌓기의 하부, bel étage 그리고 다락방으로 구성되는 각 부분을 하나의 체계 밑에서 통일된 모양을 구성하기 위하여 올바른 양식의 주식(柱式)을 채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기초부분과 지붕 사이에 도입되는 주범(柱範)은 최하부와 최상부에 위치한 2차적인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연결하는, 상이한 요소들이 일제히 합동하여 조화되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이것은 건축이 지니는 1차적인 조건, 즉 구조적인 요구 이외의 조건 즉 정신적 요구가 만족되어야 함을 가리키는 사실이기도 하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축의 조건은 상이한 각 요소가 따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일치를 통한 통일된 전체를 이루고 완벽한 비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르네상스시대의 Leon Battista Alberti가 발표한 미의 법칙인 regularity(규칙성), symmetry(대칭성), proportion(비례)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전체 모양은 변화가 많고 기분이 좋아야 한다는 조건, 시각적인 만족과 용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미학적 합일차성(convenance)과 사회학적인 위계성을 건축의 형태로 표현한 이미 르네상스시대에 등장하였지만 Baroque시대에 가장 훌륭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연계성의 개념은 모든 예술이 상호 연결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는 요즘의 total art식의 개념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르네상스와 바로크는 공히 각 요소가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타율(heteronomy)의 원칙을 채용하고 건축적으로 공간이나 요소의 한계를 다양하게 설정하는 성격이 강하다. 각 요소들은 서로 연결되어야 하고 정원 등에서의 식물의 배치 등은 건축의 법칙에 전반적으로 순응하여야 하므로 잔디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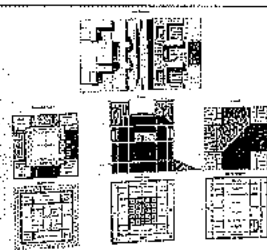
1) '이름다운 층'이라는 뜻의 bel étage(벨 에타주)는 '푹푹 있는 방'이란 의미를 지닌 이탈리아의 piano nobile(페아노 노빌레)에 해당하며 르네상스 건축 등에서 거주 및 주생활공간이 있는 2층 등을 일컫는다. 1층은 거친돌 쌓기(rustication)로 마감되고 주된 거주부분은 2-3층에 위치한 bel étage에 위치한다.



수렵정 (Pavillon du chasse)



수렵정 (Pavillon du chasse)



수렵정 (Pavillon du chasse)

은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구성되며 나무는 석조 조각물처럼 전지(剪枝)했어야만 했다. 공간은 이들 건축 및 부차요소 등으로 구획되고 한정되고 그 반대로 건물의 내부에서는 천장 및 벽체 등의 trompe l'oeil(트롱프 뤼이)²⁾ 등을 통하여 심리적으로 실을 확장하고 천장을 분해하는 수법이 사용된다. 그리고 다수의 요소가 결합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므로 각 요소마다 고유한 allegory가 부여하는 것이 주된 수법이었다.

Blondel은 유기적 배치의 화화식(picturesque) 기법의 영국정원을 못마땅히 여기고 합리주의적인 프랑스 정원을 옹호했지만 그는 아직도 근대건축에 있어서 '타율적 시대'에 속해 있었다. 그의 제자 Ledoux는 타율적 건축과 자율적 건축의 경계에 있었던 인물이지만 아직은 과거의 건축가들과 마찬가지로 고대의 모델을 채용하곤 하였다. 어찌되었든 그의 작품에서 주목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고전양식을 차용하던 후기 바로크 건축으로부터의 완전한 탈바꿈이다. 예를 들어 이상도시에 세워질 수렵정(狩獵亭) 계획을 살펴보면 바로크 건축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1778년에 투시도법을 채용하여 묘사된 판화의 중앙부에는 두드러지게 우뚝 솟은 건물이 있고 낮은 건물이 그 주변에 배치되어 중앙의 건물에 예측된 것처럼 느껴질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방식으로 전지된 나무 울타리가 발견된다. 이 판화에서 발견되는 각 건물에는 각기 고유한 성격과 중요성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각 요소를 연결하는 시슬(enchaînement)의 사상이 아직도 잔존하여 개체적인 건축이 아니라 모든 건물과 부속요소들이 하나로 판단됨을 알 수 있다. 중앙부의 건물은 다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지만 전체를 살펴보면 바로크의 경우에서처럼 부분들이 상호 직접 접촉하여 연결되는 것은 볼 수 없다. 단지 부차적인 요소들인 산책로나 시냇물 등이 '시슬'의 필요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 요소들과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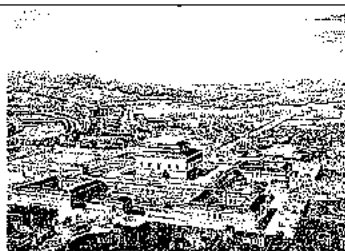
Ledoux에게 있어서 1780년대는 아이디어의

발전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때이다. 당시에 엄전계획안 및 이상도시계획안을 내놓았다. Ledoux에게 있어서 이 당시의 계획안 중 실현된 것은 엄전계획안 뿐이다. 이상도시계획안은 비록 실현되지 못했으나 그가 말년까지 관심을 가지고 집착하던 주제였다. 그의 작품 중 Chaux(쇼)의 이상도시계획안(理想都市計劃案) 만큼이나 Ledoux의 독창성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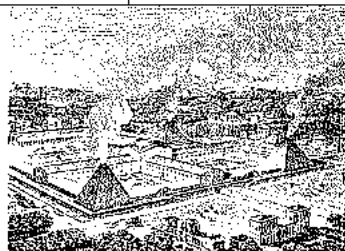
Chaux의 엄전계획안은 Ledoux의 저서 L'Architecture에는 27가지가 소개되어 있다. 그 중 최초의 계획안은 건물들이 정원을 중심으로 사각형의 형태로 배치되었다. 주출입구 양편으로 감독관의 주택, 사무직원의 주거, 그리고 노동자들의 주거가 배치되어 있고 그 후면에 서비스에 필요한 설비가 배치되어 있다. 대지 주위로는 산책로 및 비교적 단순한 기하학적 구성형태의 정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계획안에서는 딱딱하고 정적인 기하학의 채용 때문에 바로크의 특성 중 중요한 요소들인 운동성, 생동감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건축 및 도시의 구성체계면에서 볼 때는 단지 약화된 바로크 건축의 양상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입면은 납작하고 낮게 계획된 바로크식의 건물을 제시하고 있으며 돌출된 중앙부는 익부로 연결되고 익부의 건물들은 중앙부에 위계적으로 예측됨을 보여주고 있어서 각 부분들은 전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통일성에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계획안에서 보여지는 단순한 공간의 시슬은 Ledoux를 만족시킬 수 없어 제2의 계획안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제 2안 역시 L'Architecture에 소개되었고 일부는 실제로 지어졌는데 초기안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물들은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이 타원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중앙축 약간 남쪽 밑 쪽으로 감독관의 주거와 공장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중앙의 축 연장선 동쪽엔 성당, 서쪽엔 재판소, 내호(內弧)의 북쪽 단부엔 시청, 그 좌우로 병사(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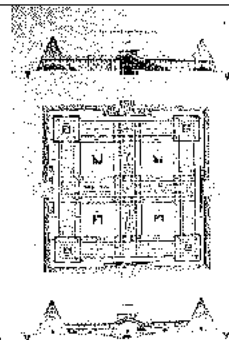
2) 눈속임이라는 뜻으로 3차원적인 실제 사물이 있는 것처럼 그리는 회화의 기법.



Chaux시의 시장 (Marché du Chaux)



Chaux시의 대포주조소 (Fonderie de Canon)



Chaux시의 대포주조소 (Fonderie de Canon)

술)가 배치되었고 외호(外弧)에는 고용인들의 주택이 배치되었다. 외호상에 위치한 주출입구 좌우로는 공중목욕탕이 있다.

여기서 각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것이 아닌, 각기 독립된 부분들로 분리됨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발견하기는 비교적 어렵다. 하지만 과거의 바로크사슬(enchaînement baroque)이 합리주의적인 독립된 정자를 사용하는 구성방법으로 대체되어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는 경계에 있는 계획안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평면의 분석은 형태결정에 관한 작가의 심오한 의도를 발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석은 자연에 대한 바로크시대와 후기 바로크 시대의 시각을 증명해내기도 한다.

Chaux마을의 계획안은 소위 넓은 의미에서의 모던건축시대 이후로 많이 제안된 계획안 중의 하나이다. 모던시대 이전, 중세의 도시들은 지형조건 등을 따르는 불규칙한 형태의 도로 및 건물배치를 하고 있지만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건물들은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 이 때의 건물들은 자연의 경관을 건축에 한층 더 연결시키고 관계를 역전시켜 자연을 창조적인 역량을 지닌 건축가의 의지에 따르게 한다. 따라서 Chaux의 이상도시 계획안의 평면은 도시의 건설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보여 준다. 작가에 따르면 부지와 위치는 실용적인 시점에서 결정되는데 이상도시는 Arcs(아르크)와 Senans(스낭)을 잇는 동-서의 축과 Besançon(브장송)과 Loue(루우)강으로 이어지는 남-북쪽의 축 등 2개의 축으로 이루어진다. 사실상 평면에서 2개의 축은 이상도시를 외부와 연결하는 도로이며 두 축의 교차점은 이 도시의 중심이 되어 Ledoux의 평면계획의 출발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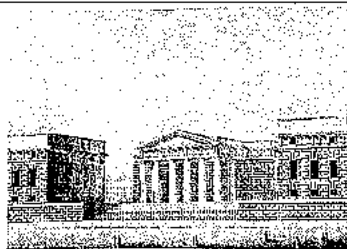
Chaux의 이상도시 계획안은 자연으로부터 분리, 격리되어 있고 바로크시대의 건축가들이 그러했듯이 풍경을 차경(借景)하지는 않는다. 여기서는 오히려 평면에서 나타나는 합리성을 강조하여 절대적인 권위로까지 승화시켜 자연을 능가하고 복종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은 바로크적인 건축원리에 정통으로 반대되는, 신세기에 나타나는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haux에서 나타나는 건축물의 외관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은 원주(圓柱) 및 박공과 주법을 채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과거의 건축에서 빌어 온 껍데기에게 완전히 새로운 정신을 구현하는 이러한 사상은 19세기에까지 전해 내려와 19세기의 절충주의 건축의 특징이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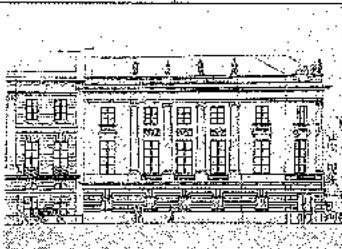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Chaux계획안의 냉철하고 객관적인 분석은 불순한 바로크 고전주의의 포기를 발견하게 한다. Chaux계획안의 평면에서 볼 수 있는 중심의 초점은 바로크 고전주의가 그러했듯이 공간 또는 외양에 따라 결정되고 만들어지고 각 공간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되어 공간 및 건축요소들을 외부로 확산, 연결시키는 그러한 폭발점은 아니다. 그리고 이 계획안에서는 마치 천장이 없는 방처럼 만들기 위하여 장식한 벽, 나무 등으로 공간에 잘 어울리도록 둘러치던 과거의 바로크적인 풍조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Chaux도시에 가깝고, Ledoux의 표현을 빌면 '평탄한 평야(rase campagne)'에 건설하도록 제안하고 있는 계획안은 타건축소소들과는 관계가 없이 고립된 정자들(pavillons)을 사용하는 소위 자율(autonomy)적 건축시스템이 채택되었다. Chaux의 이상도시는 기존의 지형조건을 비롯한 온갖 자연조건을 밀어 없앴, 즉 tabula rasa(따블라 라사)적인 하구의 이상적인 인공조건에서 출발하여 순수하고 이상적이며 플라토닉한 형태의 건물들로 채워넣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³⁾

Chaux의 시장(市場)과 대포주조소(大砲鑄造所)는 똑같은 모델을 사용하여 계획되었는데 건물들은 사각형의 평면 위에 배치되었고 그 한 중앙엔 높은 건물이 전체를 압도하고 통제하는 뜻이 서 있다. 이 두 계획안, 즉 시장 및 대포주조소 계획안의 외부 및 내부에서는 훌륭한 시각적 충격을 목적으로 다양한 건물들을 연출하듯이 배치하는 투시도적인 풍경은 전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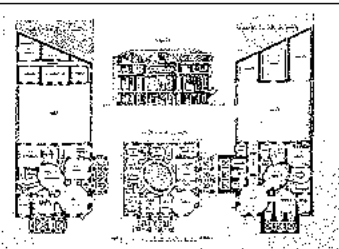
3) tabula rasa(따블라 라사)라 라틴어로 수평으로 평평하게 민다는 뜻으로 과거의 전통이나 사상 등을 없애고 새로이 시작한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건축 및 도시계획분야에서는 모더니즘 이후, 특히 국제주의 건축운동 이후 주변 및 역사적 컨텍스트나 자연조건 등을 무시하는, 또는 구체적인 구태를 일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의식스러운 묘수는 일소하고 시작하는 극도의 데카르트주의적 방법론을 가리키기도 한다. (cf. Le Corbusier의 도시계획안들)



합인은행계획안 (Caisse d'escompte)



몽모랑시저택 (Hôtel de Montmorency) 입면



몽모랑시저택 (Hôtel de Montmorency) 입면

찾아 볼 수 없다. 만약 우리가 모든 바로크양식의 건축이 관자의 입장에서 인성적인 시각환경을 미리 예견하고 고안하는 것을 떠올린다면 현재 다루고 있는 새로운, 소위 자율적 또는 자주적 건축(architecture indépendante: independent architecture)은 이전의 바로크 건축과 얼마나 큰 거리를 가지게 되는가는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신시대의 합리주의적이고 자율성을 근본으로 하여 활동하는 건축가는 바로크 건축가가 연극무대를 설치하듯이 그곳을 방문하는 관자를 위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건축물의 '용도'만을 마음에 새기고 제작한다. 따라서 이 두 건축 사이에는 '외양'과 '존재(being)'의 철학적 명제 중 어느 것을 위주로 하는가의 중대한 선택이 있게 된다. 다시 반복하자면, Chaux의 이상도시 계획안에서는 중심이란 바로크 건축에서처럼 모든 움직임이 시작되고 화귀되는 곳이 아니라 단지 여러 부분이 관계되는 기하학적인 초점의 장소일 뿐이다. 또한 이 계획안에서 보여지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전체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아 건축물, 건축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 아니라 날개의 요소들이 단순히 그러모아져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연출은 18세기 말에 들어서 사상 및 건축을 비롯한 예술분야에서 발견되는 완전히 변형된 감성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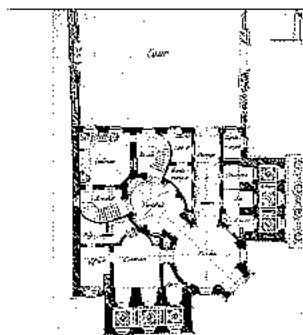
시장 및 대포 주조소에서 볼 수 있는 자율적 건축의 연출, 즉 각 건물동(建物棟)을 마치 외딴 정자처럼 배치하는 'système pavillonaire(시스템 뱌비요네르: 정자 시스템)'이 명백하게 채택된 것은 1778년에 완성한 Caisse d'escompte(캐스 데스콩뜨: 할인은행)계획안이다. 각 부분은 크고 육중한 독립적 덩어리로 나뉘어져 어느 장소에 놓여지든 상관없이 보여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의 자율적 건축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각부분간의 활발한 교통과 교제는 일어나고 있지 않으며 비중심화(非中心化)의 조짐이 보인다.

바로크 사술체계에 근본을 둔 건축체계에서는 만약 한 부분이라도 떼어낸다면 균형이 파괴되어 전체를 파괴하게 된다. 만약 이 시스템 하에서 한 부분이라도 고립된 부분

이 있다면 의미가 제거되어 배치의도에 있어 아무런 함목적성을 찾을 수 없게 된다. 반면에 '정자(亭子) 시스템'에서는 근본적으로 전체-부분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자립적인 요소들의 자유로운 조합이 있게 될 뿐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바로크의 결합은 한 부분이 다른 부분들을 지배하고 부분들은 전체를 구성하지만 자율적 건축 시스템, 즉 정자 시스템을 채택하는 건축은 전체의 범주에서 보아 부분은 제각기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다. 두 시스템 사이에서 혁명적인 개념적 차이를 볼 수 있다.

당시 사술의 개념은 건물의 형태뿐만 아니라 전체구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인자가 되기도 하여 Ledoux를 비롯한 당시의 합리주의자들의 작품에서도 빈번히 등장하는 끈질긴 주제였다. Ledoux가 1772년에 계획한 Hôtel de Montmorency(오텔 드 몽모랑시: 몽모랑시 저택)에서는 사술의 개념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기초 위에 있는 거대한 Palladio주법은 주층(bel étage: piano nobile)를 하나로 결합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그 상부엔 조각물이 설치된 지붕이 있어서 하부의 단단한 매스감이 위로 올라가면서 점차 분해되고 약해져 조각물이 마치 그 용해점을 구성하여 공중에 녹아드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르네상스건축 이후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와 바로크시대에까지 이어진 거친돌 쌓기의 육중한 하부, 고상하고 우아한 느낌의 bel étage, 그리고 시각적으로 가볍게 덮는 지붕 및 수직방향의 조각 등으로 이어지는 파사드의 위계질서 및 상부로 향할수록 분해되는 듯한 시각의 단계적 변화와 이행을 발견할 수 있다. 평면을 분석하자면 역시 전통적인 수법이 남아 있어 현관과 살롱 등의 배치에서 조화로운 모서리의 배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Ledoux는 필연적으로 pièce d'apparat(뽀에스 다빠라)를 대각선상에 배치하였다.⁴⁾ 1층의 입구 및 현관 홀 역시 동일한 배치형식을 취하였다. 착상에 있어서 이러한 대담성과 극단주의는 바로크를 능가하게 만들었고 평면, 입면 그리고 건물의 양계를 변형시켜 근

4) pièce d'apparat(뽀에스 다빠라): 화려한 방이라는 의미로 과시를 위해 화려하게 치장한 눈에 잘 띄고 빈번히 사용하는 공적인 용도의 실을 가리킴.



몽모랑시저택 (Hôtel de Montmorency) 평면



Arc-et-Senans의 노동자 건물

본적으로 새로운 건축을 탄생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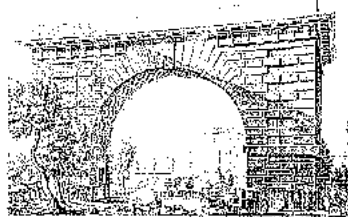
1771년에 Louveciennes(루브시엔느) 언덕에 세워진 Pavillon de la comtesse du Barry(파비옹 드 라 콩테스 뒤 바리: 뒤 바리 백작부인의 정자)계획안은 Hôtel de Montmorency와 유사하다. 이 건물은 내부의 배치로 인해 유명하였는데 평면보다는 그 외관에 있어서 Hôtel de Montmorency와 비슷하다. 뒤 바리 백작부인의 건물은 이러한 유형의 건물 중 최초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미 Jacques-Anges Gabriel(작고 앙쥬 가브리엘)이 Versailles(베르사이유)에 Marie Antoinette(마리 앙투아네트)를 위하여 세운 Petit-Trianon(피띠 트리아농)은 그보다 거의 10년을 앞섰고 프랑스에서는 이미 1770년경부터 입방체 모양의 건축물이 허용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뒤 바리의 건물의 평면에서는 선의 리듬과 직선 및 곡선의 교차 등 바로크적인 배치수법이 아직도 잔존한다. 이처럼 평면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볼 수 있는 다양성과 즐거움의 연출은 Ledoux에게 있어서 논리적인 완전성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는 한다. 그런 면에서 그의 평면을 조사하면 마치 장식적인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다른 시각, 즉 바로크에 익숙한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아마도 이 계획안은 오로지 주요부분만 있고 주변의 요소를 연결하는 익부(翼部)가 없어서 팔, 다리가 없어 단지 몸통만이 있는 기이한 건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입면 및 평면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듯이 외부의 형태와 내부의 배치는 극도의 단순성과 복잡성이라는 대조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 후대의 모던건축에까지도 계승, 발전되는 전통적인 프랑스 hôtel건축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직 남아 있는 Arcs-et-Senans에 세워진 사무직원 및 노동자들의 건물 역시 1770년에 지어졌고 위의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미적 감각의 중대한 변형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도 역시 바로크식으로 중앙부를 강조함으로 매우 특징적인 자태를 하고 있다. 2층으로 구성된 중앙부는 측면의 낮은 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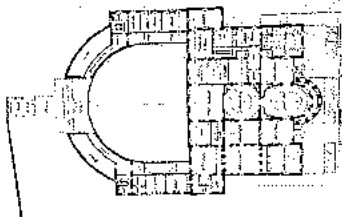
부와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그 반대로 그것은 독립적이고 터부분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듯 강조되어 변별되고 있다.

Hôtel Thélusson(호텔 텔뤼송: 텔뤼송 저택)은 궁륭의 대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중앙에 위치한 건물에서 절정에 이르고 그곳으로부터 양편의 익부가 시작된다. 이것은 바로크에서 나타나는 단계적 변화와 위계의 원칙이 잘 지켜지는데 가운데 하나이다. 평면을 분석하면 전형적인 enfilade(엔필라드)식으로 salon과 현관이 배치됨을 발견할 수 있어서 아직도 바로크 고전주의의 형식과 가치 즉 불균등한 가치를 지닌 부분들의 조화로운 균형, 주-부(主-副)의 관계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음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이처럼 평면에서 발견되는 균형과 리드미컬한 구성은 비록 작은 건물이지만 뒤 바리 백작부인의 건물에서도 발견된다. 반면에 Hôtel d'Uzes(호텔 뒤제스: 뒤제스 저택)는 연대적으로 비교적 후기의 것이다. 각 층의 단계적 이행과 분절, 파사드에 채용되는 거대 주벽, 정원을 감싸는 익부들을 갖추고 있어서 Hôtel Thélusson을 닮은 복합적 건물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 건물에서는 근거 없이 생성된 곡선은 발견할 수 없고 'salon-현관'으로 묶여지는 양상 불은 특별한 규칙을 위한 근거가 되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바로 위에 언급한 두 개의 건물에서처럼 유기적인 중심핵을 이루지도 못한다.

바로크의 규칙을 따르는 건물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고 한층 더 자율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성격을 갖는 건물은 Maison du Parc de Bellevue(메종 뒤 빠르크 드 벨뷰: 벨뷰 공원의 집)이다. 이 건물은 과거의 건축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이미 후기 프랑스 혁명시대의 새로운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외부 계단과 망루는 블록쌓기놀이를 하듯이 단순히 매스에 첨가되어 전체는 하나의 유기적으로 결합된 건물을 연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갖다 끼워 붙인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한다. 이 작품에서는 자율적 건축의 개념이 유지할 정도로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해석되고 표현되었다.



텔뤼송 저택 (Hôtel Thélusson) 입구



텔뤼송 저택 (Hôtel Thélusson) 평면



텔뤼송 저택 (Hôtel Thélusson) 단면

협회소식 / 115

건축계소식 / 117

현상설계 / 124

해외잡지동향 /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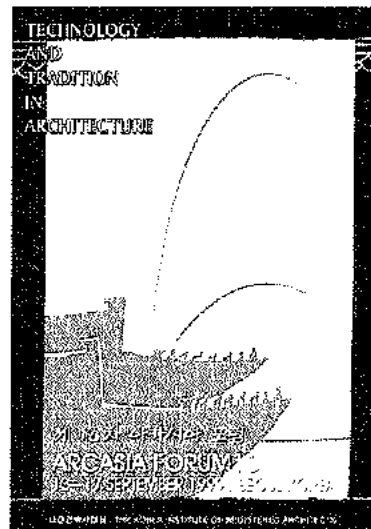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32

회원현황 / 134

협회소식 KIRA news

제10차 아카시아 포럼 (ARCASIA Forum 10), 9월 13일 개막

아시아 각국 건축사 참가,
자격상호인정 등 공동심사 논의



우리 협회(회장 이의구)는 오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 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 소속 16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가하는「제 10차 아카시아 포럼 (ARCASIA Forum 10)」을 개최한다.

「건축에서의 기술과 전통(Technology and Tradition in Architecture)」을 주제로 한 이번 국제포럼에는 약 7백여명

행사내용

정례회의	- 아카시아이사회(ARCASIA Council Meeting) - 아카시아교육위원회(ACAE Meeting) - 아카시아임원회의(ARCASIA Office Bearers Meeting)
일반회의	- 아카시아 명예회원회의(ARCASIA Fellowship Meeting) - UIA 제4지역 회의(UIA Region IV Meeting) - CAA회의(Commonwealth Association of Architects' Meeting) - 국제기구회의(Othe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Meeting)

의 각국 건축사와 협회관계자, 일반참가자 등이 참가해 최근 국제 현안으로 떠오른 건축사자격의 상호인정 문제 등 공동 관심사에 관한 깊이있는 논의와 함께 건축관련 정보 및 기술 교류를 갖는다.

또한 포럼기간중에는 아카시아 이사회(ARCASIA Council Meeting)와 아카시아 교육위원회(ACAE Meeting) 워크숍 등의 정례회의가 개최되며 아카시아건축상 시상, 전시회, 친선의 밤, 건축시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함께 펼쳐진다.

건축분야에 있어 아시아의 입장을 대변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아시아건축사협의회(약칭: 아카시아)는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인도, 중국,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등 아시아 16개국 건축사단체들이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협의체는 매년 「아카시아 이사회」와「교육위원회」 등 주요 의결기구를 통해 상호 공동관심사와 국제적 현안문제들에 있어 국제사회의 흐름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 협회는 올해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가 국내 건축계에 새로운 활력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한국건축의 위상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행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기간중에는 국제건축사연맹(UIA) 회장 등 건축계 유명인사를 비롯해 지명도 높은 외국 건축사들이 상당수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이며, 특히 건축계의 최고석학인 M.I.T.공과대학 스탠포드 앤더슨(Stanford Anderson)교수가 개회식 직후 기초연설을 하게돼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행사의 내용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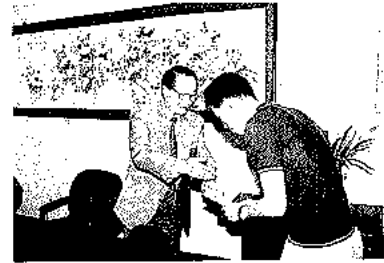
워크숍	- 아카시아교육위원회 워크숍(ACAE Workshop)
총회	- 전국대의원총회(KIRA's General Assembly)
포럼	- 개회식(Opening Ceremony) • 제4회 아카시아건축상 시상식 • 기조연설(Stanford Anderson:MIT 공대 교수) - 학술토론회 •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Plenary & Work Sessions)
건축상	- 제5회 아카시아건축상(5th ARCASIA Award)
전시행사	- 아카시아건축상 수상작 전시 - 국내우수 설계작품 전시 - '99 한국국제건축자재 및 설계장비기자재전(KOBUILD '99)
사교행사	- 문화의 밤(Cultural Evening) • 리틀엔젤스공연 관람 - 친선의 밤(Friendship Night) • 한국 전통 민속공연 및 각국별 장기자랑 - 건축기행(Official Excursion) • 한국 전통문화 및 유명 건축물 견학

행사내용

일 자	시 간	행사내용	장 소
9월12일 (일)	09:00~17:00	명예회원회의	롯데월드호텔 회의실(1)
	12:00~13:00	중식	(미정)
	13:00~15:30	UIA제4지역회의	롯데월드호텔 회의실(1)
	16:00~17:50	국제가구의회의	
	19:00~21:00	명예회원만찬 아카시아임원회의	한미리(삼성동 소재) (미정)
9월13일 (월)	09:00~12:00	이사회(1)	코엑스 대회의실
	10:30~12:00	교육위원회(1)	코엑스 중회의실
	12:00~13:30	중식	무역회관 52층(바이킹)
	13:30~18:00	이사회(II) 교육위원회(II)	코엑스 대회의실 코엑스 중회의실
	19:00~21:00	환영연회	(미정)
9월14일 (화)	09:00~12:00	이사회(III)	코엑스 대회의실
	09:00~11:30	ACAE워크숍(1)	코엑스 중회의실
	12:00~13:30	중식	무역회관 52층(바이킹)
	13:30~18:00	이사회(IV)	코엑스 대회의실
	13:00~16:00	ACAE워크숍(II)	코엑스 중회의실
9월15일 (수)	18:30~21:00	개회식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
	09:00~12:00	주제토론(1)	코엑스 국제회의실
	12:00~13:30	중식	코엑스 입구(1층)
	13:30~17:00	종합토론(1)	코엑스 국제회의실
	19:00~21:00	문화의 밤	리틀엔젤스예술회관
9월16일 (목)	09:00~12:00	주제토론(II)	코엑스 국제회의실
	12:00~13:30	중식	코엑스 입구(1층)
	13:30~17:00	종합토론(II)	코엑스 국제회의실
	19:00~21:00	친선의 밤	코엑스 국제회의실 (만찬: 대회의실)
9월17일 (금)	09:00~18:00	건축기행	(A·B·C·D·E 코스)

장학금 수여

김완수 외 3명



우리협회의 장학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의구회장은 지난 8월 25일 오후2시에 협회 회장실에서 금년도 대한건축사협회 장학회의 장학생으로 선정된 김완수(숭실대 건축공학과)학생의 3명에게 후반기 장학금으로 각각 이백만원 을 전달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수여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완수(숭실대 4학년), 박남기(한양대 4학년), 박희준(부경대 4학년), 임명수(충북대 4학년)

프랑스 Lorient 잠수함기지 국제아이디어 공모전

강석원(그룹가건축)회원 심사위원으로 참여

이번 아이디어 국제 현상공모는 프랑스 국방부의 지원하에 로리앙 게로망 해군 기지 개조를 위한 것으로 '인간과 바다의 상호작용'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공모전은 총 185 작품이 접수되어 1차 심사에서 21개 작품을 선정하고 2차 공개 심사를 통해 1등, 2등, 3등 각각 1점, 기작 3점 그리고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준 기작 3점을 최종 선정하여 지난 7월 9일 발표했다. 심사는 세계 유명 건축가들과 시장, 시의원, 국방부대표, 법률고문 그리고 컨설턴트가 함께 참여했다. 우리나라에서 강석원(그룹가건축, 한불문화협 회장) 회원이 건축가로서 프랑스 Lorient 국제현상설계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 수상자

• 1등

- Bohdan PACZOWSKI, man-dataire (Luxembourg)

- Pascal DEBARD, architecte associé (Lorient)

• 2등

- Enrique SOBEJANO, NIETO-SOBEJANO Arquitectos(Madrid)

• 3등

- Christophe BOYADJIAN(Saint-Priest)

• 기작

- Jean-Pierre DÜRIG, Jean-Pierre Dürig und Philippe Rami Architekten (Zürich)

- James CAMPBELL, James CAMPBELL Architects(Londres)

- Olivier SOUQUET(Paris)

• 준기작

- Peter BEARD, Landroom (Londres)

- James HORAN, Design Strategies (Blackrock, Dublin)

- Nicolò PRIVILEGGIO(Milan)

◇ 심사위원(건축가)

Mr Henri GAUDIN(프랑스)

Mr Alexandru BELDIMAN(루마니아)

Mr Jade TABET(레바논)

Mr Suk Won KANG(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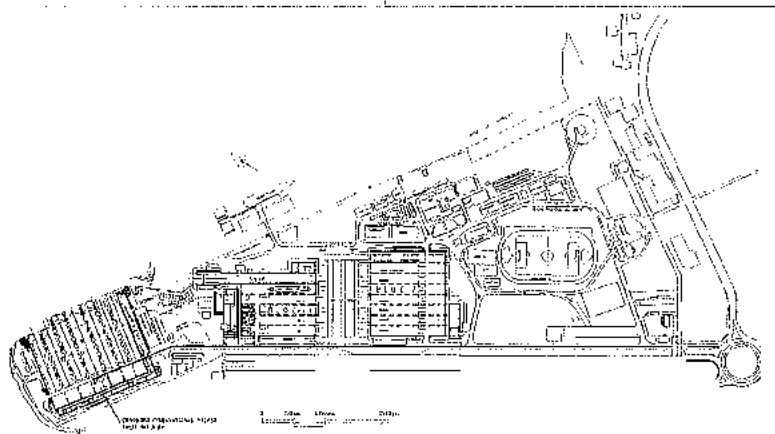
Mr Stephano BOERI(이탈리아)

Mr Jordi GARCÉS(스페인)

Mr Axel SOWA(독일)

Mr Stephan LUNGU(루마니아)

Mr Raci BADEMLI(터키)



프랑스 Lorient 잠수함기지 국제현상설계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현장 마스터플랜

강석원 회원, 「프랑스의 건축과 문화」 주제발표

프랑스학회 99 하계 학술대회에서

지난 8월 9, 10일 양일간에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송산기념관에서 개최된 프랑스학회 99년도 제15차 하계 학술대회에서 강석원(그룹가건축) 회원은 제3주제 발표자로 나서 「프랑스의 건축과 문화」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최영한(조선대 불문과), 장성욱(동의대 불문과) 교수가 참여했다.

한국건축100년전 개막

국립현대미술관에서 8월 31일 개막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에서는 「한국건축100년전」을 마련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10월 28일까지 전시될 이번 행사를 통해 조직위원회는 개항부터 시작하여 지난 100년간 지어진 건물들을 전시하여 지나간 과거를 되돌아보고, 새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의 건축문화의 방향을 제시하여 지나간 흐름속에서 주목할만한 건축환경을 이끌어내어 그것을 세계건축의 흐름과 연결시킴으로써 한국의 진정한 건축좌표를 세워 99건축문화의 해를 기념한다. 이번 전시회의 큰 특징은 개항 이후 100년의 건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총 2.4미터×22미터의 전시패널과 구한말·일제시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회귀 건축 소장자료 공개 및 현대 건축가 소개, 주거문화의 변천, 21세기 대형프로젝트 전, 건축관련 전문잡지 소개, 국내건축대학의 총정리 소개 및 포스터 전시 등을 통해 한국건축 100년의 기록정리와 미래방향 설정에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데 있다.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가 총정리한

이번 전시는 건축학도,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물론 일반인에게 뜻깊은 체험과 공부가 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더불어 9월 29일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대강당에서 관련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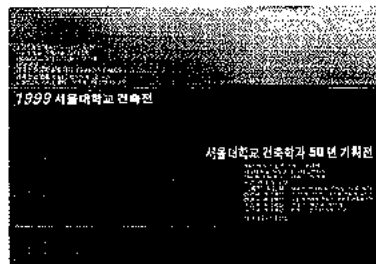
99 건축가 미술전 개최

10월 22일부터 협회 전시장에서

99 건축가 미술전(회장 한창진)이 건축 문화의 해를 맞이한 올 해는 오는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우리 협회 아키텍트갤러리에서 개최된다.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축에 관계된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분야는 서양화, 동양화, 판화, 조각 등이다. 참가비용은 20만원이며, 참가신청은 9월 30일까지 하면 된다. 문의: (주)중원엔지니어링(02-538-7308, 최한호소장)

서울대, 50년기획전 및 99건축전 개최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서는 50년 기획전과 99건축전을 마련한다. 50년 기획전은 50년 역사전과 젊은 건축가 초대전으로 구성되어 서울대 박물관 현대미술

전시실에서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99건축전은 졸업작품전, 과제전, 대학원전, 동아리전으로 구성되어 서울대 건축학과 35동 4, 5층에서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시된다. 또한 전시기간 동안에 좌담회와 강연회가 함께 열린다.

기획전 좌담회(박물관 현대미술전시실, 15:00~18:00)

9월 7일(화) 제1세션 / 21세기에 건축가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가

- 9월 8일(수) 제2세션 /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건축하는가

- 9월 9일(목) 제3세션 / 기술은 환경의 적인가

- 9월 17일(금) 제4세션 / 21세기 한국 건축의 전망

건축전 졸업작품 평가회(35동 4층 전시실, 9월 6일(월), 10:00)

건축전 강연회(35동 4층 전시실, 9월 10일(금), 14:00)

- 건설산업의 21세기 준비 / 이규재 대림산업(주) 상무

서울건축학교, 99여름 워크숍 전시, 공개강좌

8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

서울건축학교에서는 작년 제주여름워크숍에 이어 전북 무주군 무주읍을 대상으로 국내외 50여개의 대학에서 참가한 120여명의 학생들과 30여명의 건축가가 참여하는 여름워크숍을 개최,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의 구체적 이해와 현실적 대안의 제시를 목표로 건축가와 학생들로 구성된 11개의 스튜디오가 운영되어 스튜디오의 결과물이 전시된다.

전시일정 /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 서울건축학교

9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 무주 군청

스튜디오

- 권문성(아트리에17) - 김승희(경영위쳐) 우주에 대한 독해 / 강과 직각 방향의 가로들

- 김인철(아르키움) - 한만원(한도시건축) 새로운 도시구조 제시 / 남대천과 무주읍의 연계

- 김석운(김건축) - 김홍일(위드건축) 축제의 장소 / 읍내입구의 버려진 옛 관청건물

- 김영섭(김영섭도시건축) - 헬렌박(경기대건축전문대학원/헬렌박건축연구소) 현재성을 간직한 도시의 장소성 / 시장터 진입부분

- 김 원(광장건축) - 김 현(에다건축) 무주성에 대한 규정 / 예술가를 위한 격리된 거처

- 민현식(한국예술종합학교/기오현) - 민선주(경기대건축전문대학원/위가건축) 3차원 도시공간 창출 / 길, 강변도로, 고수부지, 물, 다리

- 오성훈(공간사) - 임재용(OCA 건축) 도시의 확장예측 / 남대천 남쪽 일대 읽기

- 서혜림(himma건축) - 조성룡(조성룡 도시건축)

무주 "이야기 읽기" / 정보관

- 송효상(이로재) - 정기용(기용건축) - 진 정(전북대건축공학과)

무주읍의 주변부와 느슨한 경계들 / 무주안의 공간인식지도 그리기

- 최문규(가아건축) - 황두진(t.s.k건축) 무주의 현재와 근미래 / 무주에 잠재하는 특성의 발견과 언어의 창출

- 최 욱(kpc, 최욱건축연구소) - hiroshi innami(innami synthesize planning) regional attractions identity pride / communication networks

금요세미나(저녁 7시 30분)

- 9월 17일 김민수(디자인 문화비평 편집인) / 공간 언어로 본 이상(李箱) 시

- 10월 1일 김광수(탐-반 도시건축연구소) / 서울의 예가치 않은 부산물들

- 10월 29일 송효상(이로재) / 빈자의 미학(수백당, 웰컴사옥)

- 11월 5일 이소영(서울대 음악대학 오페라연구소) / 오페라에 대한 이해

- 11월12일 testuo fufuichi(furuichi & associates)

2000 디지털 건축컨텐츠 공모전 개최

2000년 4월

대한건축학회에서는 새로운 밀레니엄의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2000년 4월 「2000 디지털 건축컨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 공모전은 올 해 건축문화의 해를 계기로 건축분야의 독창적이고 유용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건축분야에 필요한 정보기술을 보급하여 궁극에는 건축분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강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공모분야로는 건축분야의 설계, 시공, 구조, 설비, 교육 등 건축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공모작품은 건축분야 창작품(설계작품), 건축관련 정보기술, 건축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등 건축과 관련된 주제이면 출품할 수 있다. 이 공모전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그룹으로 만든 작품을 주 대상으로 하고, 교수 및 실무자의 작품, 후원사의 건축관련 컨텐츠를 지명 초대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1999년 9월부터 시작되며, 작품접수는 2000년 2월, 작품심사 및 시상은 2000년 4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전사하고 CD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작품은 HTML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디지털화된 글, 도면, 모형사진, 3D 모델 등을 기반으로 VRML, QTVR, Database 등의 다양한 기능을 부가하여 만들 수 있다. 서울대를 비롯해 전국의 40여 대학이 참가 예정이며, 건축관련 공공기관, 언론매체, 정보화 관련회사 등이 이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문의: 2000디지털 건축컨텐츠 공모전 운영위원회 (02-971-2505) <http://cric.snu.ac.kr/dac2000>

제35회 경기건축대전

10월 28일 접수

올 해로 35회를 맞는 경기건축대전에 작품을 공모한다. 한국건축가협회경기도지회에서 주최하는 이 행사는 오는 10월 28일 과천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작품 접수를 받는다. 1작품 3인 이내로 학생은 패널(900×1,200~1,800), 모델(1,000×1,000내외)과 작품설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기성작가 작품패널은 임의규격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11월 1일 발표된다.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과천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수상작에 대한 전시가 있을 예정이며, 11월 1일 건축학술세미나도 열릴 예정이다. 문의: 한국건축가협회 경기도지회 전화 0331-238-7480

경기대 건축 전문대학원, 2000년도 신입생(전기)모집

9월 27일(특별전형),
11월 1일부터(일반전형) 원서교부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에서는 2000학년도 전기 신입생 50명을 선발한다. 특별전형은 입학원서, 4년제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1부, 대학성적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남학생은 초본)1부, 사진(5×5.5)3매를 제출하면 되고, 일반전형은 특별전형 서류에 포트폴리오(작품집)를 첨부하면 된다. 문의: 02-390-5245,6

유 형	지원대상	학위과정	입시방법	원서교부,접수	전형일	합격자발표
특별전형	학부 건축 전공 졸업 (예정)자	M.Arch II (건축학석사 2년과정)	영어 및 실기 (해설포함)	99.9.27(월)~10.7.(목)	99.10.8(금)	99.10.12.(화)
일반전형 전공졸업	학부 건축 전공 졸업 (예정)자	M.Arch II (건축학석사 2년과정)	포트폴리오 및 실기 (해설포함)	99.11.1.(월)~11.11(목)	99.11.12(금)	99.11.16.(화)
	학부 건축 비전공 졸업 (예정)자	M.Arch I (건축학석사 3년과정)				

제2회 울산건축대전

8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등록

99건축문화의 해 울산지역 추진위원회는 울산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처용과 암각화를 주제로 건축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주제는 울산이 처용설화를 간직한 도시로써 명목만 유지되고 있고, 세계적인 암각화마저 보존문제만 거론되고 있는 실정에서 시민들에게 향토문화유산으로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행사의 일환으로 반구대 암각화 맞은편에는 전시 및 공연장을 마련하여 처용과 암각화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전시하게 된다.

- 응모자격: 국내외 대학(원), 건축관련 학과의 대학생 및 건축관련 분야 종사자(1팀당 2인 이내)
- 작품요강: 주제에 대한 해석과 아이디어, 전개 과정들을 자유롭게만 상세하게 설명한 작품설명서를 A4 3매 이내로 작성, 도면은 60cm×90cm 2매, 모형은 90cm×90cm×60cm
- 등록기간: 1999년 8월 20일~11월 10일
- 등록처: 한국건축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
- 현장답사: 1999년 9월 19일 10시
- 작품접수: 1999년 11월 11일
- 작품제출: 울산문화회관 제1전시장
- 문의: 052-274-7905

제29회 대구건축대전

11월 29일 작품접수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대구지회에서는 제19회 대구건축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도내 거주자가 참여하는 일반공모작품전과 한국건축가협회 대구지회 및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원이 참여하는 건축작가초대전으로 나뉘어 열린다.

- 원서교부 및 접수: 1999년 9월 15일 ~10월 13일

- 작품접수: 1999년 11월 29일 10시 ~13시

- 작품요강: 일반작품공모전/패널 90cm × 180cm, 모형90cm × 90cm × 90cm
건축작가초대전/패널 90cm × 180cm

- 원서교부처: 한국건축가협회 대구지회 사무국(건축사회관 2층)

- 작품제출처: 대구문화예술회관 일반1 전시실

- 문의: 053-753-8731

(주)서울포럼, 출판기념 토론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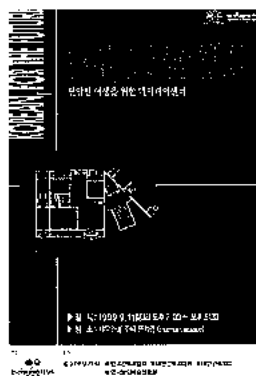
건축가 송효상, 함인선 초청

도시건축웹진 아크포럼을 운영하는 서울포럼은 「건축은 반역이다」의 저자 함인선(인우건축)과 「지혜의 도시, 지혜의 건축」의 저자 송효상(이로제)을 초청하여 9월 18일 14시부터 강남출판문화센터 이벤트홀에서 출판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의 사회는 김진애(서울포럼)씨가, 패널로는 지정우(JAD디자인연구소), 김선영(건축인), 이용범(건축인)씨가 참여한다.

문의: 02-514-9838

여성건축가협회, 심포지움 개최

「한국인 그 미래를 위하여」 주제로



여성건축가협회에서는 「한국인, 그 미래를 위하여-편안한 여생을 위한 노인데이케어센터」라는 주제로 9월 11일(토) 오후 2시부터 대우건설주택문화관(Human Space)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문화수 여성건축가협회이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날 행사는 한국노인의 정서적 특성과 행동양식을 고려하여 현실에 적합한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제안하여 노인복지건축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자로는 「재가 노인복지현황 및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김정석(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장)씨가, 「노인요양을 위한 복합적 환경의 구성」에 대해서 오은진(준명노인환경연구소 소장)씨가, 「사회적, 신체적 변화에 대응하는 노인홈의 주거시설에 대한 건축적 대응」에 대해서 김병훈(경남가업실버사업부 기술팀장)씨가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현황당사 및 설계대안」에 대해서 김수경(건축사사무소 나눔경 소장)씨가 참여하고, 토론자로는 배시화(경원전문대 교수, 좌장), 김미혜(이화여대 교수), 변재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장애인 정책개발센터 소장)씨가 참여한다.

경원대, 졸업작품전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경원대학교 건축학과에서는 열세번째로 맞이하는 졸업생들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영동 애맥화랑에서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4년간의 건축에 대한 고민과 아픔, 그리고 아쉬움을 털어놓은 자리로 건축학과 졸업생들의 4년간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다.

건축문화의 해 울산지역추진위원회, 문화유산 봉사활동

울산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99건축문화의 해 울산지역 추진위원회(위원장 임충신)에서는 울산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협조하여 지난 8월 17일 통도사, 울산향교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번 행사는 울산지역 초·중·고 학생과 울산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울산대학원생, 한국건축가협회 울산지부 등 73명이 참석하여 99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청소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건축문화에 대한 답사를 통해 고장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문화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됨은 물론 이를 통해 역사와 건축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제3차 NG포럼

게스트로 이공희(원도시건축 실장)

건축발전연구소에서는 오는 9월 17일 (금)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월간 POAR사무실에서 원도시건축의 이공희 실장을 게스트로 초대, 제3차 NG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주제는 「Lightness」로 20세기말 건축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건축에서의 Lightness를 가지고 소장 건축가 이공희씨의 실무 경험과 외유를 통해 확인된 건축경향을 짚게 된다. 문의: 건축발전연구소(02-2637-3890)

건축신문, 「approach」발간

건축발전연구소에서 타블로이드판으로

건축발전연구소(소장 전진삼)가 타블로이드판의 건축신문 「approach」를 시험판으로 발간했다. 지난 8월 20일 첫호 1쇄 500부 16면으로 선보인 이 신문은 월단위로 간행예정이다. 매월 시행하는 NG포럼의 발표내용의 게재와 건축 잡지 및 인터넷 잡지의 공식적인 리뷰의 장이 준비되고, 학문적 성취도가 높은 주요한 논문의 내용소개와 전통건축 읽기, 건축의 소설적 구성, ART다이어로그 등이 눈에 띈다. 또한 건축인들의 이메일 디렉토리를 파악하여 공급함으로써 정보 통신시대의 네트워크 확장도 도모하고 있다. 무가지인 이 신문은 후원회원 등록을 받고 있으며, 후원금은 1구좌 1만원 이상이다.

문의: 건축발전연구소(02-2637-3890)

(주)건축동인, 「주북동 모여살기전」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신사동 갤러리카페 ALLEE에서



젊은 건축가들로 이루어진 (주)건축동인이 올해 초 용인지역에 위치한 전원주택 단지 3천여평의 설계를 의뢰받아 함께할 것을 다른 젊은 건축가들에게 제안함으로써 시작된 프로젝트, 「주북동 모여살기」는 전원주택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시회를 마련,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신사동 갤러리 카페 ALLEE에서 개최한다. 이 프로젝트는 건축가 12인과 조경작가 2인이 참여하여 일주일 1회씩 총 19차 워크숍을 거쳐며 안을 확정하였다. 마스터플랜은 도시건축 스튜디오 일로에서 기본안을 제안하였고, 토론과 건축주의 협의를 거쳐 15개의 필지로 분할, 건축가 9인이 각 1개 필지를, 3인이 각 2개 필지를 계획하고 공동시설물과 조경은 조경작가 2인이 계획하였다. 문의: 02-574-2061

건축시간안내

해체주의 건축의 해체
한국의 풍수리지리와 건축
일본을 걷는다 2
책임감리현장

◆해체주의 건축의 해체



이종건(경기대건축대학원)교수가 우리의 시각에서 해체주의를 해석하고 정리한 책을 냈다. 이 책은 푸는글에서 해체주의건축의 논의를 진행시킬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해체주의건축의 이해에서는 해체주의건축의 정신성을 세가지 시각에서 알아나간다. 공식적 시각으로 해체주의건축의 이론적 모체인 자크데리다의 해체주의 철학과의 연관성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데리다의 해체철학의 비특정성과 논리적 편중을 한계로 지적한다. 두 번째로 통시적 시각으로 러시아 구성주의와 연속성 안에서 논하고 해체주의 건축과 러시아 구성주의간의 건축적 연관성이 형태적차원에 머무르는 편향적 건축시각을 드러냄을 밝힌다. 해체주의 건축에 대한 제3의 이해방식으로 건축에 대한 인간의 인식태도의 변화로 탈인본주의와 탈가능주의로서 해체주의 건축의 전략과 한계를 읽는다. 그리고 군데군데서 해체주의 건축의 정신성을 잘 나타내는 건축가로 김현의 작품을 읽고 있다. 해체주의 건축의 해체에서는 해체주의 건축이 새로운 형태에 대한 의미행성의 담론을 생산할 가능성을 논하고 앞서의 세가지 이해방식에 동일한 과제를 모더니즘이 추구했던 정신성(침묵의 미학)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담론을 펼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체주의 건축의 정신성으로부터

언어야 할 것들은 짜여져 있는 구조들이
행사하는 폭력으로부터 인간의 삶을 해
방시키고 건축을 해방시키는 것으로 해
체주의 건축에 대한 논의를 맺고 있다.

이종건지음/신국판/277쪽/1만4천원/도
서관 발인(02-929-3546)발행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풍수지리는 일반적으로 미신으로 인식되
어 왔다. 그것은 풍수지리의 이론이 제대
로 이해되지 못하고 개인의 욕심만을 위
해 잘못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폐해를 낳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풍수지리 이론은 철학이나 과학
이상으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탐
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건축
공학을 전공한 저자가 30여년 동안 연구
한 한국의 풍수지리 이론과 그 적용 사례
를 담고 있다. 저자는 건축학 박사인 만
큼 맹목적으로 풍수지리 이론을 받아들
이지 않고, 전통 사상의 핵심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것을 과학적인 용어로 정리
하여 한국적인 건축이론을 만들었다. 더
욱 쾌적하고 생기있는, 다시말해 좋은 기
운이 살아 움직이는 집을 짓고, 그 기운
을 받은 사람들이 생기있게 살아가는 것
이 풍수지리 연구의 목적이며, 이 책이
있어야 할 이유이다. 이 책은 풍수지리의
구성요소를 용, 혈, 사, 수, 방위로 구분
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한국
의 풍수지리 이론을 건축학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또한 풍수지리에 관심있
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축업 관련 종사자
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관점을 제공한다.

박시익지음/신국판/432쪽/2만원/도서
출판 일빛(02-711-7075)발행

◆일본을 걷는다2



김정동(문화재전문위원, 목원대 건축학
과)교수가 '일본속의 한국 근대사 현장
을 찾아서'라는 부제로「일본을 걷는다2」
를 냈다. 이 책은 멀고도 가까운 이웃, 일
본 속의 한국 근대사 현장들을 찾아다니
며 지워진 역사의 한 컷을 고발하고 복원
해내고자 한 결심이다. 1권 출간 후 수많
은 재일동포들과 국내 독자들에게 새로
운 역사서로 각광받았기에 저자의 집필
작업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
다. 이 책은 오래된 신문이나 문서보관소
의 흐릿한 기록들, 몇몇 사람의 증언에만
의존하지 않고, 역사의 현장이나 건물을
근대사 연구의 가장 중용한 기본자료라
고 생각하는 저자는 일본 도도부현을 발
로 뛰는 다리뚱을 마다하지 않았다. 1부
「도쿄, 집콕의 공간」은 세계적인 도시인
도쿄 속의 우리 역사 현장 찾기이며, 2부
「역사 상징의 조작과 은폐」는 우리의 문
화를 일본이 어떻게 이용하고 조작했는
가, 그 흔적을 찾아가는 답사기이다. 그
리고 3부「도쿄밖의 도시, 속명이 흐르는
공간」에는 역사의 뒀안길에서 잊혀지고
잘못 알려진 것들에 대한 보고서로 구성
되어 있다.

김정동지음/신국판/368쪽/1만2천원/도
서관 한양(0344-916-1402)발행

◆책임감리현장



이 책은 책임감리제도 시행 이후 저자가
직접 감리현장에서 부딪혔던 일을 중심
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 현장감있
는 활동보고서, 사례개념 등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현장기술자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책임감리원의 의지가 담긴 감
리수행계획서의 작성, 시공사 현장대리
인의 성실한 현장운영계획서의 작성, 건
설사업관리업무를 지향한 시공 감리의
상호 역할 분담 및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
등을 정리한 것이다. 특히 감리현장을 중
심으로 착수에서 출발하여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저자의 느낀
바를 기술했다.

허 혁·김성배 공저/4×6배판/926쪽/5
만원/도서출판 세진사(02-922-6371)
발행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울산대학교 종합체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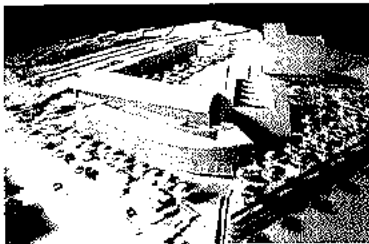
안성실내 체육관

울산대학교 종합체육관

University of Ulsan Complex
Gymnas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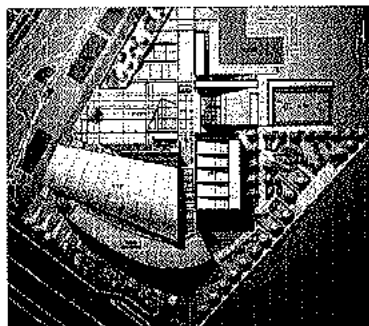
울산대학교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아 대학 구성원 및 지역주민에게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하여 대학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계획안을 수립하여 수영장, 헬스, 에어로빅, 라켓볼 및 체육관 시설을 완비한 종합체육관 신축을 계획, 지명현상설계를 실시하였다. 울산대 구내에 세워질 이 프로젝트는 마스터플랜 상의 기존시설과 신축 수영장 건물을 연관성있게 배치하고 국제적 수준의 경기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설계지침아래 진행되었다. 최종 7개업체(건원국제건축, 건정건축, 예도건축, 원도시건축, 유신건축, 일건건축, 홍산건축)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기능적인 공간배치가 뛰어나고 대로변의 외부형태를 곡선으로 처리하여 체육관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보여준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노형래)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 8월 16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오는 2000년 10월 경에 완공될 예정이다.

▶ 당선작 / 건정건축(노형래)



모형도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울산대학교 구내
건축면적	5,188.54㎡
연면적	9,699.02㎡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주요외장재	커튼월+화강석+AL Sh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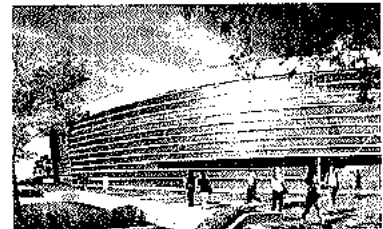
배치도

학교정문 옆 야구장으로 쓰고 있는 계획부지는 학교와 주변도로의 경계에 위치하며 도로측, 진입축, 캠퍼스주축이 공존하는 대지로 복잡한 역학관계가 혼재되어 있다. 이 계획은 바로 이러한 주변의 다양한 욕구와 질서에 대한 분석작업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주어진 프로그램을 역시 지역주민과 학생들과의 어느 정도의 공유와 분리가 적절히 필요한 것들이었다. 건물의 배치는 캠퍼스 주축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각각의 기능을 가진 Mass를 얹혀 나가고 그 Mass들이 도로측에 거의 45도로 만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심점이 3개나 존재하는 원들을 연결한 곡선을 만들어 각각의 축이 가지고 있는 힘을 받아들이는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곡선은 체육시설로서의 역동성과 전면도로에 대한 수렴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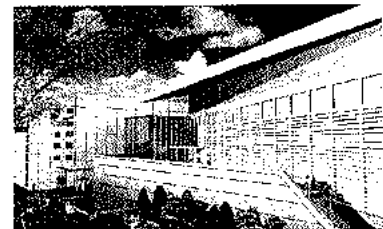
특히, 일반 지역주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수영장 등을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전면도로에서의 진입부에 위치시키며 그 사이로 중앙몰을 두어 캠퍼스와 전면도로와의 상이한 두가지 성격의 완충공간으로 형성하였다.

또한 중앙몰을 중심으로 양쪽에 소규모의 로비를 두어 각 기능들의 선택적 독립성과 대규모 공간에 대한 완충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전체 프로그램들이 유기적으로 엮여지게 하였다.

이 대지가 가진 복합성과 대립성에 수렴하기 위해서는 결국 새로운 장소성의 제안보다는 기존질서에 순응하고 시간이 만들어 놓은 정체성에 대해 건물이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였다.



도로측에서 바라본 동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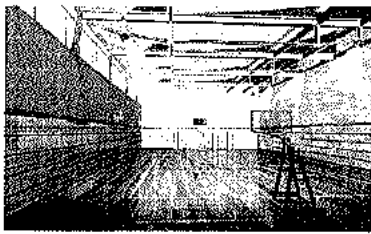
학교측에서 바라본 서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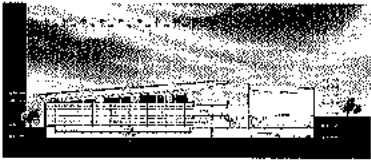
중앙몰



실내수영장



체육관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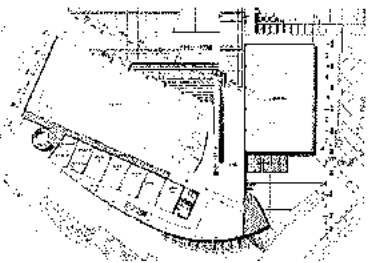
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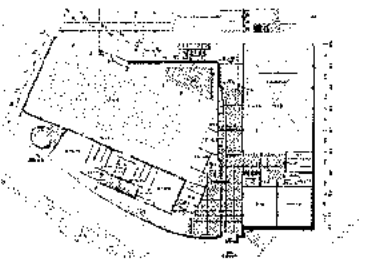
중단면도



동측입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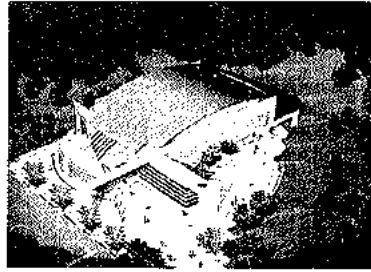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안성실내 체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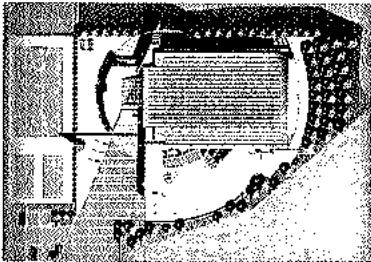
Ahnsung Gymnasium

▶ 당선작 / (주)형제·K건축(김삼수)



조감도

위치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양북리 210번지
대지면적	4,500.00㎡
건축면적	1,620.96㎡
연면적	2,755.34㎡
건폐율	36.02%
용적률	47.94%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리멘조 + 철골조
외장재	트라이비트 외단열, 24mm 열선반사유리
설계담당	김경숙, 임대선, 고성기, 이종성, 김지연, 김주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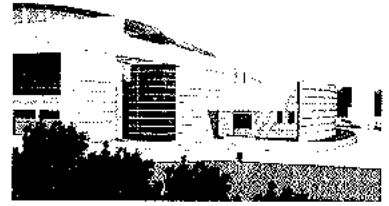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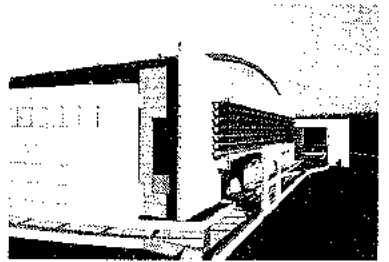
투시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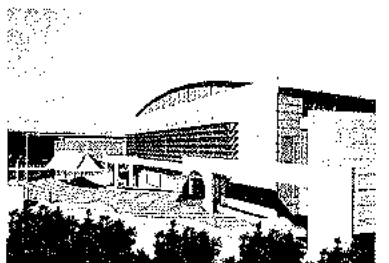
투시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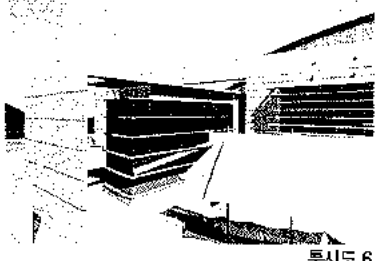
투시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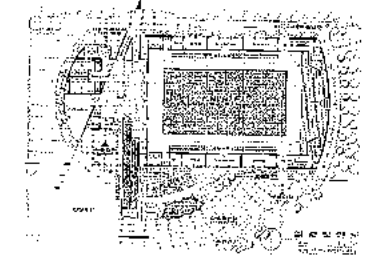
투시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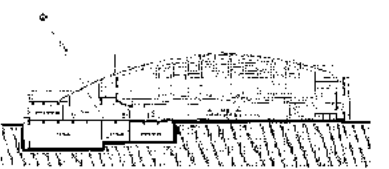
투시도 5



투시도 6



1층 평면도



단면도

Architecture

Architectural Record

The Architectural Review

Domus

建築文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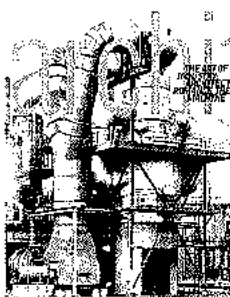
a+u

新建築

Architecture

1999년 6월호

건축에서의
기계미학이
현대에서
어떻게 해
석되어 나
타나는가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산업재료를 사용한 미술관-William Bruder의 Arizona, Scottsdale 현대미술관-이나, 건축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공장이나 연구소-Davis Brody Bond의 Valeo Thermal Systems Technical Center, Barkow Leibinger Architects의 Trumpf Laser and Logistical Center-등을 소개하였다.

■ 기계미학과 건축

Peter Behrens는 AEG 터빈 공장(1909)에서 공학을 건축의 경지까지 끌어올렸으며, 건축가의 산업에 대한 심취에 불을 붙였다. 한편, 기계미학은 이제 건물 유형을 초월하여, 공장이나 창고 뿐만 아니라, 미술관, 주택 등에서 그 표현을 찾아볼 수 있으며, 고급문화나 거주성의 정의를 변형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의 건축물들이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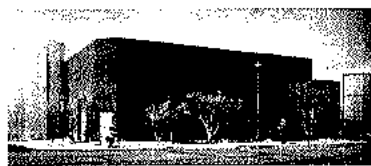
▶ Davis Brody Bond의 Michigan, Valeo Thermal Systems Technical Center



군더더기가 없는 간결한 디자인으로 최적화된 구조부재와 얇은 커튼월로만 이루어진 이 연구소는 "정원속의 기계"로 이를 불허했다. 유리 커튼월안에 디자인 스튜디오를 수용하며, 가는 원형 스틸 기

둥은 그리드 패턴의 루버를 지지하고 있다. 실험 연구실들은 건물 남쪽 끝부분에 달려진 유리 블록에 위치하며, 노출된 설비 시스템은 천장을 통해 밝게 빛나는 이중 층고의 작업장 상부를 채운다.

▶ William Bruder의 Arizona, Scottsdale 현대미술관 (SMOCA)



건축가는 5개의 극장건물을 수용했던 25년 된 건물을 현대 미술관으로 탈바꿈시켰다. 기존 건물의 콘크리트 블록의 꺾임과 스테코 마감과 5개의 극장을 분리하던 내부 벽을 그대로 두고, 현대 미술관으로 리노베이션하였다. 아연도금을 한 스틸 구조물에 입구와 인포메이션 박스, 선물 상점, 그리고 사이버 카페, 조각 공원이 결합되어 있으며, James Carpenter의 조각작품이 벽의 한부분을 차지한다. 아연 도금한 스틸 패널은 하늘 빛을 반사시켰다가 점점 회미해지는데, 이렇게 공업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예술적인 제스처를 만들어 내는 것이 그의 재주이다. SMOCA는 옛것과 현대적인 것, 싸구려와 세련된 것, 공업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으며, 현대 미국미술의 예측하기 어렵고 즉흥적인 성질을 반영하고 있다.

▶ Barkow Leibinger Architects의 Stuttgart, Trumpf Laser and Logistical Center

레이저 절삭기를 생산하는 이 공장을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건축가는 대지를 읽어내는 것로부터 강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작은 필지들의 농장부지들이 합쳐진 대지라는 점에 착안하여, 공장의 마스터 플랜은 각각의 기능에 해당하는 독립된 필지들로 짜여지는 방식으로 하였다. 생산부분과 수납부분은 교차된 블록을 연속적으로 두었으며, 그 위를 덮는 프리즘형의 긴 지붕은 멀리서 보면, 주변의 언덕의 형세와 닮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 영국 Branson Coats Architects의 Sheffield, National

Center for Popular Music

▶ Barton Meyer Associates의 캘리포니아 Toro Canyon House
▶ Booth Hansen Associates의 시카고, Republic 창호 공장을 다루었다.

■ 실무, 기술 관련 정보

▶ 미국, 캐나다 지역 건축가를 위한 단체인 국립 건축 등록 협회 NCARB의 문 제점

▶ 건물의 수직적 확장을 가능케 해주는 구조적 고안 ▶ 2차원의 드로잉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3차원 오브젝트를 다루게 된 CAD 소프트웨어의 진보 등을 다루었다.

Architectural Record

1999년 7월호

이번호는 영국 건축 특집으로 영국 건축가인 Norman Foster의 독일 의사당 리노베이션.

Chris Wilkinson의 Canary Wharf 보행자용 다리와 Stalford 역 등 최근에 지어진 대규모 프로젝트와 새로운 경향을 보이는 영국의 젊은 건축가 집단을 다루었다. 병원의 사례 연구가 실렸다.



▶ Norman Foster의 독일 의사당 리노베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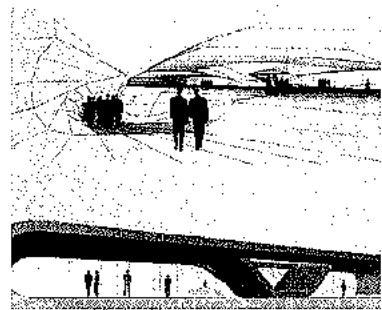
과거에 대포동 포병대를 수용하였던 역사적인 구조물이 Norman Foster에 의해 현대적인 의사당 건물로 바뀌었다. 현상 설계경기에서 당선되었지만 다수의 의원들이 돔이 없는 평평한 지붕에 거부감을 나타내어, 유리과 스틸 트러스 구조로 된 돔을 덧붙이게 되었다. 삼각뿔 모양의 배기장치가 돔의 중심부를 관통하며, 표면은 거울로 처리되어, 태양광선을 내부로 반사시킨다. 공공이 접근할 수 있는 이중나선의 램프가 돔의 내부를 감싼다. 그리고 ▶ Chris Wilkinson의 Canary Wharf 보행자용 다리와 Stalford 역을 비교적 자세히 다루었다.

■ 영국의 젊은 건축 설계회사 5

영국 건축계는 1970년대 이후로 하이테크 건축의 영향하에 있었다. 젊은 건축가들은 이러한 전통아래에서 보다 더 구조 논리에 충실하고 명확한 구조적 표현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여기에 소개된 5개의 젊은 건축가와 설계집단-Birds Portchmouth Russum, Foreign Office Architects, Niall McLaughlin, Tony Fretton, Caruso St. John-은 이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가졌다. 공간과 분위기 표현에 집중하며, 복합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독창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 Foreign Office Architects는 변화 가능성을 포용함으로써, 복잡성을 다룬다. Iranian Cinema 프로젝트에서 그러한 것이 반영되는데, 벽이 천장이 되고, 천장이 다시 벽이 된다. 그리고 내외부 사이의 구분은 희미해진다. 그러한 조작을 통해서 FOA는 보이지 않거나, 이름 붙여질 수 없는 건물을 만들어 내며, 그것은 도시지형과 합쳐진다. 요코하마 페리 터미널은 보통 관문이 되는 기존의 건물이 아니다. 자체적으로 감기는 구조물은 내부이면서 외부인 랜드스케이프를

형성하며, 램프와 움직이는 보도는 불안한 해안과 바다사이의 경계를 만들어 낸다.



요코하마 페리 터미널

■ 건물유형연구-병원

다음에 소개되는 병원들은 디자인 스타일이나 지역적으로 다양한 특색을 가지지만 환자들의 요구에 관심을 가진다는 면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아동병원의 경우 의자나 카운터의 높이를 아이들의 키에 맞추는 등, 환자에게 대한 시각으로 병원의 조직을 맞춘다. 물리적 치료 못지 않게 입원 환자들간의 사교와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환자들간, 환자와 가족간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다. 소개된 작품은 ▶ Zimmer Gunsul Frasca and Anshen의 오레건주 아동병원 ▶ Robert A.M. Stern Architects와 NBBJ의 플로리다 Celebration 종합병원 ▶ 연구와 치료를 동시에 수행하며, 정신 건강 치료에 대한 이미지를 근대화하고자 하는, Peter Pran의 뉴욕시 정신병원 ▶ Perkins & Will의 시카고 AIDS 센터 등이다.

■ 기 타

▶ Norman Foster와의 인터뷰 ▶ 장스팬을 위한 목재 트러스 구조를 적용한 건물 사례

▶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방식의 변화가 설계사무소 스태프 구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루었다.

The Architectural Review

1999년 7월호

■ 디자인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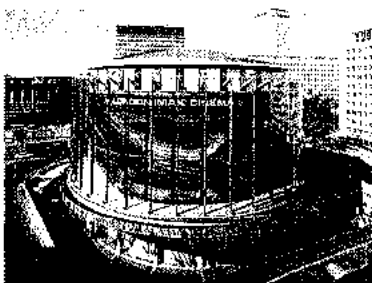
- Fumihiko Maki의 네덜란드 Groningen 시 거리 구조물 Groningen시는 예술가와 건축가들을 초청하여 도시의 거리 구조물에



서부터 미술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케일의 프로젝트를 맡겼다. 도시의 연례행사인 페스티벌의 퍼포먼스를 위한 영구 구조물은 경량 구조로서, 운하를 통해 배로 건널 수 있도록 물에 떠 있는 파빌리온이다. 폴리에스테르 막은 원형 스틸 구조에 의해 펼쳐지며, 이중 나선 형태를 이룬다. 이 구조물은 콘크리트 바지선에 의해 지지되며, 바지선은 공연을 위한 창고와 드레스룸, 화장실 등을 수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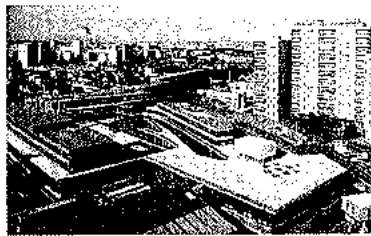
■ 공공건물

▶ Avery Associates의 영국 Waterloo 아이맥스 영화관



Waterloo 다리의 남쪽 끝에 지어진 이 건물은 영국의 가장 큰 아이맥스 영화관을 수용한다. 근처의 극장들이 블랙박스과 같이 내부지향적이어서 도시의 공공 환경으로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이 건물은 거대한 볼륨으로 도시와의 대화를 이루려 하고 있다.

▶ Massimiliano Fuksas의 Ile de France, 중등학교 1600명의 학생과 다양한 부속시설을 수



용하는 이 학교는 기술에 중점을 두어 교육하고 있으며, Fuksas의 공업적 재료의 사용은 이러한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7m 높이의 플랫폼을 두어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하는 데, 이것은 플랫폼의 위쪽과 아래쪽의 대비되는 두 세계를 만들어 내었다. 다양한 위치에서 잘라내어진 개구부를 통해서 아래쪽 정원, 파티오, 거리에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계획에서 결절점이 되는 북동쪽 코너에는 도서관 볼륨이 떠 있으며, 타원 형태의 오디오리움과 교사들의 사무동이 클러스터를 이루어 배치되고 볼륨 사이에 주출입구가 형성되었다.

그 외에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공공건물로서, ▶ Foster and Partners의 베를린 국회의사당 ▶ Richard Rogers의 보르도 법원 ▶ Rafael Moneo의 스페인 Murcia시 시청 ▶ Miguel Roca의 Cordova 커뮤니티센터 등이 소개되었다.

■ 인테리어 디자인

▶ Lewis의 뉴욕시, 갤러리와 오피스 리노베이션

공공건축과 도시 재개발 사업에 집중하는 Van Alen Institute 사무실의 개조안으로서 건축주의 요구는 개인적인 사무실과 갤러리 부분을 분리해 달라는 것이었다. 북쪽 끝의 디렉터 사무실이 수납장 벽에 의해 갤러리와 구분되며, 다른 사무실들은 빛을 투과시키면서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는 반투명한 패널의 현지가 층고 높이로 설치되었다.

그 밖에 ▶ Resolution: 4 Architecture의 뉴욕시, 첼시아, 로프트 오피스 ▶ Kazuyo Sejima의 나가노 현 주택의 인테리어가 소개되었다.

■ 기타

조경으로, ▶ Martha Schwartz의

Washington DC와 Minneapolis의 도시광장 ▶ Guillermo Vazquez Consuegra의 스페인 Vigo 워터프론트 산책로 등을 자세히 다루었다.

Domus

1999년 7, 8월호

이번호는 자연과 건축의 관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정원디자인의 최근경향과 함께, 지형이나, 대지의 상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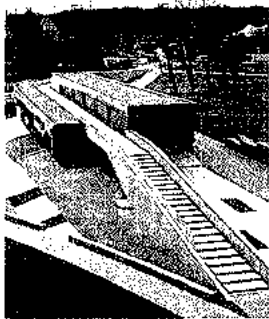
서 디자인 컨셉을 얻은 작품이나, 화장장, 공공묘지, 공원 등 자연이 프로그램의 주요소가 되는 작품, Romuald Loegler의 폴란드 Krakow-Batowice, 장례교회, Axel Schultes, Charlotte Frank의 베를린 화장장, 베니스의 공동묘지 확장 설계경기안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대규모의 도쿄 야외 조각공원의 공공조각, 1999 밀라노 디자인 박람회 등을 다루었다.

■ 정원 디자인의 최근 흐름

1960년대 이후부터, 비주류, 예술가들이 주로 정원 디자인의 무활을 위해 일해왔다. 개척자로서 Louis Le Roy, Ian Hamilton Finlay, 그리고 Bernard Lassus를 들 수 있으며, 그들의 작업방식은 현재에 있어서 전개되는 것의 광범위한 부분에 적용된다. 현재의 정원디자인의 경향은 5가지 측면, 즉 전문성, 예술적, 건축적, 시적, 자연적, 사회적 경향을 읽을 수 있다.

■ 근작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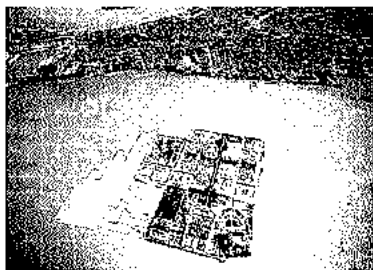
▶ Zaha Hadid의 독일, Weil am Rhein, LF one: 정보 파빌리언



실제 건물을 통해서 보다는 사고나 계획안을 통해서 자신의 건축을 발전시켜나가는 Hadid의 두 번째 건물로서, 첫 번째 작품인 Vitra 소방서와 비교를 하면 흥미롭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했는데, 자연을 찾아온 정원 박람회 방문객들에게는 다소 거부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었다. 예각의 모서리와 다이내믹한 형태는 Vitra 소방서와 유사하지만 보다 절제적이고 부드러운 곡선이 사용되었는데, 땅위에 치는 파도와 같이, 140m 길이의 이 건물은 자갈밭에서부터 들어올려져서 길들을 만들고 가지를 쳐서 다시 땅으로 가라 앉는 형상을 갖는다. 이 건물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순수하게 비워진 공간의 탐닉에 있다. 이러한 금속주의를 거스르는 것은 찾아볼 수 없으며, 모든 디테일은 전체의 선형성을 강조하는 데에 수렴된다.

▶ 베니스 San Michele 묘지 확장 현상설계 안

이 설계경기는 매우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현재 묘지의 가용대지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필요한 대지를 얻기 위하여 땅을 간척해야 했으며, 1860년대 만들어졌던 기존의 묘지와 역사의 연계도 고려해야만 했었다. 15명의 다양한 세대와 문화권의 유럽건축가들이 선정되어 설계경기에 참가하였으며, 주로 제기된 주제들은 과거와 현재의 문제, 기존의 경관을 이용하여 어떻게 San Michele 석호의 새로운 랜드스케이프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었다. 참여한 건축가 중, David Chipperfield, Enric Miralles,



Carlos Ferrater의 작품

Benedetta Tagliabue, Carlos Ferrater, Giorgio Lombardi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그 밖에 ▶ Bernard Tschumi의 파리 Parc de la Villette ▶ Romuald Loegler의 폴란드 Krakow-Batowice, 장례교회 ▶ Axel Schultes, Charlotte Frank의 베를린 화장장이 자세히 다루어졌다.

■ 기타

▶ 도쿄 야외미술관의 공공조각

Hakone와 Utsukushi-ga-hara 미술관은 연속적으로 설장을 하고 있는 두 개의 공공예술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공공조각의 선언서로서, 건축과 자연대지의 유기적 결합으로서 예술과 자연의 관계를 실체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 20세기의 마지막 쇼인 Milan 1999 디자인 박람회를 다루었다.

建築文化

1999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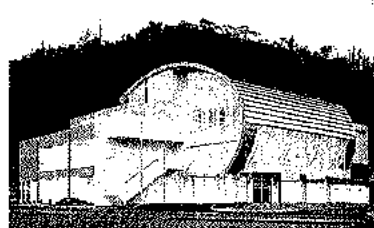
이번 호는 특별 없이 일본 작가들의 근작 소개로, 14개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소개된 작품들은 사카모토 카즈나리(坂本 一成)의 'House SA', 나카무라 이사무(中村 勇大)의 '비스듬한 테라스의 집',



키타야마 코우(北山 恒)의 S-HOUSE와 Z-HOUSE 등 주로 주택작품들이며, 키타가와라 아쓰시(北川原 温)건축도시연구소와 이토(伊藤)건축사사무소의 시라누이(不知火)미술관과 도서관 등의 작품들도 소개되었다.

■ 작품

▶ 키타야마 코우(北山 恒)의 S-HOUSE: '부부라는 단위가 주재하는 집단으로서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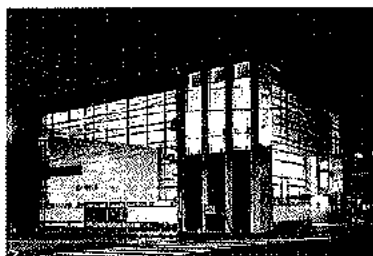
이 주택은 동경 근교의 비교적 넓은 부지에 위치한 것으로, 건축주는 치과병원을 경영하는 부부이며 거주할 사람들은 이들 부부와 그 모친, 자녀 2명, 그리고 해외에서 생활하는 여동생부부이다. 건물은 3개 층으로 되어있어, 최상층은 부부 2명만을 위한 공간으로 침실 이외에도 별도의 주방, 식당, 거실이 마련되고 거대한 강의실과 욕실이 마련된다. 진입층인 2층은 부부의 입장에서 보면 '객인(客人)'인 부부의 이외의 가족구성원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침대를 놓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만이 주어진 컴파트먼트(Compartment)로 구성되어있다. 이들 컴파트먼트는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기구를 레일위에 설치하여 가변적으로 만들었으며, 현관 근처에는 친구들의 방문이 잦은 모친을 위해 넓은 다터방이 마련되어있다. 1층은 가족 공용의 서재와 창고로서, 창고에는 가족 구성원의 침대 이외의 물건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이용하도록 하였고, 서재는 구성원마다 책상을 하나씩 마련하여 오피스와 같은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 키타야마 코우(北山 恒)의 Z-HOUSE: '자율적인 2개의 생활을 조정하는 공간'

건축주는 배수설비의 시공회사를 경영하

는 사람으로, 주인 부부와 그 모친 3명을 위한 주택이다. 3개 층으로 구성된 주택은 최상층이 부부를 위한 공간이며, 진입층인 2층은 반투명 유리로 4면을 구성하고 중앙부에 욕실을 두고, 주방과 식당을 두었다. 1층은 모친을 위한 방으로, 경사지를 이용하여 충분한 채광이 되도록 하였다. 부부를 위한 3층 공간은 가변벽을 이용하여 전체 공간을 3부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앙부분의 채광을 위한 옥탑층의 한 부분을 독립된 침실로 계획하였다. 냉·온수가 흐르는 방열패널의 스크린으로 내부의 벽을 구성한 것은 건축주와의 공동작품으로, 건축주의 성격이 나타나도록 하고 있다.

▶ 단 노리히코(團 紀彦)의 湘南信用金庫大口支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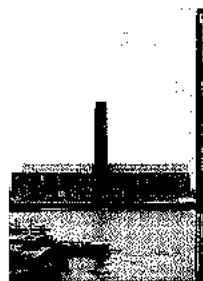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상호신용금고 지점사무실과 이와 독립된 갤러리를 한 건물 안에 계획하는 것이다. 이 갤러리는 통상 금융기관 본점에 마련된 고가품을 진열하는 갤러리와는 달리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신용금고의 성격상 지역사회에 개방하기 위한 사실로서 마련된 것이다. 총 3개층으로 구성된 건물에서 초기에는 독립된 갤러리를 최상층에 계획하려 하였으나, 접근의 문제 등과 좀더 다양한 구성을 위한 노력으로 3개 층의 전체 공간을 관통하는 안으로 확정되게 되었다. 사무소 공간을 관통하는 백색의 갤러리의 매스는 무표정한 사무실 공간에 변화를 주며 활력을 더하고 있다. 관통하는 갤러리의 매스는 외부에서도 이러한 구성이 파악되도록 하여 독립된 갤러리와 공존하는 금융기관의 건물임을 인지하도록 해 준다.

a+u

1999년 8월

이번 호에 소개된 작품들은 개축 내지는 증축의 형태로 이루어진 프로젝트들로, 유하 레이비스카(Juha Leiviskä)의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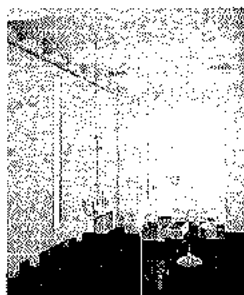


유(Harju) 장례 예배당, 포스터 앤 파트너즈(Foster & Partners)의 新독일 의사당 라이히스타크(Reichstag), 쿠프 힘멜브라우(Coop Himmelb(l)au)의 SEG집합주택타워의 파사드증축과 가스탱크의 재이용계획, 헤르쯔그(Herzog)와 드 무론(de Meuron)의 테이트 갤러리 근대미술관, 알바로 시자(Alvaro Siza)와 로베르토 콜로바(Roberto Collova)의 살레마 역사지구 대성당과 엘리치아(Alicia)광장의 재생 등이 소개되었다.

■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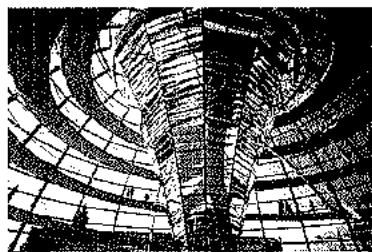
이번 호는 특집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유럽에서 진행된 개축 내지는 증축의 형태로 기존의 건물과 새로이 첨가된 부분의 결합이 보여지는 프로젝트들을 소개하고 있다. 기존의 건물이 역사적 유물이건 비교적 근대의 건물이건 간에 기존의 것에 손을 가해 조화로운 새것을 만들어낸다는 공통의 테마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유하 레이비스카(Juha Leiviskä)의 하유(Harju) 장례 예배당(1997)



이 프로젝트는 마르티 발리칸가스(Martti V. Ilkangas 1893-1973)가 설계한 작은 장례 예배당을 증·개축한 것으로, 장례 참여객을 위한 방과 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을 증축하고 기존의 건물에 약간의 손질을 가한 것이다. 좌우대칭의 구성을 갖는 기존의 건물에 발리칸가스의 고전적이면서도 근대적인 건물의 경향을 참조하여 첨가된 건물이 놓여졌고, 예배당 내부도 기존의 단순하고 정결한 형태에 거의 손을 대지 않고 리노베이션이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건물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려는 작가의 태도가 엿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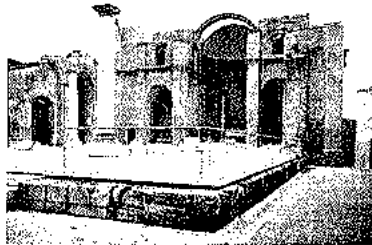
▶ 포스터 앤 파트너즈(Foster & Partners)의 新독일 의사당 라이히스타크(Reichstag)



독일의 의회가 본에서 베를린으로 옮기면서 의회 건물로舊제국의회 의사당을 사용하게 되었다. 제국의회 의사당은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아 그 골격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중앙의 돔은 파괴되었으며, 내부의 재료는 수 차례 개수에 의해 원래의 모습과는 많이 변해 있었다. 세계 유수의 민주주의적 공론의 장에 뒤지지 않는 독일 연방 의회의 의의를 이해하고, 정치적 프로세스를 보다 접근이 용이하고 친근한 것으로 나타내기 위한 방향으로 구 의사당 건물을 개축하게 되었다. 설계경기에 붙여진 이 건물의 증축안은 미래지향적인 건물로서도 손색이 없도록 에너지 절약형이며, 환경친화적으로 구성되어질 것이 요구되었다. 당선안으로 확정된 포스터의 안은 유리의 돔을 씌워 그 하부의 의회 본회의실이 노출되도록 하였으며, 램프를 따라 몸을 순회하며 올라가도록 하여 아래의 의회와 주변의 외부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시민들의 산책로로 개방되도록 하였다. 이 돔과 함께 건물의 욕망은 광장으로

개방되어 돔에 설치된 램프와 연결된 개방된 공공공간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유리 돔은 공기의 순환을 돕도록 계획되어 환경친화적 건물로서의 성격에도 걸맞도록 설계되었다.

▶ 알바로 시자(Alvaro Siza)와 로베르토 콜로바(Roberto Collov)의 살레미 역사지구 대성당과 엘리치아(Alicia)광장의 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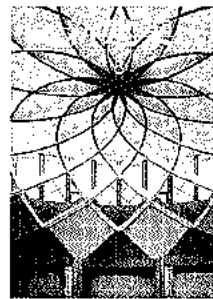


1982년 이래 시칠라의 살레미에서는 정치적 행정적인 곤란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핵의 수복이 천천히 진행되어왔다. 그 프로세스는 아랍민족이 기초를 놓은 가로가 형성된 구릉위의 중앙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중앙광장은 남부 게르만인에 의해 축조된 성곽, 노르만인의 교회 위에 재건되어 확장된 17세기의 대성당, 18세기의 궁전, 그리고 2~3층 규모의 집들에 의해 에워싸여져 있다. 행정상으로는 대성당과 광장의 수복을 각기 다른 프로젝트로 수행할 수 있었으나 두 개의 대상이 하나의 장소를 만들고 있음에 주목하여 단일 프로젝트로 진행하게 되었다. 재생의 방법은 파손된 건물을 그 상태에서 약간의 보수를 가하고, 주변에 첨가된 오브제들로 환경을 정비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新建築

1999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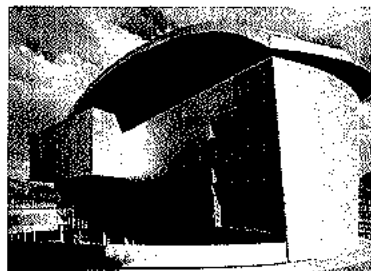
이번 호에 소개된 작품들은 쿠로카와 키쇼(黒川紀章)의 반고흐 미술관 신관, 사카모토 아키라(坂本昭)와 사



사키 요지(佐佐木 葉二)의 白雨館, 아오키 시게루(青木 茂)의 우메(宇目)町청사, 이시다 토시아키(石田敏明)의 KOB 빌딩, 우노 스스무(宇野 亨)와 C+A(실라칸스 앤드 어소시에이츠)의 朝日新聞秋田지점 등이 소개되었다.

■ 작품

▶ 쿠로카와 키쇼(黒川 紀章)의 반 고흐 미술관 신관



네덜란드의 건축가 게리 리트펠트의 마지막 작품으로 유명한 반 고흐 미술관의 신관으로, 신관건물은 본관과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위치하고 지하에서 연결되도록 되어있다. 방문객은 본관으로 들어가 지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신관의 선관가든을 둘러싸고 있는 라운지로 진입하도록 되어있다.

▶ 사카모토 아키라(坂本 昭)와 사사키 요지(佐佐木 葉二)의 白雨館

'白雨館'은 주택, 아틀리에, 학생을 겨냥한 원룸 임대실과 어린이실을 포함하는 복합건물로, 건축과 랜드스케이프 디자

인의 합작품이다. 단정한 아이보리빛 벽들로 미니멀리즘을 연상시키는 외장은 치밀하게 계획된 정원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또한 외부 공간은 기느에 따라 3개 동으로 분리된 건물들이 교묘히 얹히면서 만들어내는 외도된 사잇공간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아오키 시게루(青木 茂)의 우메(宇目)町청사



우메町청사는 현 町長이 기존의 청사인 접지의 그린센터를 개축하여 신청사를 만들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시작되었다. 당선 후 현상설계에 붙여져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기존 건물은 완공된 지 24년이 지난 건물로 어두운 분위기를 지닌 모더니즘 건물이었다. 애니메이션 '토토로'의 마을로 유명해진 마을의 이미지를 생각하여 좀 더 활기차고 밝은 분위기의 건물로 개축할 것이 요구되었다. 결과적으로 기존 건물의 입면 약간과 극면으로 처리된 대회의실이 첨가되고 내부를 수선함으로써 프로젝트는 완성되었다. 기존 모더니즘의 건물과의 조화가 훌륭하여 경쾌한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처음부터 한 번에 계획된 건물처럼 보여지고 있다.

▶ 우노 스스무(宇野 亨)와 C+A(실라칸스 앤드 어소시에이츠)의 朝日新聞秋田지점

중앙의 오픈된 사무공간 주변을 슬로프로 감아쥐면서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설계도서신고현황

99년도 7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7월분(98.7) 3백1십8만5천5백43㎡ 보다 87.8%(2백7십9만6천6백83㎡) 증가한 5백9십8만2천2백26㎡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7월 누계분 3천4백1십6만2천3백36㎡ 보다 3.7%(1백2십7만3천7백44㎡) 감소한 3천2백8십8만8천5백92㎡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6월분(99.6) 6백4십4만3천9백83㎡ 보다 7.2%(4십6만1천7백57㎡) 감소한 5백9십8만2천2백26㎡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

구 분	1998년도	1999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	1,833,879	2,957,897	1,124,018	61.3
대구	81,349	217,699	136,350	167.6
인천	61,042	685,799	624,757	1023.5
광주	56,386	108,839	52,453	93.0
대전	44,178	56,103	11,925	27.0
울산	22,604	43,571	20,967	92.8
경기	271,992	802,695	530,703	195.1
강원	55,018	106,467	51,449	93.5
충북	120,028	155,888	35,860	29.9
충남	65,417	95,472	30,055	45.9
전북	44,257	122,628	78,371	177.1
전남	53,613	123,362	69,749	130.1
경북	76,299	126,008	49,709	65.2
경남	106,054	163,687	57,633	54.3
감소지역				
부산	249,750	173,749	(76,001)	-30.4
제주	43,677	42,362	(1,315)	-3.0
합 계	3,185,543	5,982,226	2,796,683	87.8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연면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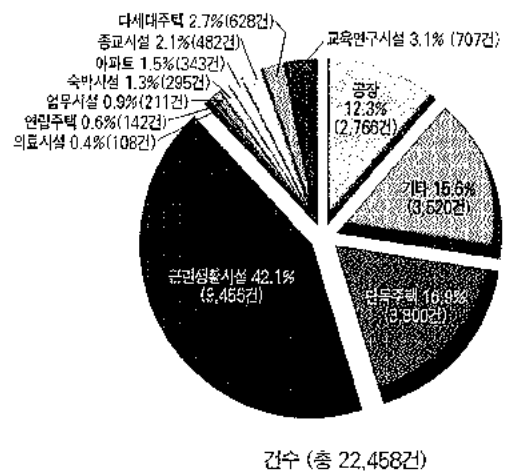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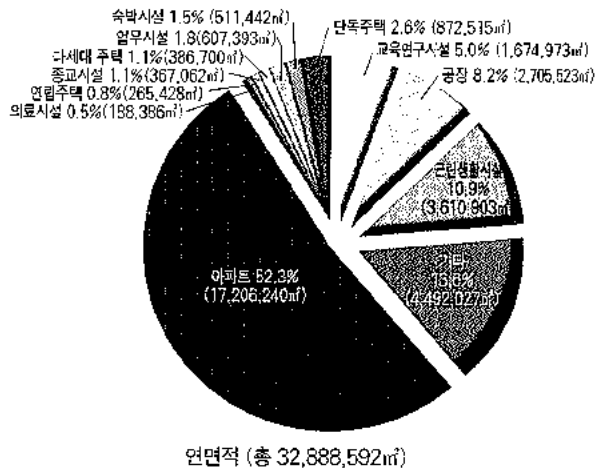
(용도)

단독주택	153,840 151,540 (-1.5%)	
다세대주택	112,596 91,450 (-18.8%)	
연립주택	68,875 57,896 (-15.9%)	
아파트		3,577,632
근린생활시설	747,540 656,294 (-12.2%)	2,996,151 (-16.3%)
종교시설	88,642 49,821 (-43.8%)	
의료시설	38,461 37,807 (-1.7%)	
교육연구시설	258,354 270,529 (4.3%)	6월 7월
업무시설	180,378 110,853 (-38.5%)	연면적 합계/ 6월: 6,443,983㎡ 7월: 5,982,226㎡ (-7.2%)
숙박시설	69,512 53,425 (-23.1%)	
공장	570,469 661,358 (15.9%)	
기타	576,584 845,102 (46.5%)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7월분)

구분	1998년			1999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독주택	332	328	73,341	637	699	151,540	305	371	78,199	106.6	
다세대주택	49	51	24,581	152	162	91,450	103	111	66,869	272.0	
연립주택	13	13	23,156	35	37	57,896	22	24	34,740	150.0	
아파트	28	71	1,340,736	68	146	2,996,151	40	75	1,655,415	123.5	
근린생활시설	822	837	275,552	1,537	1,607	656,294	715	770	380,742	138.2	
종교시설	59	73	40,071	65	71	49,821	6	(2)	9,750	24.3	
의료시설	9	9	12,373	17	19	37,807	8	10	25,434	205.6	
교육연구시설	136	155	361,277	152	173	270,529	16	18	(90,748)	-25.1	
업무시설	37	37	59,478	37	39	110,853	0	2	51,375	86.4	
숙박시설	28	26	17,437	66	71	53,425	38	45	35,988	206.4	
공장	229	289	168,021	570	686	661,358	341	397	493,337	293.6	
기타	517	586	789,520	552	648	845,102	35	62	55,582	7.0	
합 계	2,259	2,475	3,185,543	3,888	4,358	5,982,226	1,629	1,883	2,796,683	87.8	()=미어느스

용도별 구성비(1999년 7월 누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7월분)

구분	1998년			1999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309	311	1,833,879	406	407	2,957,897	97	96	1,124,018	61.3	
부산	83	121	249,750	270	372	173,749	187	251	(76,001)	-30.4	
대구	93	93	81,349	217	217	217,699	124	124	136,350	167.6	
인천	95	95	61,042	119	137	685,799	24	42	624,757	1023.5	
광주	130	151	56,386	99	125	108,839	(31)	(26)	52,453	93.0	
대전	49	49	44,178	107	107	56,103	58	58	11,925	27.0	
울산	54	54	22,604	94	94	43,571	40	40	20,967	92.8	
경기	414	508	271,992	967	1,123	802,695	553	615	530,703	195.1	
강원	152	156	55,018	221	240	106,467	69	84	51,449	93.5	
충북	147	179	120,028	290	342	155,888	143	163	35,860	29.9	
충남	164	129	65,417	176	176	95,472	12	47	30,055	45.9	
전북	80	80	44,257	138	143	122,628	58	63	78,371	177.1	
전남	123	129	53,613	184	191	123,362	61	62	69,749	130.1	
경북	149	169	76,299	223	245	126,008	74	76	49,709	65.2	
경남	151	181	106,054	278	324	163,687	127	143	57,633	54.3	
제주	66	70	43,677	99	115	42,362	33	45	(1,315)	-3.0	
합계	2,259	2,475	3,185,543	3,888	4,358	5,982,226	1,629	1,883	2,796,683	87.8	()=미아나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7월 누계)

구분	1998년			1999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3,726	3,770	19,177,385	2,554	2,560	17,751,699	(1,172)	(1,210)	(1,425,686)	-7.4	
부산	1,165	2,072	1,976,925	1,109	1,532	985,993	(56)	(540)	(990,932)	-50.1	
대구	657	657	588,209	1,070	1,070	836,429	413	413	248,220	42.2	
인천	919	929	1,321,668	796	833	1,909,538	(123)	(96)	587,870	44.5	
광주	693	848	431,083	835	986	608,901	142	138	177,818	41.2	
대전	577	577	518,223	606	606	350,543	29	29	(167,680)	-32.4	
울산	318	322	203,089	697	710	455,766	379	388	252,677	124.4	
경기	5,224	6,066	4,254,081	4,983	6,081	4,559,948	(241)	15	305,867	7.2	
강원	1,356	1,518	796,031	1,201	1,317	461,048	(155)	(201)	(334,983)	-42.1	
충북	1,301	1,581	1,365,414	1,481	1,710	938,436	180	129	(426,978)	-31.3	
충남	1,161	986	636,686	1,275	1,275	700,746	114	289	64,060	10.1	
전북	550	550	417,628	894	913	507,353	344	363	89,725	21.5	
전남	722	798	395,821	1,279	1,327	622,981	557	529	227,160	57.4	
경북	1,192	1,344	678,065	1,337	1,543	927,179	145	199	249,114	36.7	
경남	1,425	1,773	1,212,928	1,765	2,030	1,050,752	340	257	(162,176)	-13.4	
제주	425	493	189,100	576	651	221,280	151	158	32,180	17.0	
합계	21,411	24,284	34,162,336	22,458	25,144	32,888,592	1,047	860	(1,273,744)	-3.7	()=미아나스

회원현황 members

회원변동사항(7월)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월말 회원수	7,071		2,761		666		528		218		236		256		135		824		169		185		178		191		102		243		308		71	
급 별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회 원 수	7,062	19	2,757	4	665	1	528	0	217	1	236	0	255	1	135	0	820	4	169	0	184	1	174	4	190	1	101	1	242	1	308	0	71	0
회 원 변 동 사 항	입 회	54		28		6		4		1			1		1		5				1		2		2		1		1		1			
	재 입 회	5		1							1						2													1				
	전 입	11		5					3								1											2						
	전 출	-11		-3			-2										-6																	
	폐 업	-13		-7			-2										-4			-1		-1				-1		-2		-1				
	사 망	0																																
등록취소																																		
금월말 회원수	7,062	19	2,761	4	671	4	528	0	221	1	237	0	256	1	136	0	818	4	169	0	184	1	175	4	192	1	101	1	243	1	309	0	71	0
계	7,111		2,785		672		528		222		237		257		136		822		169		185		179		193		102		244		309		71	

99년도 회원변동사항(7월 누계)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급 별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입 회	455	0	124		34		29		15		15		21		17		69		15		23		18		15		9		24		20		7	
재 입 회	51	0	18		6		2		1		4				1		9						2		4					4				
전 입	92	3	34		3		2		6		4		4				16		4		1		8	1	4	2			5		1			
복 권	1	0	1																															
소 계	599	3	177	0	43	0	33	0	22	0	23	0	25	0	18	0	94	0	19	0	24	0	28	1	23	2	9	0	29	0	25	0	7	0
계	602	177		43		33		22		23		25		18		94		19		24		29		25		9		29		25		7		
전 출	83	1	20		1		4		3		1		1	1			30		2		3		9		2		3		3		1			
폐 업	158	3	72		3		7		5		5		2		2		31		1		4		6		6	2	1		5	1	8			
사 망	10	0	4				1		1								1									1				2				
등 록 취 소	2	1	2	1																														
소 계	253	5	98	1	4	0	12	0	9	0	6	0	3	1	2	0	62	0	3	0	7	0	15	0	8	2	5	0	8	1	11	0	0	0
계	258	99		4		12		9		6		4		2		62		3		7		15		10		5		9		11		0		
누 계	344	78		39		21		13		17		21		16		32		16		17		14		15		4		20		14		7		